

국립국어원 2016-01-30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8-000639-01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貴下

귀 국립국어원에서 의뢰한 조사용역사업인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11월

주관기관 : (주)월드리서치

연구책임자 : 김 창 영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 김 성 규 교 수

김 현 교 수

강 상 석 선임연구원

고 혜 지 주임연구원

요 약 문

◆ 연구 용역 목적

본 용역 연구는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라는 제목 아래 수행된 것으로 올해 첫 번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용역은 발음 및 의식에 대한 전반적 조사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발음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국민의 발음에 대한 관심 및 경험 등 발음 관련 의식과 실제 발음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에 사용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여 향후 표준 발음 정책 입안 및 언어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연구 용역 방법

본 연구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 용역을 수행한다.

- ① 조사대상 모집단의 특성에 맞게 표본설계를 한다.
- ② 전문가 회의를 통해 조사 지표를 구성 한다.
- ③ 면접원 교육을 통해 본 용역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 ④ 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
- ⑤ 조사된 자료를 전사 및 통계처리 과정을 통해 정리·분석한다.

◆ 연구 용역 내용

번 호	부 문	조 사 항 목
1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에 대한 관심◆ 발음 관련 경험◆ 발음 관련 정책
2	발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중 모음 (노예, 차례, 비레, 장례, 용례, 실례, 결례)◆ ㄴ, ㄹ 연쇄 (한랭, 상견례, 공권력)◆ ㄴ 첨가 (금용, 작열, 강약, 선율, 아금아금, 핵연료, 낯익은, 물인정, 생이별, 종군요, 나는야, 서른여섯)◆ 사잇소리 (수놓, 안감힘, 존댓말, 인사말, 반대말, 편지글, 머리글, 인기척, 뱃말미, 해님, 장맛비, 밤새, 김밥, 찜닭)◆ 경음화(고가, 체증, 창고, 교과서, 효과, 물질적, 불법체류, 길짐승, 날짐승)◆ 자음군 단순화 (굵고, 굵지, 굵는다, 읊고, 읊지, 읊는다, 밟고, 밟지, 밟는다, 맑지, 맑다)◆ 공명음 뒤 'ㅎ'탈락(오해, 남해, 은행, 방해, 결혼)◆ 체언 어간 변화(닭을, 여덟이, 값을, 무릎에, 부엌에, 낮에, 숲에, 솔에, 녀을, 흙을)◆ 용언 어간 변화(주워서, 분기, 나무라요, 나무란다, 바라, 바란다)◆ 기타(고랭지)

목차

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3
2. 조사 설계	3
3. 조사 내용	4
4. 모집단 및 표본 설계	6
5. 사전조사	7
6. 실사	9
7. 자료처리	11
8. 응답자 특성	14

2장. 조사 결과 요약 및 제언

① 주요 조사 결과	19
1. 의식 부문	19
2. 발음 부문	20
② 조사 결과 요약	21
1. 의식 부문	21
1.1 국어에 대한 관심도	21
1.2 표준발음 사용 정도	23
1.3 비표준 발음 관련 지적 경험	25
1.4 비표준 발음 관련 태도	27
1.5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29
2. 발음 부문	31
2.1 “예”의 발음	31
2.2 ‘ㄴ ㄹ’연쇄의 발음	32
2.3 ‘ㄴ’첨가	33
2.4 사이시옷	35
2.5 겹받침	43
2.6 공명음 사이 ‘ㅎ’탈락	45
2.7 재구조화	45
2.8 용언의 활용	47
③ 항목 간 교차분석	48
1. 표준발음 관심과 의식항목의 연관성	48
2. 표준발음 관심과 정책항목의 연관성	48
3. 표준발음 의식과 표준발음 일치율의 연관성	49
4. 표준발음 관련 지역 특성	50
④ 결론 및 제언	51
1. 조사 결과 측면	51
1.1 표준발음에 대한 관심 및 의식	51
1.2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51
1.3 표준발음 일치율	51
2. 발음 정책 측면	52
3. 조사 진행 측면	55
3.1 실사 준비	55
3.2 실사 진행	56

목차

3장. 조사 결과 분석

1. 의식 부문	61
1.1 국어관심도	61
1.1.1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종합	61
1.1.2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종합	64
1.1.3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말하기	67
1.1.4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글쓰기	70
1.1.5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맞춤법	73
1.1.6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표준 발음	76
1.2. 표준발음 의식	79
1.2.1 평소 표준 발음 사용 정도	79
1.2.2 잘못된 발음 지적한 경험	82
1.2.3 잘못된 발음 지적받은 경험	85
1.2.4 발음 기준 매체/정보원	88
1.2.5 표준 발음이 아님을 인식했을 때의 행동	95
1.3. 정책관련 태도	98
1.3.1 표준 발음 규정 필요성	98
1.3.2 표준 발음 교육 필요성	101
1.3.3 표준 발음법 체계화 필요성	104
1.3.4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경우 바람직한 방향	107
2. 발음 부문	110
2.1 이중모음	110
2.1.1 이중 모음_표준발음 일치율	110
2.1.2 노예	113
2.1.3 차례	116
2.1.4 비례	119
2.1.5 장례	122
2.1.6 용례	125
2.1.7 실례	128
2.1.8 결례	131
2.2 ㄴ, ㄹ 연쇄	134
2.2.1 ㄴ, ㄹ 연쇄_표준발음 일치율	134
2.2.2 한랭 기후	137
2.2.3 상견례	140
2.2.4 공권력	143
2.3 ㄴ 첨가	146
2.3.1 ㄴ 첨가_표준발음 일치율	146
2.3.2 금융	149
2.3.3 작열	152
2.3.4 강약	155
2.3.5 선율	158
2.3.6 야금야금	161
2.3.7 핵연료	164

목차

2.3.8	낯익은	167
2.3.9	몰인정	170
2.3.10	생이별	173
2.3.11	종균요	176
2.3.12	나는야	179
2.3.13	서른여섯	182
2.4	사잇 소리	185
2.4.1	사잇 소리_표준발음 일치율	185
2.4.2	수놓	188
2.4.3	안간힘	191
2.4.4	존댓말	194
2.4.5	인사말	197
2.4.6	반대말	200
2.4.7	편지글	203
2.4.8	머리글	206
2.4.9	인기척	209
2.4.10	뱃멀미	212
2.4.11	해님	215
2.4.12	장맛비	218
2.4.13	밤새	221
2.4.14	김밥	224
2.4.15	찜닭	227
2.4.16	가로수 길	230
2.4.17	둘레 길	233
2.4.18	장사 일	236
2.4.19	빨래 바구니	239
2.4.20	새우 살	242
2.5	경음화	245
2.5.1	경음화_표준발음 일치율	245
2.5.2	고가	248
2.5.3	체증	251
2.5.4	창고	254
2.5.5	교과서	257
2.5.6	효과	260
2.5.7	물질적	263
2.5.8	불법 체류	266
2.5.9	길짐승	269
2.5.10	날짐승	272
2.6	자음군 단순화	275
2.6.1	자음군 단순화_표준발음 일치율	275
2.6.2	굵고	278
2.6.3	굵지	281
2.6.4	굵는다	284

목차

2.6.5	옳고	287
2.6.6	옳지	290
2.6.7	옳는다	293
2.6.8	뵈고	296
2.6.9	뵈지	299
2.6.10	뵈는다	302
2.6.11	맑지	305
2.6.12	맑다	308
2.7	공명음 뒤 "ㅎ" 탈락	311
2.7.1	공명음 뒤 "ㅎ" 탈락_표준발음 일치율	311
2.7.2	오해	314
2.7.3	남해	317
2.7.4	은행	320
2.7.5	방해	323
2.7.6	결혼	326
2.8	체언 어간 변화	329
2.8.1	체언 어간 변화_표준발음 일치율	329
2.8.2	닭을	332
2.8.3	여덟이	335
2.8.4	값을	338
2.8.5	무릎에	341
2.8.6	부엌에	344
2.8.7	낮에	347
2.8.8	술에	350
2.8.9	술에	353
2.8.10	넋을	356
2.8.11	흙을	359
2.9	용언 어간 변화	362
2.9.1	용언 어간 변화_표준발음 일치율	362
2.9.2	주워서	365
2.9.3	분기	368
2.9.4	나무라요	371
2.9.5	나무란다	374
2.9.6	바라	377
2.9.7	바란다	380
2.10	기타	383
2.10.1	기타_표준발음 일치율	383
2.10.2	고랭지	386

4장. 부록

①	설문지	391
---	-----	-----

그림 목차

그림1 : 국어에 대한 관심도	21
그림2 : 표준발음 사용 정도	23
그림3 : 비표준 발음 관련 지적 경험	25
그림4 : 비표준 발음관련 태도	27
그림5 :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29
그림6 : 표준발음 관심과 의식항목 연관성	48
그림7 : 표준발음 관심과 정책항목 연관성	49
그림8 : 국어에 대한 관심도	49
그림9.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종합	61
그림10.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종합	64
그림11.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말하기	67
그림12.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글쓰기	70
그림13.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맞춤법	73
그림14.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표준 발음	76
그림15. 평소 표준 발음 사용 정도	79
그림16. 잘못된 발음 지적한 경험	82
그림17. 잘못된 발음 지적받은 경험	85
그림18. 발음 기준 매체/정보원	88
그림19. 표준 발음이 아님을 인식했을 때의 행동	95
그림20. 표준 발음 규정 필요성	98
그림21. 표준 발음 교육 필요성	101
그림22 표준 발음법 체계화 필요성	104
그림23.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경우 바람직한 방향	107
그림24. 표준발음 일치율	110
그림25. 이중모음 : 노예	113
그림26. 이중모음 : 차례	116
그림27. 이중모음 : 비례	119
그림28. 이중모음 : 장례	122
그림29. 이중모음 : 용례	125
그림30. 이중모음 : 실례	128
그림31. 이중모음 : 결례	131
그림32. 표준발음 일치율	134
그림33. ㄴ, ㄹ 연쇄 : 한랭 기후	137
그림34. ㄴ, ㄹ 연쇄 : 상견례	140
그림35. ㄴ, ㄹ 연쇄 : 공권력	143
그림36. 표준발음 일치율	146
그림37. ㄴ첨가 : 금융	149
그림38. ㄴ첨가 : 작열	152
그림39. ㄴ첨가 : 강약	155
그림40. ㄴ첨가 : 선율	158
그림41. ㄴ첨가 : 야금야금	161
그림42. ㄴ첨가 : 핵연료	164
그림43. ㄴ첨가 : 낯익은	167
그림44. ㄴ첨가 : 몰인정	170
그림45. ㄴ첨가 : 생이별	173
그림46. ㄴ첨가 : 종군요	176
그림47. ㄴ첨가 : 나는야	179
그림48. ㄴ첨가 : 서른여섯	182
그림49. 표준발음 일치율	185
그림50. 사잇 소리 : 수놈	188

그림 목차

그림51. 사잇 소리 : 안간힘	191
그림52. 사잇 소리 : 존댓말	194
그림53. 사잇 소리 : 인사말	197
그림54. 사잇 소리 : 반대말	200
그림55. 사잇 소리 : 편지글	203
그림56. 사잇 소리 : 머리글	206
그림57. 사잇 소리 : 인기척	209
그림58. 사잇 소리 : 뱃멀미	212
그림59. 사잇 소리 : 해님	215
그림60. 사잇 소리 : 장맛비	218
그림61. 사잇 소리 : 밤새	221
그림62. 사잇 소리 : 김밥	224
그림63. 사잇 소리 : 찜닭	227
그림64. 사잇 소리 : 가로수 길	230
그림65. 사잇 소리 : 돌레 길	233
그림66. 사잇 소리 : 장사 일	236
그림67. 사잇 소리 : 빨래 바구니	239
그림68. 사잇 소리 : 새우 살	242
그림69. 표준발음 일치율	245
그림70. 경음화 : 고가	248
그림71. 경음화 : 체증	251
그림72. 경음화 : 창고	254
그림73. 경음화 : 교과서	257
그림74. 경음화 : 효과	260
그림75. 경음화 : 물질적	263
그림76. 경음화 : 불법 체류	266
그림77. 경음화 : 길짐승	269
그림78. 경음화 : 날짐승	272
그림79. 표준발음 일치율	275
그림80. 자음군 단순화 : 굵고	278
그림81. 자음군 단순화 : 굵지	281
그림82. 자음군 단순화 : 굵는다	284
그림83. 자음군 단순화 : 윽고	287
그림84. 자음군 단순화 : 윽지	290
그림85. 자음군 단순화 : 윽는다	293
그림86. 자음군 단순화 : 밟고	296
그림87. 자음군 단순화 : 밟지	299
그림88. 자음군 단순화 : 밟는다	302
그림89. 자음군 단순화 : 맑지	305
그림90. 자음군 단순화 : 맑다	308
그림91. 표준발음 일치율	311
그림92. 공명음 뒤 ‘ㅎ’ 탈락 : 오해	314
그림93. 공명음 뒤 ‘ㅎ’ 탈락 : 남해	317
그림94. 공명음 뒤 ‘ㅎ’ 탈락 : 은행	320
그림95. 공명음 뒤 ‘ㅎ’ 탈락 : 방해	323
그림96. 공명음 뒤 ‘ㅎ’ 탈락 : 결혼	326
그림97. 표준발음 일치율	329
그림98. 체언 어간변화 : 닭을	332
그림99. 체언 어간변화 : 여덟이	335
그림100. 체언 어간변화 : 값을	338

그림 목차

그림101. 체언 어간변화 : 무릎에	341
그림102. 체언 어간변화 : 부엌에	344
그림103. 체언 어간변화 : 낮에	347
그림104. 체언 어간변화 : 숲에	350
그림105. 체언 어간변화 : 숲에	353
그림106. 체언 어간변화 : 녀을	356
그림107. 체언 어간변화 : 흙을	359
그림108. 표준발음 일치율	362
그림109. 용언 어간변화 : 주워서	365
그림110. 용언 어간변화 : 분기	368
그림111. 용언 어간변화 : 나무라요	371
그림112. 용언 어간변화 : 나무란다	374
그림113. 용언 어간변화 : 바라	377
그림114. 용언 어간변화 : 바란다	380
그림115. 표준발음 일치율	383
그림116. 기타 : 고랭지	386

표목차

표1 : 국어에 대한 관심도	22
표2. 국어에 대한 관심도	22
표3. 표준 발음 사용 정도	23
표4. 표준 발음 사용 정도	24
표5. 비표준 발음 관련 지적 경험	26
표6. 비표준 발음 관련 지적 경험	26
표7. 비표준 발음 관련 태도	28
표8. 비표준 발음 관련 태도	28
표9.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30
표10.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30
표11. “ㄴ” 발음	31
표12. “ㄴ” 연쇄 발음	32
표13. “ㄴ” 첨가	33
표14. 사이시옷	35
표15. 겹받침	43
표16. 공명음 사이 ‘ㅎ’ 탈락	45
표17. 재구조화	45
표18. 용언의 활용	47
표19. 표준발음 관련 지역 특성	50
표20.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종합	62
표21.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종합	63
표22.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종합	65
표23.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종합	66
표24.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말하기	68
표25.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말하기	69
표26.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글쓰기	71
표27.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글쓰기	72
표28.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맞춤법	74
표29.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맞춤법	75
표30.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표준 발음	77
표31.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표준 발음	78
표32. 응답자 특성 : 평소 표준 발음 사용 정도	80
표33. 응답자 특성 : 평소 표준 발음 사용 정도	81
표34. 응답자 특성 : 잘못된 발음 지적한 경험	83
표35. 응답자 특성 : 잘못된 발음 지적한 경험	84
표36. 응답자 특성 : 잘못된 발음 지적받은 경험	86
표37. 응답자 특성 : 잘못된 발음 지적받은 경험	87
표38. 응답자 특성 : 발음 기준 매체/정보원1순위	89
표39. 응답자 특성 : 발음 기준 매체/정보원1순위	90
표40. 응답자 특성 : 발음 기준 매체/정보원1+2순위	91
표41. 응답자 특성 : 발음 기준 매체/정보원1+2순위	92
표42. 응답자 특성 : 발음 기준 매체/정보원1+2+3순위	93
표43. 응답자 특성 : 발음 기준 매체/정보원1+2+3순위	94
표44.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이 아님을 인식했을 때의 행동	96
표45.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이 아님을 인식했을 때의 행동	97
표46.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 규정 필요성	99
표47.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 규정 필요성	100
표48.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 교육 필요성	102
표49.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 교육 필요성	103
표50.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법 체계화 필요성	105

표목차

표51.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법 체계화 필요성	106
표52.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경우 바람직한 방향	108
표53.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경우 바람직한 방향	109
표54.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111
표55.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112
표56.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노예	114
표57.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노예	115
표58.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차례	117
표59.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차례	118
표60.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비례	120
표61.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비례	121
표62.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장례	123
표63.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장례	124
표64.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용례	126
표65.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용례	127
표66.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실례	129
표67.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실례	130
표68.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결례	132
표69.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결례	133
표70.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135
표71.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136
표72. 응답자 특성 : ㄴ, ㄹ 연쇄 : 한랭 기후	138
표73. 응답자 특성 : ㄴ, ㄹ 연쇄 : 한랭 기후	139
표74. 응답자 특성 : ㄴ, ㄹ 연쇄 : 상견례	141
표75. 응답자 특성 : ㄴ, ㄹ 연쇄 : 상견례	142
표76. 응답자 특성 : ㄴ, ㄹ 연쇄 : 공권력	144
표77. 응답자 특성 : ㄴ, ㄹ 연쇄 : 공권력	145
표78.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147
표79.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148
표80.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금융	150
표81.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금융	151
표82.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작열	153
표83.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작열	154
표84.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강약	156
표85.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강약	157
표86.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선율	159
표87.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선율	160
표88.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야금야금	162
표89.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야금야금	163
표90.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핵연료	165
표91.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핵연료	166
표92.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낯익은	168
표93.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낯익은	169
표94.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몰인정	171
표95.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몰인정	172
표96.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생이별	174
표97.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생이별	175
표98.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중균요	177
표99.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중균요	178
표100.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나는야	180

표목차

표101.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나는야	181
표102.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서른여섯	183
표103.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서른여섯	184
표104.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186
표105.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187
표106.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수눔	189
표107.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수눔	190
표108.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안간힘	192
표109.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안간힘	193
표110.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존댓말	195
표111.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존댓말	196
표112.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인사말	198
표113.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인사말	199
표114.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반대말	201
표115.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반대말	202
표116.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편지글	204
표117.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편지글	205
표118.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머리글	207
표119.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머리글	208
표120.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인기척	210
표121.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인기척	211
표122.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뱃멀미	213
표123.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뱃멀미	214
표124.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해님	216
표125.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해님	217
표126.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장맛비	219
표127.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장맛비	220
표128.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밤새	222
표129.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밤새	223
표130.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김밥	225
표131.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김밥	226
표132.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찜닭	228
표133.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찜닭	229
표134.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가로수 길	231
표135.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가로수 길	232
표136.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돌레 길	234
표137.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돌레 길	235
표138.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장사 일	237
표139.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장사 일	238
표140.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빨래 바구니	240
표141.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빨래 바구니	241
표142.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새우 살	243
표143.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새우 살	244
표144.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246
표145.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247
표146.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고가	249
표147.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고가	250
표148.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체증	252
표149.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체증	253
표150.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창고	255

표목차

표151.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창고	256
표152.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교과서	258
표153.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교과서	259
표154.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효과	261
표155.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효과	262
표156.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물질적	264
표157.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물질적	265
표158.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불법 체류	267
표159.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불법 체류	268
표160.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길짐승	270
표161.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길짐승	271
표162.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날짐승	273
표163.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날짐승	274
표164.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276
표165.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277
표166.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굵고	279
표167.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굵고	280
표168.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굵지	282
표169.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굵지	283
표170.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굵는다	285
표171.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굵는다	286
표172.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얇고	288
표173.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얇고	289
표174.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얇지	291
표175.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얇지	292
표176.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얇는다	294
표177.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얇는다	295
표178.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밟고	297
표179.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밟고	298
표180.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밟지	300
표181.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밟지	301
표182.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밟는다	303
표183.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밟는다	304
표184.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막지	306
표185.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막지	307
표186.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막다	309
표187.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막다	310
표188.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312
표189.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313
표190.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오해	315
표191.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오해	316
표192.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남해	318
표193.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남해	319
표194.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은행	321
표195.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은행	322
표196.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방해	324
표197.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방해	325
표198.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결혼	327
표199.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결혼	328
표200.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330

표목차

표201.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331
표202.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닭을	333
표203.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닭을	334
표204.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여덟이	336
표205.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여덟이	337
표206.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값을	339
표207.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값을	340
표208.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무릎에	342
표209.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무릎에	343
표210.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부엌에	345
표211.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부엌에	346
표212.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낮에	348
표213.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낮에	349
표214.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숲에	351
표215.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숲에	352
표216.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술에	354
표217.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술에	355
표218.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녀를	357
표219.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녀를	358
표220.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흙을	360
표221.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흙을	361
표222.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363
표223.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364
표224.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주워서	366
표225.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주워서	367
표226.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분기	369
표227.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분기	370
표228.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나무라요	372
표229.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나무라요	373
표230.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나무란다	375
표231.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나무란다	376
표232.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바라	378
표233.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바라	379
표234.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바라다	381
표235.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바라다	382
표236.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384
표237.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385
표238.	응답자 특성 : 기타 : 고랭지	387
표239.	응답자 특성 : 기타 : 고랭지	388

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한국어의 발음 현황 및 표준 발음 관련 의식을 측정·분석하여 향후 표준 발음법 개선 및 어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2. 조사 설계

구 분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① 조사 대상	전국 만15세 ~ 60대 남녀
② 유효 표본	총 2,000표본
③ 표본 추출	집계구 활용, 다단계 층화집락추출
④ 조사 방법	가구 방문에 의한 1:1 개별 면접 조사
⑤ 조사 기간	2016년 7월 5일 ~ 8월 21일
⑥ 조사 기관	(주)월드리서치

3. 조사 내용

본 조사는 표준 발음 관련 의식 조사와 발음 조사 등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의식 부문은 국어에 대한 관심도, 발음 관련 경험, 발음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등 총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 영역별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음 부문은 ‘이중모음’, ‘ㄴ,ㄹ 연쇄’, ‘ㄴ 첨가’, ‘사잇소리’, ‘경음화’, ‘자음군 단순화’, ‘공명음 뒤 ’ㅎ’탈락’, ‘체언 어간 변화’, ‘용언 어간 변화’, ‘기타’ 등 총 10개 음운 현상으로 나누어지며, 각 음운 현상은 표준 발음 정책 관련 논의가 필요한 발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의식 부문

구 분	내 용
국어 관심도	➡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
발음 관련 경험	➡ 평소 표준 발음 사용 정도
	➡ 주변사람에게서 잘못된 발음 지적한/지적받은 경험
	➡ 본인의 발음에 기준이 되는 매체/정보원
	➡ 평소 사용하던 발음이 표준 발음이 아님을 인식했을 때의 행동
발음 관련 정책	➡ 표준 발음 규정 필요 정도
	➡ 표준 발음법 교육 필요 정도
	➡ 표준 발음법 조사/정비 필요 정도
	➡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경우 바람직한 방향
	➡ 표준 발음법 개선 주체/기관

3.2 발음 부문

구 분	내 용
이중모음	➔ 차례, 비례, 장례, 용례, 실례, 결례, 노예
ㄴ, ㄹ 연쇄	➔ 한랭 기후, 상견례, 공권력
ㄴ 첨가	➔ 작열, 금융, 선율, 강약, 핵연료, 낫익은, 야금야금, 서른여섯, 생이별, 몰인정, 종군요, 나는야
사잇소리	➔ 안간힘, 밤새, 인기척, 김밥, 뱃멀미, 해님, 수놈, 인사말, 존댓말, 반대말, 머리글, 편지글, 장맛비, 찜닭 가로수 길, 둘레길, 장사 일, 빨래 바구니, 새우 살
경음화	➔ 물질적, 창고, 교과서, 효과, 체증, 날짐승, 길짐승, 고가, 불법 체류
자음군 단순화	➔ 굶지, 굶고, 굶는다, 맑다, 맑지, 밟고, 밟지, 밟는다, 읊고, 읊지, 읊는다
공명음 뒤 'ㅎ'탈락	➔ 오해, 은행, 결혼, 방해, 남해
체언 어간 변화	➔ 술에, 숯에, 부엌에, 무릎에, 낮에, 녀을, 값을, 흙을, 닭을, 여덟이
용언 어간 변화	➔ 바란다, 바라, 나무란다, 나무라요, 붙기, 주워서
기타	➔ 고랭지

4. 모집단 및 표본 설계

4.1 모집단

전국(17개 시도)의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며, 조사가 어려운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섬 거주자는 모집단에서 제외한다.

4.2 표본 설계

표본 추출은 전국 17개 시도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을 각각 60%와 40%로 유의할당한 후 각 지역(수도권/비수도권)의 세부 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한 후, 확률비례추출방법(PPS; 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을 이용하여 읍/면/동을 추출하였다. (1개의 읍/면/동에서 20명씩 조사)

표본가구는 랜덤으로 선택한 시작 가구로부터 20가구 조사하되, 가구원의 연령을 기준으로 첫 번째 가구에서는 첫 번째 가구원 조사, 두 번째 가구에서 두 번째 가구원 조사 등 네 번째 가구까지 동일한 방법을 준용하였다. 다섯 번째 가구에서는 다시 첫 번째 가구원을 조사하며, 해당 가구원이 부재 중이거나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바로 뒷사람을 조사하였다.



5. 사전조사

5.1 목적

본 조사는 이론적으로 일반 면접원을 활용한 대규모 발음 현황 수집 조사로 조사 과정 상의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여 정확한 발음 수집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5.2 개요

사전조사의 설계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① 조사대상	○ 전국 만 15세 이상 60대 남녀(70대 이상은 미대상)
② 조사지역	○ 전국
③ 조사방법	○ 가구 방문에 의한 1:1 개별 면접 조사
④ 표본추출	○ 특·광역시/시·도별 강제할당 후 성·연령별 균등할당
⑤ 유효표본	○ 총 120명
⑥ 조사기간	○ 6월 9일 ~ 6월 19일(11일간)

사전조사에서의 표본은 먼저 인구 규모를 고려해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지역별로 12표본 혹은 6표본씩을 할당하였다. 할당된 지역은 지역 규모에 따라 성·연령별로 각각 1명 또는 2명씩 균등하게 할당하여 전체적으로 성별, 연령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아래 표는 지역별 표본 구성 현황을 보여준다.

방언권	지역	표본할당
중부 방언 (48명)	서울	12
	인천	6
	대전	6
	충청	6
	경기	12
	강원	6
동남 방언 (42명)	부산	12
	대구	12
	울산	6
	경북	6
	경남	6
서남 방언 (24명)	광주	12
	전북	6
	전남	6
제주 방언 (6명)	제주	6
합계		120

6명 표집				
지역	10~20대	30~40대	50~60대	합계
남성	1	1	1	3
여성	1	1	1	3
합계	2	2	2	6

12명 표집				
지역	10~20대	30~40대	50~60대	합계
남성	2	2	2	6
여성	2	2	2	6
합계	4	4	4	12

5.3 조사 개선안 마련

사전조사를 통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발생 유형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본 조사에서의 문제 상황 발생에 대비하였다.

조사의 특수한 성격 상 면접원에 대한 교육 및 실제 설문 상황에서의 조사원칙 준수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예방 방안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의 주요 발생 유형과 이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제 발생 유형	해결 방안
단어 선택을 어려워하여 재차 읽거나 선택을 망설이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원 교육 시, 평상시에 말하는대로 발음(조사원칙)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강조하도록 교육내용 강화 - 면접 시, 조사 목적 및 면접 진행 과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 후 조사 실시 - 조사 항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례 제시 및 교육 실시
관심 항목을 잘 못 읽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완이 어려우므로 현장에서 체크하여 관심항목을 잘 못 읽는 경우에 재녹음 실시 - 면접원용 발음 항목 가이드에 관심항목 표시
조사를 혼동하여 잘 못 읽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 항목이 아닌 경우는 문제 없으나, 조사까지 관심항목에 포함된 경우에 대한 조사 지침 마련 - 면접원용 발음 항목 가이드에 관심항목 표시
문항 누락 사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완이 어려우므로 현장에서 체크하여 관심항목을 잘 못 읽는 경우에 재녹음 실시 - 문번을 확인하면서 면접 실시할 수 있도록 응답자용 보기카드 제시하고, 면접원은 응답자용 보기카드를 함께 보면서 항목별로 발음항목 완료 여부를 체크
응답자의 집중도 하락 및 중도이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상의 표현 방식 수정(난이도 수정) - 한 문장 안에 두 개 관심 항목을 포함시켜 전체 문항수 축소

6. 실사

6.1 실사 개요

본 조사는 크게 발음 조사와 의식 조사로 구분된다. 발음 조사는 발음 항목 보기카드를 제시한 후 응답자의 발음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의식 조사는 종이 설문지를 활용하여 면접원이 타계식으로 응답 받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순서는 발음 조사 종료 후 의식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발음 항목 수집에 선행하여 의식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습 효과에 의해 응답자가 해당 항목을 ‘표준 발음’으로 발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이 경우 발음 항목 자료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6.2 면접원 교육 및 관리

사전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는 본 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면접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치하였다. 표준 발음 정책과 본 조사의 목적에 대한 기본 교육, 일반 조사와 본 조사의 다른 점, 면접원용 발음 항목 가이드 및 조사 가이드 배포, 응답자용 항목 가이드 배포, 교육 시 다양한 발음 사례 제시 등 면접원 교육을 강화하였다.

교육 후에도 실사 진행 초기에는 수집된 발음 녹음 자료에 대한 검증을 통해 재조사,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6.3 실사 진행

전체적인 조사 순서는 발음 조사를 위한 준비과정을 포함하여 다음의 10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조사 시작 전 면접원으로 하여금 녹음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녹음 시작 전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 녹음 여부, 품질 등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발음 항목을 녹취한다는 점에서 일반 면접조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보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발음 및 의식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다시 한 번 녹음 상태를 확인 하고, 조사 중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조사 진행 순서]

1. 녹음 어플 다운 로드 및 사용법	2. 녹음 장비 및 장소 확보	3. 조사 협조	4. 사전 안내 및 테스트 녹음	5. 테스트 녹음 품질 확인	6. 발음 항목 조사 (본녹음)	7. 의식 항목 조사	8. 녹음 상태 확인	9. 파일명 부여	10. 녹음 파일 전송
--	------------------------------	----------------	-------------------------------	-----------------------------	-------------------------------	----------------------	----------------------	-----------------	-----------------------

6.4 자료 검증 및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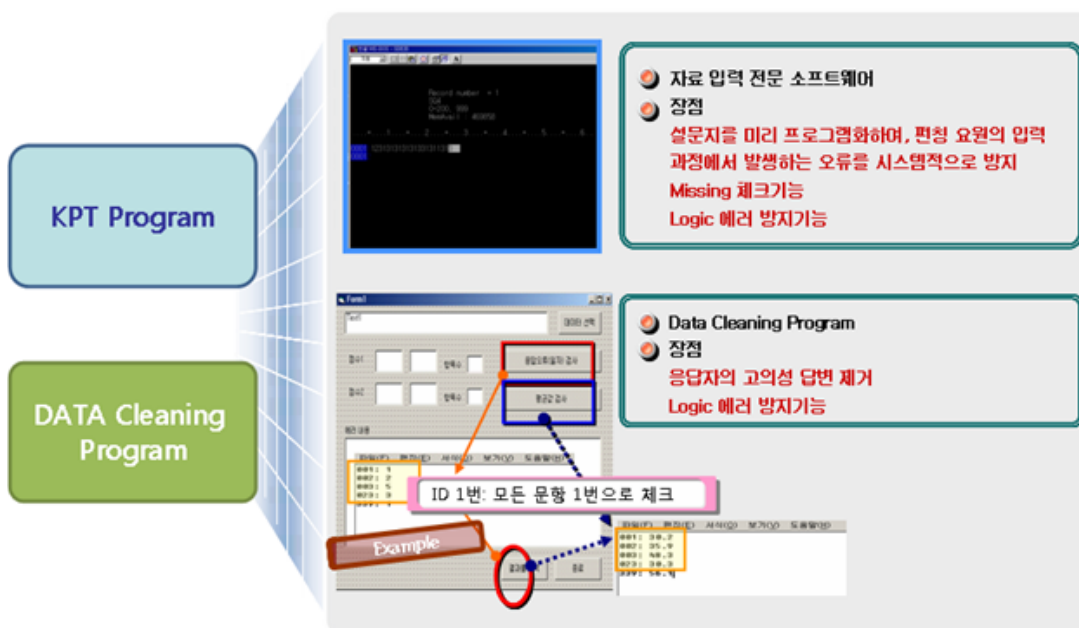
자료의 검증과 보완은 다음의 4단계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로 발음 조사 완료 후 면접원이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1차 체크함으로써 녹음 여부, 녹음 품질, 누락 항목 등 녹음 및 항목 수집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다음 2단계로 면접원에 의해 수집된 녹음 파일을 각 지방 실사 사무소로 취합하여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조사 원칙에서 벗어난 사례들을 검증하였다.

3단계로는 각 지방 사무소의 2차 검증을 거친 녹음 파일을 본사에서 취합하여 3차 검증 및 보완 단계를 거쳤다. 마지막 4단계로 3차 검증 이후 정리된 녹음 파일을 전사자들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본을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7. 자료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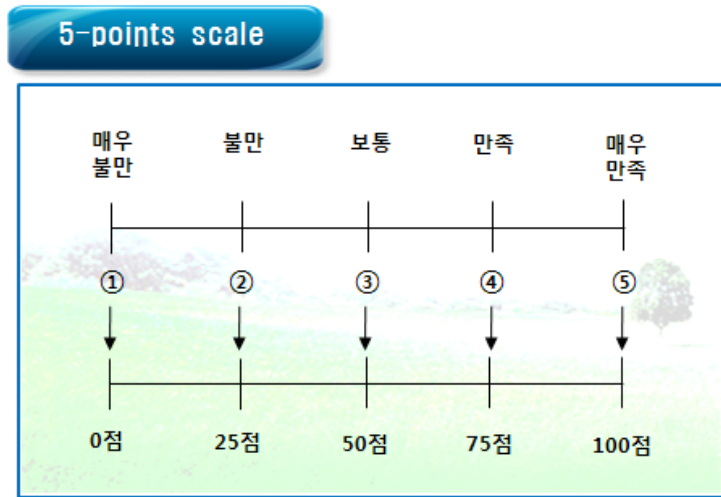
7.1 자료 입력 및 검증

수집된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로직 체크 기능을 장착한 본사 Punching Program을 통해 입력하였고, 입력된 자료의 오류를 검색하여 범위를 벗어나는 문항, Logic에 맞지 않는 문항, 일관성 없는 문항 등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7.2 척도 (Scale) 제시

본 조사에서는 응답이 쉽고, 변별력이 높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7.3 표준 발음 일치율 산출 방법

개별 발음 항목의 표준 발음 일치율은 각 발음 항목별로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 비율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 표준 발음 일치율(항목)
= 각 발음 항목별 표준 발음 비율

어문 현상별 표준 발음 일치율은 위에서 계산된 발음 항목별 표준 발음 일치율의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였다.¹⁾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표준 발음 일치율(현상)

$$= \frac{1}{n} \sum_{i=1}^n X_i, (i = 1, \dots, n),$$
 (n : 현상 내 항목 수, X_i : 현상 내 항목 준수율)
 ex) ㄴ, ㄹ 연쇄 현상 (세부 문항 : 한랭, 상견례, 공권력)
 표준 발음 일치율(ㄴ, ㄹ 현상) =
 {표준 발음 일치율(한랭) + 표준 발음 일치율(상견례) + 표준 발음 일치율(공권력)} / 3

전체 표준 발음 일치율은 위에서 계산된 어문 현상별 표준 발음 일치율의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였고,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표준 발음 일치율(전체)

$$= \frac{1}{N} \sum_{i=1}^N Y_i, (i = 1, \dots, n),$$
 (N : 어문 현상 개수, Y_i : 현상 일치율)

1) 단, 세부 문항 중 띄어읽어 발음한 비율이 다소 높았던 ‘핵연료’ 항목, 복수표준발음이 인정되어 표준 발음 일치율이 100%에 가까운 밤새, 야금야금, 금융, 김밥은 현상 일치율 및 전체 일치율 계산에서 제외되었음

8. 응답자 특성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전체		(2,000)	100.0
성별	남성	(1,014)	50.7
	여성	(986)	49.3
연령별	15~19세	(161)	8.1
	20대	(342)	17.1
	30대	(386)	19.3
	40대	(439)	22.0
	50대	(417)	20.9
	60대이상	(255)	12.8
학력별	중졸이하	(80)	4.1
	고졸	(848)	42.4
	대졸(재학)	(1,012)	50.6
	대학원 이상(재학)	(60)	3.0
직업별	농업/수산업/축산업	(8)	0.4
	자영업	(350)	17.5
	판매/서비스직	(265)	13.3
	기능/숙련공	(98)	4.9
	일반 작업직	(36)	1.8
	사무/기술직	(428)	21.4
	경영/관리직	(14)	.7
	전문/자유직	(54)	2.7
	전업주부	(343)	17.2
	학생	(342)	17.1
	무직	(61)	3.1
	기타	(1)	0.1
표준 발음 관심도	관심있음	(916)	45.8
	보통	(781)	39.1
	관심없음	(303)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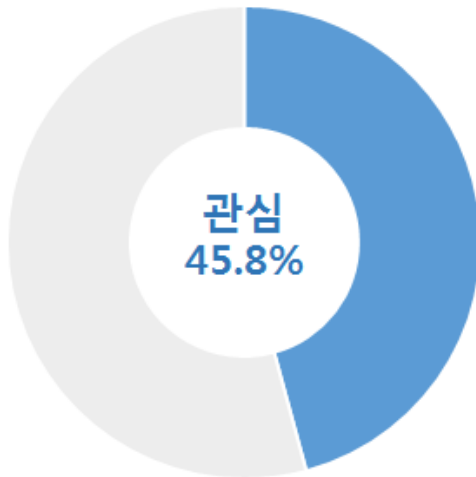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전체		(2,000)	100.0
거주 지역	서울	(476)	23.8
	부산	(111)	5.6
	대구	(80)	4.0
	인천	(140)	7.0
	광주	(44)	2.2
	대전	(48)	2.4
	울산	(38)	1.9
	경기도	(585)	29.3
	강원도	(47)	2.4
	충청북도	(47)	2.4
	충청남도	(69)	3.5
	전라북도	(55)	2.8
	전라남도	(56)	2.8
	경상북도	(81)	4.1
	경상남도	(104)	5.2
	제주도	(19)	1.0
성장 지역	서울	(453)	22.7
	부산	(129)	6.5
	대구	(84)	4.2
	인천	(104)	5.2
	광주	(43)	2.2
	대전	(60)	3.0
	울산	(31)	1.6
	세종	(2)	0.1
	경기도	(326)	16.3
	강원도	(64)	3.2
	충청북도	(77)	3.9
	충청남도	(108)	5.4
	전라북도	(99)	5.0
	전라남도	(131)	6.6
	경상북도	(132)	6.6
	경상남도	(136)	6.8
	제주도	(20)	1.0
	기타	(1)	0.1
토박이 여부	수도권 토박이	(856)	42.8
	수도권 유입	(345)	17.3
	지방 토박이	(27)	1.4
	지방 유입	(772)	38.6
수도권 유입 경로	충청권 유입	(95)	27.5
	전라권 유입	(114)	33.0
	경상권 유입	(113)	32.8
	강원/제주 유입	(23)	6.7

2장. 조사 결과 요약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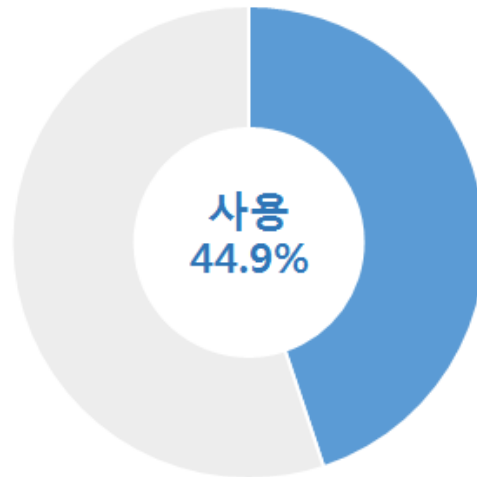
1 주요 조사 결과

1. 의식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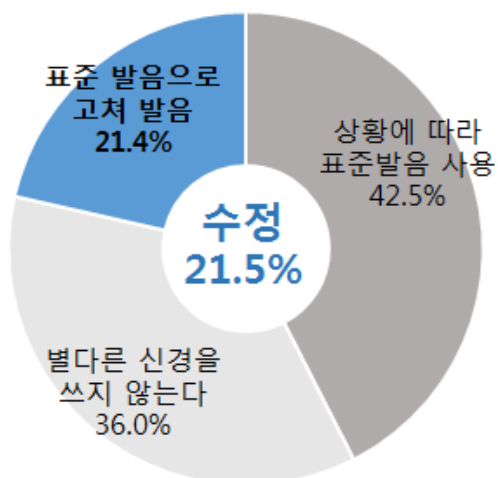
표준발음 관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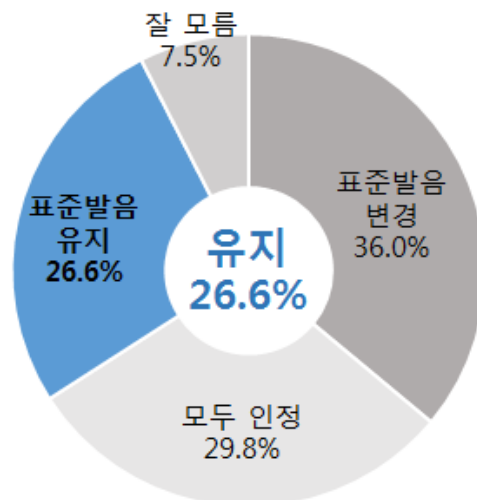
평소 표준 발음 사용 정도



비표준 발음 인식 시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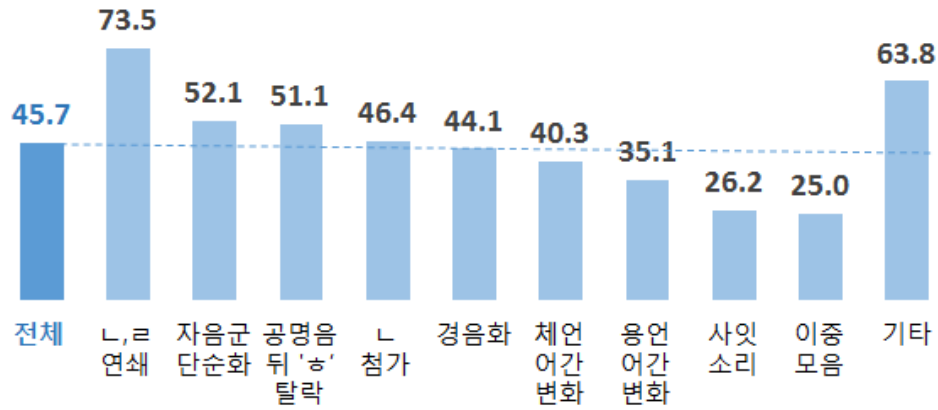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를 경우 바람직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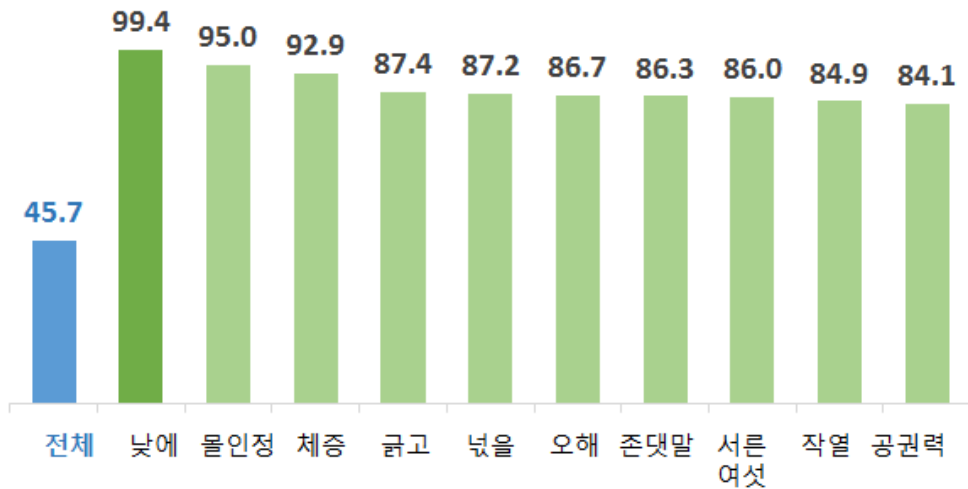


2. 발음 부문

표준 발음 일치율



상위 10개 항목



하위 10개 항목



2 조사 결과 요약

1. 의식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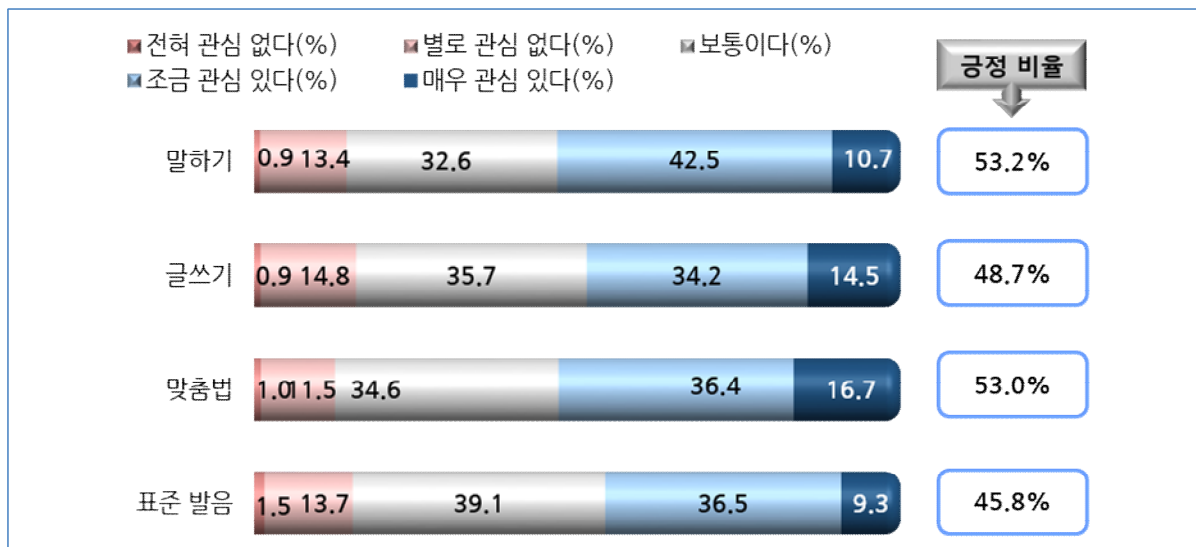
1.1 국어에 대한 관심도

1.1.1. 전체 결과

일반국민들의 국어에 대해 전반적으로 50% 전후에서 ‘관심 있다’ (매우+조금)는 긍정 응답이 나타나고 있다. 국어 관심도를 측정한 말하기, 글쓰기, 맞춤법, 표준발음 등 4개 영역 중에서 말하기와 맞춤법의 긍정응답이 53% 수준에서 가장 높고, 표준 발음에 대한 관심도는 4개 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45.8%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 발음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본 항목과 같이 조사되는 표준어에 대한 7인식 결과와 연계되는 부분으로, ‘본인의 발음이 표준발음과 다를 때, 적극적 교정 노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와 특히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림1 : 국어에 대한 관심도 ■



1.1.2. 인구특성별 분석

국어에 대한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여성, 10대와 2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고르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령 측면에서 20대까지 유지되던 높은 관심이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준발음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이 유지되고 있지만, 국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20대 이하, 여성, 대졸 이상 계층에서도 말하기 등 타 영역보다 낮은 관심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표준발음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표1. 국어에 대한 관심도

구분		사례수	말하기 능력	글쓰기 능력	맞춤법	표준발음
[전 체]		[2,000]	53.2	48.6	53.0	45.8
성별	남성	[1,014]	49.1	43.7	48.4	42.4
	여성	[986]	57.4	53.8	57.7	49.3
연령별	만15-19세	[161]	57.8	55.3	55.9	49.1
	20대	[342]	61.1	56.1	58.8	48.0
	30대	[386]	54.9	49.7	54.7	45.9
	40대	[439]	51.5	44.6	51.9	46.5
	50대	[417]	51.1	48.4	52.8	45.3
	60대	[255]	43.5	40.0	43.1	40.4
학력별	중졸이하	[80]	37.5	33.8	37.5	30.0
	고졸이하	[848]	46.5	41.6	45.6	40.3
	대졸이하	[1,012]	59.5	54.8	59.6	51.1
	대학원이상	[60]	63.3	63.3	66.7	55.0

1.1.3. 지역별 분석

국어에 대한 관심도를 지역별로 분석할 때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전 영역에서 현재 전라권에 거주하거나 성장한 계층 또는 수도권으로 유입된 전라권 거주자에서 국어에 대한 관심도가 고르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표준발음 일치율와 비교할 때는 의미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층 분석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표2. 국어에 대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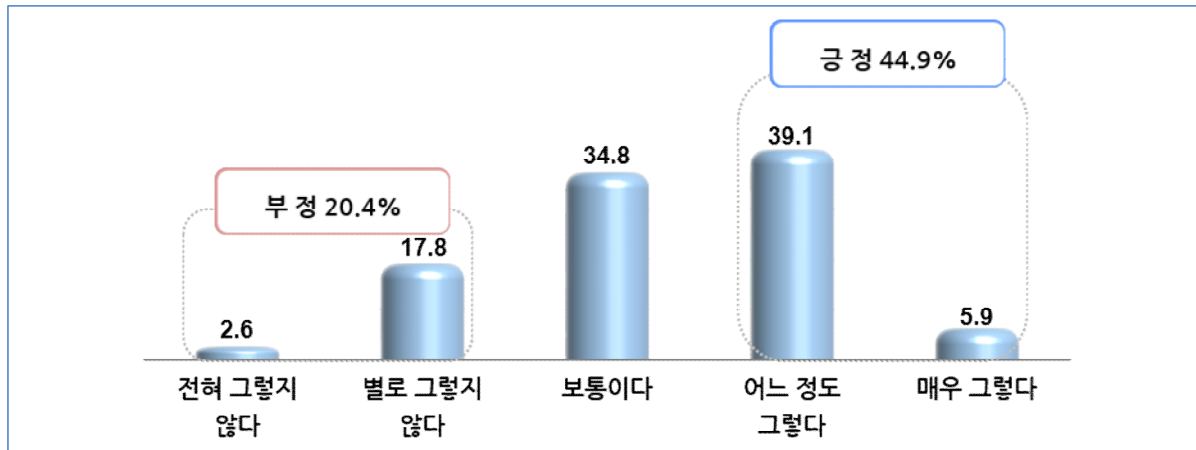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말하기 능력	글쓰기 능력	맞춤법	표준발음
[전 체]		[2,000]	53.2	48.7	53.0	45.8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54.8	47.0	54.5	48.5
	충청권(거주)	[164]	51.8	47.0	42.1	42.1
	전라권(거주)	[155]	56.8	60.6	63.9	49.7
	경상권(거주)	[414]	52.2	52.2	51.7	40.3
	강원/제주(거주)	[66]	25.8	33.3	36.4	31.8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55.3	46.7	53.3	48.4
	충청권(성장)	[247]	54.7	45.3	47.8	45.3
	전라권(성장)	[273]	56.0	59.0	62.6	54.2
	경상권(성장)	[512]	51.6	51.0	53.1	39.6
	강원/제주(성장)	[85]	28.2	31.8	32.9	30.6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55.0	46.1	53.3	48.1
	수도권 유입	[345]	54.2	49.0	57.4	49.3
	지방토박이	[772]	50.4	50.8	50.6	41.3
	지방유입	[27]	63.0	63.0	55.6	55.6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60.0	44.2	57.9	52.6
	전라권유입	[114]	57.9	57.9	63.2	60.5
	경상권유입	[113]	50.4	47.8	56.6	39.8
	강원/제주유입	[23]	30.4	30.4	30.4	26.1

1.2 표준발음 사용 정도

1.2.1. 전체 결과

본인이 표준발음을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44.9%가 사용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어느 정도+매우 그렇다)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적인 평가는 20.4%로 긍정 평가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그림2 : 표준발음 사용 정도 ■



1.2.2. 인구특성별 분석

표준발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44.9%이며, 긍정응답에 대해 계층별로 확인한 결과에서는 대졸 이상 고학력 계층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고졸이하 저학력 계층에서 부정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표준발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던 여성, 20대 이하에서는 표준발음 사용 정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표준발음에 대한 관심도가 사용 정도로 연결되는 강도는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3. 표준 발음 사용 정도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평가		
								부정	보통	긍정
[전 체]		[2,000]	2.6	17.8	34.8	39.0	5.8	20.4	34.8	44.9
성별	남성	[1,014]	2.7	18.4	34.5	39.3	5.0	21.1	34.5	44.4
	여성	[986]	2.4	17.1	35.0	38.7	6.7	19.6	35.0	45.4
연령별	만15-19세	[161]	0.6	14.3	38.5	37.9	8.7	14.9	38.5	46.6
	20대	[342]	1.8	14.0	33.9	43.6	6.7	15.8	33.9	50.3
	30대	[386]	1.8	16.3	33.4	42.5	6.0	18.1	33.4	48.4
	40대	[439]	2.5	17.8	32.6	41.7	5.5	20.3	32.6	47.2
	50대	[417]	2.9	20.9	36.9	34.1	5.3	23.7	36.9	39.3
	60대	[255]	5.5	22.4	35.7	32.2	4.3	27.8	35.7	36.5
학력별	중졸이하	[80]	7.5	20.0	38.8	31.2	2.5	27.5	38.8	33.8
	고졸이하	[848]	3.5	21.5	37.1	32.9	5.0	25.0	37.1	37.9
	대졸이하	[1,012]	1.5	14.8	32.1	44.9	6.7	16.3	32.1	51.6
	대학원이상	[60]	0.0	13.3	40.0	38.3	8.3	13.3	40.0	46.7

1.2.3. 지역별 분석

본인이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는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서 성장한 계층에서 높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본인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본인의 발음을 표준어로 판단하려는 경향성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경향으로는 전라권에서 자란 후 수도권으로 유입된 계층에서도 50.1%로 긍정응답이 높게 나타나 타 지역 계층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4. 표준 발음 사용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평가		
							부정	보통	긍정
[전 체]	[2,000]	2.6	17.8	34.8	39.1	5.9	20.4	34.8	44.9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0.3	12.7	30.8	47.1	9.0	13.1	56.1
	충청권(거주)	[164]	0.0	7.9	54.3	36.0	1.8	7.9	37.8
	전라권(거주)	[155]	3.2	21.3	34.2	40.0	1.3	24.5	41.3
	경상권(거주)	[414]	9.4	32.4	37.4	20.0	0.7	41.8	20.8
	강원/제주(거주)	[66]	4.5	34.8	42.4	16.7	1.5	39.4	18.2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0.1	9.9	28.8	50.7	10.5	10.0	61.3
	충청권(성장)	[247]	0.4	11.3	48.2	37.2	2.8	11.7	40.1
	전라권(성장)	[273]	1.8	17.6	35.5	41.0	4.0	19.4	45.1
	경상권(성장)	[512]	8.0	32.2	37.1	21.5	1.2	40.2	22.7
	강원/제주(성장)	[85]	3.5	32.9	41.2	22.4	0.0	36.5	22.4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0.0	10.0	28.4	50.9	10.6	10.0	61.6
	수도권 유입	[345]	1.2	19.4	36.8	37.7	4.9	20.6	42.6
	지방토박이	[772]	6.0	26.2	40.7	26.3	0.9	32.1	27.2
	지방유입	[27]	3.7	3.7	40.7	44.4	7.4	7.4	51.9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1.1	14.7	40.0	40.0	4.2	15.8	44.2
	전라권유입	[114]	0.0	14.0	36.0	42.1	7.9	14.0	50.0
	경상권유입	[113]	2.7	29.2	33.6	31.0	3.5	31.9	34.5
	강원/제주유입	[23]	0.0	17.4	43.5	39.1	0.0	17.4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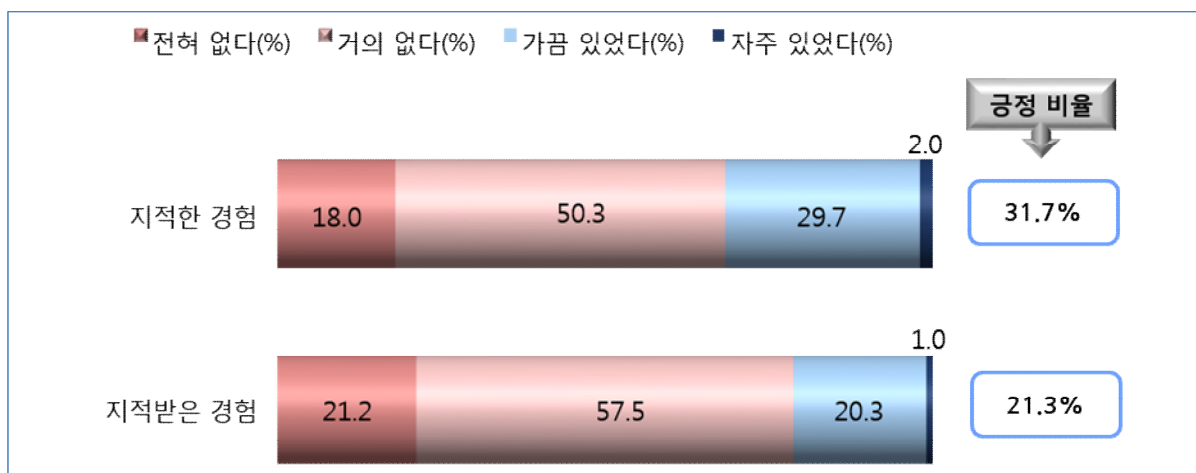
1.3 비표준 발음 관련 지적 경험

1.3.1. 전체 결과

표준어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평소 생활에서 비표준발음에 대해 지적하거나 지적받는 경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비표준 발음을 지적하거나 지적받는 경험을 확인한 결과, 지적한 경험은 31.7%, 지적 받은 경험은 21.3%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준 발음에 대한 관심도가 45% 수준을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표준발음에 대한 관심도가 서로의 발음을 지적하는 경험으로 이어지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3 : 비표준 발음 관련 지적 경험 ■



1.3.2. 인구특성별 분석

비표준 발음에 대해 지적한 경험은 20대 이하, 대졸이상 고학력 계층에서 높게 나타나 국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던 계층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나 국어에 대한 관심이 지적경험에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5. 비표준 발음 관련 지적 경험

구분		사례수	지적한 경험	지적받은 경험
[전 체]		[2,000]	31.7	21.3
성별	남성	[1,014]	31.7	21.0
	여성	[986]	31.7	21.6
연령별	만15-19세	[161]	34.2	22.4
	20대	[342]	37.4	22.5
	30대	[386]	30.6	19.4
	40대	[439]	27.1	19.1
	50대	[417]	33.3	24.9
	60대	[255]	29.4	19.6
	중졸이하	[80]	26.2	18.8
학력별	고졸이하	[848]	27.9	22.4
	대졸이하	[1,012]	35.2	21.1
	대학원이상	[60]	33.3	11.7

1.3.3. 지역별 분석

지역별 분석에서는 지적한 경험의 차이는 크지 않는 반면, 지적받은 경험은 경상권에 거주하거나 성장한 계층, 경상권에서 성장한 후 수도권으로 유입한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계층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6. 비표준 발음 관련 지적 경험

구분		사례수	지적한 경험	지적받은 경험
[전 체]		[2,000]	31.7	21.3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32.1	20.3
	충청권(거주)	[164]	27.4	17.1
	전라권(거주)	[155]	30.3	23.2
	경상권(거주)	[414]	33.3	26.6
	강원/제주(거주)	[66]	28.8	12.1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30.4	16.2
	충청권(성장)	[247]	30.8	21.9
	전라권(성장)	[273]	34.1	23.1
	경상권(성장)	[512]	33.8	29.9
	강원/제주(성장)	[85]	28.2	15.3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30.3	16.2
	수도권 유입	[345]	36.5	30.4
	지방토박이	[772]	31.1	23.1
	지방유입	[27]	33.3	14.8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36.8	28.4
	전라권유입	[114]	37.7	23.7
	경상권유입	[113]	37.2	41.6
	강원/제주유입	[23]	26.1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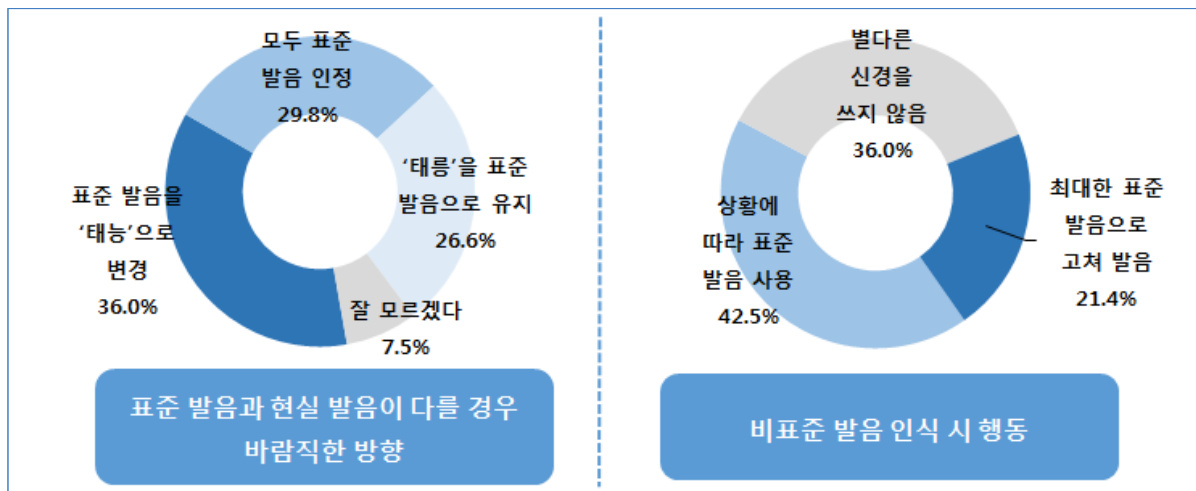
1.4 비표준 발음 관련 태도

1.4.1. 전체 결과

비표준 발음과 관련된 태도에서 본인의 발음이 표준발음과 다를 때 ‘최대한 표준어로 고쳐서 사용한다’는 응답은 21.5%에 그친 반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응답은 36.1%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황에 따라 표준발음을 사용한다’는 유보적인 입장 또한 42.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로 표준발음은 ‘태릉’이지만, 현실발음은 ‘태능’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모두 표준발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29.9%)거나 ‘태능으로 표준발음을 변경해야 한다’ (36.1%)는 응답이 ‘태릉’을 표준발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26.6%보다 높게 나타났다.

■ 그림4 : 비표준 발음관련 태도 ■



1.4.2. 인구특성별 분석

본인의 발음이 비표준 발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성, 20-30대, 대졸이상 계층에서 표준발음으로 고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는 표준발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의 계층 특성이 20대 이하, 중졸이하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준발음으로 고치려는 노력은 국어에 대한 관심도와 동일한 계층특성을 보이는 반면, 표준발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대 이하에서 높게 나타나 현실적인 수정 노력과 표준어 정책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7 비표준 발음 관련 태도

구분		사례수	비표준 발음 인식 시 행동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경우			
			상황에 따라 표준 발음 사용	별다른 신경 쓰지않음	표준 발음으로 고쳐 발음	표준발음 변경	모두 표준발음 인정	표준발음 유지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42.5	36.0	21.4	36.0	29.8	26.6	7.5
성별	남성	[1,014]	42.5	39.4	18.0	35.8	30.8	26.2	7.2
	여성	[986]	42.5	32.6	24.9	36.3	28.9	27.0	7.8
연령별	만15-19세	[161]	39.8	38.5	21.7	24.2	35.4	32.9	7.5
	20대	[342]	44.4	30.4	25.1	28.4	32.7	33.0	5.8
	30대	[386]	43.5	31.9	24.6	38.6	30.3	24.4	6.7
	40대	[439]	44.9	35.5	19.6	35.8	32.1	24.8	7.3
	50대	[417]	42.9	38.4	18.7	43.4	22.8	25.4	8.4
	60대	[255]	35.3	45.5	19.2	38.4	29.4	22.4	9.8
학력별	중졸이하	[80]	30.0	57.5	12.5	28.8	25.0	31.2	15.0
	고졸이하	[848]	43.8	38.3	17.9	39.4	27.2	25.2	8.1
	대졸이하	[1,012]	41.9	33.3	24.8	33.8	32.0	27.7	6.5
	대학원이상	[60]	51.7	21.7	26.7	36.7	36.7	21.7	5.0

1.4.3. 지역별 분석

지역적으로 볼 때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성장한 계층 이외에 전라권에 거주하거나 성장한 계층, 전라권에서 성장한 후 수도권에 유입된 계층에서 ‘표준발음으로 고쳐 발음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전라권의 특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반면 표준발음 유지와 관련해서는 경상권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서 성장한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8 비표준 발음 관련 태도

구분		사례수	비표준 발음 인식 시 행동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경우			
			상황에 따라 표준 발음 사용	별다른 신경 쓰지않음	표준 발음으로 고쳐 발음	표준발음 변경	모두 표준발음 인정	표준발음 유지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42.5	36.0	21.4	36.0	29.8	26.6	7.5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3.0	31.2	25.7	39.3	29.1	24.2	7.3
	충청권(거주)	[164]	60.4	29.3	10.4	37.8	32.9	22.0	7.3
	전라권(거주)	[155]	45.2	31.6	23.2	20.6	47.7	27.1	4.5
	경상권(거주)	[414]	36.0	50.2	13.8	32.1	24.4	36.5	7.0
	강원/제주(거주)	[66]	22.7	62.1	15.2	33.3	27.3	18.2	21.2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1.6	31.5	27.0	37.6	29.6	25.3	7.6
	충청권(성장)	[247]	55.1	28.7	16.2	40.5	30.4	22.3	6.9
	전라권(성장)	[273]	46.5	27.8	25.6	31.5	38.8	26.0	3.7
	경상권(성장)	[512]	37.9	48.2	13.9	33.6	26.6	32.0	7.8
	강원/제주(성장)	[85]	30.6	57.6	11.8	36.5	22.4	22.4	18.8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1.5	31.4	27.1	38.3	29.6	24.6	7.5
	수도권 유입	[345]	47.0	30.7	22.3	41.7	28.1	23.2	7.0
	지방토박이	[772]	41.6	43.7	14.8	31.7	31.0	29.7	7.6
	지방유입	[27]	44.4	33.3	22.2	14.8	29.6	44.4	11.1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7.4	26.3	26.3	44.2	26.3	22.1	7.4
	전라권유입	[114]	50.9	21.1	28.1	45.6	26.3	25.4	2.6
	경상권유입	[113]	45.1	39.8	15.0	35.4	34.5	19.5	10.6
	강원/제주유입	[23]	34.8	52.2	13.0	43.5	13.0	34.8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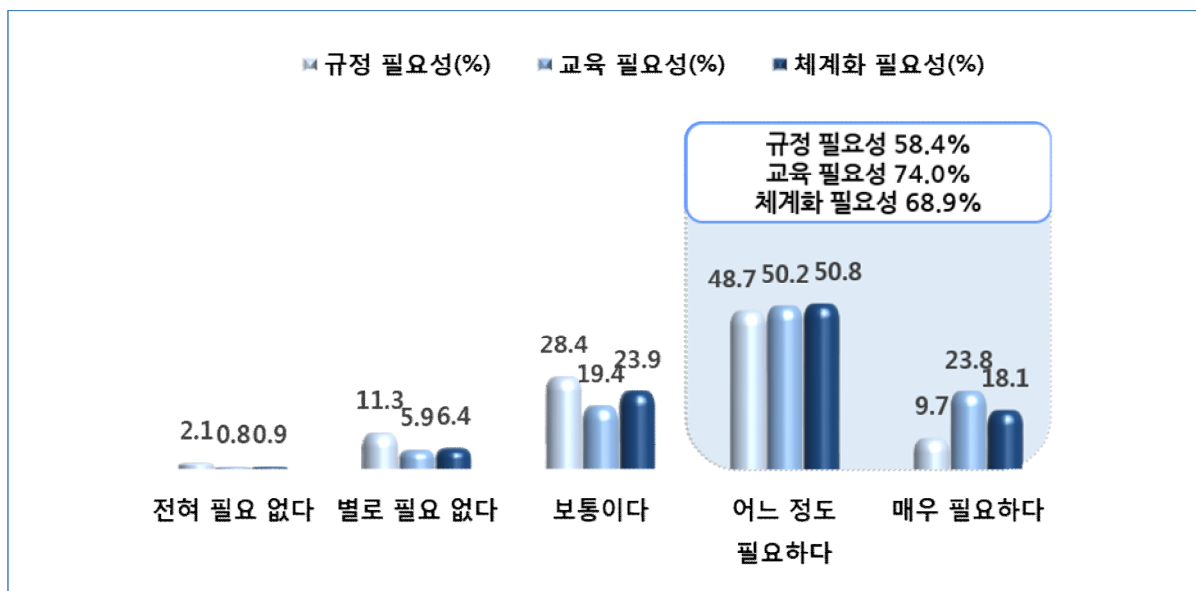
1.5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1.5.1. 전체 결과

표준어와 관련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8.4%로 나타났으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4.0%,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8.9%로 나타난 반면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규정이나 체계화 필요성보다는 교육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비표준 발음 관련 경험에서 일반적인 발음이 표준발음과 다를 때 모두 표준발음으로 인정하거나 일반적인 발음을 표준발음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준어 관련 정책에 대해 높은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기존 표준에 대한 수용 또는 인정과는 다른 태도라고 봐야할 것이다.

■ 그림5 :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



1.5.2. 인구특성별 분석

표준발음 관련 정책에서는 여성, 대학원 이상 고학력 계층에서 표준어 관련 규정 필요성이나 교육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도가 확인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계층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표9.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구분		사례수	규정 필요성	교육 필요성	체계화 필요성
[전 체]		[2,000]	58.4	74.0	68.9
성별	남성	[1,014]	55.5	71.8	66.4
	여성	[986]	61.3	76.3	71.5
연령별	만15-19세	[161]	56.5	69.6	60.9
	20대	[342]	57.6	72.8	66.1
	30대	[386]	59.1	72.3	67.4
	40대	[439]	58.8	73.8	69.5
	50대	[417]	57.1	77.7	74.1
	60대	[255]	60.8	75.3	70.6
학력별	중졸이하	[80]	52.5	76.2	68.8
	고졸이하	[848]	55.3	72.6	68.4
	대졸이하	[1,012]	60.8	74.2	69.3
	대학원이상	[60]	68.3	86.7	70.0

1.5.3. 지역별 분석

표준발음 관련 정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서 성장한 계층에서 일관되게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할 때 수도권 유입계층, 특히 전라권에서 유입된 계층에서 관련 정책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도가 확인되고 있다.

표10.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구분		사례수	규정 필요성	교육 필요성	체계화 필요성
[전 체]		[2,000]	58.4	74.0	68.9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63.6	78.7	75.0
	충청권(거주)	[164]	45.7	51.8	44.5
	전라권(거주)	[155]	56.8	63.9	59.4
	경상권(거주)	[414]	52.2	76.1	66.9
	강원/제주(거주)	[66]	36.4	54.5	53.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63.2	77.8	73.5
	충청권(성장)	[247]	50.6	61.1	56.7
	전라권(성장)	[273]	61.9	74.7	70.3
	경상권(성장)	[512]	54.5	76.0	67.4
	강원/제주(성장)	[85]	42.4	57.6	6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63.4	78.0	73.6
	수도권 유입	[345]	64.1	80.3	78.6
	지방토박이	[772]	50.3	66.8	59.3
	지방유입	[27]	55.6	70.4	70.4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58.9	74.7	75.8
	전라권유입	[114]	73.7	89.5	87.7
	경상권유입	[113]	60.2	77.0	69.9
	강원/제주유입	[23]	56.5	73.9	87.0

2. 발음 부분

2.1 “예”의 밝음

▣ 표11. “ㅋ” 발음 ▣

	발음		우세형 비율		우세형	
	표준	우세	전국	수도권	표준	비표준
노예	노예	노예	67.4	67.7	*	
차례	차례	차례	97.7	96.7		*
비례	비례	비례	81.4	79.3		*
실례	실례	실례	79.7	78.4		*
결례	결례	결례	78.9	75.7		*
장례	장네	장네	78.4	75.9		*
용례	용네	용네	74.5	70.4		*

제5항 ‘ㅈ ㅉ ㅋ ㆁ ㄱ ㆁ ㄴ ㆁ ㄷ ㆁ ㄹ ㆁ’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레’ 이외의 ‘ㄱ’은 [ㄱ]로도 발음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볼 때 ‘노예’의 [네]는 표준발음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레’는 [네]가 70% 이상으로 우세하다. ‘예’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레’의 발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발음법에서 ‘ㄴ레’를 ‘ㄴ레’로 발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계, 네, 데, 메, 베, 세, 제, 체, 케, 테, 페, 헤’이다. ‘예’는 문제가 없으나, ‘레’와 다른 예를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준어규정>의 ‘해설’에 의하면 실제의 발음을 고려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레’를 [레]로 발음하는 빈도가 압도적임을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이 조항이 표기형의 ‘장례, 용례’ 등에 대한 조항이라면 [례]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발음이지만, 치조비음화가 적용된 [네]에 이 항목이 적용된다면 ‘네’로 발음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민현식(1999)과 배주채(2003), 차재은(2003)에서는 ‘례’도 [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외래어 ‘셰퍼드’를 [세퍼드]로 발음할 수 있다는 문제로 인해 ‘세’를 원래대로 발음하도록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선철 2004).²⁾

2) 김선철(2004), 표준어 규범과 현실-② 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 『새국어생활』 14권 1호, 국립국어원.
민현식(1999), 『국어정서법 연구』, 태학사.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차재은(2003), 「언어 규범과 방송 언어의 오류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방송 언어와 국어 연구』, 월인, 1~47.

2.2 ‘ㄴㄹ’ 연쇄의 발음

표12. “ㄴㄹ” 연쇄 발음

	발음		우세형 비율		우세형		
	표준	우세	전국	수도권	표준	비표준	표준≠비표준
한랭	할랭	할랭/한냉	52.3/46.3	50.4/48.5			*
상견례	상견례	상견례	83.8	84.7	*		
공권력	공권력	공권력	84.1	83.8	*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1) 난로[날: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할루] 대관령[대:괘령]

(2) 칼날[갈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럼끼] 할는지[할른지]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판력] 공권력[공권력]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례]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원료]

구근류[구근류]

‘상견례, 공권력’ 처럼 한자어 중 ‘2음절 단어+1음절 한자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현행 표준발음을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2음절 한자어의 경우에 나타나는데, ‘한랭’의 경우, [할랭]과 [한냉]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한랭’과 동일한 구성인 ‘온랭’의 발음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표준발음은 [올랭]이지만 [온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할랭]과 [한냉], [올랭]과 [온냉]을 모두 복수의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ㄴㄹ’ 연쇄에서 [ㄴㄴ] 발음을 인정하면, ‘혼령[홀령], 전령[절령], 혼례[홀례], 관례[괘례]’ 등 많은 단어의 표준 발음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去冷(거냉)’의 예와 같이 ‘한냉, 온냉’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한랭, 온랭’의 표기와 발음이 문제될 것이다.

‘冷’의 발음과 관련하여 ‘고랭지’는 세대에 따른 발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70% 이상이 [고랭지]로 발음하는 반면, 40대 이상 연령층에서의 [고랭지] 발음은 60%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 해당 단어의 쓰임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현재로서는 표준발음을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冷’의 한자음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발음		우세형 비율		우세형		
	표준	우세	전국	수도권	표준	비표준	표준≠비표준
고랭지	고랭지	고랭지	63.0/34.8	62.7/34.9	*		*

2.3 ‘ㄴ’ 첨가

■ 표13. “ㄴ” 첨가 ■

	발음		우세형 비율		우세형		
	표준발음	우세발음	전국	수도권	표준	비표준	표준 vs비표준
금용	금녕/그똥	그똥/금녕	58.0/41.8	68.9/30.7	*		
야금야금	야금냐금/ 야그먄금	야금냐금	92.5%	91.9%	*		
작열	장널	장널	84.8	84.8	*		
낫익-	난닉-	난닉/나딕	41.9/45.1	48.7/38.2	*		*
서른여섯	서른녀섯	서른녀섯	85.8%	86.1%	*		
생이별	생니별	생이별	89.4%	89.8%		*	
몰인정	모린정	모린정	94.5	95.0	*		
선을	서늘	선늘	76.1	72.0		*	
강약	강약	강낙	72.2	69.8		*	
핵연료	행널료	해결료	39.7	41.9		*	띄어읽기 제외
종군요	조군뇨	조군뇨	81.2%	81.1%		*	
나는야	나는냐	나는냐	69.8%	68.5%		*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금용’은 표준 발음이 [금녕]과 [그똥] 모두를 허용하고 있고 전국적인 발음이나 수도권의 발음도 유사하므로 [금녕]을 굳이 표준발음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전의 발음 표기에서 원칙을 따르는 [금녕]을 먼저 제시할지, 아니면 [그똥]을 먼저 제시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작열’도 표준 발음 [장널]의 분포가 우세하므로 문제가 없다. ‘서른여섯’도 표준 발음 [서른녀섯]이 우세하므로 문제가 없다.

‘야금야금’은 [야금냐금]과 [야그먄금]이 복수표준발음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발음이나 수도권의 발음은 거의 [야금냐금]의 ‘ㄴ’ 첨가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발음 현황을 고려하여 [야그먄금]을 표준발음에서 제외하는 안과 현재처럼 복수표준발음을 유지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실 발음을 최대한 반영할 목적이라면 [야그먄금]을 표준발음에서 제외해야 하고, 최소한의 수정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복수표준 발음을 유지할 수도 있다.

‘낫익-’은 표준 발음인 [난닉]과 비표준발음은 [나딕]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나딕]의 경우는 ‘경상권(거주지)’, ‘경상권(성장지)’, 경상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된 계층의 발음 실현 양상으로 볼 때 경상권 방언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수준에서는 굳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 않은 [나딕]을 표준발음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난닉]을 그대로 표준발음으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생이별’의 표준발음은 [생니별]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발음이나 수도권 발음은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은 [생이별]이 90%에 육박한다. 그리고 ‘생이별’과 동일하게 ‘1음절 접두사+2음절 단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몰인정’의 표준 발음도 [모린정]이므로 [생이별]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음 실현 상황으로만 본다면, [생이별]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표준발음을 굳이 바꾸지 않고 [생니별]과 [생이별]을 복수표준발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취할 수도 있다.

‘선율’과 ‘강약’은 표준 발음이 각각 [서눌]과 [강약]이지만 [선눌]과 [강낙]이 전국과 수도권에서 70% 이상 실현되고 있다. 이 경우는 [서눌]과 [선눌], [강약]과 [강낙]을 복수 표준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강약’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정보가 [강약]으로 되어 있다. 실제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정보를 수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라는 규정을 따를 때도 수정에 문제가 없다. 이는 ‘강’과 ‘약’이 국어에서 하나의 접두사 또는 접미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해결료’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 단어를 띄어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띄어서 읽지 않은 경우만 대상으로 봤을 때, [해결료]가 표준 발음 [해널료]보다 많이 실현된다. 전국 단위에서는 [해널료]:[해결료]의 비율이 18.8% : 39.7%로 나타나며, 수도권에서는 16.7% : 41.9%로 나타난다. 현실 발음과 기존의 표준발음을 모두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종균요’와 ‘나는야’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발음 정보가 실릴 수 없다. 발음 조사 결과를 보면, [조균뇨]는 80% 가량 실현되며 [나는냐]는 70% 가량 실현된다. 이 현상과 관련이 있을 만한 <표준발음법> 29항의 ‘해설’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오?’(이것은 책이오?)를 줄여서 ‘-요?’라고 할 경우에는 ‘ㄴ’이나 ‘ㄷ’의 첨가 없이 받침을 연음하여 발음한다.
문-요?[무뇨]답-요?[다료]물-요?[무료]상-요?[상요]

이 경우 형태상으로는 ‘종균요’의 ‘요’와 동일하지만 ‘-이오?’가 줄어서 된 말에 한정된 것이므로 [조균뇨]로 발음하라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발음법> 13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실제로는 용언어간 뒤나 체언 뒤의 경우에 해당한다. 어미 뒤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을 현재의 내용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결국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ㄴ’ 첨가를 인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어가 아니라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분명히 발음 경향으로는 ‘ㄴ’ 첨가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4 사이시옷

표14. 사이시옷

	발음		우세형 비율		우세형		
	표준발음	우세발음	전국	수도권	표준	비표준	표준:비표준
김밥	김뽕/김밥	김뽕	96.1	96.5	*		
장맛비	장마뽕/장맛뽕	장마뽕	80.3	80.8	*		
밤새	밤새/밤새	밤새	96.7	97.4	*		
안간힘	안간힘	안간힘	93.4	92.7		*	
인기척	인끼척	인기척	66.1	67.4		*	*
존댓말	존댄말	존댄말	86.3	91.5	*		
인사말	인사말	인산말	84.3	87.7		*	
반대말	반대말	반댄말	87.0	90.5		*	
편지글	편지글	편지골	74.9	75.1		*	
머리글	머리글	머리골	94.9	95.8		*	
수놓	수놓	순놓	96.5	96.4		*	
뱃멀미	뱌멀미	배멀미	83.3	82.6		*	
해님	해님	햐님	95.4	96.2		*	
체증	체증	체증	92.9	91.5	*		
교과서	교과서	교과서	68.9	73.6		*	
효과	효과	효과	93.9	93.9		*	
불법	불법	불뽕	94.9	94.5		*	
창고	창고	창고/창꼬	52.0/47.9	42.0/58.0			*
고가도로	고가도로	고까도로	61.9	64.9		*	*
물질적	물질적	물질적/물질적	41.6/57.9	39.8/59.7	*		*
길짐승	길짐승	길짐승/길짐승	50.9/48.2	55.5/43.4	*		*
날짐승	날짐승	날짐승/날짐승	62.1/37.8	64.5/35.2	*		*
찜닭	미등재어	찜딱/찜닥	54.9/45.0	40.1/59.7			
가로수 길	미등재어	가로수길	80.9%	83.8%			
둘레 길	미등재어	둘레길	92.4%	93.1%			
장사 일	미등재어	장사일	66.4%	66.4%			
빨래 바구니	미등재어	빨래바구니 /빨래빠구니	47.5/50.0	46.7/50.6			
새우살	미등재어	새우살/새우쌀	54.6/43.2	53.8/44.1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2.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3.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이]으로 발음한다.

문제는 표준어 자체에 사이시옷이 있는지 판단의 여부이다. ‘김밥’은 [김밥]과 [김빡]이 2016년 10월 복수표준발음으로 인정되었다. 어떻게 발음하든 표기에는 상관이 없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96% 이상이 [김빡]으로 발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의 발음 정보 제시 순에서 [김빡]을 우선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봄직하다.

‘장맛비’는 현재의 표준발음 ‘[장마뻘]/[장만뻘]’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전체의 80% 이상이 [장마뻘]로 발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새’는 ‘밤사이’의 준말로 2015년에 [밤싸이], [밤사이], [밤쌌], [밤새]가 모두 표준발음으로 인정되었다. 이 경우는 표기와 관련이 없으므로 복수표준발음을 인정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단, 수도권에서 96% 이상 [밤새]로 발음한다는 발음 현황을 고려하여 발음의 제시 순서를 [밤새]/[밤쌌]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안간힘’과 ‘인기척’은 표준발음에 의하면 [안간힘]과 [인끼척]으로 둘 다 된소리를 포함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발음 현황을 보면 [안간힘]이 전국 단위든 수도권이든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인기척] 역시 전국 단위든 수도권이든 65% 이상의 실현 비율을 보인다. 두 어형 모두 형태 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긴 문제로 보인다.

‘안간힘’의 발음에 대한 가나다 질문에 대해 ‘안간힘’은 ‘안’과 ‘간힘(숨 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고통을 견디려고 애쓰는 힘)’이 결합한 합성어로 ‘간’이 된소리로 실현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안간힘’의 어원을 설명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뜻을 정확히는 알기 어렵지만 - ‘어떤 물체나 공간의 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 또는 그런 곳이나 부분’을 뜻하는 ‘안’으로 보입니다.”와 같은 답변도 있다. 이 경우 굳이 근거가 없는 [안간힘] 하나만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복수표준발음을 인정해도 표기에는 변화가 없다. ‘인기척’의 경우는 [인기척]의 발음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에서의 높은 실현 비율로 판단하건대 [인기척]과 [인끼척]이 모두 표준발음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존댓말’은 현재의 표준발음과 표기를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동일한 구성이면서 뒤의 요소가 ‘말, 글’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표준 발음은 문제가 된다.

‘인사말, 반대말, 편지글, 머리글’의 표준발음은 각각 [인사말], [반대말], [편지글], [머리글]로 되어 있지만 [인산말], [반댄말], [편지꼐], [머리꼐]의 발음이 압도적으로 많다. [인사말]은 ‘존댓말’의 예를 따라 ‘인삿말’로 표기를 바꾸고 표준발음도 바꿀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말’ 역시 그렇다. 표준발음과 표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학생 계층의 경우에도 [인산말], [반댄말]이 거의 9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지글’과 ‘머리글’ 역시 ‘편짓글’과 ‘머릿글’로 표기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머리말’의 표기 역시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일반적으로 ‘머릿말’로 쓰이던 것을 ‘머리말’로 바꾸었는데 다시 ‘머릿말’로 바꿀 경우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약 30년 전 결정된 정책을 현재의 정책을 수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인사말, 반대말, 편지글, 머리글, 머리말’을 ‘존댓말’과 동일하게 ‘인삿말, 반댓말, 편짓글, 머릿글, 머릿말’로 표기를 바꾸는 방법과 ‘존댓말’ 이외의 단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발음과 반대되는 발음을 그대로 표준발음으로 밀고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현실적인 발음을 고려한다는 표준어 사정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하겠다. 세 번째 방법은 두 가지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존댓말’과 ‘존대말’, ‘인사말’과 ‘인삿말’ 등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의 변화 양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표기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표준 발음을 복수로 하거나 수정하였을 때 표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정보 난에 표준 발음 이외의 ‘표준 인정 발음’ 항목을 두는 방법이다. 표기는 그대로 두되 ‘표준 인정 발음’으로 문제가 되는 발음들을 수용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한다면 기존의 다른 표준 발음도 그대로 두고 표기도 바꾸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발음도 비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님’은 [헨님]이 전체적으로 95% 이상의 발음 실현을 보이며, 계층적 특성에 의한 차이도 없는 것으로 보여 표준발음을 [헨님]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햇님’에 대해 ‘해님’으로 ‘→’를 표시해 놓았는데, 이는 특수한 처리를 해 놓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머릿말’ 등 다른 경우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말’로 가서 해당 단어를 확인할 길도 없다. 이 경우도 ‘ㅅ’ 표기로 바꾸거나 ‘표준 인정 발음’을 추가로 제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수놈’은 전국 단위든 수도권이든 95% 이상 압도적으로 [순놈]으로 발음하고 있다. ‘수놈’에 대해서는 아래 인용문에서도 표준어 ‘숫놈’과 발음 [순놈]의 정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표준어를 배우면서 억지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로써 국어에 대한 애착심에 손상을 입힌다면 표준어를 정리하는 정신에 어긋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종래에는 표준어나 맞춤법에서 그런 억지가 없지 않았다. ‘좋읍니다’의 ‘-읍니다’도 그 하나였는데 이것도 이번에 ‘-습니다’ 하나로 통일하였다. 마찬가지로 ‘암놈, 수놈’의 ‘수놈’도 비현실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억지스러움을 느끼게 하던 것이어서 국어연구소 안(案) 대까지 ‘숫놈’으로 고쳤었다. 그런데 문교부의 최종안에서 다시 ‘수놈’으로 환원하였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숫놈’은 어원적으로 ‘송놈’일 것이다. ‘수탉, 수캐’도 어원적으로 ‘송탉, 송개’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받침에 ‘ㅎ’을 살려 쓰는 것이 번잡스럽게 느껴져 ‘수탉, 수캐’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받침 ‘ㅎ’은 발음상으로는 살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송놈’의 경우에도 발음은 ‘순놈’이어서 받침 ‘ㅎ’이 분명히 살아 있고 따라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야 한다. 그런데 ‘ㅎ’은 ‘수캐’에서도 쓰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한 대안(代案)으로 등장한 것이 ‘숫놈’이었다. 그것을 ‘수놈’으로 정한 것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형태를 억지로 표준어로 삼은 또 한번의 우(愚)임이 분명하다. (이익섭(1988), 국어 표준어의 형성과 변천, 『국어생활』, 1988. 여름호.)

‘수/숫’과 관련한 표준어 규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수-평	수-꿍/숫-꿍
수-나사	숫-나사
수-놈	숫-놈
수-사돈	숫-사돈
수-소	숫-소
수-은행나무	숫-은행나무

다만 1.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수-강아지	숫-강아지
수-개	숫-개
수-컷	숫-컷
수-기와	숫-기와
수-닭	숫-닭
수-탕나귀	숫-탕나귀
수-톨쩌귀	숫-톨쩌귀
수-돼지	숫-돼지
수-평아리	숫-병아리

다만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숫-양	수-양
숫-염소	수-염소
숫-쥐	수-쥐

그러나 표준어 규정의 해설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다만1]과 [다만2]에 제시된 이외의 단어에서는 '수-'로 통일하였다.
이 접두사의 기본형을 '수-'로 잡은 것이다. 여기 제시된 이외의 어떤 단어,
가령 '거미, 개미, 할미새, 나비, 술' 등은 모두 '수거미, 수개미, 수할미새, 수
나비, 수술'로 통일한 것이다. 여기에서 '수놈, 수소'의 현실음이 과연 아무
받침이 없이 이렇게 발음되는지, 아니면 '숫놈, 숫소'인지 하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숫쥐, 숫양'은 '수쥐, 수양'이 아니면서 '수놈, 수소'는 '숫놈, 숫소'가
되지 못하는 불균형이 드러나기도 한다.

‘수놈’은 ‘숫양, 숫염소, 수쥐’와 함께 ‘숫놈’으로 바꾸어서 ‘수/숫’의 발음과
표기를 통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다면 <표준어규정>에 예시된 ‘수평, 수나사, 수
사돈, 수소, 수은행나무’에 대해서도 각각 ‘숫평, 숫나사, 숫사돈, 숫소, 수은행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기와, 수닭,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
돼지, 수평아리’처럼 두 번째 요소가 유기음으로 발음되는 단어들은 표기를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단, ‘수돼지, 수평아리’의 경우는 ‘숫돼지, 숫병아리’의 발음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본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표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존의 표준어를 ‘숫’으로 바꾸어 표기하게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수놈’ 등으로 표기하되, 압도적인 발음 [순놈] 등만 표준발음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며, 세 번째 방법은 ‘수놈’ 등으로 표기하고 복수표준발음으로 [수놈]과 [순놈]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그 이외에 표기와 표준발음을 그대로 두고 표준인정발음으로 [순놈] 등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 결국 표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뒤의 요소를 유기음으로 실현시키지 않는 단어들을 ‘숫’으로 통일하여 표기하는 방안을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다.

‘뱃멀미’는 [배멀미]의 발음이 80% 이상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표준국어대 사전에 [배멀미]는 북한어로 되어 있고 ‘가나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뱃멀미/배멀미’는 이들을 ‘배’와 ‘멀미’의 결합형으로 보느냐, 아니면 단일어로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표기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차멀미[차멀미]’도 동일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위의 답변을 따르면 ‘뱃멀미’와 ‘차멀미’의 구성을 달리 보아야 한다. 또한 ‘가나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어원 정보를 보이며 “어원 정보 ‘뱃멀미’라는 단어는 17세기 ‘비멀미’, ‘빋멀미’, 18세기 ‘빅스멀미’, 19세기 ‘비멀미’, 20세기 ‘뱃멀미’, ‘배멀미’로 나타나다가 ‘뱃멀미’로 정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배멀미] 발음이 널리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체증은 표준발음([체증])과 현실발음([체증])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교통체증’과 관련한 발음인데, 앞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병’을 의미하는 ‘체증[체증]’의 발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증[광증], 병증[병증], 염증[염증], 중증[중증], 통증[통증], 실어증[실어증], 수전증[수전증], 탈모증[탈모증], 대인 공포증[공포증]’에서 보듯이 경음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체병’도 [체병]이 표준 발음이다. 만약 소화와 관련된 ‘체증’의 표준 발음을 [체증]으로 정한다면, 교통 관련 ‘체증’은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하면서 [체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는 전국 단위에서는 70% 가까이, 수도권에서는 70% 이상이 [교파서]로 발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파서] 발음 비율이 높았으나, 60대의 경우에도 [교파서]는 50%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교파서]를 표준발음으로 인정하되, 현재의 표준발음 [교과서]를 고려하여 복수표준발음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자어이므로 표기법엔 변동이 없다. 아울러 ‘교과목, 교과’ 등의 단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효과’는 전국 단위에서나 수도권에서도 90% 이상이 [효파]로 발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효과]로 발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는 ‘가나다’ 답변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사소리에 대해서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향이 많은데, ‘효과’의 경우는 된소리가 낱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효파]로 발음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표준 발음대로 [효:파]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론적 원칙이 현실 발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효과’는 [효파]와 같은 현실 발음을 함께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발음 정보 상에 [효파]/[효과] 순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不法)’ 역시 약 95%가 [불뻬]로 발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표준발음 관련하여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기에도 문제가 없다. 60대에서 기존 표준발음인 [불법]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1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그 자체로도 표준발음 실현 정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현실발음([불뻬])을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발음 정보에 대해서도 이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창고’는 표준발음인 [창고]와 비표준발음인 [창꼬]가 유사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창고]가 많이 실현되지만,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는 [창꼬]로 발음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으로 볼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창고] 발음 비율이 높아져 40대부터는 [창고] 발음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반면,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창꼬] 발음 비율이 50%를 넘어가고 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준발음과 현실발음 간 비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표준발음을 수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발음 양상의 변화 추이를 토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가도로’의 ‘고가’는 [고까]가 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나 [고가] 역시 전국적으로 40%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도 [고가]가 약 35%의 실현율을 보인다. 한편 세대적 특성으로 볼 때, ‘고가’의 현실 발음은 [고가]에서 [고까]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길짐승’은 전국적으로 표준발음인 [길짐승]과 비표준발음인 [길짐승]이 유사한 실현율을 보이고 있어 표준발음을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날짐승’ 역시 표준 발음과 비표준발음 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질적’은 표준발음인 [물질쩍]과 비표준발음인 [물질적]의 발음이 약 6:4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그 차이가 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 시점에서 표준발음을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인다.

‘찜닭’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말샘’에는 [찜닭], [찜달기]와 같이 올라있다. ‘찜닭’은 전국적으로는 [찜딱]이 약 55%로 많으나 수도권에서는 [찜닭]이 60%로 우세하다. 또한 수도권 성장 화자의 경우는 [찜닭]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연령이 높을수록 [찜딱]이 많으며(60대 60%대, 15-19세 30%대), 경상권에서 [찜닭]의 실현이 다른 지역과는 역전되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거주권역이 경상권인 경우와 성장권역이 경상권역인 경우 모두 70% 이상). 다른 지역에서 [찜딱]이 우세한 것으로 볼 때, 이는 결국 이 단어에 대해 경상권 이외에서는 ‘ㅅ’이 들어간 합성어형을 만들지만 경상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국적으로는 유사한 수치를 보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찜닭’이 경상권에서 출발한 음식명이지만 2000년대 이후에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는 ‘불고기’가 평안도에서 유입되면서 해당 어휘가 유입되어서 경음화와는 관련 없이 자리를 잡은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의 발음 현실과 ‘찜닭’의 연원을 고려할 때 [찜닭]을 표준발음으로 설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로수 길’과 ‘둘레길’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이다. ‘우리말샘’에는 ‘가로수 길’이 구로 실려 있다. ‘가로수 길’의 경우는 고유명사에 해당하는데 지명은 고유명사의 띄어쓰기에 준해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단위별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므로 ‘가로수길’로 붙여 쓸 수도 있다. ‘가로수길’로 쓴다면 수도권 거주자의 80% 이상이 [가로수길]로 발음하고 있으므로 [가로수길]을 표준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붙여 쓴다면 표기도 ‘가로숫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레길’의 경우는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이다. ‘올레길’도 동일하다. [둘레길]로 발음하는 비율이 전국 단위든 수도권이든 90%가 넘는다는 점에서 [둘레길]이 표준발음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표기도 ‘둘렛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처리는 ‘지름길 물길 산길 자갈길 돌길’ 등의 발음이 각각 [지름길], [물길], [산길], [자갈길], [돌길]이라는 사실과 ‘모랫길 바닷길 셋길 찻길 기찻길 뱃길’에서도 ‘ㅅ’을 받치어 적는다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한다.

‘장사 일’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발음은 [장사일]이 약 65%로 [장산닐]보다 높은 발음 실현을 보인다. 만약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어 사전에 등재된다면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여 [장사일]로 등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빨래 바구니’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우리말샘’에는 구로 처리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빨래바구니]와 [빨래빠구니]가 유사하게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연령이 높을수록 [빨래바구니]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빨래빠구니]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높은 연령대보다는 낮은 연령대에서 합성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빨래바구니]와 [빨래빠구니]의 발음 비율이 유사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단어로 등재된다면 ‘장바구니[장빠구니]’를 고려하여 [빨래빠구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빨래바구니]를 인정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빨래바구니]로 표준발음을 정하면 ‘ㅅ’을 받치어 적지 않아도 된다.

‘새우 살’은 ‘가나다’ 질문에 나온 단어이다. ‘새우’의 ‘살’일 경우는 구이므로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다. 답변에도 ‘새우 살’로 적도록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고기의 특수 부위로 ‘새우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것으로 보이는 ‘새우 살’이 단어로 등재된다면 ‘갈빗살, 안창살, 뱃살, 항정살’의 발음 예와 표기를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갈매기살[갈매기살], 볼살[볼살]’의 표준발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말샘’에 규범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가부리살(또는 가브리살)’의 표준 발음도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2.5 겹받침

■ 표15. 겹받침 ■

	발음		우세형 비율		우세형		
	표준발음	우세발음	전국	수도권	표준	비표준	표준≠비표준
글고	글꼬	글꼬	87.4	87.7	*		
글지	극찌	글찌/극찌	53.9/45.9	51.3/48.3		*	*
글는다	글는다	글는다	78.1	87.3	*		
옳고	옳꼬	옳꼬/옳꼬	52.0/42.9	52.3/41.4		*	*
옳지	옳찌	옳찌/옳찌	38.1/54.7	37.5/53.6	*		*
옳는다	옳는다	옳는다	79.0	83.1	*		
밟고	밟꼬	밟꼬	86.6	86.8		*	
밟지	밟찌	밟찌	66.8	65.9		*	*
밟는다	밟는다	밟는다	66.6	73.7	*		
말지	말찌	말찌/말찌	58.4/40.3	59.7/38.6		*	*
말다	말따	말따/말따	64.1/34.7	65.5/33.0		*	*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ㄹ’, ‘ㄷ’,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ㄷ, ㅂ]으로 발음한다.

넋[넋], 넋과[넋과], 앓다[안따], 여덟[여덜], 뉘다[널따], 외곬[외골], 훑다[할따], 값[갑], 없다[업따]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밟]으로 발음하고, ‘넋-’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넋]으로 발음한다.

(1) 밟다[밟따], 밟소[밟쏘], 밟지[밟찌], 밟는[밟는→밤:는], 밟게[밟께], 밟고[밟꼬]

(2) 넋-죽하다[넋쭈카다], 넋-둥글다[넋똥글다]

제11항 겹받침 ‘ㄹ’, ‘ㄷ’,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덜[덜], 흙과[흑과], 막다[막따], 늑지[늑찌], 삼[삼], 젊다[점따], 옳고[옳꼬], 옳다[옳따]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말게[말께], 물고[물꼬], 얹거나[얼거나]

‘굶다’의 활용형 ‘굶고, 굶지, 굶는다’는 세대, 거주권역, 성장권역 등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른 발음 실현을 보이고 있어 교육을 통한 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방언권별 차이가 심하므로 표준발음을 좀 더 넓게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글찌]/[극찌], [글꼬], [궁는다] 발음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옴다’의 활용형 ‘옴고, 옴지, 옴는다’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발음 실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발음을 좀 더 넓게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옴꼬]/[옴꼬], [옴찌]/[옴찌]의 발음 현황을 고려하여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뵤다’의 활용형 ‘뵤고, 뵤지, 뵤는다’ 역시 거주권역, 성장권역 등 방언권에 따른 차이를 감안해 좀 더 넓게 표준발음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뵤꼬]/[뵤꼬], [뵤찌]/[뵤찌] 발음에 대해서도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맏다’의 활용형 ‘맏지, 맏다’의 경우, 비표준발음인 [맏찌], [맏따]가 전국적으로 더 많은 발음 실현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단어의 활용형과 마찬가지로 성장권역이나 세대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역시 [맏찌]/[막찌], [맏따]/[막따] 발음에 대해서도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ㄹ’계 접받침 문제와 관련하여 김선철(2004)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도 이번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치를 보인다.

제10항과 관련하여 받침이 ‘ㄹ’인 ‘뵤다’의 경우에 표준 발음법과의 불일치가 목격되었다. ‘뵤지’는 다른 ‘ㄹ’ 받침과는 달리 [뵤:찌]가 표준 발음인데 [뵤찌]를 64%가 선호하였다. ‘뵤고’는 [뵤:꼬]가 표준 발음인데 [뵤꼬]가 90%로 측정되었다. 또 제11항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받침이 ‘ㄹ’인 ‘맏다, 맏다’의 경우이다. ‘맏지’는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낙찌]가 올바른데, 오히려 [날찌]가 70%로서 [낙찌]보다 더 선호되었다. ‘맏지’의 경우에도 [맏찌]가 약 52%를 차지하였다. 그래서 더욱 큰 규모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검증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김선철(2004), 표준어 규범과 현실-② 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 『새국어생활』 14권 1호, 국립국어원.)

2.6 공명음 사이 ‘ㅎ’ 탈락

■ 표16. 공명음 사이 ‘ㅎ’ 탈락 ■

	발음		우세형 비율		우세형		
	표준	우세	전국	수도권	표준	비표준	표준:비표준
오해	오해	오해	86.7	86.8	*		
남해	남해	남해	61.0	62.9	*		*
은행	은행	으냉	64.7	63.9		*	*
방해	방해	방해	63.7	63.3	*		*
결혼	결혼	겨론	90.6	92.6		*	

현재 공명자음과 모음 사이의 ‘ㅎ’은 탈락이 잘 일어난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세대적 특성과도 관계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ㅎ’탈락형을 표준발음으로 인정할 경우 한자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자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므로 앞으로 발음 변화 추이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발음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현상이 있지만 표준발음에서는 수용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방법을 취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나 ‘은행’의 경우 ‘ㅎ’탈락이 더 우세한 것은 단어의 친숙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현상이 일상대화체에서 많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2.7 재구조화

■ 표17. 재구조화 ■

	발음		우세형 비율		우세형		
	표준	우세	전국	수도권	표준	비표준	표준:비표준
닭을	달글	다글	92.1	92.1		*	
여덟이	여덜비	여더리	67.6	69.6		*	
흙을	흘글	흐글	90.1	90.6		*	
무릎에	무르페	무르베	84.0	84.6		*	
부엌에	부어케	부어케	90.7	89.1		*	
낮에	나제	나제	99.3	99.2	*		
술에	수체	수테/수세/수체	51.1/20.3/18.1	50.0/21.3/18.3		*	*
솔에	소테	소테/소세/소체	51.3/41.1/3.5	49.0/44.0/3.0	*		*
넋을	넉쓸	넉쓸	87.0	89.4	*		
값을	갑쓸	갑쓸	83.2	83.9	*		

‘닭’은 모음 앞에 어떤 변인과 관련 없이 [닥]으로 실현된다. 즉, 완전히 재구조화가 되었다. 장기적으로는 [닥] 발음도 표준 발음법 개정의 참고자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표기 자체가 가지는 시각적 특수성으로 인해 아직은 이 표기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표기는 그대로 두고 표준발음에서 ‘다글’도 인정하는 것에 대해 향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덟’은 모음 앞에서 [여더리]가 약 70% 정도로 [여덜비]보다 높게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도 [여더리]가 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표준 발음법 개정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흙을’의 경우도 ‘닭’ 등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무릎’에는 보수적인 발음을 간직하기 쉬운 ‘-에’ 앞에서도 [무르베]가 80% 이상으로 우세하다. 표준어형을 ‘무릅’으로 할지, 아니면 표준발음을 복수로 인정할지, 아니면 표준 인정 발음이라고 하여 새로운 영역을 설정할지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부엌에 역시 [부어게]로 발음하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인구사회적 변인과 관련 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경우 역시 표준어형 자체를 바꾸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79년 국어심의회안에서도 ‘넋, 부엌’은 ‘넋, 부억’으로 바꾸었으나, 1984년 학술원안에서 다시 ‘넋, 부억’이 되었고 1987년 국어연구소안에서 ‘넋, 부억’으로 다시 바꾼 것을 1987년에 국어심의회에서 ‘넋, 부엌’으로 되돌려 놓은 상태이다. 이제 ‘넋, 부억’을 ‘넋, 부억’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하겠다. 표기의 변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표준 인정 발음’ 항목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낮에’는 전국적으로 변인 관련 없이 90% 이상이 [나제]이다. 혹시 [나시], [나슨] 등이 나타난다고 해도 [나제]가 있는 이상 ‘낮에’의 표준발음은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숯에’는 전국적으로 [수테]가 약 5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치](기저형이 숯이건 숯이건)가 있기 때문에 ‘숯’이라는 어형은 유지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테] 자체도 약 50% 정도이기 때문이다.

‘술에’는 [소세]에서 보듯이 ‘ㅌ’ 발음이 [ㅅ]로 변한 예가 발견된다. 10대의 경우 51.6%에서 그러한 실현을 보여준다. 그러나 60대는 25.6%만 그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넋을’과 ‘값을’은 현재 표준 발음([넋쓸], [갑쓸])을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8 용언의 활용

■ 표18. 용언의 활용 ■

	발음		우세형 비율		우세형		
	표준	우세	전국	수도권	표준	비표준	표준≠비표준
주워서	주워서	주어서/주어서/주서서	44.0/46.0/9.5	46.3/42.1/10.7	*		*
불기	불끼	불기/불끼/불기	61.1/27.1/4.8	61.7/26.4/4.4		*	
나무라요	나무라요	나무래요	77.9	78.5			
나무란다	나무란다	나무란다	59.2	60.0			
바라	바라	바래	91.5	91.1			
바란다	바란다	바란다	72.5	71.3			

‘줍다’의 활용형 ‘주워서’는 전국적으로 [주어서]와 [주워서]로 나타나는데, 이는 활용에서 ‘ㄴ 불규칙’의 문제이다. 현재의 [주워서]를 그대로 표준발음으로 유지하여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도 규칙적으로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수치이며 큰 변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대학교 재학 이상이 65.0%로 [주워서]가 높고 [주어서]는 31.7%이다. 이 경우 ‘주어서’도 인정한다면, ‘누워서’에 대해 [누어서]도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불다’는 ‘ㄷ 불규칙’ 활용을 하여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는 ‘불어[부러]’와 같이 실현된다. 그리고 피사동은 ‘불리다’로 나타난다. 이 경우 ‘불-’을 어간 기저형으로 그대로 인정할지 표준어 선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제는 개별 어형의 발음 문제라기보다는 표준어 사정의 문제이다. 표준 발음은 [불끼]이지만 그러한 발음을 보이는 경우는 4.8%에 불과하다. 어간 자체에 ‘불다’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는 ‘불다(ㄷ 불규칙)’와 ‘불다’가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는 것이다.

‘나무라요’는 인구사회적 특성과 관계 없이 ‘나무래요’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는 ‘하다/해요’처럼 불규칙활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이때 ‘애’형은 어미 ‘아/어’가 결합할 때에 해당한다. ‘나무람, 나무라니’는 ‘함/하니’처럼 ‘나무라-’를 그대로 쓰면 문제가 없다. ‘나무란다’는 전국적으로 60% 가량이 [나무란다]도 나오므로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라다’에 어미 ‘어/아’가 붙은 활용형은 표준어에서는 ‘바라’이지만 전국적으로 90% 이상이 [바래]로 실현시키고 있다. 이것 역시 불규칙활용으로 처리해서 ‘바래’를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애’형은 어미 ‘아/어’가 결합할 때 뿐이다. ‘바란다’는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항목 간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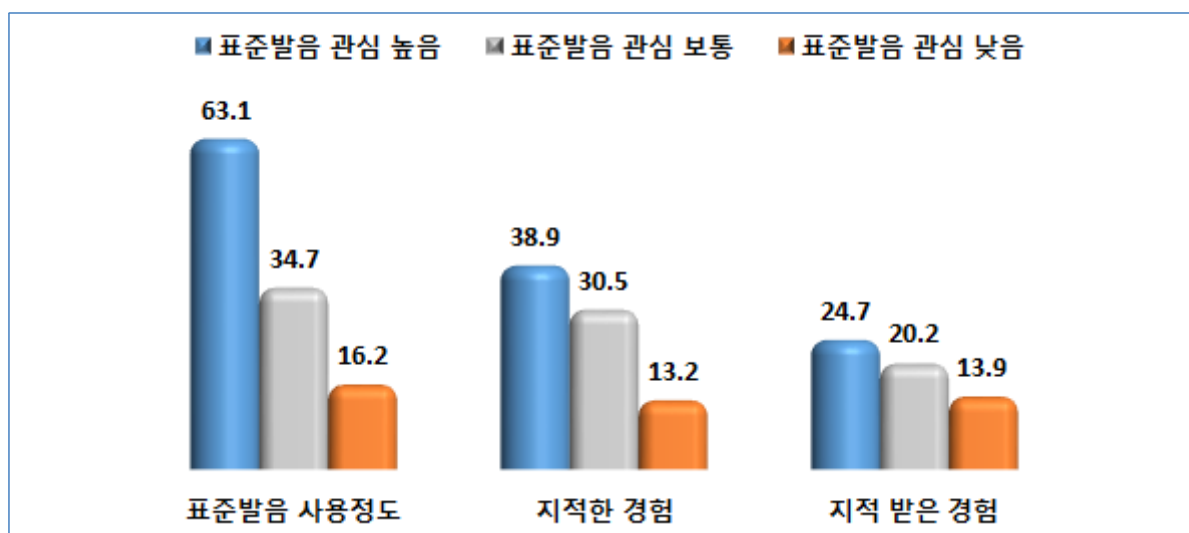
1. 표준발음 관심과 의식항목의 연관성

표준발음에 대한 관심도를 표준발음 사용정도, 지적하거나 지적받은 경험과 항목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발음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의 경우 표준발음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63.1%로 매우 높은 반면 보통의 관심도를 가진 계층에서는 34.7%만이 표준발음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경향은 비표준발음에 대해 지적하거나 지적받은 경험에서 높게 나타나 관심이 높은 계층이 관심이 낮은 계층 대비 지적경험이 뚜렷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표준발음에 대한 관심도와 본인이 표준발음을 한다는 평가 및 관련 지적경험의 연관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6 : 표준발음 관심과 의식항목 연관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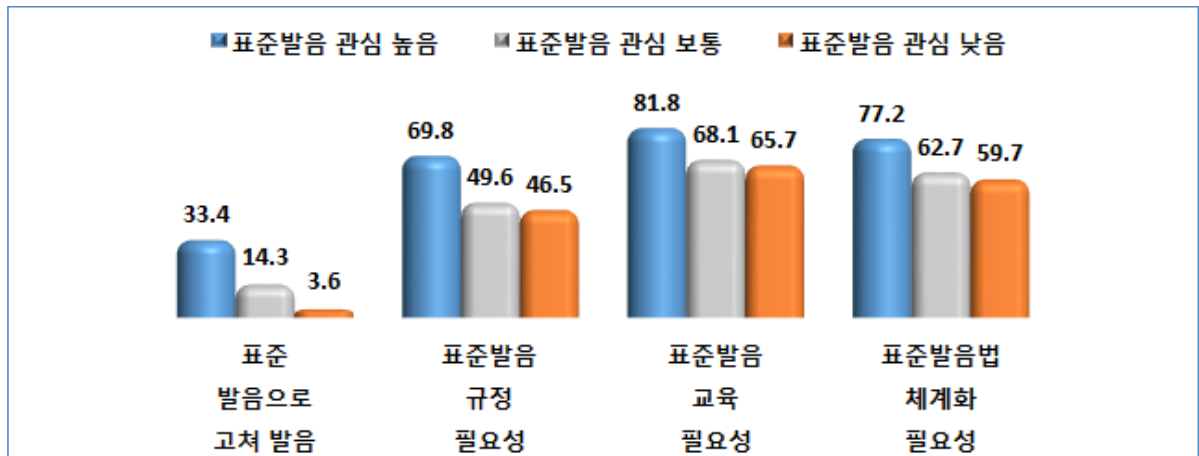


2. 표준발음 관심과 정책항목의 연관성

표준발음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본인의 발음이 비표준발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표준발음으로 고쳐 발음한다는 응답이 관심이 낮은 계층 대비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사한 경향을 표준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응답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발음에 대한 수정노력과 비교해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은 계층과 기타 계층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표준발음에 대한 현실적인 노력보다는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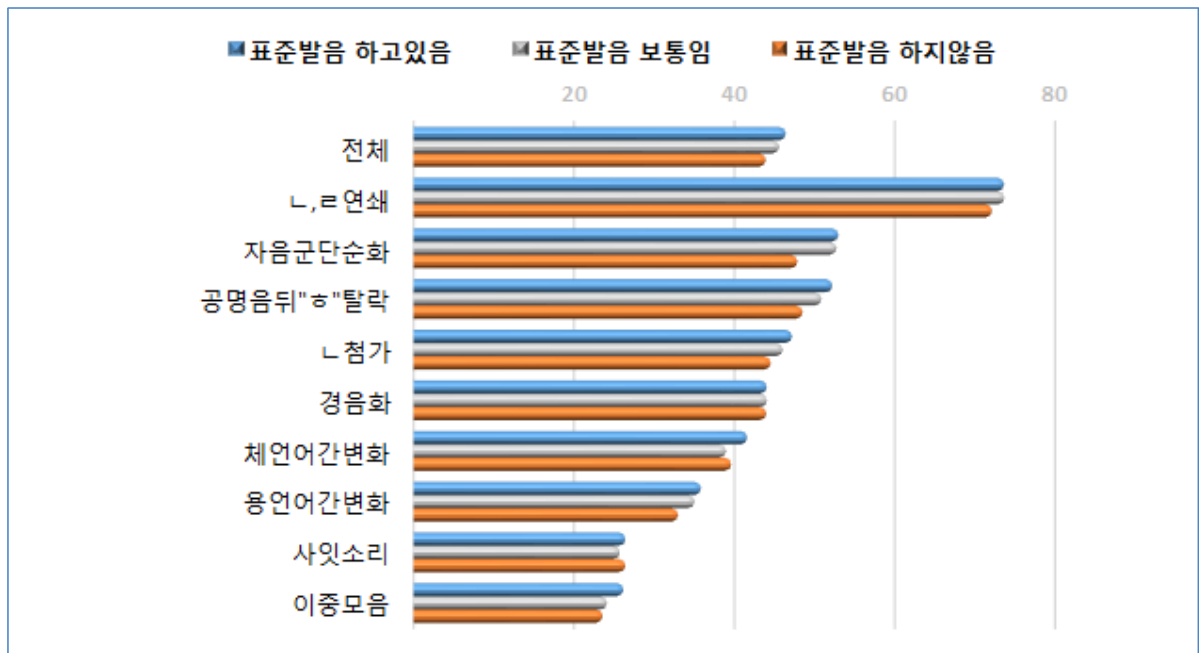
■ 그림7 : 표준발음 관심과 정책항목 연관성 ■



3. 표준발음 의식과 표준발음 일치율의 연관성

본인이 평소 표준발음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실제 본인의 발음이 표준발음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표준발음을 하고 있다는 계층에서 표준발음 일치율이 근소하게 높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표준어 발음에 대한 개인의 판단과 실제 표준발음의 연관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8 : 국어에 대한 관심도 ■



4. 표준발음 관련 지역 특성

본인이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는 수도권과 전라도에서 자라 수도권으로 유입된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서 성장한 경우에도 타 지역 대비 표준발음과 일치하는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모음’ 이나 ‘ㄴ, ㄹ 연쇄’, ‘사잇소리’ 등에서는 전라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한 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표19. 표준발음 관련 지역 특성

구분	사례수	전체 일치율	이중모음	ㄴ, ㄹ 연쇄	ㄴ 첨가	사잇소리	경음화	자음군 단순화	공명음 뒤 'ㅎ' 탈락	체언 어간 변화	용언 어간 변화
[전 체]	[2,000]	45.7	73.5	52.1	51.1	46.4	44.1	40.3	35.1	26.2	25.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6.1	73.0	53.5	51.3	48.0	42.9	40.2	35.4	27.0
	충청권(거주)	[164]	46.5	72.2	56.8	52.8	49.4	47.0	36.1	33.3	25.1
	전라권(거주)	[155]	47.9	73.8	72.3	49.9	56.4	47.3	40.1	33.4	25.6
	경상권(거주)	[414]	43.8	75.9	39.9	49.7	37.9	45.9	41.7	35.6	27.5
	강원/제주(거주)	[66]	44.8	68.7	44.4	56.4	38.1	39.1	43.0	34.9	28.0
	수도권(성장)	[883]	46.1	71.6	51.2	51.5	47.2	42.4	40.1	36.0	25.5
성장 권역별	충청권(성장)	[247]	46.1	73.2	56.5	53.2	50.2	46.4	36.4	32.4	25.3
	전라권(성장)	[273]	48.1	75.6	73.1	47.8	56.9	47.1	40.4	33.9	26.7
	경상권(성장)	[512]	43.9	76.2	41.6	50.6	38.4	45.1	42.1	35.5	27.3
	강원/제주(성장)	[85]	44.5	69.8	45.8	55.3	40.5	38.6	42.3	34.7	27.0
	수도권 토박이	[856]	46.1	71.7	51.2	51.3	47.4	42.3	40.2	36.1	25.5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유입	[345]	46.1	76.2	59.2	51.2	49.6	44.3	40.4	33.7	26.5
	지방토박이	[772]	45.2	74.3	50.0	50.7	43.9	45.8	40.5	34.7	26.8
	지방유입	[27]	45.7	67.9	49.7	58.5	41.7	45.3	36.7	35.2	24.3
	충청권유입	[95]	45.1	74.2	55.7	52.8	51.5	45.1	36.5	30.1	25.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전라권유입	[114]	48.7	78.7	74.4	46.1	56.6	46.7	41.5	35.4	28.0
	경상권유입	[113]	44.4	76.7	48.4	54.7	41.3	42.1	43.0	34.8	26.7
	강원/제주유입	[23]	44.8	69.6	52.2	52.2	47.4	40.1	38.5	34.8	24.9

4 결론 및 제언

1. 조사 결과 측면

1.1 표준발음에 대한 관심 및 인식

○ 타 영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와 실천의지

표준발음에 대한 관심도는 45.8%로 국어에 대한 4개 영역 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표준발음을 사용한다라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지만 생활 속에서 표준발음을 지적하거나 하는 경험은 31.7%로 다소 약화되고 있다. 또한 본인의 발음이 표준발음과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고치겠다는 응답(21.5%)보다는 그냥 쓰겠다는 부정적 응답(36.1%)이나 상황에 따라 쓰겠다는 유보적인 응답(42.5%)이 높게 나타났다.

1.2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 표준발음 관련 정책에 대한 높은 공감도

표준발음과 관련된 규정 및 학교교육 필요성, 체계화 필요성 측면에서 높은 공감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적인 평가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표준어와 관련된 규정이나 교육 또는 체계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이를 기존 표준어를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로 해석할 수는 없다. ‘태릉/태능’ 관련 문항에서 비표준발음이 일반화되었을 경우 복수표준을 인정하거나 일반화된 발음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3 표준발음 일치율

○ 45.7%의 표준발음 일치율과 낮은 지역/의식 연관성

표준발음 일치율의 경우 10개 영역에 대해 측정한 결과 45.7%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로 그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일치율이 높은 ‘ㄴ, ㄹ 연쇄’는 73.5%를 보인 반면 이중모음은 25.0%에 그치고 있다. 또한 표준발음 일치율은 본인의 표준발음 관심도나 수도권 등 거주지역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식과 행동의 불일치 결과를 볼 때, 일반국민들은 표준발음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발음을 표준발음으로 수정하려는 노력보다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확한 표준발음에 대한 관심 또한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발음 정책 측면

영역	제언
1. '예'의 발음	<p>* '례'는 '레'로 실현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p>
2. 'ㄴ ㄹ' 연쇄의 발음	<p>* <표준어규정>의 '해설'에서 "실제의 발음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기에 [ㄴ ㄴ]으로 발음하는 단어와 [ㄹ ㄹ]로 발음하는 단어는 개별적으로 정하여 사전에 그 발음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한냉]와 [온냉]을 복수표준발음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ㄹ'의 음을 '랭'으로만 고정시켜 둔 현재로서는, [한냉], [온냉]이 압도적인 발음은 아니므로 현재의 표준발음 [한랭], [울랭]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p> <p>* 이 문제는 한자 형태소의 발음 기준을 '랭'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다. 국어에 '냉하다'와 같은 단어가 존재하는 것을 참고로 하여 '랭'과 '냉'의 두 음이 모두 인정했다면 처음부터 '한냉', '온냉'처럼 표기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유사한 사례는 '선릉, 서오릉, 태릉'에서도 경험한 바 있다. 국어 단어에 존재하는 '능'을 한자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의 발음 [선능], [서오능], [태능]을 표기에 의해 [설릉], [서오릉], [태릉]으로 바꾸어서 발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p> <p># 향후 국립국어원에서 국어 속에서 사용되는 한자어 형태소의 표준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p>
3. 'ㄴ' 첨가	<p>* '야금야금'은 현실 발음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야그야금]을 표준 발음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고, 최소한의 수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현재의 복수표준발음 [야금야금]과 [야그야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p> <p>* '생이별'은 현재 비표준발음인 [생이별]이 90%에 이르고, '생이별'과 동일하게 '1음절 접두사+2음절 단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물인정'의 표준 발음도 [모린정]이므로 [생이별]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음 실현 상황으로 볼 때는 [생이별]만 인정해야 하겠지만, [생니별]과 [생이별]을 복수표준발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p> <p>* '선율'과 '강약'의 표준발음은 [서늘]과 [강약]이지만 [선늘]과 [강낙]이 약 70% 전후로 실현되고 있다. 이 경우는 [서늘]과 [선늘], [강약]과 [강낙]을 복수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p> <p>* [행널료]:[해결료]의 발음 비율은 이 [해결료]가 [행널료]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발음 현상은 전국 단위에서든 수도권에서든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현실을 인정하되 기존의 표준발음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복수표준발음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p> <p>* '줄균요'와 '나는야'의 경우, 규정상으로 볼 때 'ㄴ' 첨가를 인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p> <p># 이상에서 보듯이 비표준발음이 표준발음보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수도권에서 절대적으로 우세할 경우 복수표준발음을 인정하는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p> <p># 복수표준발음을 제시할 경우는 우세형을 앞에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p>

영역	제언
4. 사이시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밥, 밤새’와 같이 복수표준발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김:뽕/김밥], [밤새/밤쌔]‘처럼 <u>우세한 발음을 앞에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u> 봄직하다. * ‘<u>안간힘, 인기척</u>’은 현실발음을 인정하여 [안간힘/안간힘], [인기척/인끼척]과 같이 <u>복수표준발음을 인정</u>과 함께 발음 정보 상에 우세한 발음을 앞에 제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발음 현실을 고려한다면 ‘<u>인사말, 반대말, 편지글, 머리글</u>’은 ‘존댓말’과 동일하게 ‘<u>인삿말, 반댓말, 편짓글, 머릿글</u>’과 같이 인식되는 경향이 우세하므로 이를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u>해님</u>’은 [햇님], ‘<u>수놈</u>’은 [숫놈] 역시 현실발음 현황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법 개정 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u>숫쟁, 숫나사, 숫사돈, 숫소, 숫은행나무</u>’도 동일하다. * ‘<u>뱃멀미</u>’는 ‘<u>배멀미</u>’로 표준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u>교통체증</u>’의 ‘<u>체증[체증]</u>’과 <u>소화와 관련된 ‘체증[체증]</u>’은 서로 다른 표제어로 등재하여 후자는 [체증]으로 표준발음을 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u>교과서, 효과, 불법</u>’은 [교과서/교과서], [효과/효과], [불법/불법]과 같이 현실적으로 우세한 발음을 먼저 제시하면서 복수표준발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미등재어인 ‘<u>찜닭, 장사 일, 빨래 바구니</u>’는 각각 [찜닭], [장사일], [빨래바구니]로 표준 발음을 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 미등재어인 ‘<u>가로수 길</u>’과 ‘<u>둘레 길</u>’을 하나의 단어로 처리한다면 [가로수길], [둘레길]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지명의 ‘<u>가로수 길</u>’은 띄어쓰기를 할 수 있으므로 ‘<u>가로숫길</u>’의 표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u>둘레 길</u>’은 ‘<u>둘렛길</u>’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다. * ‘<u>살</u>’이 후행 요소인 고기의 특수 부위 관련 단어는 ‘<u>갈빗살, 뱃살</u>’처럼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경우도 ‘<u>안창살 [안창쌀], 항정살[항정쌀]</u>’의 발음에 기준을 두면 된다. ‘<u>새웃살, 갈매깃살, 불살</u>’ 등이 이에 해당한다.
	# <u>사이시옷 관련 단어들의 발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u> 가 이루어져야 한다.
	# <u>복수 표준 발음을 확대</u> 하되, <u>우세한 발음을 앞에 내세우는 방식</u>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u>표기를 바꾸지 않고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할 경우</u> , 표기와 발음의 부조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 <u>표준 인정 발음</u> ’의 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기는 그대로 두고 <u>기존의 표준발음도 그대로 두되</u> 발음 정보에 현재 <u>비표준발음</u> 이면서 <u>우세한 발음을 표준 발음과 동등하게 인정</u> 하는 방안이다. 이는 ‘ <u>위, 외</u> ’ 등에 대해 <u>단모음이면서 이중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도록</u> 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하겠다.

영역	제언
5. 겹받침	<p>* ‘ㄹ’계 겹받침의 경우는 어미 ‘-는다’의 앞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ㄹ’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것이 표준발음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 복수표준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규정은 그 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동남방언과 서남방언의 혼합으로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현재는 현실 발음과 다르기 때문에 표기를 봐도 그 발음의 표준발음은 알 수 없고 어휘에 따라 달리 기억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ㄹㄱ’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는 용언 어간이 ‘ㄱ’ 앞에 오는 경우는 ‘ㄹ’만 남는 것으로 기술하면서 복수표준발음 정책을 펼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p> <p># 용언 어간의 ‘ㄹ’계 겹받침의 표준발음법 규정은 현실발음을 고려한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p> <p># 용언 어간의 ‘ㄹ’계 겹받침은 복수표준발음을 용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p>
6. 공명음 사이 ‘ㅎ’ 탈락	<p># ‘표준발음법’에 공명음 사이의 ‘ㅎ’ 탈락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표준발음에서는 수용되지 않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자음 동화 중 조음위치 동화를 인정하지 않음을 밝힌 방식과 동일하다.</p>
7. 재구조화	<p>* ‘닭, 여덟, 흙, 무릎, 부엌, 녀’처럼 [닥], [여덟], [흙], [무릅], [부엌], [녀]으로 재구조화가 완성된 단어들은 기존의 발음과 재구조화된 어형의 발음을 모두 표준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p> <p># 분명하게 발음의 변화가 인정되지만 그러한 발음에 따라 표기를 바꾸었을 때 문자 언어 생활에 혼란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표준 인정 발음’ 항목을 사전의 발음 정보에 제시하면서 복수표준발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p>
8. 용언의 활용	<p>* “물이 불다.”의 ‘불다’는 복수표준어로 ‘불다’도 고려할 수 있겠다.</p> <p>* ‘나무라다, 바라다’는 ‘하다/해와 같은 불규칙활용어간처럼 활용되는 경향이 우세하다.</p>

3. 조사 진행 측면

본 조사는 일반적인 면접조사와는 달리, 응답자의 발음 사례를 녹음장비를 활용하여 수집하는 이례적인 조사였다. 이러한 조사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본 조사의 실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표준어 및 발음 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준비 과정이 짧지 않았음에도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향후 비슷한 성격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반드시 참고해야만 할 중요한 이슈와 개선 방향에 대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3.1 실사 준비

먼저, 본 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응답자를 섭외하는 문제였는데, 면접원의 조사 목적과 취지에 대한 안내 시에 조사 대상자는 표준 발음법에 맞는 발음을 해야 한다는 부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조사 참여를 거절하는 사례가 일반적인 면접조사 대비해서 많이 발생했다. 후술할 것이지만,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의 예상시간보다 면접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조사 중 중단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향후 동일 조사 시에는 응답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문항수를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조사에 익숙한 면접원이 좀 더 쉽게 조사 대상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설득 논리 개발과 면접원 교육 강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번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녹음 어플을 녹음 장비로 활용하였는데, 제조사에 따라 사용 가능한 어플이 달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애플 기반 스마트폰 유저 간에 녹음 장비를 통일하지 못했으며, 스마트폰 버전에 따라서도 사용가능한 어플이 달랐다. 이에 따라 어플간 녹음 품질의 편차가 발생했지만, 스마트폰 제조사나 버전이 다른 경우에도 녹음 품질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녹음과 전사를 실시하는데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 목적에 따라서는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품질의 녹음을 실시해야만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스마트폰을 활용한 발음 수집은 조사 목적을 충분히 성취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단, 조사 목적 상 필요한 녹음 품질의 수준과 조사 예산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번 조사의 특수한 성격에 대해 파악했기 때문에, 일반 면접조사 대비 더욱 강화된 면접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문항의 어려움이 높거나 면접원의 조사 포기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문항 수, 조사방법 등 조사의 난이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조사 시 조사 초반에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면접원 간 조사방법을 최대한 표준화시키는 절차를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조사 기간 중 반복적인 교육, 공지사항 전달을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3.2 실사 진행

실제적인 조사 진행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슈가 있었다. 먼저 녹음환경의 문제인데, 사전조사를 통해서 녹음 장소, 녹음 조건 등에 대한 안내를 미리 마련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다. 조사 대상자의 자택 안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집안의 소음(선풍기, 아기 등)으로 녹음 조건에 대한 지침을 지키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조사 대상자를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녹음 품질을 얻을 수 있는 특정 장소로 응답자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면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예컨대, 조사회사의 좌담회룸 같은 장소는 발음을 수집하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면접 진행 중 응답자가 탈락하는 문제이다. 이는 주로 면접 시간과 관련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수집해야 할 발음 항목 수에 따른 소요 시간이 응답자들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았다. 향후로는 응답자들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의 적정 소요 시간을 사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문항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의 문장 안에 가급적 여러 개의 발음 항목을 수집할 수 있는 조사용 문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번 조사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한 문장 내에 두 개의 발음 항목을 포함시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는 발음 항목의 난이도 문제인데,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생소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이번 조사에서 ‘핵연료’와 같은 단어는 응답자에 따라 ‘핵연료’를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지 않고, ‘핵’과 ‘연료’의 합성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는 응답자들에게 ‘핵연료’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는 빈번하게 쓰이지 않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응답자들에게는 ‘핵연료’에 대한 평소 발음이 없는 것이다. 향후 조사 시에는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범위 안에서 발음 항목을 결정한다는 원칙에 좀 더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조사기간 확보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번 조사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사 대상자의 단순 응답이나 의견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 사례를 녹음 장비를 통해 수집하는 방식의 조사였다. 조사설계 기간 소요기간에 대한 검토 과정이 있었으나, 계약된 일정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유사한 성격의 조사 진행 시에는 이번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에서 발견하게 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전적으로 전체 조사 소요기간을 적정하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주요 이슈	개선 방향
1. 조사 준비		
1. 응답자 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발음법에 맞는 발음을 해야 한다는 부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에 대한 생소함으로 응답 거절이 일반 면접조사 대비 많이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시간 축소 응답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문항수 조절 필요 면접원 교육 강화 응답자 래포 형성 및 정확한 실제 발음 측정을 위해 면접원 교육 강화 필요
2. 녹음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녹음 어플 사용 시, 스마트폰 제조사에 따라 사용 가능한 어플이 달라 녹음 품질의 편차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음기 사용 발음 녹음에 적합한 고급형 녹음기 사용이 필요 (발음 현황 수집의 목적과 조사 예산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3. 면접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조사 대비 강화된 면접원 교육을 진행했음에도 특정 문항 어려움 상승 등 조사 실패 사례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복 교육 및 초기 관리 조사 초반 집중 관리를 통해 면접원간 조사방법 표준화 필요 이후 반복 교육 및 관리 강화 필요
2. 실사 진행		
1. 녹음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용한 녹음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응답자 자택 안에서도 애완동물, 아기, 세탁기, tv, 선풍기, 에어컨 등의 소음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공간 확보 응답자의 발음과 주변 소음이 같이 녹음이 되지 않도록 녹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용한 녹음 공간 확보 필요 (응답자를 조사회사의 방음 시설과 같은 특정 공간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2. 조사 진행중 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 시간이 비교적 길어, 집중도가 떨어지고 발음이 빨라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 시간 축소 조사에 적절한 양으로 문항수로 축소 필요 하나의 문장에서 여러 발음을 녹음할 수 있는 조사용 문장 개발 필요
3. 항목 난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경우, 몇몇 항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조사 진행 상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음 조사 난이도 조정 최대한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발음 항목으로 구성
4. 조사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자의 단순 응답 수집이 아닌, 발음 사례 녹취하는 방식을 조사로 조사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조사기간 확보 조사의 특수성 감안한 적정 조사 기간 확보 필요

3장. 조사 결과 분석

1. 의식 부문

1.1 국어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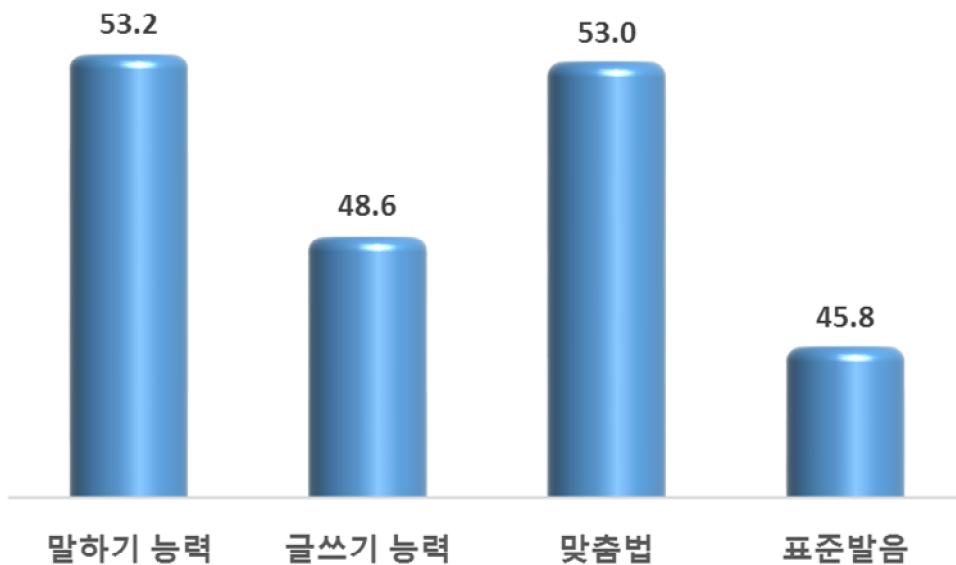
1.1.1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종합

전체 분석

-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말하기 능력'에 대한 관심이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맞춤법' 응답이 53.0%, '글쓰기 능력'이 48.6%, '표준발음' 응답이 45.8%로 나타남

■ 그림9.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종합 ■

(단위 : %)



문69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4가지 영역에 대한 관심은 공통적으로 남성 대비 여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화이트칼라 혹은 학생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20.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종합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말하기 능력	글쓰기 능력	맞춤법	표준발음
[전 체]		[2,000]	53.2	48.7	53.0	45.8
성별	남성	[1,014]	49.1	43.7	48.4	42.4
	여성	[986]	57.4	53.8	57.7	49.3
연령별	만 15-19 세	[161]	57.8	55.3	55.9	49.1
	20 대	[342]	61.1	56.1	58.8	48.0
	30 대	[386]	54.9	49.7	54.7	45.9
	40 대	[439]	51.5	44.6	51.9	46.5
	50 대	[417]	51.1	48.4	52.8	45.3
	60 대	[255]	43.5	40.0	43.1	40.4
학력별	중졸이하	[80]	37.5	33.8	37.5	30.0
	고졸이하	[848]	46.5	41.6	45.6	40.3
	대졸이하	[1,012]	59.5	54.8	59.6	51.1
	대학원이상	[60]	63.3	63.3	66.7	55.0
직업별	자영업	[350]	45.7	40.3	47.4	42.3
	블루칼라	[399]	42.4	37.1	42.4	37.3
	화이트칼라	[496]	59.9	52.8	60.1	50.6
	전업주부	[343]	55.4	54.2	53.4	47.5
	학생	[342]	62.9	59.4	61.7	50.9
	무직/기타	[70]	47.1	47.1	47.1	44.3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83.1	74.1	84.0	100.0
	보통	[781]	34.1	32.9	31.4	0.0
	무관심	[303]	12.2	12.2	15.2	0.0

계층별 상세분석

- ◆ 지역별로 살펴보면, 4가지 영역에 대한 관심은 현재 전라권에서 거주하거나 전라권에서 성장했던 응답자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남

■ 표21.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종합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말하기 능력	글쓰기 능력	맞춤법	표준발음
[전 체]		[2,000]	53.2	48.7	53.0	45.8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54.8	47.0	54.5	48.5
	충청권(거주)	[164]	51.8	47.0	42.1	42.1
	전라권(거주)	[155]	56.8	60.6	63.9	49.7
	경상권(거주)	[414]	52.2	52.2	51.7	40.3
	강원/제주(거주)	[66]	25.8	33.3	36.4	31.8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55.3	46.7	53.3	48.4
	충청권(성장)	[247]	54.7	45.3	47.8	45.3
	전라권(성장)	[273]	56.0	59.0	62.6	54.2
	경상권(성장)	[512]	51.6	51.0	53.1	39.6
	강원/제주(성장)	[85]	28.2	31.8	32.9	30.6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55.0	46.1	53.3	48.1
	수도권 유입	[345]	54.2	49.0	57.4	49.3
	지방토박이	[772]	50.4	50.8	50.6	41.3
	지방유입	[27]	63.0	63.0	55.6	55.6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60.0	44.2	57.9	52.6
	전라권유입	[114]	57.9	57.9	63.2	60.5
	경상권유입	[113]	50.4	47.8	56.6	39.8
	강원/제주유입	[23]	30.4	30.4	30.4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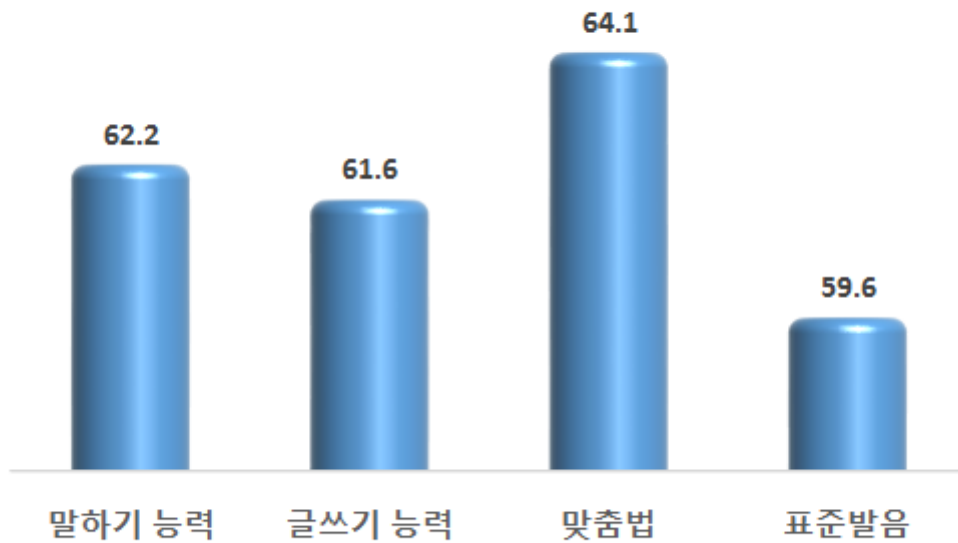
1.1.2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종합

전체 분석

-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에 대한 100점 평균 점수는 '맞춤법'이 6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말하기 능력' 응답이 62.2점, '글쓰기 능력' 응답이 61.6점, '표준발음' 59.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10.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종합 ■

(단위 : 점)



문69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계층별 상세분석

- ◆ 말하기, 글쓰기, 맞춤법, 표준발음 4가지 분야 모두 남성 대비 여성에서, 학력이 높을 수록 관심도가 높게 나타남

■ 표22.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종합

(단위 : 명, 점)

구분		사례수	말하기 능력	글쓰기 능력	맞춤법	표준발음
[전 체]		[2,000]	62.2	61.6	64.1	59.6
성별	남성	[1,014]	60.2	59.3	62.0	58.1
	여성	[986]	64.2	64.0	66.2	61.2
연령별	만 15-19 세	[161]	64.0	63.4	66.6	62.3
	20 대	[342]	65.4	65.7	66.7	60.0
	30 대	[386]	63.0	62.4	65.1	60.2
	40 대	[439]	62.1	60.6	63.8	60.4
	50 대	[417]	61.2	60.7	62.8	58.3
	60 대	[255]	57.4	57.2	60.0	57.3
학력별	중졸이하	[80]	55.9	52.8	54.7	51.9
	고졸이하	[848]	58.3	57.7	60.0	56.2
	대졸이하	[1,012]	65.5	65.1	67.7	62.7
	대학원이상	[60]	69.6	70.8	72.1	65.0
직업별	자영업	[350]	59.4	57.7	60.6	57.2
	블루칼라	[399]	57.0	55.9	59.3	55.1
	화이트칼라	[496]	65.2	64.8	67.7	62.8
	전업주부	[343]	63.0	62.7	63.6	60.1
	학생	[342]	66.7	66.4	69.1	62.4
	무직/기타	[70]	59.3	63.2	60.4	58.9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75.4	74.3	78.1	80.1
	보통	[781]	57.0	56.2	57.7	50.0
	무관심	[303]	35.7	37.3	38.1	22.5

계층별 상세분석

- ◆ 지역별로 살펴보면, 4가지 영역에 대한 관심 수준은 현재 전라권에서 거주하거나 전라권에서 성장했던 응답자, 전라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한 응답자에게서 다소 높은 점수를 보임

표23.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종합

(단위 : 명, 점)

구분		사례수	말하기 능력	글쓰기 능력	맞춤법	표준발음
[전 체]		[2,000]	62.2	61.6	64.1	59.6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62.9	61.0	64.3	60.7
	충청권(거주)	[164]	63.6	61.9	62.5	61.0
	전라권(거주)	[155]	64.0	67.6	69.8	62.1
	경상권(거주)	[414]	60.7	62.3	63.1	56.0
	강원/제주(거주)	[66]	52.3	54.5	57.2	54.2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63.1	61.1	64.3	60.8
	충청권(성장)	[247]	63.5	60.8	63.1	60.5
	전라권(성장)	[273]	63.7	66.3	68.2	63.7
	경상권(성장)	[512]	61.0	61.8	63.3	56.0
	강원/제주(성장)	[85]	52.1	54.1	55.9	53.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62.9	60.8	64.2	60.6
	수도권 유입	[345]	62.7	61.4	64.4	60.8
	지방토박이	[772]	61.0	62.4	63.7	57.7
	지방유입	[27]	66.7	69.4	67.6	67.6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63.7	59.7	64.2	60.3
	전라권유입	[114]	64.9	65.1	66.9	66.2
	경상권유입	[113]	61.7	60.4	63.9	57.3
	강원/제주유입	[23]	52.2	55.4	55.4	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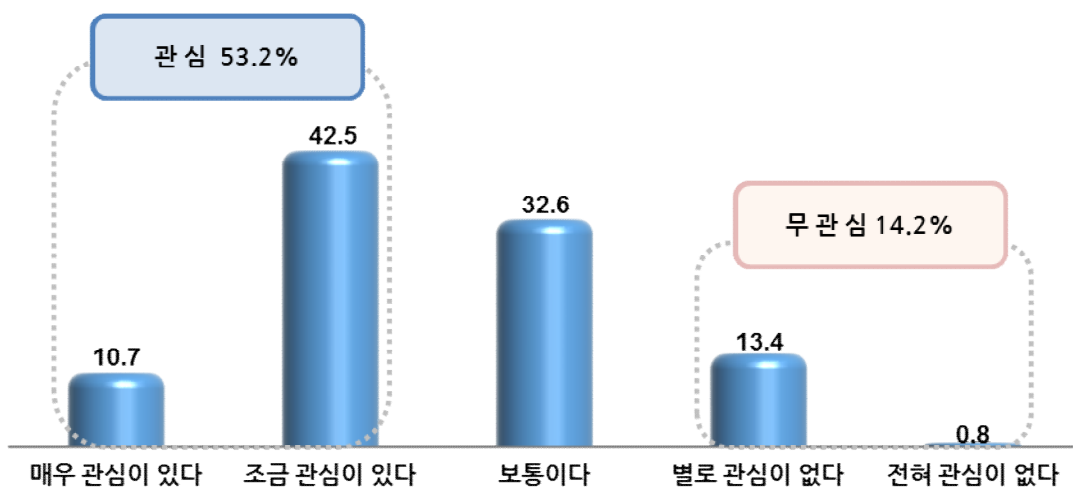
1.1.3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말하기

전체 분석

-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중 말하기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53.2%)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편, '보통' 응답은 32.6%, '무관심' 응답은 14.2% 등으로 조사되었음

■ 그림11.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말하기 ■

(단위 : %)



문69

귀하께서는 국어와 국어 사용에 관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말하기 능력 (말하는 태도, 방법 등)

계층별 상세분석

- ◆ 응답자 특성 별로 살펴보면, '관심' 비율은 여성(57.4%), 20대(61.1%), 학력이 높을수록, 화이트칼라(59.9%) 및 학생(62.9%), 표준발음 '관심'(83.1%) 응답자에게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24.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말하기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 이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무관심	보통	관심
[전 체]		[2,000]	0.8	13.4	32.6	42.5	10.7	14.2	32.6	53.2
성별	남성	[1,014]	0.9	15.2	34.8	40.3	8.8	16.1	34.8	49.1
	여성	[986]	0.8	11.5	30.3	44.7	12.7	12.3	30.3	57.4
연령별	만 15-19 세	[161]	0.6	13.0	28.6	45.3	12.4	13.7	28.6	57.8
	20 대	[342]	1.2	9.6	28.1	48.5	12.6	10.8	28.1	61.1
	30 대	[386]	0.0	12.2	32.9	45.6	9.3	12.2	32.9	54.9
	40 대	[439]	0.9	11.8	35.8	40.8	10.7	12.8	35.8	51.5
	50 대	[417]	0.7	15.3	32.9	40.5	10.6	16.1	32.9	51.1
	60 대	[255]	2.0	19.6	34.9	34.1	9.4	21.6	34.9	43.5
학력별	중졸이하	[80]	0.0	22.5	40.0	28.8	8.8	22.5	40.0	37.5
	고졸이하	[848]	1.3	18.8	33.5	38.3	8.1	20.0	33.5	46.5
	대졸이하	[1,012]	0.6	8.5	31.4	47.1	12.4	9.1	31.4	59.5
	대학원이상	[60]	0.0	6.7	30.0	41.7	21.7	6.7	30.0	63.3
직업별	자영업	[350]	0.6	15.4	38.3	37.4	8.3	16.0	38.3	45.7
	블루칼라	[399]	1.3	16.8	39.6	37.6	4.8	18.0	39.6	42.4
	화이트칼라	[496]	0.6	11.1	28.4	46.8	13.1	11.7	28.4	59.9
	전업주부	[343]	1.2	14.0	29.4	42.3	13.1	15.2	29.4	55.4
	학생	[342]	0.6	8.8	27.8	48.8	14.0	9.4	27.8	62.9
	무직/기타	[70]	1.4	18.6	32.9	35.7	11.4	20.0	32.9	47.1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0.2	1.6	15.1	62.3	20.7	1.9	15.1	83.1
	보통	[781]	0.0	9.0	57.0	31.2	2.8	9.0	57.0	34.1
	무관심	[303]	5.0	60.1	22.8	11.6	0.7	65.0	22.8	12.2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전라권에서 현재 거주하거나 성장했던(각각 56.8%, 56.0%) 응답자, 수도권 유입 경로 중 충청권 및 전라권(각각 60.0%, 57.9%) 응답자에게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음

■ 표25.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말하기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 이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무관심	보통	관심
[전 체]		[2,000]	0.9	13.4	32.6	42.5	10.7	14.2	32.6	53.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0.7	13.4	31.1	43.4	11.4	14.1	31.1	54.8
	충청권(거주)	[164]	0.0	6.1	42.1	43.3	8.5	6.1	42.1	51.8
	전라권(거주)	[155]	0.0	9.7	33.5	47.7	9.0	9.7	33.5	56.8
	경상권(거주)	[414]	2.2	15.7	30.0	41.5	10.6	17.9	30.0	52.2
	강원/제주(거주)	[66]	0.0	24.2	50.0	18.2	7.6	24.2	50.0	25.8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0.8	13.1	30.8	43.6	11.7	13.9	30.8	55.3
	충청권(성장)	[247]	0.4	10.5	34.4	44.1	10.5	10.9	34.4	54.7
	전라권(성장)	[273]	0.0	12.1	31.9	45.1	11.0	12.1	31.9	56.0
	경상권(성장)	[512]	1.8	13.9	32.8	41.6	10.0	15.6	32.8	51.6
	강원/제주(성장)	[85]	0.0	24.7	47.1	23.5	4.7	24.7	47.1	28.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0.8	13.2	31.0	43.5	11.6	14.0	31.0	55.0
	수도권 유입	[345]	0.3	13.9	31.6	43.2	11.0	14.2	31.6	54.2
	지방토박이	[772]	1.2	13.3	35.1	40.9	9.5	14.5	35.1	50.4
	지방유입	[27]	0.0	11.1	25.9	48.1	14.8	11.1	25.9	63.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0.0	16.8	23.2	48.4	11.6	16.8	23.2	60.0
	전라권유입	[114]	0.0	14.0	28.1	42.1	15.8	14.0	28.1	57.9
	경상권유입	[113]	0.9	9.7	38.9	42.5	8.0	10.6	38.9	50.4
	강원/제주유입	[23]	0.0	21.7	47.8	30.4	0.0	21.7	47.8	30.4

1.1.4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글쓰기

전체 분석

-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중 글쓰기에 대한 조사 결과, '관심' 응답이 48.6%로 과반수 가까이로 나타났고, 그 외 '보통' 응답이 35.6%, '무관심' 응답이 15.7% 등으로 나타남

■ 그림12.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글쓰기 ■



문69

귀하께서는 국어와 국어 사용에 관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2) 글쓰기 능력 (자기 의사를 글로 표현하기)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관심'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59.4%), 표준 발음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음

■ 표26.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글쓰기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 이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무관심	보통	관심
[전 체]		[2,000]	0.9	14.8	35.6	34.2	14.5	15.7	35.6	48.6
성별	남성	[1,014]	0.9	17.0	38.5	31.4	12.3	17.9	38.5	43.7
	여성	[986]	0.9	12.6	32.8	37.0	16.7	13.5	32.8	53.8
연령별	만 15-19 세	[161]	0.6	14.3	29.8	41.6	13.7	14.9	29.8	55.3
	20 대	[342]	0.9	10.8	32.2	36.8	19.3	11.7	32.2	56.1
	30 대	[386]	1.0	12.7	36.5	35.0	14.8	13.7	36.5	49.7
	40 대	[439]	1.1	11.4	42.8	33.0	11.6	12.5	42.8	44.6
	50 대	[417]	1.2	17.7	32.6	34.1	14.4	18.9	32.6	48.4
	60 대	[255]	0.0	24.7	35.3	26.7	13.3	24.7	35.3	40.0
학력별	중졸이하	[80]	0.0	32.5	33.8	23.8	10.0	32.5	33.8	33.8
	고졸이하	[848]	1.2	19.6	37.6	30.5	11.1	20.8	37.6	41.6
	대졸이하	[1,012]	0.8	10.1	34.3	37.6	17.2	10.9	34.3	54.8
	대학원이상	[60]	0.0	3.3	33.3	40.0	23.3	3.3	33.3	63.3
직업별	자영업	[350]	0.6	19.7	39.4	28.9	11.4	20.3	39.4	40.3
	블루칼라	[399]	1.0	20.1	41.9	28.6	8.5	21.1	41.9	37.1
	화이트칼라	[496]	0.8	9.3	37.1	35.7	17.1	10.1	37.1	52.8
	전업주부	[343]	1.5	16.6	27.7	38.2	16.0	18.1	27.7	54.2
	학생	[342]	0.9	9.4	30.4	41.8	17.5	10.2	30.4	59.4
	무직/기타	[70]	0.0	17.1	35.7	24.3	22.9	17.1	35.7	47.1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0.0	3.6	22.3	47.3	26.9	3.6	22.3	74.1
	보통	[781]	0.5	12.0	54.5	28.0	4.9	12.5	54.5	32.9
	무관심	[303]	4.6	55.8	27.4	10.2	2.0	60.4	27.4	12.2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관심'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60.6%), 전라권(성장)(59.0%) 등으로 나타남

■ 표27.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글쓰기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 이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무관심	보통	관심
[전 체]		[2,000]	0.9	14.8	35.7	34.2	14.5	15.7	35.7	48.7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0.8	15.8	36.4	32.5	14.5	16.7	36.4	47.0
	충청권(거주)	[164]	0.0	7.9	45.1	38.4	8.5	7.9	45.1	47.0
	전라권(거주)	[155]	0.0	9.0	30.3	41.9	18.7	9.0	30.3	60.6
	경상권(거주)	[414]	1.9	15.0	30.9	36.2	15.9	16.9	30.9	52.2
	강원/제주(거주)	[66]	0.0	25.8	40.9	22.7	10.6	25.8	40.9	33.3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0.9	15.3	37.1	31.9	14.7	16.2	37.1	46.7
	충청권(성장)	[247]	0.0	13.0	41.7	34.4	10.9	13.0	41.7	45.3
	전라권(성장)	[273]	0.7	11.0	29.3	40.3	18.7	11.7	29.3	59.0
	경상권(성장)	[512]	1.6	15.2	32.2	36.5	14.5	16.8	32.2	51.0
	강원/제주(성장)	[85]	0.0	24.7	43.5	22.4	9.4	24.7	43.5	31.8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0.9	15.5	37.4	31.7	14.5	16.5	37.4	46.1
	수도권 유입	[345]	0.6	16.5	33.9	34.5	14.5	17.1	33.9	49.0
	지방토박이	[772]	1.0	13.5	34.7	36.5	14.2	14.5	34.7	50.8
	지방유입	[27]	0.0	7.4	29.6	40.7	22.2	7.4	29.6	63.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0.0	18.9	36.8	30.5	13.7	18.9	36.8	44.2
	전라권유입	[114]	1.8	13.2	27.2	38.6	19.3	14.9	27.2	57.9
	경상권유입	[113]	0.0	17.7	34.5	36.3	11.5	17.7	34.5	47.8
	강원/제주유입	[23]	0.0	17.4	52.2	21.7	8.7	17.4	52.2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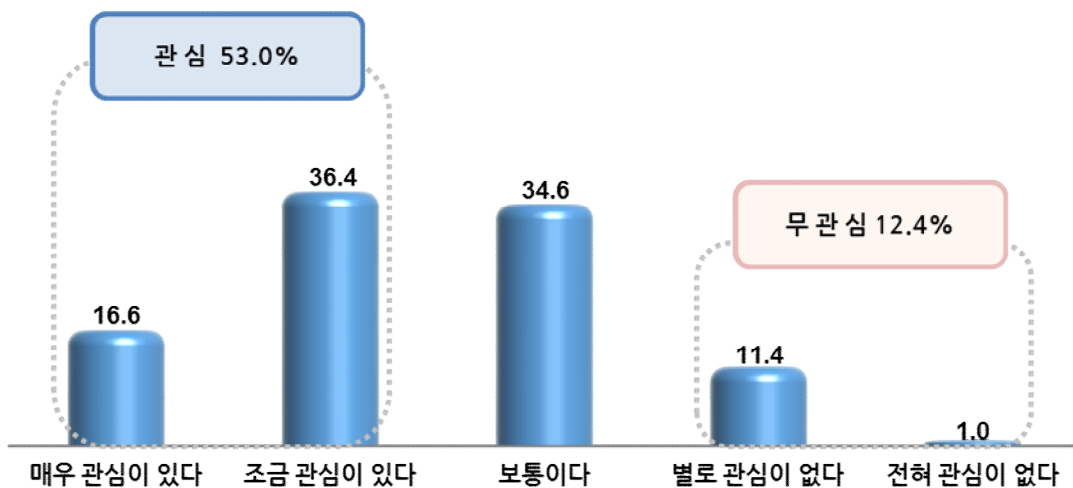
1.1.5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맞춤법

전체 분석

-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중 맞춤법에 대한 조사 결과, '관심' 응답이 53.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던 한편, '보통' 응답이 34.6%, '무관심' 응답이 12.4% 등으로 나타남

■ 그림13.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맞춤법 ■

(단위 : %)



문69

귀하께서는 국어와 국어 사용에 관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3) 맞춤법 (정확하게 쓰기)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화이트칼라(60.1%) 및 학생(61.7%), 표준발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맞춤법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28.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맞춤법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 이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무관심	보통	관심
[전 체]		[2,000]	1.0	11.4	34.6	36.4	16.6	12.4	34.6	53.0
성별	남성	[1,014]	0.6	13.5	37.5	34.1	14.3	14.1	37.5	48.4
	여성	[986]	1.3	9.3	31.6	38.6	19.1	10.6	31.6	57.7
연령별	만 15-19 세	[161]	1.2	6.8	36.0	36.0	19.9	8.1	36.0	55.9
	20 대	[342]	0.9	11.4	28.9	37.7	21.1	12.3	28.9	58.8
	30 대	[386]	0.8	9.3	35.2	38.1	16.6	10.1	35.2	54.7
	40 대	[439]	0.9	9.1	38.0	37.6	14.4	10.0	38.0	51.9
	50 대	[417]	1.0	14.9	31.4	37.6	15.1	15.8	31.4	52.8
	60 대	[255]	1.2	16.1	39.6	27.8	15.3	17.3	39.6	43.1
학력별	중졸이하	[80]	5.0	18.8	38.8	27.5	10.0	23.8	38.8	37.5
	고졸이하	[848]	1.2	15.4	37.7	33.4	12.3	16.6	37.7	45.6
	대졸이하	[1,012]	0.5	7.9	32.0	39.3	20.3	8.4	32.0	59.6
	대학원이상	[60]	0.0	5.0	28.3	40.0	26.7	5.0	28.3	66.7
직업별	자영업	[350]	1.1	13.1	38.3	36.9	10.6	14.3	38.3	47.4
	블루칼라	[399]	0.5	16.0	41.1	30.3	12.0	16.5	41.1	42.4
	화이트칼라	[496]	0.6	8.3	31.0	39.9	20.2	8.9	31.0	60.1
	전업주부	[343]	2.0	11.1	33.5	37.0	16.3	13.1	33.5	53.4
	학생	[342]	0.6	7.3	30.4	38.6	23.1	7.9	30.4	61.7
	무직/기타	[70]	1.4	21.4	30.0	28.6	18.6	22.9	30.0	47.1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0.0	1.0	15.1	54.4	29.6	1.0	15.1	84.0
	보통	[781]	0.1	7.0	61.5	24.8	6.5	7.2	61.5	31.4
	무관심	[303]	5.9	54.5	24.4	11.6	3.6	60.4	24.4	15.2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관심'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63.9%), 전라권(성장)(62.6%), 전라권유입(63.2%) 등으로 나타남

■ 표29.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맞춤법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 이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무관심	보통	관심
[전 체]		[2,000]	1.0	11.5	34.6	36.4	16.7	12.4	34.6	53.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0.4	12.6	32.6	38.5	16.0	13.0	32.6	54.5
	충청권(거주)	[164]	0.0	4.3	53.7	29.9	12.2	4.3	53.7	42.1
	전라권(거주)	[155]	0.0	7.1	29.0	41.3	22.6	7.1	29.0	63.9
	경상권(거주)	[414]	3.4	11.6	33.3	32.6	19.1	15.0	33.3	51.7
	강원/제주(거주)	[66]	0.0	18.2	45.5	25.8	10.6	18.2	45.5	36.4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0.3	12.1	34.2	36.7	16.6	12.5	34.2	53.3
	충청권(성장)	[247]	0.4	8.5	43.3	34.0	13.8	8.9	43.3	47.8
	전라권(성장)	[273]	0.4	9.2	27.8	42.5	20.1	9.5	27.8	62.6
	경상권(성장)	[512]	2.7	11.7	32.4	35.7	17.4	14.5	32.4	53.1
	강원/제주(성장)	[85]	0.0	18.8	48.2	23.5	9.4	18.8	48.2	32.9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0.4	12.1	34.2	36.9	16.4	12.5	34.2	53.3
	수도권 유입	[345]	0.6	13.6	28.4	42.3	15.1	14.2	28.4	57.4
	지방토박이	[772]	1.8	9.7	37.8	33.3	17.4	11.5	37.8	50.6
	지방유입	[27]	0.0	11.1	33.3	29.6	25.9	11.1	33.3	55.6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1.1	13.7	27.4	43.2	14.7	14.7	27.4	57.9
	전라권유입	[114]	0.9	11.4	24.6	45.6	17.5	12.3	24.6	63.2
	경상권유입	[113]	0.0	15.0	28.3	42.5	14.2	15.0	28.3	56.6
	강원/제주유입	[23]	0.0	17.4	52.2	21.7	8.7	17.4	52.2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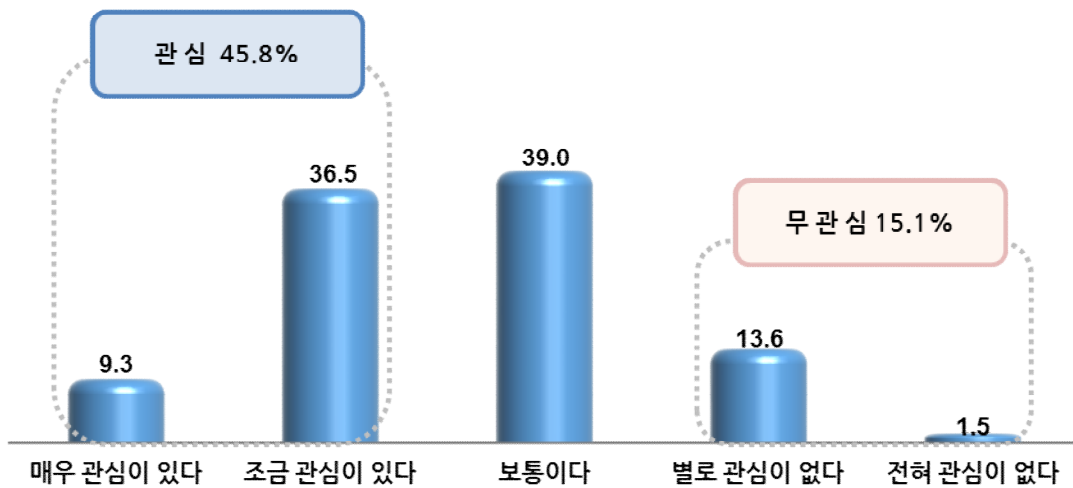
1.1.6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표준 발음

전체 분석

-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중 표준 발음에 대한 '관심' 비율은 45.8%로 나타나, 타 국어 분야(글쓰기나 말하기, 맞춤법)에 대비 소폭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한편 '보통' 응답은 39.0%, '무관심' 응답은 15.2% 등으로 조사됨

■ 그림14.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표준 발음 ■

(단위 : %)



문70

귀하께서는 국어와 국어 사용에 관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4) 표준 발음 (표준 발음으로 말하기)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표준 발음에 대한 '관심' 비율은 여성(49.3%), 학력이 높을수록, 화이트칼라(50.6%) 및 학생(50.9%)에게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표30.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표준 발음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 이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무관심	보통	관심
[전 체]		[2,000]	1.5	13.6	39.0	36.5	9.3	15.2	39.0	45.8
성별	남성	[1,014]	1.8	14.9	40.9	34.0	8.4	16.7	40.9	42.4
	여성	[986]	1.2	12.4	37.1	39.0	10.2	13.6	37.1	49.3
연령별	만 15-19 세	[161]	1.2	10.6	39.1	36.0	13.0	11.8	39.1	49.1
	20 대	[342]	2.0	12.6	37.4	39.2	8.8	14.6	37.4	48.0
	30 대	[386]	0.5	13.2	40.4	36.5	9.3	13.7	40.4	45.9
	40 대	[439]	1.1	10.7	41.7	38.5	8.0	11.8	41.7	46.5
	50 대	[417]	2.2	16.5	36.0	36.5	8.9	18.7	36.0	45.3
	60 대	[255]	2.0	18.0	39.6	29.8	10.6	20.0	39.6	40.4
학력별	중졸이하	[80]	1.2	28.8	40.0	21.2	8.8	30.0	40.0	30.0
	고졸이하	[848]	1.9	18.2	39.6	33.8	6.5	20.0	39.6	40.3
	대졸이하	[1,012]	1.3	8.8	38.8	39.8	11.3	10.1	38.8	51.1
	대학원이상	[60]	0.0	11.7	33.3	38.3	16.7	11.7	33.3	55.0
직업별	자영업	[350]	2.0	14.9	40.9	36.9	5.4	16.9	40.9	42.3
	블루칼라	[399]	2.3	18.0	42.4	31.8	5.5	20.3	42.4	37.3
	화이트칼라	[496]	0.8	11.1	37.5	37.3	13.3	11.9	37.5	50.6
	전업주부	[343]	1.7	13.1	37.6	38.2	9.3	14.9	37.6	47.5
	학생	[342]	1.2	9.4	38.6	40.4	10.5	10.5	38.6	50.9
	무직/기타	[70]	0.0	24.3	31.4	28.6	15.7	24.3	31.4	44.3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0.0	0.0	0.0	79.7	20.3	0.0	0.0	100.0
	보통	[781]	0.0	0.0	100.0	0.0	0.0	0.0	100.0	0.0
	무관심	[303]	9.9	90.1	0.0	0.0	0.0	100.0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관심'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성장)(54.2%), 전라권유입(60.5%) 등으로 나타남

표31. 응답자 특성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표준 발음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 이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무관심	보통	관심
[전 체]		[2,000]	1.5	13.7	39.1	36.5	9.3	15.2	39.1	45.8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1.7	11.9	38.0	39.1	9.4	13.6	38.0	48.5
	충청권(거주)	[164]	0.0	4.9	53.0	35.4	6.7	4.9	53.0	42.1
	전라권(거주)	[155]	0.0	8.4	41.9	42.6	7.1	8.4	41.9	49.7
	경상권(거주)	[414]	2.4	22.7	34.5	29.2	11.1	25.1	34.5	40.3
	강원/제주(거주)	[66]	0.0	22.7	45.5	24.2	7.6	22.7	45.5	31.8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1.9	10.9	38.8	38.7	9.6	12.8	38.8	48.4
	충청권(성장)	[247]	0.8	9.7	44.1	37.2	8.1	10.5	44.1	45.3
	전라권(성장)	[273]	0.0	10.3	35.5	43.2	11.0	10.3	35.5	54.2
	경상권(성장)	[512]	2.1	20.9	37.3	30.3	9.4	23.0	37.3	39.6
	강원/제주(성장)	[85]	0.0	21.2	48.2	27.1	3.5	21.2	48.2	30.6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2.0	11.1	38.8	38.8	9.3	13.1	38.8	48.1
	수도권 유입	[345]	0.9	13.9	35.9	39.7	9.6	14.8	35.9	49.3
	지방토박이	[772]	1.3	16.7	40.7	32.5	8.8	18.0	40.7	41.3
	지방유입	[27]	0.0	3.7	40.7	37.0	18.5	3.7	40.7	55.6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2.1	14.7	30.5	45.3	7.4	16.8	30.5	52.6
	전라권유입	[114]	0.0	12.3	27.2	43.9	16.7	12.3	27.2	60.5
	경상권유입	[113]	0.9	15.0	44.2	33.6	6.2	15.9	44.2	39.8
	강원/제주유입	[23]	0.0	13.0	60.9	26.1	0.0	13.0	60.9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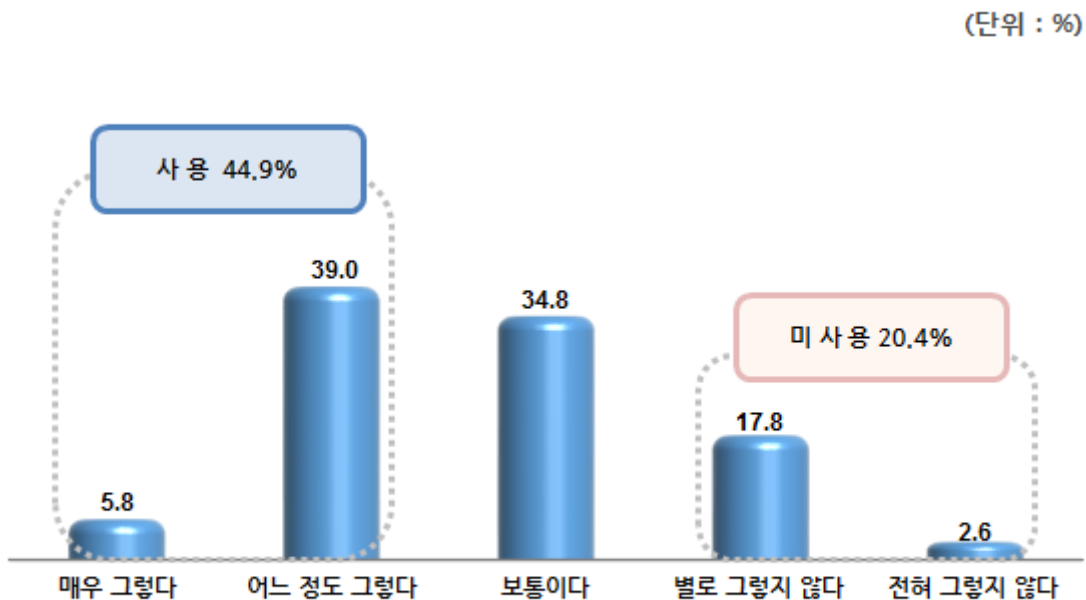
1.2. 표준발음 인식

1.2.1 평소 표준 발음 사용 정도

전체 분석

- ◆ 평소에 표준 발음 사용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소 표준 발음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44.9%(매우 5.8% + 어느 정도 39.0%)로 나타난 한편, '보통' 34.8%, '사용하지 않는다' 20.4% 등으로 조사됨

■ 그림15. 평소 표준 발음 사용 정도 ■



문71

귀하께서는 평소 표준 발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평소 표준 발음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 (50.3%), 대졸이하(51.6%), 표준 발음 '관심'(63.1%) 응답자 등으로 나타남

표32. 응답자 특성 : 평소 표준 발음 사용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전 체]		[2,000]	2.6	17.8	34.8	39.0	5.8	20.4	34.8	44.9
성별	남성	[1,014]	2.7	18.4	34.5	39.3	5.0	21.1	34.5	44.4
	여성	[986]	2.4	17.1	35.0	38.7	6.7	19.6	35.0	45.4
연령별	만 15-19 세	[161]	0.6	14.3	38.5	37.9	8.7	14.9	38.5	46.6
	20 대	[342]	1.8	14.0	33.9	43.6	6.7	15.8	33.9	50.3
	30 대	[386]	1.8	16.3	33.4	42.5	6.0	18.1	33.4	48.4
	40 대	[439]	2.5	17.8	32.6	41.7	5.5	20.3	32.6	47.2
	50 대	[417]	2.9	20.9	36.9	34.1	5.3	23.7	36.9	39.3
	60 대	[255]	5.5	22.4	35.7	32.2	4.3	27.8	35.7	36.5
학력별	중졸이하	[80]	7.5	20.0	38.8	31.2	2.5	27.5	38.8	33.8
	고졸이하	[848]	3.5	21.5	37.1	32.9	5.0	25.0	37.1	37.9
	대졸이하	[1,012]	1.5	14.8	32.1	44.9	6.7	16.3	32.1	51.6
	대학원이상	[60]	0.0	13.3	40.0	38.3	8.3	13.3	40.0	46.7
직업별	자영업	[350]	4.0	22.3	35.1	35.1	3.4	26.3	35.1	38.6
	블루칼라	[399]	2.5	21.3	35.8	36.8	3.5	23.8	35.8	40.4
	화이트칼라	[496]	1.8	13.7	33.1	45.0	6.5	15.5	33.1	51.4
	전업주부	[343]	3.8	19.5	32.7	36.2	7.9	23.3	32.7	44.0
	학생	[342]	0.9	14.0	35.4	40.9	8.8	14.9	35.4	49.7
	무직/기타	[70]	2.9	14.3	45.7	34.3	2.9	17.1	45.7	37.1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0.2	9.1	27.6	53.8	9.3	9.3	27.6	63.1
	보통	[781]	2.3	16.8	46.2	31.5	3.2	19.1	46.2	34.7
	무관심	[303]	10.2	46.9	26.7	13.9	2.3	57.1	26.7	16.2

계층별 상세분석

- ◆ 지역/권역별 분석에서 평소 표준 발음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수도권(성장)(61.3%), 수도권 토박이(61.6%) 응답자에게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33. 응답자 특성 : 평소 표준 발음 사용 정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 이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무관심	보통	관심
[전 체]		[2,000]	2.6	17.8	34.8	39.1	5.9	20.4	34.8	44.9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0.3	12.7	30.8	47.1	9.0	13.1	30.8	56.1
	충청권(거주)	[164]	0.0	7.9	54.3	36.0	1.8	7.9	54.3	37.8
	전라권(거주)	[155]	3.2	21.3	34.2	40.0	1.3	24.5	34.2	41.3
	경상권(거주)	[414]	9.4	32.4	37.4	20.0	0.7	41.8	37.4	20.8
	강원/제주(거주)	[66]	4.5	34.8	42.4	16.7	1.5	39.4	42.4	18.2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0.1	9.9	28.8	50.7	10.5	10.0	28.8	61.3
	충청권(성장)	[247]	0.4	11.3	48.2	37.2	2.8	11.7	48.2	40.1
	전라권(성장)	[273]	1.8	17.6	35.5	41.0	4.0	19.4	35.5	45.1
	경상권(성장)	[512]	8.0	32.2	37.1	21.5	1.2	40.2	37.1	22.7
	강원/제주(성장)	[85]	3.5	32.9	41.2	22.4	0.0	36.5	41.2	22.4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0.0	10.0	28.4	50.9	10.6	10.0	28.4	61.6
	수도권 유입	[345]	1.2	19.4	36.8	37.7	4.9	20.6	36.8	42.6
	지방토박이	[772]	6.0	26.2	40.7	26.3	0.9	32.1	40.7	27.2
	지방유입	[27]	3.7	3.7	40.7	44.4	7.4	7.4	40.7	51.9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1.1	14.7	40.0	40.0	4.2	15.8	40.0	44.2
	전라권유입	[114]	0.0	14.0	36.0	42.1	7.9	14.0	36.0	50.0
	경상권유입	[113]	2.7	29.2	33.6	31.0	3.5	31.9	33.6	34.5
	강원/제주유입	[23]	0.0	17.4	43.5	39.1	0.0	17.4	43.5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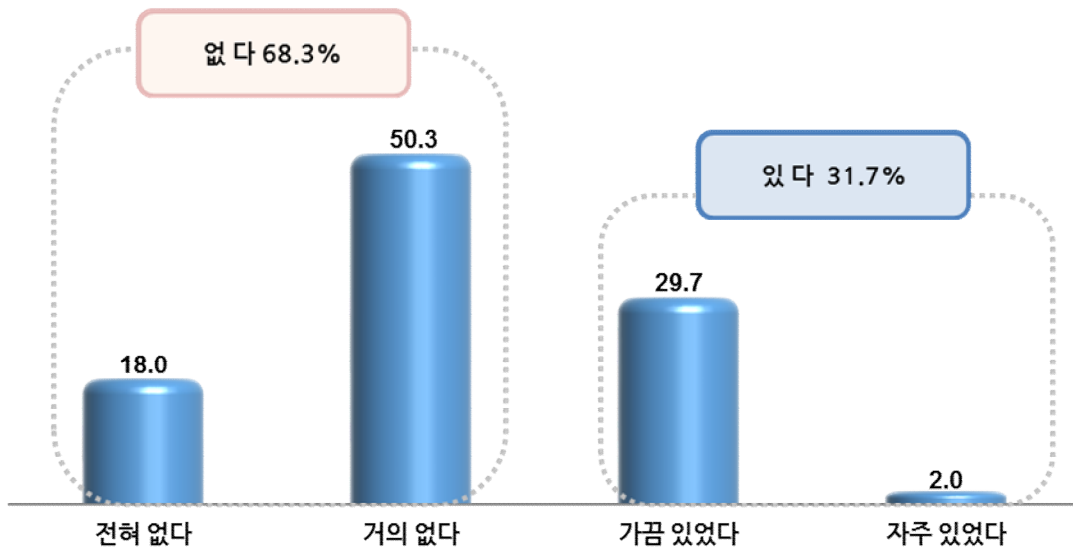
1.2.2 잘못된 발음 지적한 경험

전체 분석

- ◆ 평소 발음 관련해서 주변사람의 잘못된 발음을 지적하거나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적해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8.3%로, 지적 경험이 '있다'는 응답(31.7%) 대비 높게 나타남

■ 그림16. 잘못된 발음 지적한 경험 ■

(단위 : %)



문72

평소 우리말 발음과 관련해 주변 사람의 잘못된 발음에 대해 지적하거나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없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중졸이하(73.8%), 블루칼라(75.4%), 표준 발음 '무관심'(86.8%) 응답자, '있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37.4%), 학생(37.4%), 표준 발음 '관심'(38.9%) 응답자 등으로 나타남

■ 표34. 응답자 특성 : 잘못된 발음 지적한 경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없다	있다
[전 체]		[2,000]	18.0	50.3	29.7	2.0	68.3	31.7
성별	남성	[1,014]	17.1	51.3	29.9	1.8	68.3	31.7
	여성	[986]	19.0	49.3	29.5	2.2	68.3	31.7
연령별	만 15-19 세	[161]	18.0	47.8	32.9	1.2	65.8	34.2
	20 대	[342]	16.7	45.9	34.2	3.2	62.6	37.4
	30 대	[386]	17.1	52.3	29.5	1.0	69.4	30.6
	40 대	[439]	19.6	53.3	25.1	2.1	72.9	27.1
	50 대	[417]	17.7	48.9	30.9	2.4	66.7	33.3
	60 대	[255]	18.8	51.8	27.8	1.6	70.6	29.4
학력별	중졸이하	[80]	23.8	50.0	25.0	1.2	73.8	26.2
	고졸이하	[848]	19.0	53.1	26.7	1.3	72.1	27.9
	대졸이하	[1,012]	17.0	47.8	32.6	2.6	64.8	35.2
	대학원이상	[60]	13.3	53.3	30.0	3.3	66.7	33.3
직업별	자영업	[350]	21.7	45.7	30.3	2.3	67.4	32.6
	블루칼라	[399]	16.3	59.1	24.1	0.5	75.4	24.6
	화이트칼라	[496]	16.5	48.6	32.3	2.6	65.1	34.9
	전업주부	[343]	20.7	50.4	26.8	2.0	71.1	28.9
	학생	[342]	17.0	45.6	34.8	2.6	62.6	37.4
	무직/기타	[70]	11.4	57.1	30.0	1.4	68.6	31.4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17.4	43.8	35.8	3.1	61.1	38.9
	보통	[781]	16.3	53.3	29.1	1.4	69.5	30.5
	무관심	[303]	24.4	62.4	12.9	0.3	86.8	13.2

계층별 상세분석

- ◆ 지역별 분석에서 '없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성장/유입)(각각 71.2%, 71.8%, 73.9%), '있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 유입(36.5%), 충청권유입(36.8%), 전라권유입(37.7%), 경상권유입(37.2%) 등으로 나타남

표35. 응답자 특성 : 잘못된 발음 지적한 경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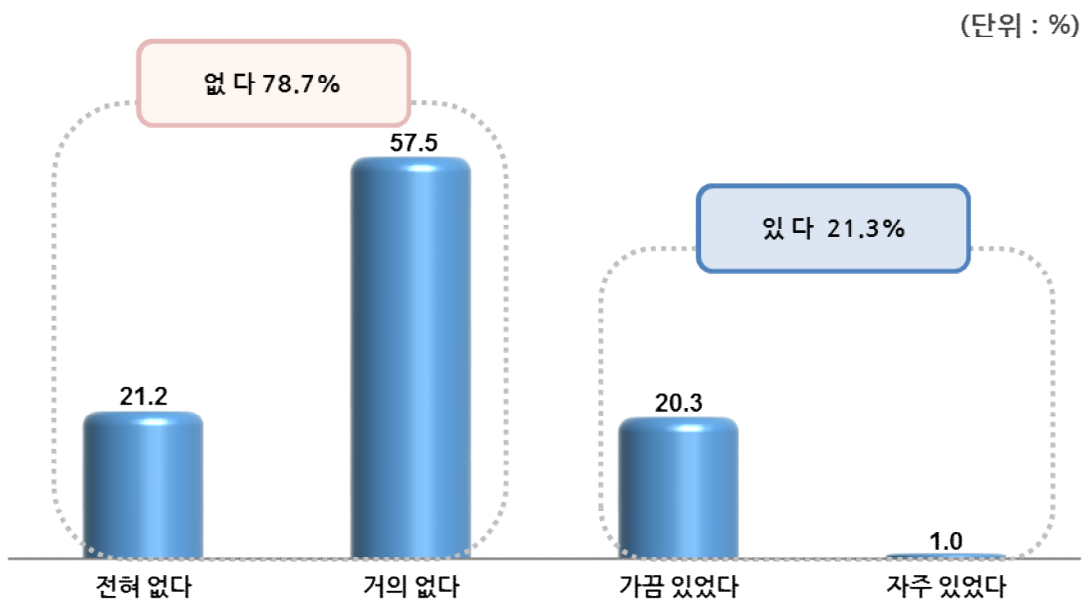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없다	있다
[전 체]		[2,000]	18.0	50.3	29.7	2.0	68.3	31.7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19.8	48.1	30.1	2.0	67.9	32.1
	충청권(거주)	[164]	12.2	60.4	27.4	0.0	72.6	27.4
	전라권(거주)	[155]	28.4	41.3	27.7	2.6	69.7	30.3
	경상권(거주)	[414]	12.3	54.3	30.7	2.7	66.7	33.3
	강원/제주(거주)	[66]	10.6	60.6	27.3	1.5	71.2	28.8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21.6	48.0	28.8	1.6	69.6	30.4
	충청권(성장)	[247]	13.0	56.3	29.6	1.2	69.2	30.8
	전라권(성장)	[273]	21.6	44.3	31.9	2.2	65.9	34.1
	경상권(성장)	[512]	13.5	52.7	30.9	2.9	66.2	33.8
	강원/제주(성장)	[85]	10.6	61.2	25.9	2.4	71.8	28.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21.7	48.0	28.6	1.6	69.7	30.3
	수도권 유입	[345]	15.1	48.4	33.6	2.9	63.5	36.5
	지방토박이	[772]	15.2	53.8	29.0	2.1	68.9	31.1
	지방유입	[27]	18.5	48.1	33.3	0.0	66.7	33.3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13.7	49.5	33.7	3.2	63.2	36.8
	전라권유입	[114]	15.8	46.5	36.0	1.8	62.3	37.7
	경상권유입	[113]	15.9	46.9	33.6	3.5	62.8	37.2
	강원/제주유입	[23]	13.0	60.9	21.7	4.3	73.9	26.1

1.2.3 잘못된 발음 지적받은 경험

전체 분석

- ◆ 응답자의 대부분(78.7%)은 평소 주변사람에게서 잘못된 발음 지적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한편, 지적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1.3%로 조사됨

■ 그림17. 잘못된 발음 지적받은 경험 ■



문73

그럼 본인의 우리말 발음과 관련해 주변 사람에게서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없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대학원이상(88.3%), 표준발음 '무관심'(86.1%) 응답자 등으로 나타남. 반면, '있다' 응답은 50대(24.9%), 무직/기타(24.3%), 표준발음 관심(24.7%) 응답자에게서 비교적 높았음

표36. 응답자 특성 : 잘못된 발음 지적받은 경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없다	있다
[전 체]		[2,000]	21.2	57.5	20.3	1.0	78.7	21.3
성별	남성	[1,014]	20.5	58.5	19.7	1.3	79.0	21.0
	여성	[986]	21.9	56.5	20.9	0.7	78.4	21.6
연령별	만 15-19 세	[161]	19.3	58.4	21.1	1.2	77.6	22.4
	20 대	[342]	21.6	55.8	21.9	0.6	77.5	22.5
	30 대	[386]	21.5	59.1	18.1	1.3	80.6	19.4
	40 대	[439]	20.7	60.1	18.2	0.9	80.9	19.1
	50 대	[417]	19.9	55.2	23.7	1.2	75.1	24.9
	60 대	[255]	24.3	56.1	18.8	0.8	80.4	19.6
학력별	중졸이하	[80]	21.2	60.0	17.5	1.2	81.2	18.8
	고졸이하	[848]	21.5	56.1	21.7	0.7	77.6	22.4
	대졸이하	[1,012]	21.0	57.8	20.0	1.2	78.9	21.1
	대학원이상	[60]	20.0	68.3	10.0	1.7	88.3	11.7
직업별	자영업	[350]	24.0	52.0	23.1	0.9	76.0	24.0
	블루칼라	[399]	19.8	59.9	19.3	1.0	79.7	20.3
	화이트칼라	[496]	21.0	59.7	19.0	0.4	80.6	19.4
	전업주부	[343]	22.2	57.4	19.0	1.5	79.6	20.4
	학생	[342]	20.8	56.4	21.6	1.2	77.2	22.8
	무직/기타	[70]	14.3	61.4	21.4	2.9	75.7	24.3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20.6	54.7	24.0	0.7	75.3	24.7
	보통	[781]	20.2	59.5	19.0	1.3	79.8	20.2
	무관심	[303]	25.4	60.7	12.5	1.3	86.1	13.9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없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87.9%), 강원/제주(성장)(84.7%), '있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 유입(30.4%), 충청권유입(28.4%), 경상권유입(41.6%) 등으로 나타남

■ 표37. 응답자 특성 : 잘못된 발음 지적받은 경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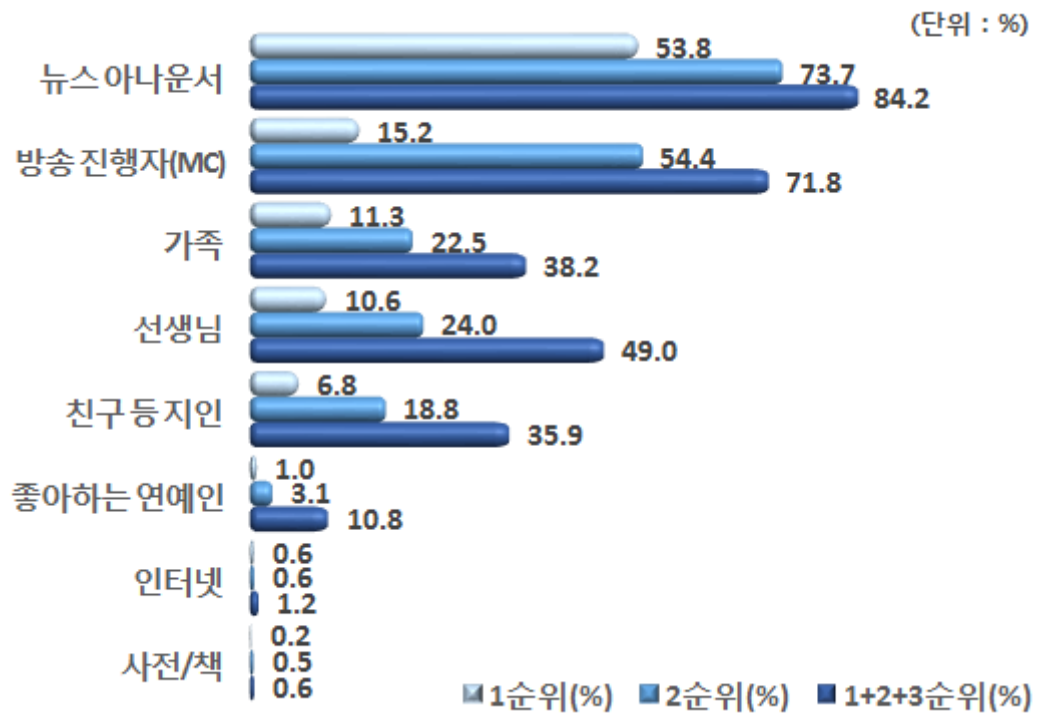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없다	있다
[전 체]		[2,000]	21.2	57.5	20.3	1.0	78.7	21.3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23.2	56.5	19.4	0.9	79.7	20.3
	충청권(거주)	[164]	14.6	68.3	17.1	0.0	82.9	17.1
	전라권(거주)	[155]	32.9	43.9	21.9	1.3	76.8	23.2
	경상권(거주)	[414]	14.5	58.9	24.9	1.7	73.4	26.6
	강원/제주(거주)	[66]	15.2	72.7	12.1	0.0	87.9	12.1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25.7	58.1	15.5	0.7	83.8	16.2
	충청권(성장)	[247]	17.0	61.1	21.1	0.8	78.1	21.9
	전라권(성장)	[273]	24.5	52.4	21.6	1.5	76.9	23.1
	경상권(성장)	[512]	14.5	55.7	28.3	1.6	70.1	29.9
	강원/제주(성장)	[85]	16.5	68.2	15.3	0.0	84.7	15.3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25.8	57.9	15.5	0.7	83.8	16.2
	수도권 유입	[345]	16.8	52.8	29.0	1.4	69.6	30.4
	지방토박이	[772]	18.0	58.9	21.9	1.2	76.9	23.1
	지방유입	[27]	22.2	63.0	14.8	0.0	85.2	14.8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17.9	53.7	26.3	2.1	71.6	28.4
	전라권유입	[114]	16.7	59.6	21.9	1.8	76.3	23.7
	경상권유입	[113]	15.0	43.4	40.7	0.9	58.4	41.6
	강원/제주유입	[23]	21.7	60.9	17.4	0.0	82.6	17.4

1.2.4 발음 기준 매체/정보원

전체 분석

- ◆ 본인의 발음에 기준이 되는 매체/정보원(1순위 기준)으로 '뉴스 아나운서'를 지목한 비율이 과반수 이상(5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방송 진행자(MC)'가 15.2%, '가족'이 11.3%, '선생님'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18. 발음 기준 매체/정보원



문73

평소 본인의 발음과 관련해서 가장 기준이 되는 매체 또는 정보원은 어디입니까? 우선순위로 3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뉴스 아나운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62.8%), 표준발음 관심(56.8%), '가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중졸이하(21.2%), 표준발음 무관심(17.8%) 응답자 등으로 나타남

■ 표38. 응답자 특성 : 발음 기준 매체/정보원1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뉴스 아나운서	방송 진행자 (MC)	선생님	좋아 하는 연예인	가족	친구 등 지인	인터넷	교과서	사전/ 책	TV 방송	없다
[전 체]		[2,000]	53.8	15.2	10.6	1.0	11.3	6.8	0.6	0.0	0.2	0.0	0.2
성별	남성	[1,014]	52.2	16.1	10.9	0.8	10.7	8.1	0.7	0.0	0.4	0.0	0.2
	여성	[986]	55.6	14.4	10.3	1.1	12.0	5.5	0.5	0.1	0.1	0.1	0.3
연령별	만 15-19 세	[161]	36.0	11.2	28.6	1.2	9.9	12.4	0.0	0.0	0.6	0.0	0.0
	20 대	[342]	45.9	17.0	15.8	0.9	9.6	8.8	1.2	0.3	0.3	0.0	0.3
	30 대	[386]	51.3	18.1	9.6	0.8	11.1	7.8	1.0	0.0	0.0	0.0	0.3
	40 대	[439]	57.4	15.3	6.2	2.1	12.1	5.5	0.9	0.0	0.5	0.0	0.2
	50 대	[417]	62.8	12.2	7.7	0.5	12.0	4.3	0.0	0.0	0.0	0.2	0.2
	60 대	[255]	58.8	16.1	6.7	0.0	12.2	5.5	0.0	0.0	0.4	0.0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45.0	6.2	18.8	0.0	21.2	7.5	0.0	0.0	0.0	0.0	1.2
	고졸이하	[848]	55.0	14.4	10.3	1.1	11.6	7.0	0.2	0.0	0.2	0.1	0.2
	대졸이하	[1,012]	53.4	17.0	10.6	1.0	10.1	6.6	0.9	0.1	0.3	0.0	0.1
	대학원이상	[60]	58.3	10.0	6.7	0.0	15.0	6.7	1.7	0.0	0.0	0.0	1.7
직업별	자영업	[350]	57.4	15.1	6.6	0.6	12.9	6.9	0.0	0.0	0.3	0.0	0.3
	블루칼라	[399]	53.9	18.8	7.5	1.0	10.8	6.5	1.3	0.0	0.3	0.0	0.0
	화이트칼라	[496]	57.7	15.9	9.5	0.6	9.3	5.8	0.2	0.0	0.2	0.0	0.8
	전업주부	[343]	56.9	12.5	9.3	1.5	14.6	4.1	0.9	0.0	0.0	0.3	0.0
	학생	[342]	40.1	12.3	22.5	1.5	10.8	11.4	0.9	0.3	0.3	0.0	0.0
	무직/기타	[70]	61.4	18.6	5.7	0.0	7.1	5.7	0.0	0.0	1.4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56.8	14.5	12.6	1.2	8.2	5.5	0.8	0.1	0.2	0.1	0.1
	보통	[781]	51.3	17.5	9.3	0.8	12.4	7.6	0.4	0.0	0.4	0.0	0.3
	무관심	[303]	51.5	11.6	8.3	0.7	17.8	8.9	0.7	0.0	0.0	0.0	0.7

계층별 상세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뉴스 아나운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성장)(64.1%), 수도권 유입(62.6%), 충청권유입(65.3%), 전라권유입(70.2%), '방송 진행자(MC)'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31.7%), 충청권(성장)(24.7%), '가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16.4%), 강원/제주(거주)(18.2%), 경상권유입(15.9%) 등으로 나타남

표39. 응답자 특성 : 발음 기준 매체/정보원1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뉴스 아나 운서	방송 진행자 (MC)	선생님	좋아 하는 연예인	가족	친구 등 지인	인터넷	교과서	사전/ 책	TV 방송	없다
[전 체]		[2,000]	53.8	15.2	10.6	1.0	11.3	6.8	0.6	0.0	0.2	0.0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57.4	13.1	10.9	1.2	10.2	6.1	0.7	0.0	0.4	0.1	0.1
	충청권(거주)	[164]	40.2	31.7	15.2	1.8	7.9	3.0	0.0	0.0	0.0	0.0	0.0
	전라권(거주)	[155]	58.7	12.3	14.2	0.6	7.1	7.1	0.0	0.0	0.0	0.0	0.0
	경상권(거주)	[414]	48.6	17.9	7.2	0.0	16.4	9.2	0.7	0.0	0.0	0.0	0.0
	강원/제주(거주)	[66]	45.5	4.5	7.6	1.5	18.2	13.6	1.5	1.5	0.0	0.0	6.1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54.4	14.0	11.4	1.4	10.8	6.6	0.8	0.1	0.3	0.1	0.1
	충청권(성장)	[247]	50.2	24.7	12.1	1.6	8.1	2.8	0.4	0.0	0.0	0.0	0.0
	전라권(성장)	[273]	64.1	10.3	11.4	0.7	6.6	6.2	0.0	0.0	0.7	0.0	0.0
	경상권(성장)	[512]	49.8	16.6	8.2	0.2	15.6	9.0	0.6	0.0	0.0	0.0	0.0
	강원/제주(성장)	[85]	50.6	8.2	10.6	0.0	15.3	9.4	1.2	0.0	0.0	0.0	4.7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55.3	13.6	11.4	1.3	10.5	6.5	0.8	0.0	0.4	0.1	0.1
	수도권 유입	[345]	62.6	11.9	9.6	0.9	9.3	4.9	0.3	0.0	0.6	0.0	0.0
	지방토박이	[772]	49.4	18.1	10.2	0.5	12.8	7.9	0.5	0.0	0.0	0.0	0.5
	지방유입	[27]	25.9	29.6	11.1	3.7	18.5	7.4	0.0	3.7	0.0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65.3	13.7	8.4	1.1	8.4	2.1	1.1	0.0	0.0	0.0	0.0
	전라권유입	[114]	70.2	10.5	8.8	0.9	5.3	2.6	0.0	0.0	1.8	0.0	0.0
	경상권유입	[113]	53.1	11.5	9.7	0.9	15.9	8.8	0.0	0.0	0.0	0.0	0.0
	강원/제주유입	[23]	60.9	13.0	17.4	0.0	0.0	8.7	0.0	0.0	0.0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뉴스 아나운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82.3%), 60대(79.6%), '방송 진행자(MC)'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60.4%), '선생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41.0%), 대학원이상(35.0%), 학생(38.3%) 등으로 나타남

■ 표40. 응답자 특성 : 발음 기준 매체/정보원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뉴스 아나 운서	방송 진행자 (MC)	선생님	좋아 하는 연예인	가족	친구 등 지인	인터넷	교과서	사전/ 책	신문	TV 방송	없다
[전 체]		[2,000]	73.7	54.4	24.0	3.1	22.5	18.8	0.6	0.0	0.5	0.0	0.0	0.2
성별	남성	[1,014]	72.4	53.6	24.4	3.3	21.8	20.8	0.8	0.0	0.8	0.1	0.0	0.2
	여성	[986]	75.1	55.3	23.7	2.9	23.2	16.8	0.5	0.1	0.2	0.0	0.1	0.3
연령별	만 15-19 세	[161]	53.4	40.4	41.0	9.3	27.3	26.1	0.0	0.0	1.2	0.0	0.0	0.0
	20 대	[342]	68.7	51.8	31.0	3.2	20.5	19.6	1.5	0.3	1.2	0.0	0.0	0.3
	30 대	[386]	72.8	54.7	24.9	1.8	22.3	20.7	1.0	0.0	0.3	0.0	0.0	0.3
	40 대	[439]	74.3	56.3	22.1	3.2	22.3	17.5	0.9	0.0	0.5	0.0	0.0	0.2
	50 대	[417]	82.3	56.1	19.7	2.6	22.5	15.1	0.0	0.0	0.0	0.0	0.2	0.2
	60 대	[255]	79.6	60.4	13.3	1.6	22.7	18.8	0.0	0.0	0.4	0.4	0.0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61.2	40.0	25.0	3.8	33.8	31.2	0.0	0.0	0.0	1.2	0.0	1.2
	고졸이하	[848]	74.1	54.1	23.8	3.8	23.0	19.1	0.2	0.0	0.4	0.0	0.1	0.2
	대졸이하	[1,012]	74.3	56.6	23.5	2.6	21.2	17.6	1.0	0.1	0.6	0.0	0.0	0.1
	대학원이상	[60]	75.0	40.0	35.0	1.7	21.7	20.0	1.7	0.0	1.7	0.0	0.0	1.7
직업별	자영업	[350]	77.7	55.7	18.6	2.3	23.7	20.0	0.0	0.0	0.3	0.3	0.0	0.3
	블루칼라	[399]	75.2	58.1	22.6	3.3	19.8	18.3	1.3	0.0	0.8	0.0	0.0	0.0
	화이트칼라	[496]	76.8	57.5	22.8	1.2	20.2	17.1	0.2	0.0	0.4	0.0	0.0	0.8
	전업주부	[343]	78.1	55.7	20.7	2.9	25.1	15.2	0.9	0.0	0.0	0.0	0.3	0.0
	학생	[342]	57.3	42.7	38.3	6.7	25.7	24.6	1.2	0.3	0.9	0.0	0.0	0.0
	무직/기타	[70]	81.4	55.7	15.7	2.9	20.0	18.6	0.0	0.0	1.4	0.0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77.1	54.0	28.1	3.4	19.2	14.8	0.9	0.1	0.5	0.0	0.1	0.1
	보통	[781]	72.3	55.2	22.0	2.8	23.4	20.9	0.4	0.0	0.6	0.1	0.0	0.3
	무관심	[303]	67.0	53.5	17.2	3.0	30.0	25.7	0.7	0.0	0.0	0.0	0.0	0.7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뉴스 아나운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성장)(86.1%), 충청권유입(83.2%), 전라권유입(93.0%), '방송 진행자(MC)'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64.6%), 충청권(성장)(61.9%), '선생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유입(29.5%) 등으로 나타남

표41. 응답자 특성 : 발음 기준 매체/정보원1+2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뉴스 아나 운서	방송 진행자 (MC)	선생님	좋아 하는 연예인	가족	친구 등 지인	인터넷	교과서	사전/ 책	신문	TV 방송	없다
[전 체]		[2,000]	73.7	54.4	24.0	3.1	22.5	18.8	0.6	0.0	0.5	0.0	0.0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77.0	54.5	24.5	2.5	20.4	18.0	0.7	0.0	0.7	0.0	0.1	0.1
	충청권(거주)	[164]	69.5	64.6	27.4	6.7	20.1	11.0	0.0	0.0	0.0	0.0	0.0	0.0
	전라권(거주)	[155]	81.9	55.5	28.4	1.3	18.1	12.9	0.0	0.0	0.6	0.0	0.0	0.0
	경상권(거주)	[414]	65.2	52.7	20.3	4.1	29.0	25.1	0.7	0.0	0.2	0.2	0.0	0.0
	강원/제주(거주)	[66]	57.6	36.4	21.2	3.0	36.4	28.8	1.5	1.5	0.0	0.0	0.0	6.1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74.3	54.1	25.1	2.8	21.6	18.2	0.9	0.1	0.7	0.0	0.1	0.1
	충청권(성장)	[247]	74.9	61.9	27.1	4.9	17.8	12.1	0.4	0.0	0.0	0.0	0.0	0.0
	전라권(성장)	[273]	86.1	55.7	24.2	1.5	17.6	13.2	0.0	0.0	1.1	0.0	0.0	0.0
	경상권(성장)	[512]	66.8	52.1	20.9	3.9	27.7	25.2	0.6	0.0	0.2	0.2	0.0	0.0
	강원/제주(성장)	[85]	65.9	44.7	22.4	1.2	29.4	24.7	1.2	0.0	0.0	0.0	0.0	4.7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74.8	54.0	25.2	2.8	21.5	18.0	0.9	0.0	0.7	0.0	0.1	0.1
	수도권 유입	[345]	82.6	55.7	22.6	1.7	17.7	18.0	0.3	0.0	0.6	0.0	0.0	0.0
	지방토박이	[772]	69.0	54.1	23.4	4.0	25.6	19.9	0.5	0.0	0.3	0.1	0.0	0.5
	지방유입	[27]	59.3	59.3	22.2	3.7	25.9	25.9	0.0	3.7	0.0	0.0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83.2	56.8	29.5	1.1	15.8	12.6	1.1	0.0	0.0	0.0	0.0	0.0
	전라권유입	[114]	93.0	59.6	19.3	1.8	13.2	11.4	0.0	0.0	1.8	0.0	0.0	0.0
	경상권유입	[113]	70.8	49.6	21.2	2.7	24.8	28.3	0.0	0.0	0.0	0.0	0.0	0.0
	강원/제주유입	[23]	87.0	60.9	17.4	0.0	13.0	21.7	0.0	0.0	0.0	0.0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뉴스 아나운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91.8%), '선생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64.6%), 대학원이상(58.3%), 학생(62.0%) 등으로 나타남.

■ 표42. 응답자 특성 : 발음 기준 매체/정보원1+2+3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뉴스 아나 운서	방송 진행자 (MC)	선생님	좋아 하는 연예인	가족	친구 등 지인	인터넷	교과서	사전/ 책	신문	TV 방송	스마 트폰	없다
[전 체]		[2,000]	84.2	71.8	49.0	10.8	38.2	35.9	1.2	0.0	0.6	0.1	0.1	0.0	0.2
성별	남성	[1,014]	84.7	70.4	49.1	10.7	37.8	36.6	1.2	0.0	0.9	0.1	0.0	0.1	0.2
	여성	[986]	83.8	73.2	48.9	11.1	38.6	35.2	1.3	0.1	0.3	0.1	0.2	0.0	0.3
연령별	만 15-19 세	[161]	70.2	61.5	64.6	18.0	37.9	38.5	1.2	0.0	1.2	0.0	0.0	0.6	0.0
	20 대	[342]	78.7	70.5	55.8	12.9	32.2	37.4	2.6	0.3	1.2	0.3	0.0	0.0	0.3
	30 대	[386]	84.2	71.5	52.8	8.5	35.2	39.6	1.8	0.0	0.3	0.0	0.0	0.0	0.3
	40 대	[439]	85.2	73.1	45.1	10.9	41.0	33.5	1.4	0.0	0.5	0.0	0.0	0.0	0.2
	50 대	[417]	91.8	74.6	43.6	7.9	41.0	33.8	0.2	0.0	0.5	0.0	0.5	0.0	0.2
	60 대	[255]	86.7	73.7	39.6	11.8	41.6	34.1	0.0	0.0	0.4	0.4	0.0	0.0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72.5	60.0	50.0	12.5	43.8	42.5	0.0	0.0	0.0	1.2	0.0	0.0	1.2
	고졸이하	[848]	85.7	73.5	48.0	12.4	39.3	34.6	0.2	0.0	0.4	0.0	0.2	0.1	0.2
	대졸이하	[1,012]	84.2	71.8	49.2	9.6	36.8	36.5	2.1	0.1	0.8	0.1	0.0	0.0	0.1
	대학원이상	[60]	80.0	63.3	58.3	8.3	40.0	36.7	3.3	0.0	1.7	0.0	0.0	0.0	1.7
직업별	자영업	[350]	88.3	74.3	46.0	9.7	41.4	34.9	0.0	0.0	0.3	0.3	0.0	0.0	0.3
	블루칼라	[399]	88.7	75.9	46.9	10.3	36.6	34.8	1.8	0.0	0.8	0.0	0.0	0.0	0.0
	화이트칼라	[496]	85.5	72.4	46.4	8.9	37.3	36.1	0.6	0.0	0.6	0.2	0.2	0.0	0.8
	전업주부	[343]	85.7	72.9	46.6	10.2	42.3	33.5	1.2	0.0	0.3	0.0	0.3	0.0	0.0
	학생	[342]	70.8	63.2	62.0	16.7	35.7	38.9	2.9	0.3	0.9	0.0	0.0	0.3	0.0
	무직/기타	[70]	88.6	68.6	42.9	8.6	30.0	42.9	1.4	0.0	1.4	0.0	0.0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86.4	73.1	53.1	11.7	34.0	31.8	1.6	0.1	0.8	0.1	0.2	0.1	0.1
	보통	[781]	82.6	72.1	46.5	10.6	40.8	38.0	0.9	0.0	0.6	0.1	0.0	0.0	0.3
	무관심	[303]	82.2	67.0	43.2	8.9	44.2	42.9	1.0	0.0	0.0	0.0	0.0	0.0	0.7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뉴스 아나운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90.3%), 전라권(성장)(92.3%), 충청권유입(91.6%), 전라권유입(95.6%), '방송 진행자(MC)'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77.4%), 충청권(성장)(77.7%), 충청권유입(77.9%), 전라권유입(78.9%), '선생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60.0%), 충청권유입(54.7%) 등으로 나타남.

■ 표43. 응답자 특성 : 발음 기준 매체/정보원1+2+3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뉴스 아나 운서	방송 진행자 (MC)	선생님	좋아 하는 연예인	가족	친구 등 지인	인터넷	교과서	사전/ 책	신문	TV 방송	스마 트폰	없다
[전 체]	[2,000]	84.2	71.8	49.0	10.8	38.2	35.9	1.2	0.0	0.6	0.1	0.1	0.0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86.9	72.9	50.8	8.4	35.1	36.1	1.7	0.0	0.8	0.1	0.1	0.0
	충청권(거주)	[164]	82.3	77.4	44.5	14.0	52.4	26.8	0.0	0.0	0.0	0.0	0.0	0.0
	전라권(거주)	[155]	90.3	76.1	60.0	7.1	31.6	26.5	0.0	0.0	0.6	0.0	0.0	0.0
	경상권(거주)	[414]	76.3	68.8	41.3	18.4	43.2	40.6	1.0	0.0	0.2	0.2	0.2	0.0
	강원/제주(거주)	[66]	75.8	47.0	50.0	9.1	43.9	48.5	1.5	1.5	0.0	0.0	0.0	6.1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85.6	71.8	51.5	8.4	35.8	36.4	1.9	0.1	0.8	0.1	0.1	0.0
	충청권(성장)	[247]	85.4	77.7	48.6	13.8	44.1	25.5	0.4	0.0	0.4	0.0	0.0	0.0
	전라권(성장)	[273]	92.3	76.2	53.8	8.1	31.5	31.5	0.4	0.0	1.1	0.0	0.0	0.0
	경상권(성장)	[512]	77.7	68.9	41.8	16.2	43.0	41.0	1.0	0.0	0.2	0.2	0.2	0.0
	강원/제주(성장)	[85]	80.0	57.6	51.8	4.7	38.8	44.7	1.2	0.0	0.0	0.0	0.0	4.7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85.9	71.7	51.8	8.1	35.4	36.4	2.0	0.0	0.8	0.1	0.1	0.0
	수도권 유입	[345]	89.6	75.7	48.4	9.3	34.2	35.1	0.9	0.0	0.9	0.0	0.0	0.0
	지방토박이	[772]	80.3	70.1	46.4	14.4	42.7	35.8	0.6	0.0	0.3	0.1	0.1	0.5
	지방유입	[27]	77.8	74.1	44.4	18.5	48.1	33.3	0.0	3.7	0.0	0.0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91.6	77.9	54.7	12.6	31.6	25.3	1.1	0.0	1.1	0.0	0.0	0.0
	전라권유입	[114]	95.6	78.9	48.2	9.6	28.9	34.2	0.9	0.0	1.8	0.0	0.0	0.0
	경상권유입	[113]	82.3	69.0	43.4	8.0	42.5	43.4	0.9	0.0	0.0	0.0	0.0	0.0
	강원/제주유입	[23]	87.0	82.6	47.8	0.0	30.4	39.1	0.0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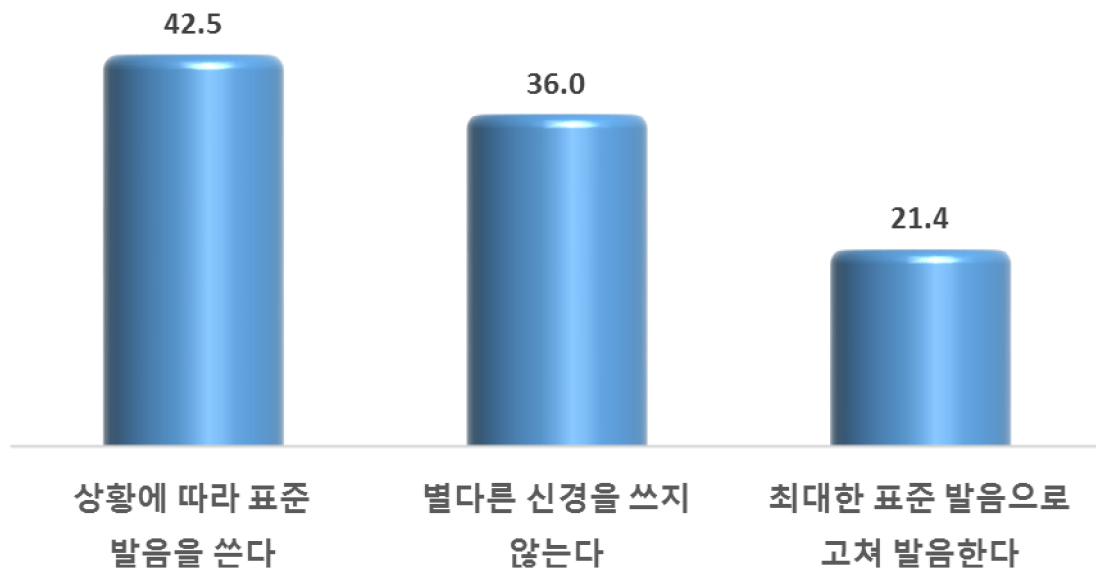
1.2.5 표준 발음이 아님을 인식했을 때의 행동

전체 분석

- ◆ 평소 사용하던 발음이 표준 발음이 아님을 인식했을 때의 행동에 대한 조사 결과, '상황에 따라 표준 발음을 쓴다' 응답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응답이 36.0%, '최대한 표준 발음으로 고쳐 발음한다'는 응답이 21.4%로 조사됨

■ 그림19. 표준 발음이 아님을 인식했을 때의 행동 ■

(단위 : %)



문75

만약, 본인이 평소 하던 발음이 표준 발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귀하께서는 어떻게 행동 하시는 편입니까?

계층별 상세분석

- ◆ '상황에 따라 표준 발음을 쓴다' 응답은 대학원이상(51.7%),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응답은 60대(45.5%), 중졸이하(57.5%), 자영업(44.0%), 표준발음 무관심(68.3%) 응답자, '최대한 고쳐 발음한다'는 2-30대, 학력이 높을수록, 표준발음 관심(33.4%) 응답자에게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44.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이 아님을 인식했을 때의 행동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상황에 따라 표준 발음을 쓴다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최대한 표준 발음으로 고쳐 발음한다
[전 체]		[2,000]	42.5	36.0	21.4
성별	남성	[1,014]	42.5	39.4	18.0
	여성	[986]	42.5	32.6	24.9
연령별	만 15-19 세	[161]	39.8	38.5	21.7
	20 대	[342]	44.4	30.4	25.1
	30 대	[386]	43.5	31.9	24.6
	40 대	[439]	44.9	35.5	19.6
	50 대	[417]	42.9	38.4	18.7
	60 대	[255]	35.3	45.5	19.2
학력별	중졸이하	[80]	30.0	57.5	12.5
	고졸이하	[848]	43.8	38.3	17.9
	대졸이하	[1,012]	41.9	33.3	24.8
	대학원이상	[60]	51.7	21.7	26.7
직업별	자영업	[350]	39.4	44.0	16.6
	블루칼라	[399]	45.9	37.8	16.3
	화이트칼라	[496]	45.6	31.2	23.2
	전업주부	[343]	40.2	35.0	24.8
	학생	[342]	40.6	34.5	24.9
	무직/기타	[70]	37.1	32.9	3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47.3	19.3	33.4
	보통	[781]	42.5	43.1	14.3
	무관심	[303]	28.1	68.3	3.6

계층별 상세분석

- ◆ '상황에 따라 표준 발음을 쓴다' 응답은 충청권(거주)(60.4%), 충청권(성장)(55.1%), 전라권유입(50.9%),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경상권(거주)(50.2%), 강원/제주(거주)(62.1%), 강원/제주(성장)(57.6%), '최대한 표준 발음으로 고쳐 발음한다'는 수도권 토박이(27.1%), 전라권 유입(28.1%)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표45.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이 아님을 인식했을 때의 행동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상황에 따라 표준 발음을 쓴다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최대한 표준 발음으로 고쳐 발음한다
[전 체]		[2,000]	42.5	36.0	21.4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3.0	31.2	25.7
	충청권(거주)	[164]	60.4	29.3	10.4
	전라권(거주)	[155]	45.2	31.6	23.2
	경상권(거주)	[414]	36.0	50.2	13.8
	강원/제주(거주)	[66]	22.7	62.1	15.2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1.6	31.5	27.0
	충청권(성장)	[247]	55.1	28.7	16.2
	전라권(성장)	[273]	46.5	27.8	25.6
	경상권(성장)	[512]	37.9	48.2	13.9
	강원/제주(성장)	[85]	30.6	57.6	11.8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1.5	31.4	27.1
	수도권 유입	[345]	47.0	30.7	22.3
	지방토박이	[772]	41.6	43.7	14.8
	지방유입	[27]	44.4	33.3	22.2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7.4	26.3	26.3
	전라권유입	[114]	50.9	21.1	28.1
	경상권유입	[113]	45.1	39.8	15.0
	강원/제주유입	[23]	34.8	52.2	13.0

1.3. 정책관련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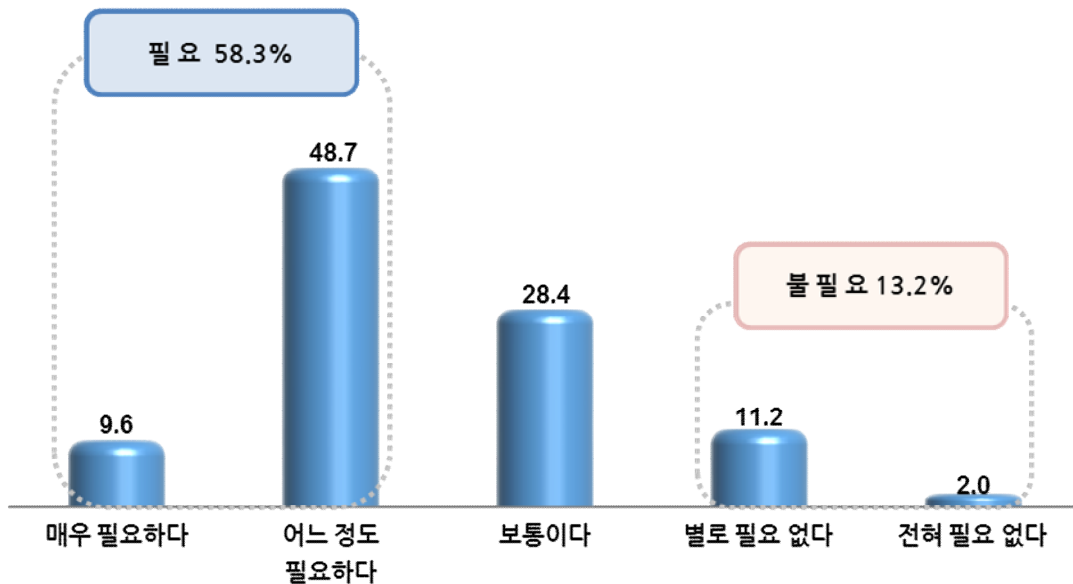
1.3.1 표준 발음 규정 필요성

전체 분석

- ◆ 과반수 이상(58.3%)의 응답자는 표준 발음을 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한편, '보통' 응답이 28.4%, '필요없다' 응답이 13.3% 등으로 나타남

■ 그림20. 표준 발음 규정 필요성 ■

(단위 : %)



문76

귀하께서는 표준 발음을 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층별 상세분석

- ◆ '필요하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성(61.3%), 대학원이상(68.3%), 관심(69.8%), '필요없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무관심(26.4%) 등으로 나타남

■ 표46.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 규정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보통	필요 하다
[전 체]		[2,000]	2.0	11.2	28.4	48.7	9.6	13.3	28.4	58.4
성별	남성	[1,014]	2.9	11.7	29.9	46.7	8.8	14.6	29.9	55.5
	여성	[986]	1.2	10.8	26.8	50.7	10.5	12.0	26.8	61.3
연령별	만 15-19 세	[161]	1.9	8.7	32.9	49.7	6.8	10.6	32.9	56.5
	20 대	[342]	2.6	11.1	28.7	49.1	8.5	13.7	28.7	57.6
	30 대	[386]	2.3	9.6	29.0	49.5	9.6	11.9	29.0	59.1
	40 대	[439]	2.1	13.4	25.7	49.4	9.3	15.5	25.7	58.8
	50 대	[417]	1.4	11.5	30.0	45.8	11.3	12.9	30.0	57.1
	60 대	[255]	2.0	11.4	25.9	49.8	11.0	13.3	25.9	60.8
학력별	중졸이하	[80]	0.0	13.8	33.8	42.5	10.0	13.8	33.8	52.5
	고졸이하	[848]	2.1	13.3	29.2	46.8	8.5	15.4	29.2	55.3
	대졸이하	[1,012]	2.3	9.8	27.2	50.7	10.1	12.1	27.2	60.8
	대학원이상	[60]	0.0	3.3	28.3	50.0	18.3	3.3	28.3	68.3
직업별	자영업	[350]	1.7	10.9	30.6	48.3	8.6	12.6	30.6	56.9
	블루칼라	[399]	3.0	11.5	32.1	45.9	7.5	14.5	32.1	53.4
	화이트칼라	[496]	1.6	9.9	27.8	50.0	10.7	11.5	27.8	60.7
	전업주부	[343]	1.5	13.4	23.6	49.6	12.0	14.9	23.6	61.5
	학생	[342]	2.3	10.8	29.2	50.0	7.6	13.2	29.2	57.6
	무직/기타	[70]	2.9	12.9	18.6	47.1	18.6	15.7	18.6	65.7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1.0	6.8	22.5	54.7	15.1	7.8	22.5	69.8
	보통	[781]	2.3	12.4	35.7	44.3	5.2	14.7	35.7	49.6
	무관심	[303]	4.6	21.8	27.1	41.9	4.6	26.4	27.1	46.5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필요하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거주)(63.6%), 수도권 유입(64.1%), 전라권유입(73.7%), '필요없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23.2%), 경상권(거주)(19.1%), 강원/제주(거주)(40.9%), 경상권(성장)(18.6%), 강원/제주(성장)(37.6%), 지방토박이(19.0%) 등으로 나타남

■ 표47.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 규정 필요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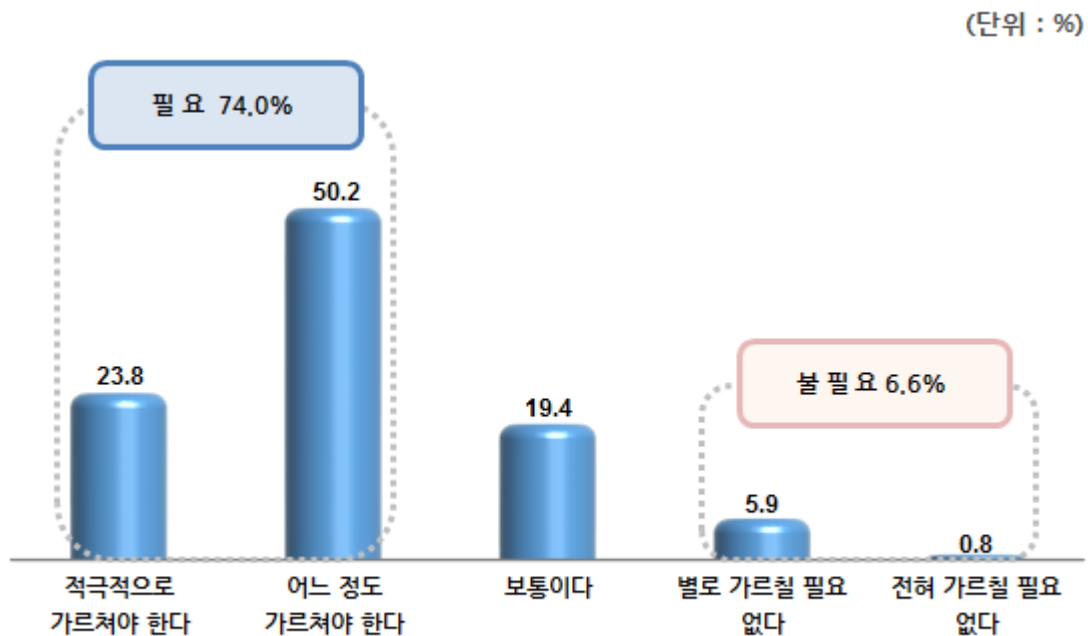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보통	필요 하다
[전 체]		[2,000]	2.1	11.3	28.4	48.7	9.7	13.3	28.4	58.4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1.6	8.2	26.6	52.0	11.7	9.7	26.6	63.6
	충청권(거주)	[164]	0.0	4.3	50.0	42.1	3.7	4.3	50.0	45.7
	전라권(거주)	[155]	1.3	21.9	20.0	51.6	5.2	23.2	20.0	56.8
	경상권(거주)	[414]	2.2	16.9	28.7	44.4	7.7	19.1	28.7	52.2
	강원/제주(거주)	[66]	16.7	24.2	22.7	25.8	10.6	40.9	22.7	36.4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1.4	7.9	27.5	50.4	12.8	9.3	27.5	63.2
	충청권(성장)	[247]	0.4	5.3	43.7	44.1	6.5	5.7	43.7	50.6
	전라권(성장)	[273]	1.5	14.3	22.3	54.2	7.7	15.8	22.3	61.9
	경상권(성장)	[512]	2.1	16.4	27.0	47.3	7.2	18.6	27.0	54.5
	강원/제주(성장)	[85]	15.3	22.4	20.0	35.3	7.1	37.6	20.0	42.4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1.4	7.9	27.2	50.8	12.6	9.3	27.2	63.4
	수도권 유입	[345]	2.0	8.7	25.2	54.8	9.3	10.7	25.2	64.1
	지방토박이	[772]	2.8	16.2	30.7	44.0	6.2	19.0	30.7	50.3
	지방유입	[27]	0.0	7.4	37.0	37.0	18.5	7.4	37.0	55.6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1.1	7.4	32.6	50.5	8.4	8.4	32.6	58.9
	전라권유입	[114]	0.9	3.5	21.9	62.3	11.4	4.4	21.9	73.7
	경상권유입	[113]	2.7	12.4	24.8	52.2	8.0	15.0	24.8	60.2
	강원/제주유입	[23]	8.7	21.7	13.0	47.8	8.7	30.4	13.0	56.5

1.3.2 표준 발음 교육 필요성

전체 분석

- ◆ 학교에서의 표준 발음 교육이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이 74.0%로 대부분을 차지했던 한편, '보통' 응답이 19.4%, '필요없다' 응답이 6.6% 등으로 조사됨

■ 그림21. 표준 발음 교육 필요성 ■



문77

귀하께서는 학교에서 표준 발음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층별 상세분석

- ◆ 표준 발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대학원이상(86.7%), 표준발음 관심(81.8%) 응답자 등으로 나타남

표48.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 교육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가르칠 필요 없다	별로 가르칠 필요 없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가르쳐야 한다	적극적 으로 가르쳐야 한다	필요 없다	보통	필요 하다
[전 체]		[2,000]	0.8	5.9	19.4	50.2	23.8	6.6	19.4	74.0
성별	남성	[1,014]	1.0	7.1	20.1	49.1	22.7	8.1	20.1	71.8
	여성	[986]	0.5	4.7	18.6	51.3	24.9	5.2	18.6	76.3
연령별	만 15-19 세	[161]	2.5	6.8	21.1	52.8	16.8	9.3	21.1	69.6
	20 대	[342]	0.9	6.4	19.9	54.1	18.7	7.3	19.9	72.8
	30 대	[386]	0.3	4.7	22.8	50.0	22.3	4.9	22.8	72.3
	40 대	[439]	1.1	6.4	18.7	49.2	24.6	7.5	18.7	73.8
	50 대	[417]	0.2	4.3	17.7	49.9	27.8	4.6	17.7	77.7
	60 대	[255]	0.4	8.2	16.1	45.9	29.4	8.6	16.1	75.3
학력별	중졸이하	[80]	2.5	6.2	15.0	51.2	25.0	8.8	15.0	76.2
	고졸이하	[848]	0.5	6.0	20.9	51.3	21.3	6.5	20.9	72.6
	대졸이하	[1,012]	0.8	5.8	19.2	49.1	25.1	6.6	19.2	74.2
	대학원이상	[60]	1.7	5.0	6.7	51.7	35.0	6.7	6.7	86.7
직업별	자영업	[350]	0.6	6.0	18.3	48.0	27.1	6.6	18.3	75.1
	블루칼라	[399]	0.3	6.8	21.8	51.6	19.5	7.0	21.8	71.2
	화이트칼라	[496]	1.0	5.0	21.0	48.0	25.0	6.0	21.0	73.0
	전업주부	[343]	0.0	5.2	16.0	51.0	27.7	5.2	16.0	78.7
	학생	[342]	1.5	7.0	19.9	54.1	17.5	8.5	19.9	71.6
	무직/기타	[70]	2.9	4.3	12.9	45.7	34.3	7.1	12.9	8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0.8	3.1	14.4	50.7	31.1	3.8	14.4	81.8
	보통	[781]	0.6	7.7	23.6	49.0	19.1	8.3	23.6	68.1
	무관심	[303]	1.0	9.9	23.4	51.8	13.9	10.9	23.4	65.7

계층별 상세분석

- ◆ 표준 발음 교육이 '필요하다'는 수도권 유입(80.3%), 전라권유입(89.5%) 응답자에게서 비교적 높았던 반면, '필요없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30.3%) 등으로 나타남

■ 표49.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 교육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가르칠 필요 없다	별로 가르칠 필요 없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가르쳐야 한다	적극적 으로 가르쳐야 한다	필요 없다	보통	필요 하다
[전 체]		[2,000]	0.8	5.9	19.4	50.2	23.8	6.7	19.4	74.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0.7	4.1	16.5	52.6	26.1	4.8	16.5	78.7
	충청권(거주)	[164]	0.0	1.8	46.3	42.1	9.8	1.8	46.3	51.8
	전라권(거주)	[155]	0.0	13.5	22.6	41.9	21.9	13.5	22.6	63.9
	경상권(거주)	[414]	0.7	6.8	16.4	52.2	23.9	7.5	16.4	76.1
	강원/제주(거주)	[66]	4.5	25.8	15.2	33.3	21.2	30.3	15.2	54.5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0.8	4.3	17.1	53.2	24.6	5.1	17.1	77.8
	충청권(성장)	[247]	0.0	1.6	37.2	43.7	17.4	1.6	37.2	61.1
	전라권(성장)	[273]	0.0	8.1	17.2	47.3	27.5	8.1	17.2	74.7
	경상권(성장)	[512]	1.0	6.8	16.2	52.1	23.8	7.8	16.2	76.0
	강원/제주(성장)	[85]	3.5	22.4	16.5	35.3	22.4	25.9	16.5	57.6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0.8	4.3	16.8	53.6	24.4	5.1	16.8	78.0
	수도권 유입	[345]	0.6	3.5	15.7	50.1	30.1	4.1	15.7	80.3
	지방토박이	[772]	0.8	8.8	23.6	46.8	20.1	9.6	23.6	66.8
	지방유입	[27]	0.0	3.7	25.9	40.7	29.6	3.7	25.9	70.4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0.0	1.1	24.2	47.4	27.4	1.1	24.2	74.7
	전라권유입	[114]	0.0	0.9	9.6	53.5	36.0	0.9	9.6	89.5
	경상권유입	[113]	1.8	7.1	14.2	50.4	26.5	8.8	14.2	77.0
	강원/제주유입	[23]	0.0	8.7	17.4	43.5	30.4	8.7	17.4	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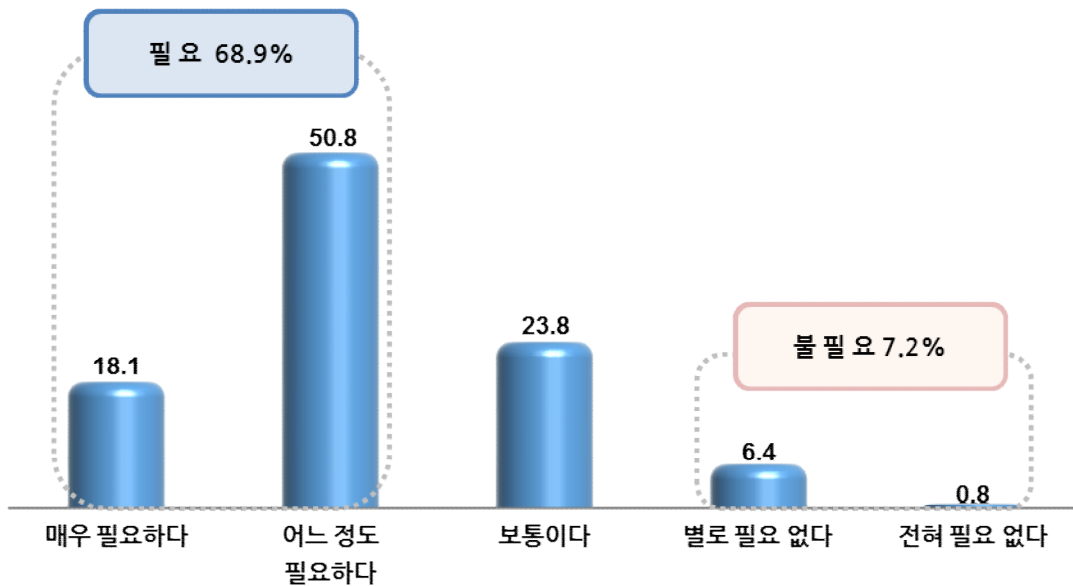
1.3.3 표준 발음법 체계화 필요성

전체 분석

- ◆ 정부 차원에서의 표준 발음법 체계화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 응답이 68.9%로 가장 높았고, '보통' 23.8%, '필요없다' 7.2% 등으로 나타남

■ 그림22 표준 발음법 체계화 필요성 ■

(단위 : %)



문78

국가 차원에서 표준 발음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층별 상세분석

- ◆ 표준 발음법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71.5%), 50대(74.1%), 표준발음 관심 응답자(77.2%) 등으로 나타난 반면, '필요없다'는 60대(10.2%), 표준발음 무관심 응답자(14.2%)에서 비교적 높았음

표50.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법 체계화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보통	필요 하다
[전 체]		[2,000]	0.8	6.4	23.8	50.8	18.1	7.2	23.8	68.9
성별	남성	[1,014]	1.2	7.4	25.0	48.1	18.2	8.6	25.0	66.4
	여성	[986]	0.5	5.4	22.6	53.5	18.0	5.9	22.6	71.5
연령별	만 15-19 세	[161]	1.9	6.2	31.1	50.3	10.6	8.1	31.1	60.9
	20 대	[342]	1.2	6.4	26.3	51.5	14.6	7.6	26.3	66.1
	30 대	[386]	0.3	4.4	28.0	50.8	16.6	4.7	28.0	67.4
	40 대	[439]	1.1	7.5	21.9	49.9	19.6	8.7	21.9	69.5
	50 대	[417]	0.5	5.3	20.1	53.0	21.1	5.8	20.1	74.1
	60 대	[255]	0.8	9.4	19.2	48.2	22.4	10.2	19.2	70.6
학력별	중졸이하	[80]	3.8	5.0	22.5	53.8	15.0	8.8	22.5	68.8
	고졸이하	[848]	0.6	7.2	23.8	52.0	16.4	7.8	23.8	68.4
	대졸이하	[1,012]	0.9	6.0	23.8	50.0	19.3	6.9	23.8	69.3
	대학원이상	[60]	0.0	3.3	26.7	43.3	26.7	3.3	26.7	70.0
직업별	자영업	[350]	0.3	8.6	20.0	50.0	21.1	8.9	20.0	71.1
	블루칼라	[399]	0.3	7.8	25.3	52.1	14.5	8.0	25.3	66.7
	화이트칼라	[496]	1.2	4.6	25.2	49.4	19.6	5.8	25.2	69.0
	전업주부	[343]	0.6	5.0	20.7	53.1	20.7	5.5	20.7	73.8
	학생	[342]	1.2	7.0	28.9	50.6	12.3	8.2	28.9	62.9
	무직/기타	[70]	4.3	4.3	15.7	47.1	28.6	8.6	15.7	75.7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0.5	3.1	19.2	52.9	24.2	3.6	19.2	77.2
	보통	[781]	0.5	8.3	28.4	50.2	12.5	8.8	28.4	62.7
	무관심	[303]	2.6	11.6	26.1	45.9	13.9	14.2	26.1	59.7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필요하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거주)(75.0%), 수도권 유입(78.6%), 충청권유입(75.8%), 전라권유입(87.7%), '필요없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27.3%), 강원/제주(성장)(24.7%) 등으로 나타남

표51.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법 체계화 필요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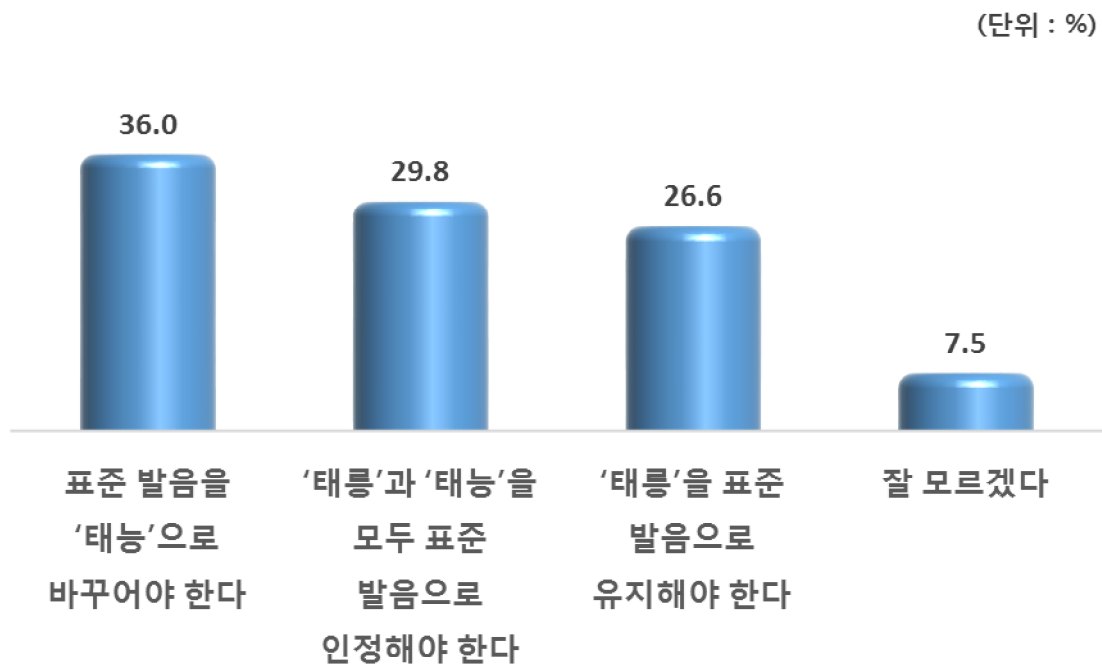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필요없다	보통	필요하다
[전 체]		[2,000]	0.9	6.4	23.9	50.8	18.1	7.3	23.9	68.9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0.4	4.9	19.7	56.3	18.7	5.3	19.7	75.0
	충청권(거주)	[164]	0.0	1.8	53.7	36.0	8.5	1.8	53.7	44.5
	전라권(거주)	[155]	1.9	11.6	27.1	39.4	20.0	13.5	27.1	59.4
	경상권(거주)	[414]	1.0	8.5	23.7	47.3	19.6	9.4	23.7	66.9
	강원/제주(거주)	[66]	7.6	19.7	19.7	36.4	16.7	27.3	19.7	53.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0.6	4.8	21.2	55.2	18.3	5.3	21.2	73.5
	충청권(성장)	[247]	0.0	2.4	40.9	42.9	13.8	2.4	40.9	56.7
	전라권(성장)	[273]	1.1	7.0	21.6	49.1	21.2	8.1	21.6	70.3
	경상권(성장)	[512]	0.8	8.8	23.0	48.6	18.8	9.6	23.0	67.4
	강원/제주(성장)	[85]	5.9	18.8	14.1	47.1	14.1	24.7	14.1	6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0.6	4.9	20.9	55.1	18.5	5.5	20.9	73.6
	수도권 유입	[345]	0.0	4.9	16.5	59.1	19.4	4.9	16.5	78.6
	지방토박이	[772]	1.6	8.9	30.2	42.1	17.2	10.5	30.2	59.3
	지방유입	[27]	0.0	0.0	29.6	55.6	14.8	0.0	29.6	70.4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0.0	3.2	21.1	56.8	18.9	3.2	21.1	75.8
	전라권유입	[114]	0.0	0.9	11.4	64.0	23.7	0.9	11.4	87.7
	경상권유입	[113]	0.0	8.8	21.2	54.0	15.9	8.8	21.2	69.9
	강원/제주유입	[23]	0.0	13.0	0.0	69.6	17.4	13.0	0.0	87.0

1.3.4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경우 바람직한 방향

전체 분석

- ◆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경우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 '표준 발음을 '태능'으로 바꾸어야 한다' 응답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태릉과 태능을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29.8%, '태릉을 표준 발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6.6%로 조사됨

■ 그림23.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경우 바람직한 방향 ■



문79

다음 예시처럼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계층별 상세분석

- ◆ '표준 발음을 '태능'으로 바꾸어야 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43.4%), 블루칼라(41.9%), "태릉'과 '태능'을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35.4%), 대학원이상(36.7%), 화이트칼라(35.1%), "태릉'을 표준 발음으로 유지해야 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32.9%), 20대(33.0%), 학생(33.9%) 등으로 나타남

■ 표52.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경우 바람직한 방향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표준 발음을 '태능'으로 바꾸어야 한다	'태릉'과 '태능'을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태릉'을 표준 발음으로 유지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36.0	29.8	26.6	7.5
성별	남성	[1,014]	35.8	30.8	26.2	7.2
	여성	[986]	36.3	28.9	27.0	7.8
연령별	만 15-19 세	[161]	24.2	35.4	32.9	7.5
	20 대	[342]	28.4	32.7	33.0	5.8
	30 대	[386]	38.6	30.3	24.4	6.7
	40 대	[439]	35.8	32.1	24.8	7.3
	50 대	[417]	43.4	22.8	25.4	8.4
	60 대	[255]	38.4	29.4	22.4	9.8
학력별	중졸이하	[80]	28.8	25.0	31.2	15.0
	고졸이하	[848]	39.4	27.2	25.2	8.1
	대졸이하	[1,012]	33.8	32.0	27.7	6.5
	대학원이상	[60]	36.7	36.7	21.7	5.0
직업별	자영업	[350]	40.3	29.1	22.9	7.7
	블루칼라	[399]	41.9	24.8	24.6	8.8
	화이트칼라	[496]	32.1	35.1	28.6	4.2
	전업주부	[343]	39.7	27.1	22.4	10.8
	학생	[342]	26.6	32.7	33.9	6.7
	무직/기타	[70]	38.6	24.3	27.1	1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39.0	29.4	27.1	4.6
	보통	[781]	34.1	33.7	24.3	7.9
	무관심	[303]	32.3	21.5	31.0	15.2

계층별 상세분석

- ◆ '표준 발음을 '태능'으로 바꾸어야 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유입(44.2%), 전라권유입(45.6%), "'태릉'과 '태능'을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47.7%), 전라권(성장)(38.8%), 경상권유입(34.5%), "'태릉'을 표준 발음으로 유지해야 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산권(거주)(36.5%) 등으로 나타남

■ 표53. 응답자 특성 :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경우 바람직한 방향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표준 발음을 '태능'으로 바꾸어야 한다	'태릉'과 '태능'을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태릉'을 표준 발음으로 유지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36.0	29.8	26.6	7.5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39.3	29.1	24.2	7.3
	충청권(거주)	[164]	37.8	32.9	22.0	7.3
	전라권(거주)	[155]	20.6	47.7	27.1	4.5
	경상권(거주)	[414]	32.1	24.4	36.5	7.0
	강원/제주(거주)	[66]	33.3	27.3	18.2	21.2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37.6	29.6	25.3	7.6
	충청권(성장)	[247]	40.5	30.4	22.3	6.9
	전라권(성장)	[273]	31.5	38.8	26.0	3.7
	경상권(성장)	[512]	33.6	26.6	32.0	7.8
	강원/제주(성장)	[85]	36.5	22.4	22.4	18.8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38.3	29.6	24.6	7.5
	수도권 유입	[345]	41.7	28.1	23.2	7.0
	지방토박이	[772]	31.7	31.0	29.7	7.6
	지방유입	[27]	14.8	29.6	44.4	11.1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4.2	26.3	22.1	7.4
	전라권유입	[114]	45.6	26.3	25.4	2.6
	경상권유입	[113]	35.4	34.5	19.5	10.6
	강원/제주유입	[23]	43.5	13.0	34.8	8.7

2. 발음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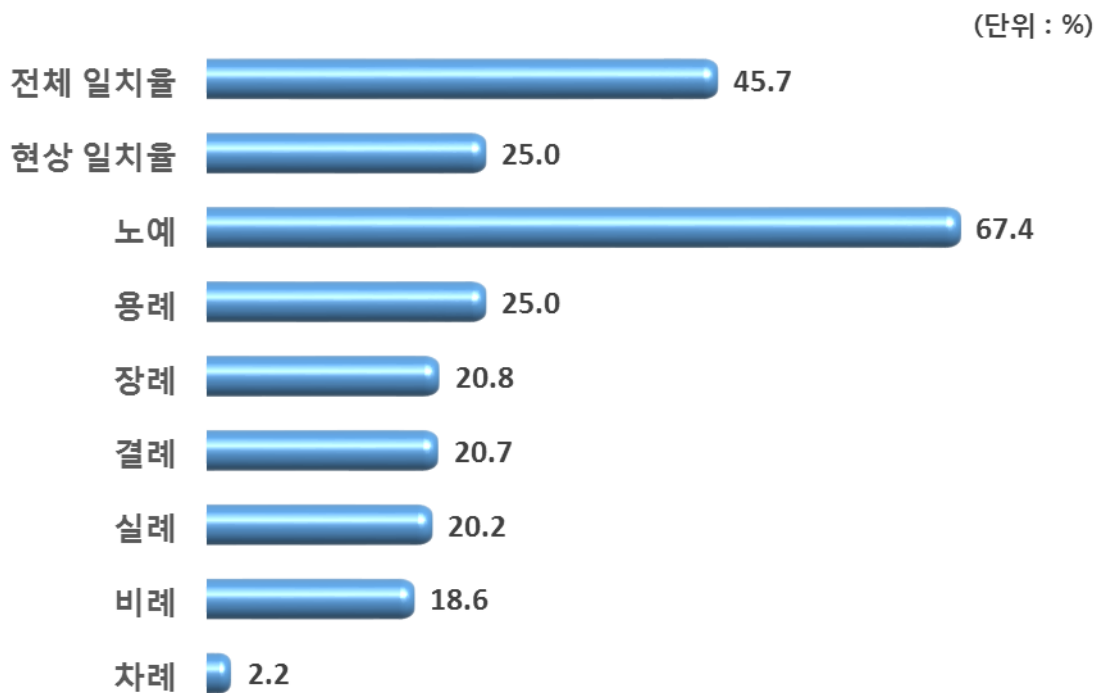
2.1 이중모음

2.1.1 이중 모음_표준발음 일치율

전체 분석

- ◆ 이중 모음 현상에 대한 표준발음 일치율(%)에 대한 조사 결과, '노예' 응답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용례' 응답이 25.0%, '장례' 응답이 20.8%, '결례' 응답이 20.7%로 나타난 한편, '차례'의 표준발음 일치율은 2.2%에 불과했음

그림24. 표준발음 일치율



문

해당없음

계층별 상세분석

- ◆ '노예' 항목에 대한 표준발음 일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73.9%), 20대(75.4%), 학생(75.4%) 등으로 나타남. 한편, '용례'는 대학원이상(45.0%), '장례'는 중졸이하(31.2%), 대학원이상(36.7%), '결례'는 대학원이상(33.3%) 등에서 비교적 높은 표준발음 일치율을 보임

표54.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일치율	현상 일치율	노예	차례	비례	장례	용례	실례	결례
[전 체]		[2,000]	45.7	25.0	67.4	2.2	18.6	20.8	25.0	20.2	20.7
성별	남성	[1,014]	45.1	24.7	65.4	1.9	18.0	22.1	23.2	21.7	20.6
	여성	[986]	46.4	25.3	69.6	2.5	19.1	19.6	26.8	18.7	20.7
연령별	만 15-19 세	[161]	44.0	24.5	73.9	1.9	14.9	21.9	19.9	23.6	15.5
	20 대	[342]	46.8	26.1	75.4	2.0	17.8	21.7	24.3	20.5	20.8
	30 대	[386]	46.7	23.6	65.5	1.8	16.8	17.9	24.4	17.1	21.4
	40 대	[439]	46.0	24.1	65.5	2.3	17.5	18.0	26.0	18.0	21.2
	50 대	[417]	45.0	26.0	64.3	2.4	21.3	23.6	26.6	20.6	22.8
	60 대	[255]	44.6	25.9	63.9	2.8	21.6	23.9	25.5	25.5	18.0
학력별	중졸이하	[80]	44.1	24.6	71.2	0.0	16.2	31.2	20.0	17.5	16.2
	고졸이하	[848]	44.7	24.1	63.4	2.2	20.3	19.4	23.3	20.6	19.8
	대졸이하	[1,012]	46.6	25.2	70.6	2.3	17.2	20.3	25.6	19.5	21.0
	대학원이상	[60]	47.9	33.7	66.7	3.3	20.0	36.7	45.0	30.5	33.3
직업별	자영업	[350]	44.6	23.2	62.0	2.3	16.9	20.9	20.6	20.6	19.4
	블루칼라	[399]	44.5	23.2	64.7	1.0	20.3	18.6	23.3	16.3	18.4
	화이트칼라	[496]	46.9	25.6	68.3	1.6	19.0	21.8	26.9	19.0	23.1
	전업주부	[343]	46.7	25.8	65.3	3.5	22.4	19.0	28.3	21.0	20.8
	학생	[342]	45.9	26.9	75.4	2.6	16.4	24.3	24.9	24.3	20.8
	무직/기타	[70]	45.2	25.6	75.7	4.3	5.7	18.6	27.1	25.7	21.4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46.4	26.2	67.5	2.5	18.7	22.8	27.4	22.1	22.1
	보통	[781]	45.6	24.1	66.7	1.8	18.3	19.3	23.0	19.3	20.4
	무관심	[303]	43.9	23.6	69.0	2.3	18.8	18.8	22.4	16.8	16.9

계층별 상세분석

- ◆ '노예' 항목의 표준발음 일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72.6%), 경상권 유입(71.7%), '용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성장)(31.6%), 충청권유입(36.8%) 등으로 나타남

표55.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일치율	현상 일치율	노예	차레	비레	장레	용례	실레	결레
[전 체]		[2,000]	45.7	25.0	67.4	2.2	18.6	20.8	25.0	20.2	20.7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6.1	27.0	67.8	3.2	20.6	23.2	28.7	21.6	23.9
	충청권(거주)	[164]	46.5	26.9	72.6	0.0	17.7	20.7	28.7	27.6	20.9
	전라권(거주)	[155]	47.9	20.6	46.5	0.6	12.3	21.9	21.3	21.3	20.0
	경상권(거주)	[414]	43.8	20.6	72.0	0.7	15.5	14.3	15.9	13.0	12.8
	강원/제주(거주)	[66]	44.8	21.2	69.7	1.5	16.7	15.2	13.6	19.7	12.1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6.1	27.4	70.3	3.2	19.9	23.7	28.3	22.2	23.9
	충청권(성장)	[247]	46.1	27.5	70.4	1.2	18.6	21.5	31.6	25.6	23.4
	전라권(성장)	[273]	48.1	21.4	47.6	1.8	15.0	20.5	23.1	20.1	21.2
	경상권(성장)	[512]	43.9	22.0	71.7	1.4	18.2	16.3	18.0	13.9	14.7
	강원/제주(성장)	[85]	44.5	22.5	67.1	1.2	17.6	17.6	18.8	22.4	12.9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6.1	27.4	69.8	3.3	19.6	24.1	28.4	22.4	24.2
	수도권 유입	[345]	46.1	26.0	62.6	3.2	23.2	21.2	29.3	19.4	23.0
	지방토박이	[772]	45.2	21.8	66.3	0.6	14.9	17.4	19.2	18.3	15.8
	지방유입	[27]	45.7	25.9	85.2	0.0	29.6	11.1	25.9	14.8	14.8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5.1	28.6	65.3	3.2	24.2	23.2	36.8	23.2	24.7
	전라권유입	[114]	48.7	23.8	50.9	3.5	21.1	18.4	28.9	18.4	25.4
	경상권유입	[113]	44.4	25.9	71.7	3.5	24.8	21.2	23.9	15.0	21.2
	강원/제주유입	[23]	44.8	26.1	65.2	0.0	21.7	26.1	26.1	30.4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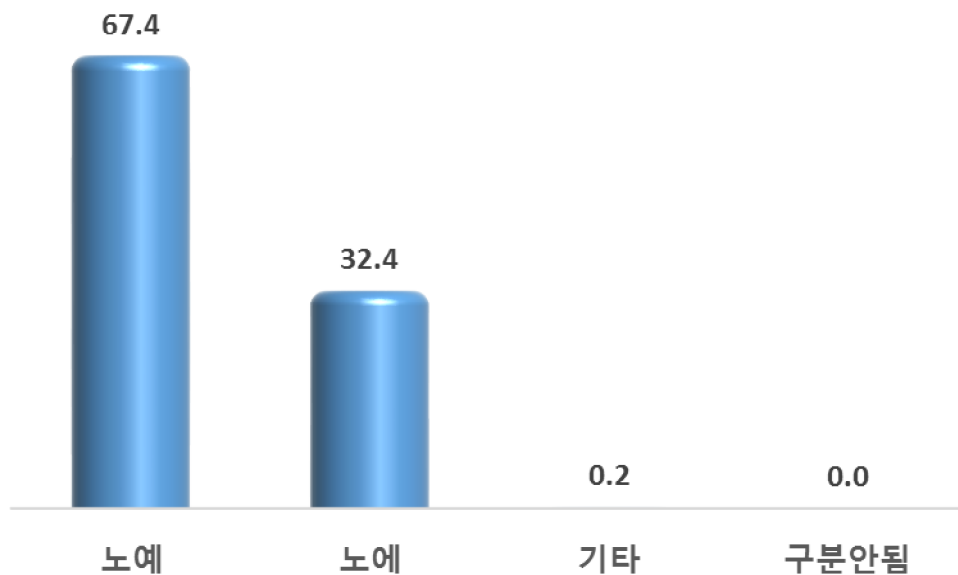
2.1.2 노예

전체 분석

- ◆ (노예)노예에 대한 조사 결과, '노예' 응답이 67.4%로 가장 높았으며, '노예' 응답이 32.4%로 나타남

■ 그림25. 이중모음 : 노예 ■

(단위 : %)



문48

(노예)노예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노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73.9%), 20대(75.4%), 학생(75.4%), '노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자영업(38.0%) 등으로 나타남

표56.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노예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노예	노예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67.4	32.4	0.2	0.0
성별	남성	[1,014]	65.3	34.5	0.1	0.1
	여성	[986]	69.6	30.2	0.2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73.9	26.1	0.0	0.0
	20 대	[342]	75.4	24.3	0.3	0.0
	30 대	[386]	65.5	34.5	0.0	0.0
	40 대	[439]	65.4	34.2	0.2	0.2
	50 대	[417]	64.3	35.7	0.0	0.0
	60 대	[255]	63.9	35.7	0.4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71.2	28.8	0.0	0.0
	고졸이하	[848]	63.3	36.4	0.1	0.1
	대졸이하	[1,012]	70.6	29.2	0.2	0.0
	대학원이상	[60]	66.7	33.3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62.0	38.0	0.0	0.0
	블루칼라	[399]	64.7	35.1	0.3	0.0
	화이트칼라	[496]	68.1	31.5	0.2	0.2
	전업주부	[343]	65.3	34.4	0.3	0.0
	학생	[342]	75.4	24.6	0.0	0.0
	무직/기타	[70]	75.7	24.3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67.5	32.2	0.2	0.1
	보통	[781]	66.7	33.2	0.1	0.0
	무관심	[303]	69.0	31.0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노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72.6%), 경상권유입(71.7%), '노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52.9%), 전라권(성장)(51.6%), 전라권유입(48.2%) 등으로 나타남

표57.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노예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노예	노예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67.4	32.4	0.2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67.7	32.1	0.2	0.1
	충청권(거주)	[164]	72.6	27.4	0.0	0.0
	전라권(거주)	[155]	46.5	52.9	0.6	0.0
	경상권(거주)	[414]	72.0	28.0	0.0	0.0
	강원/제주(거주)	[66]	69.7	30.3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70.2	29.6	0.1	0.1
	충청권(성장)	[247]	70.4	29.6	0.0	0.0
	전라권(성장)	[273]	47.6	51.6	0.7	0.0
	경상권(성장)	[512]	71.7	28.3	0.0	0.0
	강원/제주(성장)	[85]	67.1	32.9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69.7	30.0	0.1	0.1
	수도권 유입	[345]	62.6	37.1	0.3	0.0
	지방토박이	[772]	66.3	33.5	0.1	0.0
	지방유입	[27]	85.2	14.8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65.3	34.7	0.0	0.0
	전라권유입	[114]	50.9	48.2	0.9	0.0
	경상권유입	[113]	71.7	28.3	0.0	0.0
	강원/제주유입	[23]	65.2	34.8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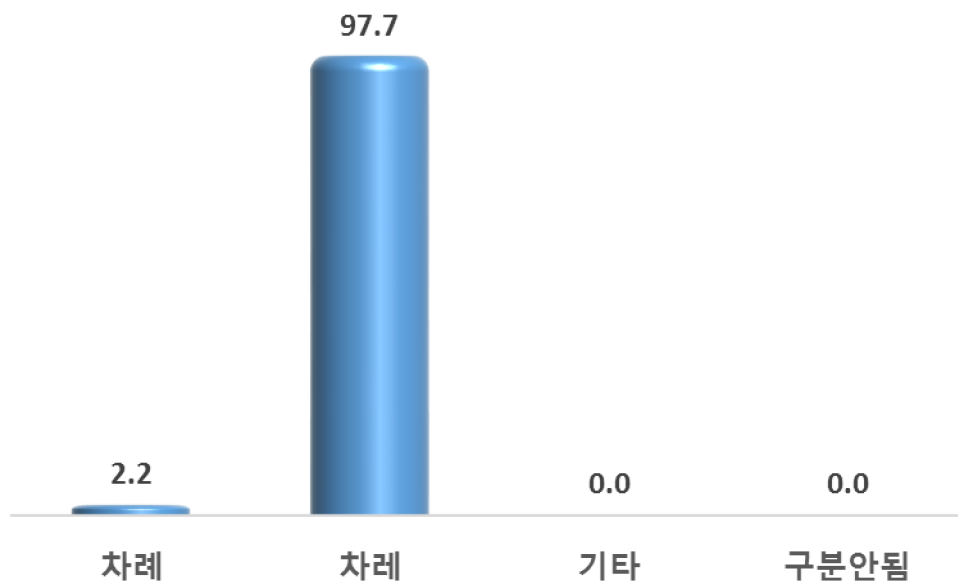
2.1.3 차례

전체 분석

- ◆ (차례)차례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 '차례' 응답이 97.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차례' 응답이 2.2%에 불과했음

■ 그림26. 이중모음 : 차례 ■

(단위 : %)



문6-1

(차례)내 차례가 됐으니, 시 한 구절 읊지 않을 수 없군.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차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중졸이하(100%), '차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대학원이상(3.3%) 등으로 나타남

표58.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차레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차레	차레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2.2	97.7	0.0	0.0
성별	남성	[1,014]	1.9	98.0	0.1	0.0
	여성	[986]	2.5	97.4	0.0	0.1
연령별	만 15-19 세	[161]	1.9	98.1	0.0	0.0
	20 대	[342]	2.0	98.0	0.0	0.0
	30 대	[386]	1.8	98.2	0.0	0.0
	40 대	[439]	2.3	97.7	0.0	0.0
	50 대	[417]	2.4	97.4	0.2	0.0
	60 대	[255]	2.7	96.9	0.0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0.0	100.0	0.0	0.0
	고졸이하	[848]	2.2	97.6	0.1	0.0
	대졸이하	[1,012]	2.3	97.6	0.0	0.1
	대학원이상	[60]	3.3	96.7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2.3	97.4	0.3	0.0
	블루칼라	[399]	1.0	99.0	0.0	0.0
	화이트칼라	[496]	1.6	98.4	0.0	0.0
	전업주부	[343]	3.5	96.5	0.0	0.0
	학생	[342]	2.6	97.4	0.0	0.0
	무직/기타	[70]	4.3	94.3	0.0	1.4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2.5	97.3	0.1	0.1
	보통	[781]	1.8	98.2	0.0	0.0
	무관심	[303]	2.3	97.7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차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100%), 지방유입(100%), 강원/제주 유입(100%), '차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유입(3.5%), 경상권유입(3.5%) 등으로 나타남

표59.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차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차례	차례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2.2	97.7	0.0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3.2	96.7	0.0	0.1
	충청권(거주)	[164]	0.0	100.0	0.0	0.0
	전라권(거주)	[155]	0.6	99.4	0.0	0.0
	경상권(거주)	[414]	0.7	99.0	0.2	0.0
	강원/제주(거주)	[66]	1.5	98.5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3.2	96.7	0.0	0.1
	충청권(성장)	[247]	1.2	98.8	0.0	0.0
	전라권(성장)	[273]	1.8	98.2	0.0	0.0
	경상권(성장)	[512]	1.4	98.4	0.2	0.0
	강원/제주(성장)	[85]	1.2	98.8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3.3	96.6	0.0	0.1
	수도권 유입	[345]	3.2	96.8	0.0	0.0
	지방토박이	[772]	0.6	99.2	0.1	0.0
	지방유입	[27]	0.0	100.0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3.2	96.8	0.0	0.0
	전라권유입	[114]	3.5	96.5	0.0	0.0
	경상권유입	[113]	3.5	96.5	0.0	0.0
	강원/제주유입	[23]	0.0	10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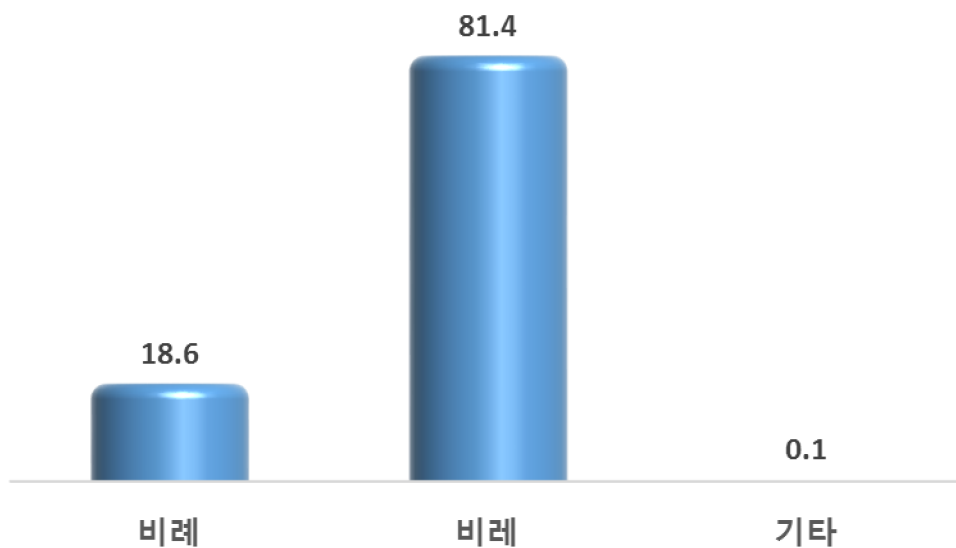
2.1.4 비례

전체 분석

- ◆ (비례)비례에 대한 조사 결과, '비례' 응답이 81.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한편, '비례' 응답이 18.6%로 나타남

■ 그림27. 이중모음 : 비례 ■

(단위 : %)



문60

(비례)비례

계층별 상세분석

- ◆ '비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85.1%), 중졸이하(83.8%), 자영업(83.1%), 학생(83.6%), '비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21.3%), 전업주부(22.4%) 등으로 나타남

표60.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비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례	비례	기타
[전 체]		[2,000]	18.6	81.4	0.1
성별	남성	[1,014]	18.0	81.9	0.1
	여성	[986]	19.1	80.8	0.1
연령별	만 15-19 세	[161]	14.9	85.1	0.0
	20 대	[342]	17.8	82.2	0.0
	30 대	[386]	16.8	83.2	0.0
	40 대	[439]	17.5	82.5	0.0
	50 대	[417]	21.3	78.4	0.2
	60 대	[255]	21.6	78.0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16.2	83.8	0.0
	고졸이하	[848]	20.3	79.5	0.2
	대졸이하	[1,012]	17.2	82.8	0.0
	대학원이상	[60]	20.0	8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16.9	83.1	0.0
	블루칼라	[399]	20.3	79.4	0.3
	화이트칼라	[496]	19.0	80.8	0.2
	전업주부	[343]	22.4	77.6	0.0
	학생	[342]	16.4	83.6	0.0
	무직/기타	[70]	5.7	94.3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18.7	81.2	0.1
	보통	[781]	18.3	81.6	0.1
	무관심	[303]	18.8	81.2	0.0

계층별 상세분석

- ◆ '비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87.7%), 전라권(성장)(85.0%), 지방토박이(85.0%), '비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유입(24.2%), 경상권유입(24.8%) 등으로 나타남

표61.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비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례	비례	기타
[전 체]		[2,000]	18.6	81.4	0.1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20.6	79.3	0.1
	충청권(거주)	[164]	17.7	82.3	0.0
	전라권(거주)	[155]	12.3	87.7	0.0
	경상권(거주)	[414]	15.5	84.3	0.2
	강원/제주(거주)	[66]	16.7	83.3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19.9	80.0	0.1
	충청권(성장)	[247]	18.6	81.4	0.0
	전라권(성장)	[273]	15.0	85.0	0.0
	경상권(성장)	[512]	18.2	81.6	0.2
	강원/제주(성장)	[85]	17.6	82.4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19.6	80.3	0.1
	수도권 유입	[345]	23.2	76.8	0.0
	지방토박이	[772]	14.9	85.0	0.1
	지방유입	[27]	29.6	70.4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24.2	75.8	0.0
	전라권유입	[114]	21.1	78.9	0.0
	경상권유입	[113]	24.8	75.2	0.0
	강원/제주유입	[23]	21.7	78.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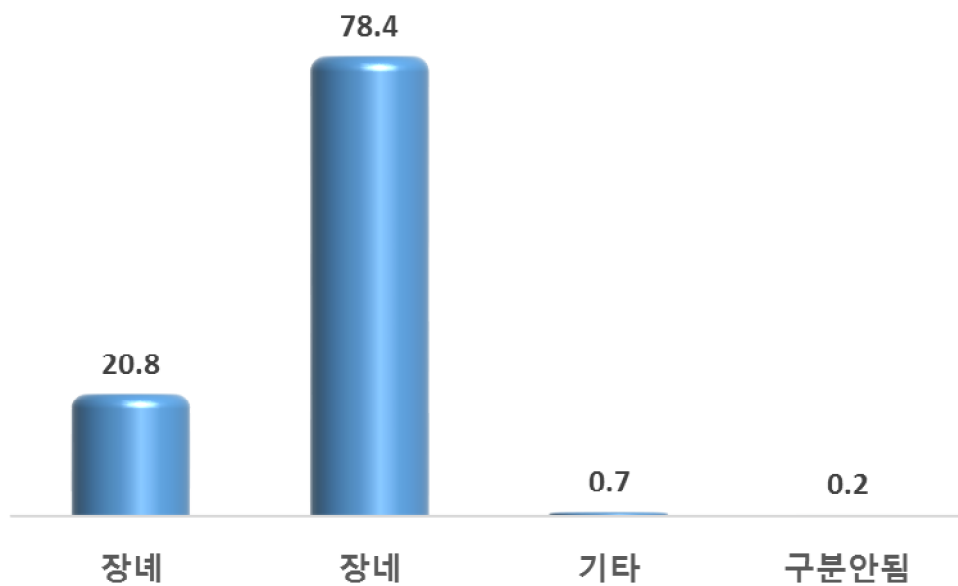
2.1.5 장례

전체 분석

- ◆ (장례)장례에 대한 조사 결과, '장네' 응답이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장네' 응답은 20.8%로 나타남

■ 그림28. 이중모음 : 장례 ■

(단위 : %)



문10

(장례)장례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장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30대(81.6%), 40대(81.8%), 무직/기타(81.4%), '장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중졸이하(31.2%), 대학원이상(36.7%) 등으로 나타남

표62.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장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장네	장네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20.8	78.4	0.7	0.2
성별	남성	[1,014]	22.0	77.1	0.6	0.3
	여성	[986]	19.6	79.6	0.8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21.7	75.8	1.9	0.6
	20 대	[342]	21.6	76.3	1.8	0.3
	30 대	[386]	17.9	81.6	0.5	0.0
	40 대	[439]	18.0	81.8	0.2	0.0
	50 대	[417]	23.5	76.0	0.2	0.2
	60 대	[255]	23.9	75.7	0.4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31.2	68.8	0.0	0.0
	고졸이하	[848]	19.3	79.7	0.6	0.4
	대졸이하	[1,012]	20.3	78.9	0.9	0.0
	대학원이상	[60]	36.7	63.3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20.9	79.1	0.0	0.0
	블루칼라	[399]	18.5	81.0	0.0	0.5
	화이트칼라	[496]	21.8	77.6	0.6	0.0
	전업주부	[343]	19.0	80.2	0.9	0.0
	학생	[342]	24.3	73.1	2.3	0.3
	무직/기타	[70]	18.6	81.4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22.8	76.1	1.0	0.1
	보통	[781]	19.2	80.0	0.5	0.3
	무관심	[303]	18.8	80.9	0.3	0.0

계층별 상세분석

- ◆ '장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84.3%), 강원/제주(거주)(84.8%), '장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 토박이(24.1%), 강원/제주유입(26.1%) 등으로 나타남

표63.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장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장네	장네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20.8	78.4	0.7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23.2	75.9	0.7	0.1
	충청권(거주)	[164]	20.7	79.3	0.0	0.0
	전라권(거주)	[155]	21.9	77.4	0.6	0.0
	경상권(거주)	[414]	14.3	84.3	1.0	0.5
	강원/제주(거주)	[66]	15.2	84.8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23.7	75.2	1.0	0.1
	충청권(성장)	[247]	21.5	78.5	0.0	0.0
	전라권(성장)	[273]	20.5	79.1	0.4	0.0
	경상권(성장)	[512]	16.2	82.6	0.8	0.4
	강원/제주(성장)	[85]	17.6	82.4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24.1	74.8	1.1	0.1
	수도권 유입	[345]	21.2	78.8	0.0	0.0
	지방토박이	[772]	17.4	81.7	0.6	0.3
	지방유입	[27]	11.1	88.9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23.2	76.8	0.0	0.0
	전라권유입	[114]	18.4	81.6	0.0	0.0
	경상권유입	[113]	21.2	78.8	0.0	0.0
	강원/제주유입	[23]	26.1	73.9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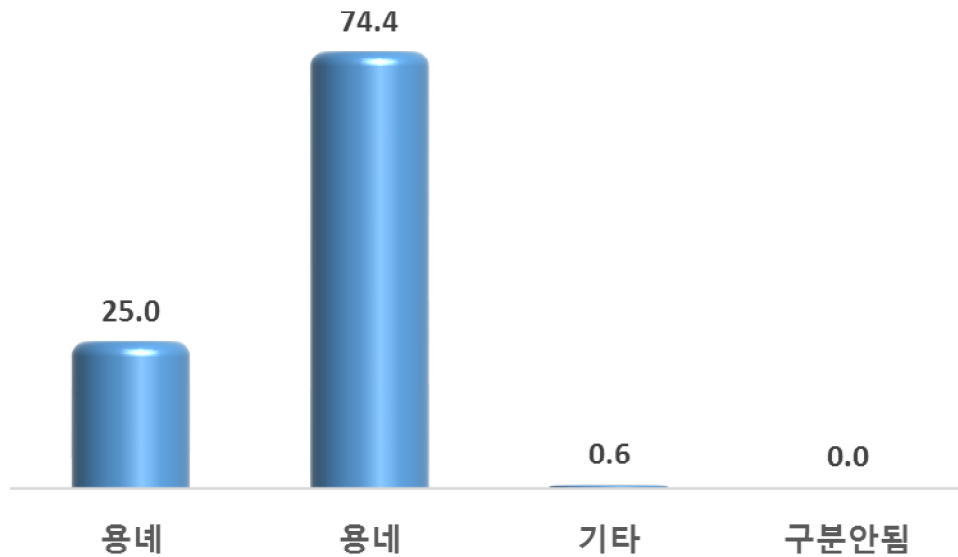
2.1.6 용례

전체 분석

- ◆ (용례)이 사전은 용례가 많아서 좋군요.에 대한 조사 결과, '용례' 응답이 7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용례' 응답이 25.0%로 나타남

■ 그림29. 이중모음 : 용례 ■

(단위 : %)



문39-1

(용례)이 사전은 용례가 많아서 좋군요.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용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78.9%), 중졸이하(78.8%), 자영업(78.9%), '용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대학원이상(45.0%) 등으로 나타남

표64.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용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용네	용네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25.0	74.4	0.6	0.0
성별	남성	[1,014]	23.2	75.8	0.9	0.1
	여성	[986]	26.8	73.0	0.2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19.9	78.9	1.2	0.0
	20 대	[342]	24.3	74.9	0.9	0.0
	30 대	[386]	24.4	74.6	1.0	0.0
	40 대	[439]	26.0	73.6	0.2	0.2
	50 대	[417]	26.6	73.4	0.0	0.0
	60 대	[255]	25.5	74.1	0.4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20.0	78.8	1.2	0.0
	고졸이하	[848]	23.2	76.5	0.1	0.1
	대졸이하	[1,012]	25.6	73.5	0.9	0.0
	대학원이상	[60]	45.0	55.0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20.6	78.9	0.6	0.0
	블루칼라	[399]	23.3	76.2	0.5	0.0
	화이트칼라	[496]	26.8	72.4	0.6	0.2
	전업주부	[343]	28.3	71.4	0.3	0.0
	학생	[342]	24.9	74.3	0.9	0.0
	무직/기타	[70]	27.1	72.9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27.4	71.6	0.9	0.1
	보통	[781]	23.0	76.6	0.4	0.0
	무관심	[303]	22.4	77.6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용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83.8%), 강원/제주(거주)(86.4%), 경상권(성장)(81.8%), 강원/제주(성장)(81.2%), 지방토박이(80.7%), '용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성장)(31.6%), 충청권유입(36.8%) 등으로 나타남

표65.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용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용네	용네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25.0	74.4	0.6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28.6	70.4	0.8	0.1
	충청권(거주)	[164]	28.7	71.3	0.0	0.0
	전라권(거주)	[155]	21.3	78.7	0.0	0.0
	경상권(거주)	[414]	15.9	83.8	0.2	0.0
	강원/제주(거주)	[66]	13.6	86.4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28.3	70.4	1.1	0.1
	충청권(성장)	[247]	31.6	68.4	0.0	0.0
	전라권(성장)	[273]	23.1	76.9	0.0	0.0
	경상권(성장)	[512]	18.0	81.8	0.2	0.0
	강원/제주(성장)	[85]	18.8	81.2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28.4	70.3	1.2	0.1
	수도권 유입	[345]	29.3	70.7	0.0	0.0
	지방토박이	[772]	19.2	80.7	0.1	0.0
	지방유입	[27]	25.9	74.1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36.8	63.2	0.0	0.0
	전라권유입	[114]	28.9	71.1	0.0	0.0
	경상권유입	[113]	23.9	76.1	0.0	0.0
	강원/제주유입	[23]	26.1	73.9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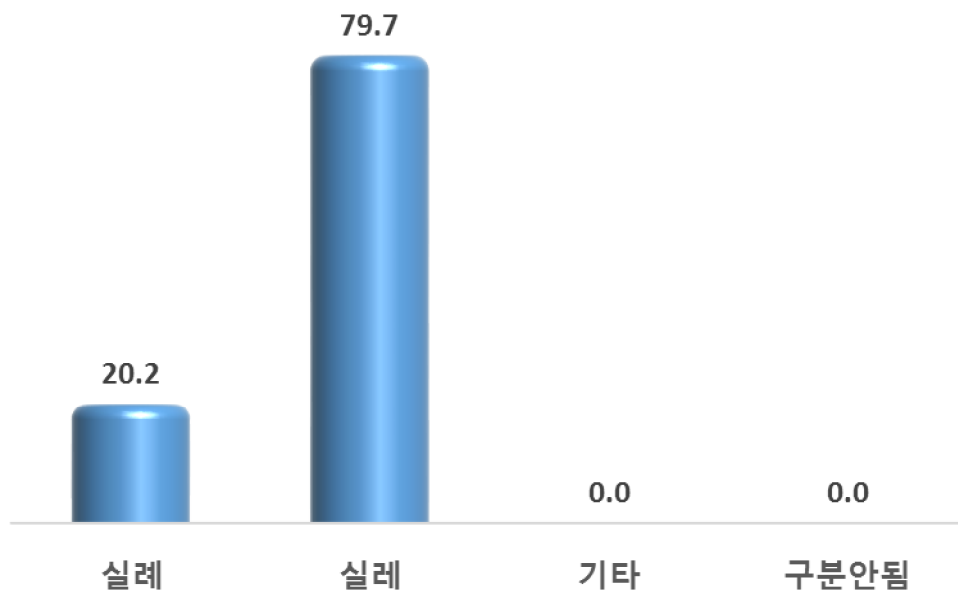
2.1.7 실례

전체 분석

- ◆ (실례)실례에 대한 조사 결과, '실례' 응답이 7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례' 응답이 20.2%로 나타남

■ 그림30. 이중모음 : 실례 ■

(단위 : %)



문62

(실례)실례

계층별 상세분석

- ◆ 응답자 특성별 분석에서 '실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30대(82.9%), 중졸이하(82.5%), 블루칼라(83.5%), '실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25.5%), 대학원 이상(30.0%) 등으로 나타남

표66.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실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실례	실례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20.2	79.7	0.0	0.0
성별	남성	[1,014]	21.7	78.1	0.1	0.1
	여성	[986]	18.7	81.3	0.0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23.6	76.4	0.0	0.0
	20 대	[342]	20.5	79.2	0.3	0.0
	30 대	[386]	17.1	82.9	0.0	0.0
	40 대	[439]	18.0	81.8	0.0	0.2
	50 대	[417]	20.6	79.4	0.0	0.0
	60 대	[255]	25.5	74.5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17.5	82.5	0.0	0.0
	고졸이하	[848]	20.6	79.2	0.1	0.0
	대졸이하	[1,012]	19.5	80.5	0.0	0.0
	대학원이상	[60]	30.0	68.3	0.0	1.7
직업별	자영업	[350]	20.6	79.4	0.0	0.0
	블루칼라	[399]	16.3	83.5	0.0	0.3
	화이트칼라	[496]	19.0	81.0	0.0	0.0
	전업주부	[343]	21.0	79.0	0.0	0.0
	학생	[342]	24.3	75.7	0.0	0.0
	무직/기타	[70]	25.7	72.9	1.4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22.1	77.8	0.0	0.1
	보통	[781]	19.3	80.5	0.1	0.0
	무관심	[303]	16.8	83.2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실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87.0%), 경상권(성장)(86.1%), 경상권 유입(85.0%), '실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27.4%), 충청권(성장)(25.5%) 등으로 나타남

표67.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실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실례	실례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20.2	79.7	0.0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21.6	78.4	0.0	0.0
	충청권(거주)	[164]	27.4	72.0	0.0	0.6
	전라권(거주)	[155]	21.3	78.1	0.6	0.0
	경상권(거주)	[414]	13.0	87.0	0.0	0.0
	강원/제주(거주)	[66]	19.7	80.3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22.2	77.8	0.0	0.0
	충청권(성장)	[247]	25.5	74.1	0.0	0.4
	전라권(성장)	[273]	20.1	79.5	0.4	0.0
	경상권(성장)	[512]	13.9	86.1	0.0	0.0
	강원/제주(성장)	[85]	22.4	77.6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22.4	77.6	0.0	0.0
	수도권 유입	[345]	19.4	80.6	0.0	0.0
	지방토박이	[772]	18.3	81.5	0.1	0.1
	지방유입	[27]	14.8	85.2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23.2	76.8	0.0	0.0
	전라권유입	[114]	18.4	81.6	0.0	0.0
	경상권유입	[113]	15.0	85.0	0.0	0.0
	강원/제주유입	[23]	30.4	69.6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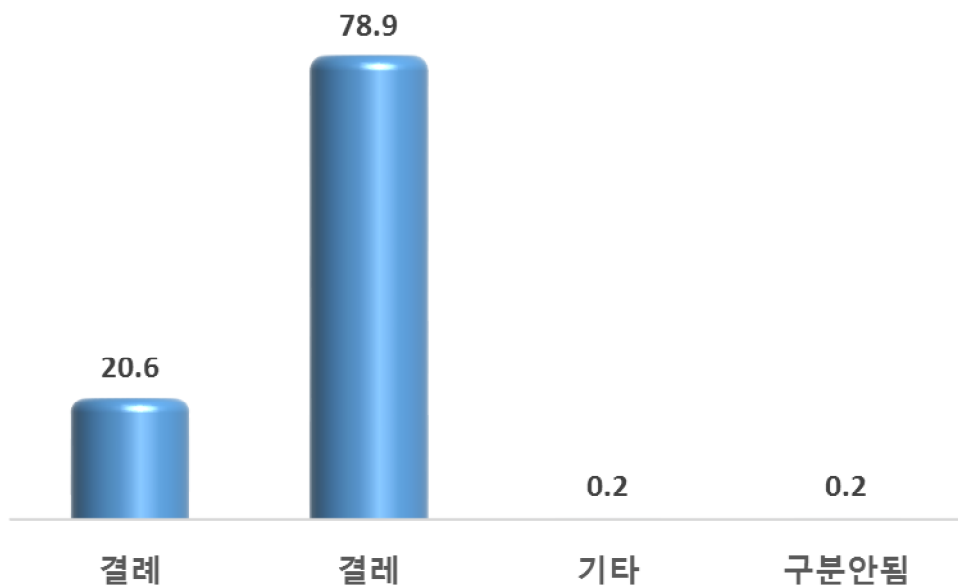
2.1.8 결례

전체 분석

- ◆ (결례)결례에 대한 조사 결과, '결례' 응답이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례' 응답이 20.6%로 조사됨

■ 그림31. 이중모음 : 결례 ■

(단위 : %)



문4-2

(결례)그들의 부탁을 몰인정하게 거절하는 결례를 범했다.

계층별 상세분석

- ◆ '결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84.5%), 중졸이하(82.5%), 블루칼라(81.0%), '결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22.8%), 대학원이상(33.3%), 화이트칼라(23.0%) 등으로 나타남

표68.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결레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결레	결레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20.6	78.9	0.2	0.2
성별	남성	[1,014]	20.5	79.1	0.1	0.3
	여성	[986]	20.7	78.7	0.4	0.2
연령별	만 15-19 세	[161]	15.5	84.5	0.0	0.0
	20 대	[342]	20.8	78.9	0.0	0.3
	30 대	[386]	21.2	78.0	0.3	0.5
	40 대	[439]	21.2	78.4	0.2	0.2
	50 대	[417]	22.8	76.7	0.2	0.2
	60 대	[255]	18.0	81.2	0.8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16.2	82.5	1.2	0.0
	고졸이하	[848]	19.7	79.5	0.4	0.5
	대졸이하	[1,012]	20.9	78.9	0.1	0.1
	대학원이상	[60]	33.3	66.7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19.4	80.3	0.3	0.0
	블루칼라	[399]	18.3	81.0	0.3	0.5
	화이트칼라	[496]	23.0	76.4	0.2	0.4
	전업주부	[343]	20.7	78.4	0.6	0.3
	학생	[342]	20.8	79.2	0.0	0.0
	무직/기타	[70]	21.4	78.6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22.1	77.6	0.0	0.3
	보통	[781]	20.4	79.1	0.4	0.1
	무관심	[303]	16.8	82.2	0.7	0.3

계층별 상세분석

- ◆ '결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87.0%), 강원/제주(거주)(86.4%), 경상권(성장)(84.8%), 강원/제주(성장)(85.9%), '결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 토박이(24.2%), 충청권유입(24.2%), 전라권유입(25.4%) 등으로 나타남

표69. 응답자 특성 : 이중모음 : 결레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결레	결레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20.6	78.9	0.2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23.8	75.7	0.2	0.2
	충청권(거주)	[164]	20.7	78.0	0.6	0.6
	전라권(거주)	[155]	20.0	80.0	0.0	0.0
	경상권(거주)	[414]	12.8	87.0	0.0	0.2
	강원/제주(거주)	[66]	12.1	86.4	1.5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23.9	75.9	0.1	0.1
	충청권(성장)	[247]	23.1	75.3	0.4	1.2
	전라권(성장)	[273]	21.2	78.8	0.0	0.0
	경상권(성장)	[512]	14.6	84.8	0.4	0.2
	강원/제주(성장)	[85]	12.9	85.9	1.2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24.2	75.6	0.1	0.1
	수도권 유입	[345]	22.9	75.9	0.6	0.6
	지방토박이	[772]	15.8	83.7	0.3	0.3
	지방유입	[27]	14.8	85.2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24.2	73.7	0.0	2.1
	전라권유입	[114]	25.4	74.6	0.0	0.0
	경상권유입	[113]	21.2	77.0	1.8	0.0
	강원/제주유입	[23]	13.0	87.0	0.0	0.0

2.2 ㄴ, ㄹ 연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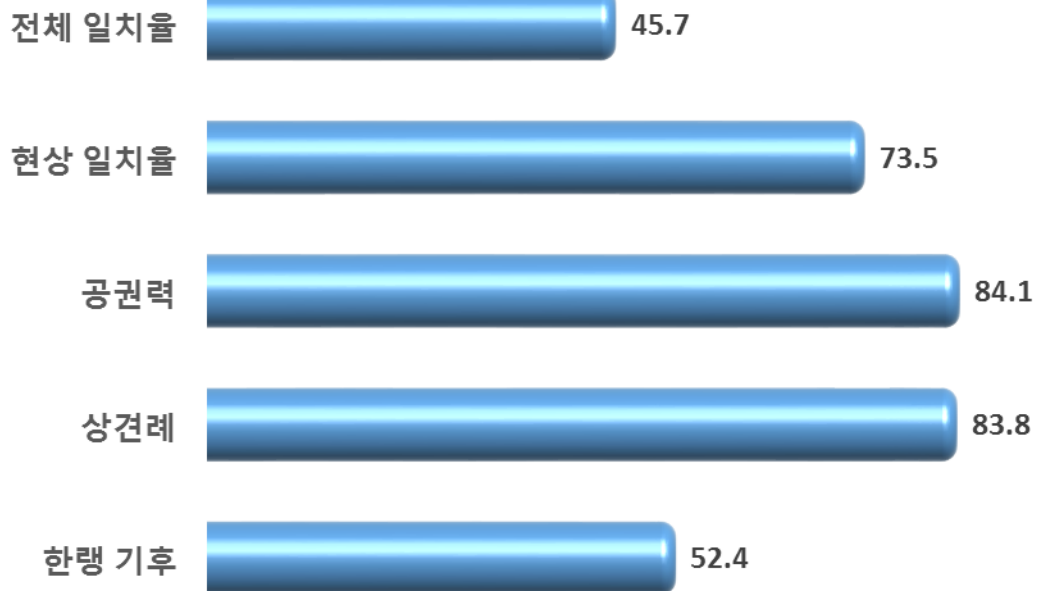
2.2.1 ㄴ, ㄹ 연쇄_표준발음 일치율

전체 분석

- ◆ ㄴ, ㄹ 연쇄 현상 표준발음 일치율(%)은 73.5%로, 전체 일치율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한편, 개별 항목 별로는, '공권력'이 84.1%로 가장 높은 일치율을 보였으며, '상견례' 83.8%, '한랭' 52.4%로 조사됨

■ 그림32. 표준발음 일치율 ■

(단위 : %)



문

해당없음

계층별 상세분석

- ◆ '상견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93.3%), 전업주부(93.0%), '한랭 기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30대(57.0%), 화이트칼라(56.9%) 등으로 나타남

표70.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일치율	현상 일치율	한랭 기후	상견례	공권력
[전 체]		[2,000]	45.7	73.5	52.4	83.8	84.1
성별	남성	[1,014]	45.1	72.3	51.2	81.5	84.2
	여성	[986]	46.4	74.6	53.7	86.2	84.1
연령별	만 15-19 세	[161]	44.0	58.6	48.4	56.5	70.8
	20 대	[342]	46.8	68.1	55.4	70.5	78.5
	30 대	[386]	46.7	76.2	57.0	83.9	87.6
	40 대	[439]	46.0	78.1	54.3	91.3	88.6
	50 대	[417]	45.0	76.3	50.2	91.6	87.1
	60 대	[255]	44.6	73.3	44.1	93.3	82.4
학력별	중졸이하	[80]	44.1	68.3	43.8	85.0	76.2
	고졸이하	[848]	44.7	73.0	48.5	86.1	84.4
	대졸이하	[1,012]	46.6	74.3	56.2	82.0	84.7
	대학원이상	[60]	47.9	72.8	55.0	81.7	81.7
직업별	자영업	[350]	44.6	75.3	47.1	91.1	88.0
	블루칼라	[399]	44.5	74.5	50.0	86.2	87.4
	화이트칼라	[496]	46.9	76.1	56.9	85.9	85.7
	전업주부	[343]	46.7	77.5	53.7	93.0	85.7
	학생	[342]	45.9	63.3	53.8	62.3	73.7
	무직/기타	[70]	45.2	69.0	47.8	80.0	78.6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46.4	73.7	52.8	83.4	84.8
	보통	[781]	45.6	73.7	52.9	84.4	83.8
	무관심	[303]	43.9	72.2	49.8	83.8	82.8

계층별 상세분석

- ◆ '공권력'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유입(91.2%), '상견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 유입(90.7%), 전라권유입(96.5%), 경상권유입(90.3%), '한랭 기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62.8%), 경상권(성장)(60.1%) 등으로 나타남

표71.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일치율	현상 일치율	한랭 기후	상견례	공권력
[전 체]		[2,000]	45.7	73.5	52.4	83.8	84.1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6.1	73.0	50.4	84.8	83.9
	충청권(거주)	[164]	46.5	72.2	49.4	83.5	83.5
	전라권(거주)	[155]	47.9	73.8	47.7	85.2	88.4
	경상권(거주)	[414]	43.8	75.9	62.8	81.6	83.3
	강원/제주(거주)	[66]	44.8	68.7	42.4	78.8	84.8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6.1	71.6	49.8	82.3	82.8
	충청권(성장)	[247]	46.1	73.2	51.6	85.0	82.9
	전라권(성장)	[273]	48.1	75.6	50.9	89.7	86.1
	경상권(성장)	[512]	43.9	76.2	60.1	83.2	85.4
	강원/제주(성장)	[85]	44.5	69.8	40.0	81.2	88.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6.1	71.7	50.2	82.3	82.7
	수도권 유입	[345]	46.1	76.2	50.9	90.7	86.9
	지방토박이	[772]	45.2	74.3	56.0	82.5	84.5
	지방유입	[27]	45.7	67.9	37.0	81.5	85.2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5.1	74.2	53.2	86.3	83.0
	전라권유입	[114]	48.7	78.7	54.4	96.5	85.1
	경상권유입	[113]	44.4	76.7	48.7	90.3	91.2
	강원/제주유입	[23]	44.8	69.6	34.8	82.6	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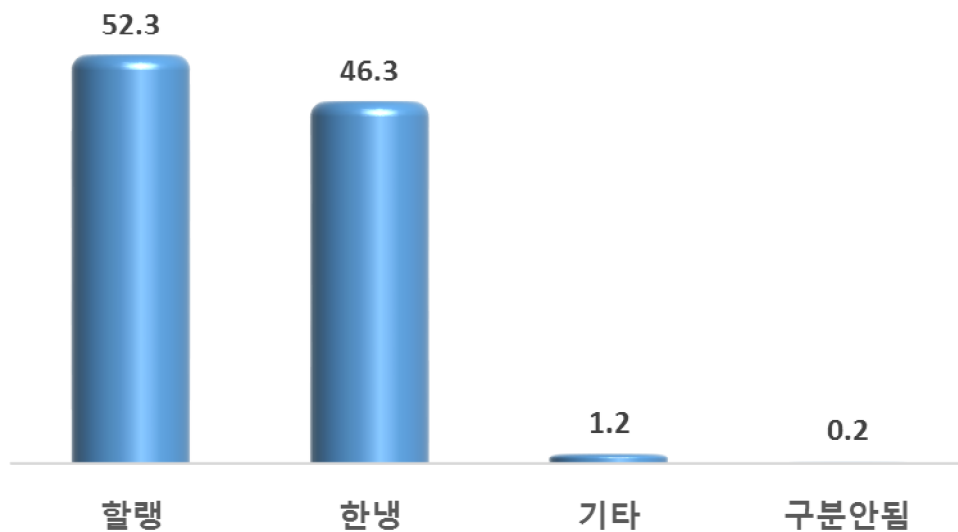
2.2.2 한랭 기후

전체 분석

- ◆ (한랭 기후)한랭 기후에 대한 조사 결과, '할랭' 응답(52.3%)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던 반면, '한냉' 응답은 46.3%로 나타남

■ 그림33. ㄴ,ㄹ 연쇄 : 한랭 기후 ■

(단위 : %)



문14

(한랭 기후)한랭 기후

계층별 상세분석

- ◆ '할랭'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30대(57.0%), 대졸이하(56.2%), 화이트칼라(56.9%), '한냉'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52.9%), 중졸이하(51.2%), 무직/기타(51.4%) 등으로 나타남

표72. 응답자 특성 : L, R 연쇄 : 한랭 기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할랭	한냉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2.3	46.3	1.2	0.2
성별	남성	[1,014]	51.1	47.6	1.1	0.2
	여성	[986]	53.5	44.9	1.3	0.2
연령별	만 15-19 세	[161]	48.4	50.3	1.2	0.0
	20 대	[342]	55.3	44.4	0.0	0.3
	30 대	[386]	57.0	41.7	1.3	0.0
	40 대	[439]	54.2	44.2	1.4	0.2
	50 대	[417]	50.1	48.7	1.0	0.2
	60 대	[255]	43.9	52.9	2.7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43.8	51.2	5.0	0.0
	고졸이하	[848]	48.2	49.9	1.4	0.5
	대졸이하	[1,012]	56.2	43.0	0.8	0.0
	대학원이상	[60]	55.0	45.0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47.1	50.6	2.3	0.0
	블루칼라	[399]	49.9	48.9	1.0	0.3
	화이트칼라	[496]	56.9	42.1	1.0	0.0
	전업주부	[343]	53.4	44.6	1.5	0.6
	학생	[342]	53.8	45.6	0.6	0.0
	무직/기타	[70]	47.1	51.4	0.0	1.4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52.8	46.5	0.7	0.0
	보통	[781]	52.8	45.1	1.9	0.3
	무관심	[303]	49.5	48.8	1.0	0.7

계층별 상세분석

- ◆ '할랭'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62.3%), 경상권(성장)(59.8%), 지방토박이(55.8%), '한랭'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51.6%), 강원/제주(거주)(53.0%), 강원/제주(성장)(56.5%) 등으로 나타남

■ 표73. 응답자 특성 : L, R 연쇄 : 한랭 기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할랭	한랭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2.3	46.3	1.2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50.4	48.5	1.1	0.1
	충청권(거주)	[164]	49.4	48.8	1.8	0.0
	전라권(거주)	[155]	47.7	51.6	0.6	0.0
	경상권(거주)	[414]	62.3	36.0	1.0	0.7
	강원/제주(거주)	[66]	42.4	53.0	4.5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9.8	49.0	1.1	0.0
	충청권(성장)	[247]	51.4	45.7	2.4	0.4
	전라권(성장)	[273]	50.9	48.4	0.7	0.0
	경상권(성장)	[512]	59.8	39.1	0.6	0.6
	강원/제주(성장)	[85]	40.0	56.5	3.5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50.2	48.6	1.2	0.0
	수도권 유입	[345]	50.7	48.1	0.9	0.3
	지방토박이	[772]	55.8	42.4	1.4	0.4
	지방유입	[27]	37.0	63.0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52.6	43.2	3.2	1.1
	전라권유입	[114]	54.4	45.6	0.0	0.0
	경상권유입	[113]	48.7	51.3	0.0	0.0
	강원/제주유입	[23]	34.8	65.2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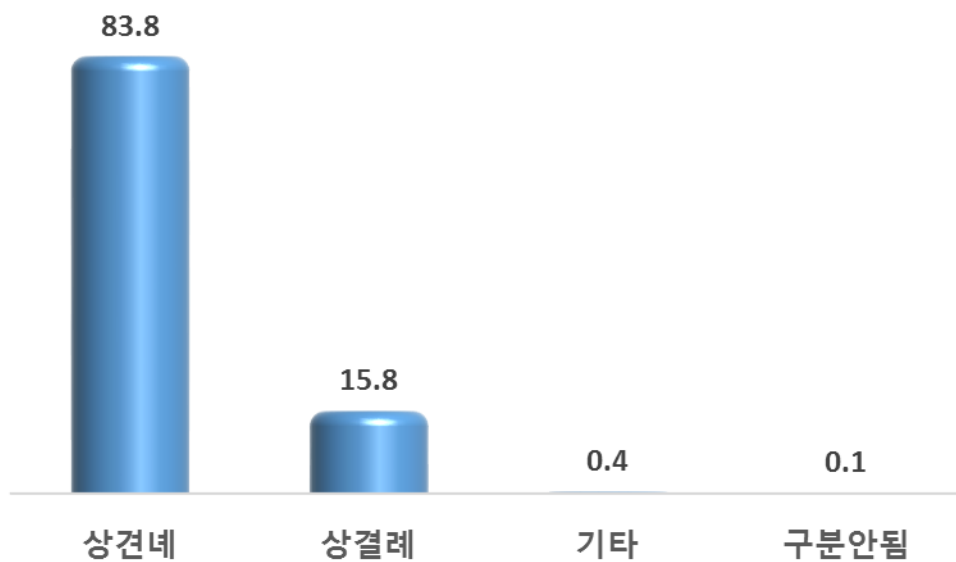
2.2.3 상견례

전체 분석

- ◆ (상견례)상견례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상견례' 응답이 8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결례' 응답이 15.8%로 조사됨

■ 그림34. ㄴ,ㄹ 연쇄 : 상견례 ■

(단위 : %)



문36-1

(상견례)양가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

계층별 상세분석

- ◆ '상견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40대(91.1%), 50대(91.4%), 60대(93.3%), 자영업(90.9%), 전업주부(93.0%), '상결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42.9%), 20대(28.4%), 학생(37.1%) 등으로 나타남

■ 표74. 응답자 특성 : L, R 연쇄 : 상견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상견네	상결레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3.8	15.8	0.4	0.1
성별	남성	[1,014]	81.4	17.9	0.5	0.2
	여성	[986]	86.2	13.6	0.2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56.5	42.9	0.6	0.0
	20 대	[342]	70.5	28.4	1.2	0.0
	30 대	[386]	83.9	15.8	0.3	0.0
	40 대	[439]	91.1	8.4	0.2	0.2
	50 대	[417]	91.4	8.4	0.0	0.2
	60 대	[255]	93.3	6.7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85.0	15.0	0.0	0.0
	고졸이하	[848]	86.0	13.7	0.2	0.1
	대졸이하	[1,012]	81.9	17.5	0.5	0.1
	대학원이상	[60]	81.7	18.3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90.9	8.6	0.3	0.3
	블루칼라	[399]	86.2	13.0	0.8	0.0
	화이트칼라	[496]	85.7	13.9	0.2	0.2
	전업주부	[343]	93.0	7.0	0.0	0.0
	학생	[342]	62.3	37.1	0.6	0.0
	무직/기타	[70]	80.0	20.0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83.2	16.4	0.2	0.2
	보통	[781]	84.4	15.2	0.4	0.0
	무관심	[303]	83.8	15.5	0.7	0.0

계층별 상세분석

- ◆ '상견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성장)(89.7%), 수도권 유입(90.7%), 전라권유입(96.5%), 경상권유입(90.3%), '상결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21.2%), 강원/제주(성장)(18.8%), 지방유입(18.5%) 등으로 나타남

표75. 응답자 특성 : L, R 연쇄 : 상견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상견네	상결레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3.8	15.8	0.4	0.1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84.7	14.8	0.4	0.1
	충청권(거주)	[164]	83.5	16.5	0.0	0.0
	전라권(거주)	[155]	85.2	14.8	0.0	0.0
	경상권(거주)	[414]	81.4	17.9	0.5	0.2
	강원/제주(거주)	[66]	78.8	21.2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82.2	17.1	0.6	0.1
	충청권(성장)	[247]	85.0	15.0	0.0	0.0
	전라권(성장)	[273]	89.7	10.3	0.0	0.0
	경상권(성장)	[512]	83.0	16.4	0.4	0.2
	강원/제주(성장)	[85]	81.2	18.8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82.2	17.1	0.6	0.1
	수도권 유입	[345]	90.7	9.3	0.0	0.0
	지방토박이	[772]	82.4	17.2	0.3	0.1
	지방유입	[27]	81.5	18.5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86.3	13.7	0.0	0.0
	전라권유입	[114]	96.5	3.5	0.0	0.0
	경상권유입	[113]	90.3	9.7	0.0	0.0
	강원/제주유입	[23]	82.6	17.4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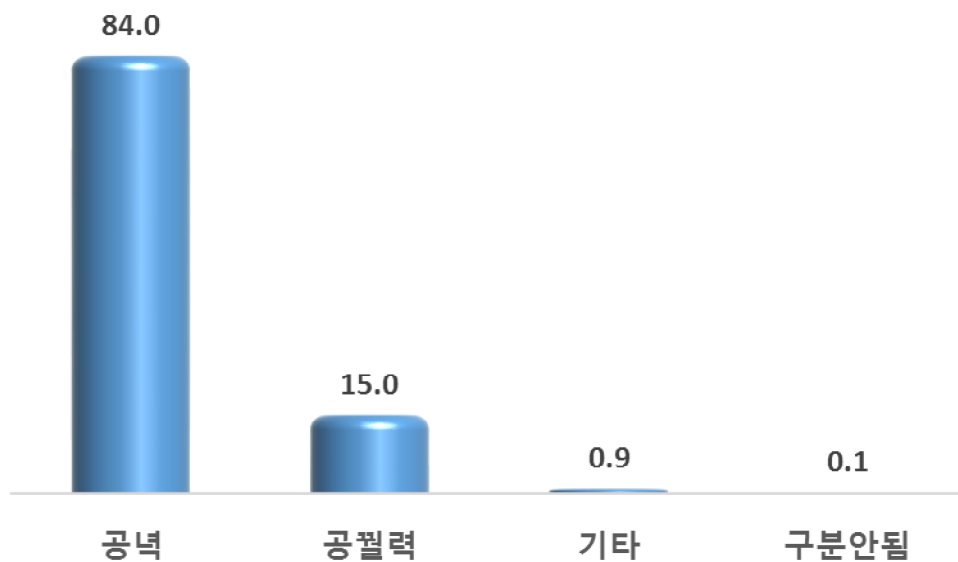
2.2.4 공권력

전체 분석

- ◆ (공권력)공권력에 대한 조사 결과, '공녀' 응답이 8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필력' 응답이 15.0%로 조사됨

■ 그림35. ㄴ,ㄹ 연쇄 : 공권력 ■

(단위 : %)



문28

(공권력)공권력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공편넉'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30대(87.6%), 40대(88.6%), 자영업(87.7%), '공필력'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27.3%), 20대(20.2%), 중졸이하(23.8%), 학생(24.9%) 등으로 나타남

표76. 응답자 특성 : L, R 연쇄 : 공권력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공편넉	공필력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4.0	15.0	0.9	0.1
성별	남성	[1,014]	84.1	15.1	0.7	0.1
	여성	[986]	84.0	14.8	1.1	0.1
연령별	만 15-19 세	[161]	70.8	27.3	1.9	0.0
	20 대	[342]	78.1	20.2	1.2	0.6
	30 대	[386]	87.6	11.1	1.3	0.0
	40 대	[439]	88.6	10.7	0.7	0.0
	50 대	[417]	87.1	12.7	0.2	0.0
	60 대	[255]	82.4	16.9	0.8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76.2	23.8	0.0	0.0
	고졸이하	[848]	84.2	14.5	1.1	0.2
	대졸이하	[1,012]	84.7	14.4	0.9	0.0
	대학원이상	[60]	81.7	18.3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87.7	12.0	0.0	0.3
	블루칼라	[399]	87.2	11.8	0.8	0.3
	화이트칼라	[496]	85.7	13.3	1.0	0.0
	전업주부	[343]	85.7	13.1	1.2	0.0
	학생	[342]	73.7	24.9	1.5	0.0
	무직/기타	[70]	78.6	20.0	1.4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84.8	14.3	0.9	0.0
	보통	[781]	83.7	15.0	1.2	0.1
	무관심	[303]	82.5	16.8	0.3	0.3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공편력'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유입(91.2%), '공필력'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16.4%), 충청권유입(16.8%) 등으로 나타남.

■ 표77. 응답자 특성 : L, ㄹ 연쇄 : 공권력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공편력	공필력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4.0	15.0	0.9	0.1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83.8	14.7	1.3	0.2
	충청권(거주)	[164]	83.5	16.5	0.0	0.0
	전라권(거주)	[155]	88.4	11.6	0.0	0.0
	경상권(거주)	[414]	83.3	16.4	0.2	0.0
	강원/제주(거주)	[66]	84.8	13.6	1.5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82.7	15.7	1.5	0.1
	충청권(성장)	[247]	82.6	17.0	0.0	0.4
	전라권(성장)	[273]	86.1	13.2	0.7	0.0
	경상권(성장)	[512]	85.4	14.5	0.2	0.0
	강원/제주(성장)	[85]	88.2	9.4	2.4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82.6	15.8	1.5	0.1
	수도권 유입	[345]	86.7	12.2	0.9	0.3
	지방토박이	[772]	84.5	15.3	0.3	0.0
	지방유입	[27]	85.2	14.8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82.1	16.8	0.0	1.1
	전라권유입	[114]	85.1	13.2	1.8	0.0
	경상권유입	[113]	91.2	8.8	0.0	0.0
	강원/제주유입	[23]	91.3	4.3	4.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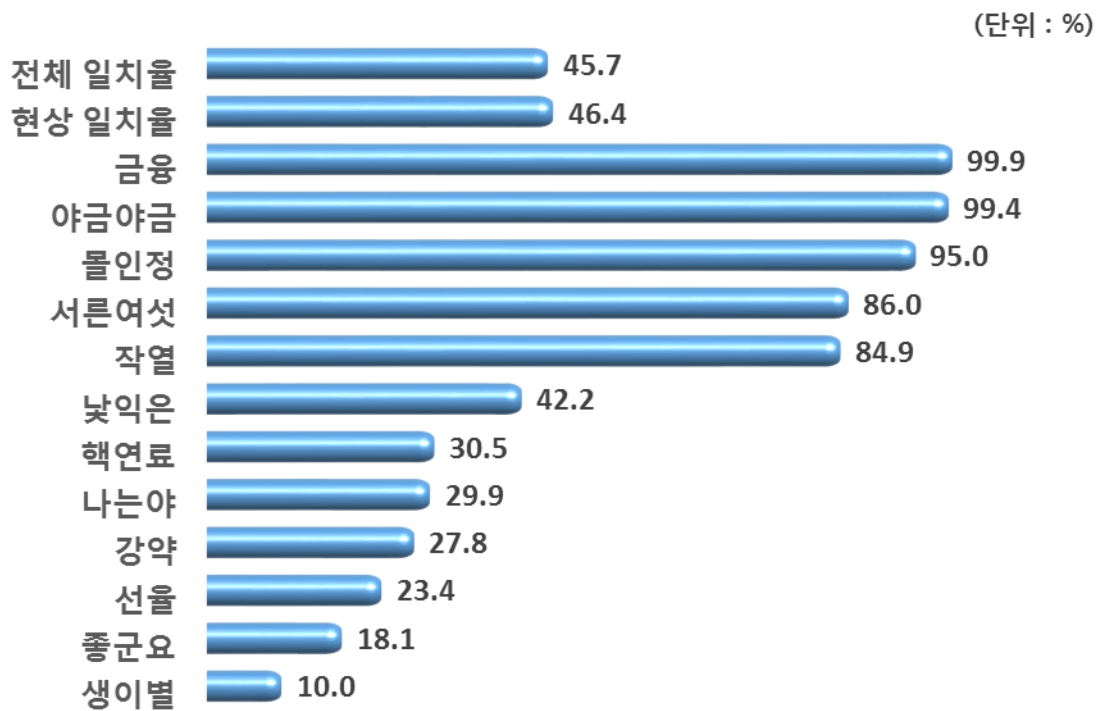
2.3 ㄴ 첨가

2.3.1 ㄴ 첨가_표준발음 일치율

전체 분석

- ◆ ㄴ 첨가 현상에 대한 표준발음 일치율(%)은 46.4%로 전체 일치율 대비 소폭 높은 수준으로 조사된 한편 개별 항목 별로 복수 표준발음 인정되는 '금융' 및 '야금야금' 에서 100%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 '물인정' 응답이 95.0%, '서른여섯' 응답이 86.0%, '작열' 응답이 8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36. 표준발음 일치율 ■



문

해당없음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작열' 항목의 표준발음 일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자영업 응답자(90.6%) 등으로 나타남

표78.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일치율	현상 일치율	금융	작열	강약	선율	야금 야금	핵 연료	낮 익은	물 인정	생 이별	종 군요	나 는야	서 른여섯
[전 체]		[2,000]	45.7	46.4	99.9	84.9	27.8	23.4	99.4	30.5	42.2	95.0	10.0	18.1	29.9	86.0
성별	남성	[1,014]	45.1	46.7	100.0	85.1	30.2	26.2	99.6	29.4	38.9	94.8	9.0	21.2	29.5	85.2
	여성	[986]	46.4	46.0	99.9	84.8	25.4	20.5	99.3	31.8	45.5	95.1	11.1	15.0	30.4	86.9
연령별	만 15-19 세	[161]	44.0	40.5	100.0	74.4	26.1	36.2	100.0	29.7	22.5	93.7	6.8	5.0	11.2	89.4
	20 대	[342]	46.8	42.5	100.0	76.6	24.9	35.1	99.4	23.9	37.9	94.4	9.6	7.6	10.5	85.3
	30 대	[386]	46.7	45.0	100.0	85.7	25.9	23.6	99.7	24.8	43.6	96.1	11.4	13.2	24.1	82.8
	40 대	[439]	46.0	47.9	100.0	89.3	31.2	21.5	99.3	30.4	45.4	96.6	7.5	17.2	35.8	85.4
	50 대	[417]	45.0	49.9	99.8	88.5	29.3	16.8	99.0	38.7	44.6	94.2	13.4	29.3	45.7	87.5
	60 대	[255]	44.6	48.9	100.0	88.2	27.5	13.4	99.6	38.8	48.6	93.2	9.0	31.1	40.9	88.2
학력별	중졸이하	[80]	44.1	46.2	100.0	86.2	26.2	19.2	100.0	43.8	42.5	89.7	10.0	25.0	32.5	85.0
	고졸이하	[848]	44.7	46.8	99.9	86.6	27.0	21.1	99.3	33.9	42.8	94.2	10.4	20.3	33.8	85.1
	대졸이하	[1,012]	46.6	46.1	100.0	83.9	28.3	25.4	99.5	27.0	41.8	96.0	9.9	16.0	26.9	86.9
	대학원이상	[60]	47.9	44.4	100.0	76.7	33.3	26.7	100.0	29.7	38.3	95.0	6.7	15.0	23.3	85.0
직업별	자영업	[350]	44.6	49.0	99.7	90.6	28.9	18.3	99.1	33.2	46.8	94.8	8.9	27.2	40.0	86.5
	블루칼라	[399]	44.5	46.7	100.0	87.7	26.1	21.6	100.0	33.5	43.3	95.0	9.3	18.9	32.7	85.9
	화이트칼라	[496]	46.9	46.2	100.0	85.5	29.0	22.0	99.6	25.6	42.1	96.4	12.3	16.8	27.0	84.4
	전업주부	[343]	46.7	48.2	100.0	88.3	27.4	17.6	98.5	38.9	48.4	94.1	11.1	19.9	39.5	87.8
	학생	[342]	45.9	41.4	100.0	72.1	28.1	39.0	99.7	25.7	29.7	93.8	7.6	5.6	10.5	86.3
	무직/기타	[70]	45.2	47.3	100.0	82.9	24.3	21.4	100.0	28.6	43.5	95.7	10.0	30.0	33.3	85.7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46.4	47.2	100.0	85.1	29.5	25.4	99.2	27.5	46.1	94.5	11.6	15.6	29.5	87.6
	보통	[781]	45.6	46.0	99.9	84.4	27.7	23.5	99.5	30.8	39.8	95.0	8.5	20.4	30.2	85.5
	무관심	[303]	43.9	44.6	100.0	85.8	23.1	17.2	100.0	38.6	36.4	96.4	9.2	19.9	30.7	82.5

계층별 상세분석

- ◆ '작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성장)(92.3%), 수도권 유입(91.0%), 충청권 유입(92.6%), 전라권유입(93.0%) 등으로 나타남

표79.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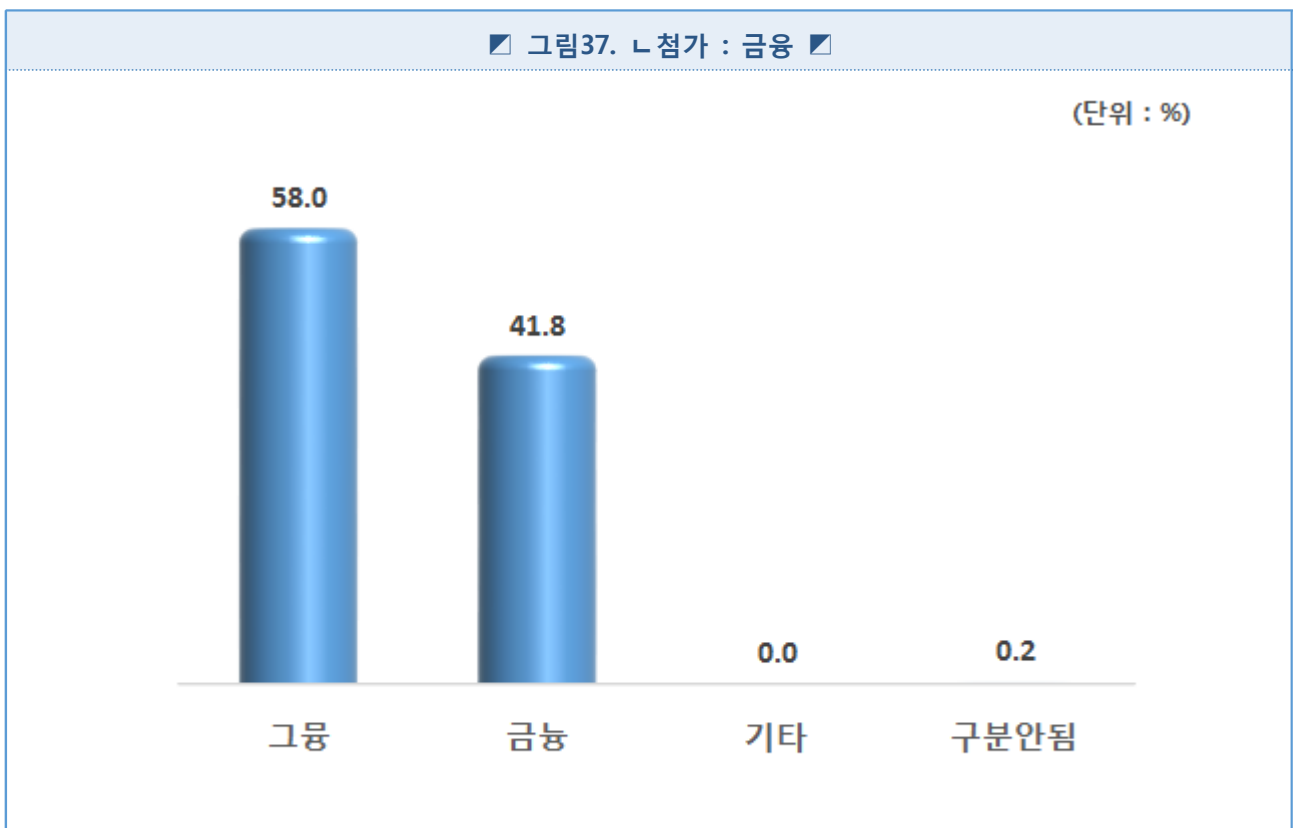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일치율	현상 일치율	금융	작열	강약	선율	야금	핵연	낮은	물인	생이	종군	나는	서른
[전 체]		[2,000]	45.7	46.4	99.9	84.9	27.8	23.4	99.4	30.5	42.2	95.0	10.0	18.1	29.9	86.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6.1	48.0	99.9	84.9	30.1	27.3	99.4	26.9	49.1	95.4	9.4	18.3	31.2	86.2
	충청권(거주)	[164]	46.5	49.4	100.0	87.8	31.7	31.1	100.0	32.5	44.8	94.5	14.7	24.4	31.3	84.1
	전라권(거주)	[155]	47.9	56.4	100.0	90.3	34.8	35.5	100.0	22.0	76.1	94.8	30.3	29.0	28.4	88.4
	경상권(거주)	[414]	43.8	37.9	100.0	83.8	18.1	6.0	99.0	44.6	12.0	94.2	3.9	11.5	27.1	85.2
	강원/제주(거주)	[66]	44.8	38.1	100.0	72.3	19.7	13.6	100.0	25.6	18.2	93.8	0.0	15.2	25.8	86.4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6.1	47.2	100.0	82.3	31.6	29.3	99.2	24.4	48.0	95.6	9.2	15.6	27.5	85.7
	충청권(성장)	[247]	46.1	50.2	100.0	90.3	31.2	28.9	100.0	31.3	49.6	93.5	13.4	25.6	33.7	85.8
	전라권(성장)	[273]	48.1	56.9	100.0	92.3	31.9	31.9	100.0	26.1	77.6	95.6	23.8	33.0	38.1	87.9
	경상권(성장)	[512]	43.9	38.4	99.8	84.3	18.9	7.2	99.2	45.2	12.4	94.5	3.7	11.2	27.9	85.9
	강원/제주(성장)	[85]	44.5	40.5	100.0	76.2	18.8	16.5	100.0	22.9	25.0	94.0	2.4	16.5	30.6	84.7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6.1	47.4	100.0	82.5	31.7	29.4	99.2	23.8	48.6	95.8	9.5	15.5	27.5	85.8
	수도권 유입	[345]	46.1	49.6	99.7	91.0	26.4	22.1	100.0	35.1	50.4	94.5	9.3	25.2	40.3	87.2
	지방토박이	[772]	45.2	43.9	100.0	85.2	24.1	17.2	99.5	36.0	31.8	94.5	11.3	17.8	28.1	85.8
	지방유입	[27]	45.7	41.7	100.0	77.8	29.6	25.9	100.0	42.1	29.6	88.5	0.0	18.5	25.9	81.5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5.1	51.5	100.0	92.6	30.5	27.7	100.0	32.1	59.1	89.4	9.5	29.5	37.9	87.4
	전라권유입	[114]	48.7	56.6	100.0	93.0	28.1	26.3	100.0	30.9	78.8	96.5	14.9	36.0	48.2	87.7
	경상권유입	[113]	44.4	41.3	99.1	88.5	22.1	12.4	100.0	46.2	16.8	96.4	3.5	10.6	32.7	89.4
	강원/제주유입	[23]	44.8	47.4	100.0	87.0	21.7	26.1	100.0	15.4	40.9	95.7	8.7	26.1	47.8	73.9

2.3.2 금융

전체 분석

- ◆ (금융)금융 부담에 대한 조사 결과, '그뭉' 응답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뉱' 응답이 41.8%로 나타남



문32

(금융)금융 부담

계층별 상세분석

- ◆ '그뭉'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78.9%), 30대(70.5%), 대학원이상(70.0%), 학생(74.0%), '금늑'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57.8%), 60대(68.2%), 중졸이하(58.8%), 자영업(52.9%), 전업주부(56.9%) 등으로 나타남

표80. 응답자 특성 : ◀ 첨가 : 금융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그뭉	금늑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8.0	41.8	0.0	0.2
성별	남성	[1,014]	64.5	35.4	0.0	0.1
	여성	[986]	51.2	48.3	0.1	0.4
연령별	만 15-19 세	[161]	67.7	31.1	0.0	1.2
	20 대	[342]	78.9	21.1	0.0	0.0
	30 대	[386]	70.5	29.3	0.0	0.3
	40 대	[439]	57.9	42.1	0.0	0.0
	50 대	[417]	41.7	57.8	0.2	0.2
	60 대	[255]	31.4	68.2	0.0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40.0	58.8	0.0	1.2
	고졸이하	[848]	50.7	49.1	0.1	0.1
	대졸이하	[1,012]	64.7	35.0	0.0	0.3
	대학원이상	[60]	70.0	30.0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46.6	52.9	0.3	0.3
	블루칼라	[399]	58.4	41.6	0.0	0.0
	화이트칼라	[496]	64.9	35.1	0.0	0.0
	전업주부	[343]	42.6	56.9	0.0	0.6
	학생	[342]	74.0	25.4	0.0	0.6
	무직/기타	[70]	60.0	40.0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59.4	40.5	0.0	0.1
	보통	[781]	58.9	40.5	0.1	0.5
	무관심	[303]	51.2	48.8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그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성장)(75.5%), 수도권 토박이(75.9%), 충청권유입(68.4%), '금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77.1%), 경상권(성장)(74.8%), 경상권유입(64.6%) 등으로 나타남.

■ 표81. 응답자 특성 : ◡첨가 : 금융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그몸	금녕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8.0	41.8	0.0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68.9	30.7	0.1	0.3
	충청권(거주)	[164]	68.9	31.1	0.0	0.0
	전라권(거주)	[155]	64.5	35.5	0.0	0.0
	경상권(거주)	[414]	22.7	77.1	0.0	0.2
	강원/제주(거주)	[66]	37.9	62.1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75.5	24.1	0.0	0.3
	충청권(성장)	[247]	69.2	30.8	0.0	0.0
	전라권(성장)	[273]	60.4	39.6	0.0	0.0
	경상권(성장)	[512]	24.6	74.8	0.2	0.4
	강원/제주(성장)	[85]	35.3	64.7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75.9	23.7	0.0	0.4
	수도권 유입	[345]	51.3	48.1	0.3	0.3
	지방토박이	[772]	40.8	59.1	0.0	0.1
	지방유입	[27]	63.0	37.0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68.4	31.6	0.0	0.0
	전라권유입	[114]	57.0	43.0	0.0	0.0
	경상권유입	[113]	33.6	64.6	0.9	0.9
	강원/제주유입	[23]	39.1	60.9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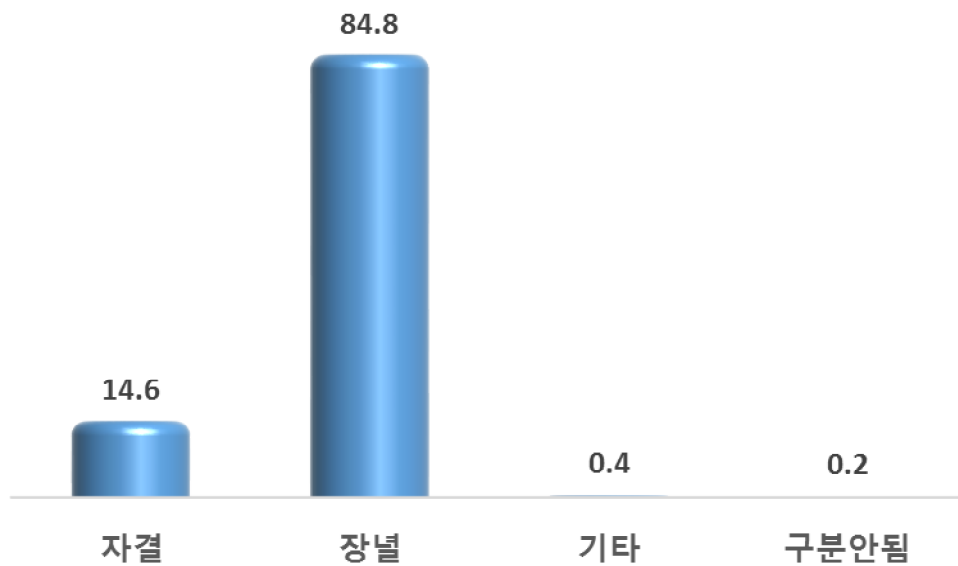
2.3.3 작열

전체 분석

- ◆ (작열)작열에 대한 조사 결과, '장열' 응답이 8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결' 응답이 14.6%로 나타남

■ 그림38. ◡첨가 : 작열 ■

(단위 : %)



문38-2

(작열)오늘 낮에는 태양이 뜨겁게 작열했다.

계층별 상세분석

- ◆ '장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자영업(90.6%), '자결'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24.8%), 20대(23.4%), 대학원이상(23.3%), 학생(27.5%) 등임

■ 표82. 응답자 특성 : ◀ 첨가 : 작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자결	장년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14.6	84.8	0.4	0.2
성별	남성	[1,014]	14.3	84.9	0.6	0.2
	여성	[986]	14.9	84.7	0.3	0.1
연령별	만 15-19 세	[161]	24.8	73.9	0.6	0.6
	20 대	[342]	23.4	76.6	0.0	0.0
	30 대	[386]	13.7	85.5	0.5	0.3
	40 대	[439]	10.5	89.1	0.2	0.2
	50 대	[417]	10.6	88.5	1.0	0.0
	60 대	[255]	11.4	88.2	0.4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13.8	86.2	0.0	0.0
	고졸이하	[848]	12.9	86.3	0.5	0.4
	대졸이하	[1,012]	15.6	83.9	0.5	0.0
	대학원이상	[60]	23.3	76.7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8.9	90.6	0.6	0.0
	블루칼라	[399]	11.8	87.5	0.5	0.3
	화이트칼라	[496]	14.1	85.3	0.4	0.2
	전업주부	[343]	11.1	88.3	0.6	0.0
	학생	[342]	27.5	71.9	0.3	0.3
	무직/기타	[70]	17.1	82.9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14.5	84.9	0.3	0.2
	보통	[781]	14.9	84.4	0.8	0.0
	무관심	[303]	14.2	85.5	0.0	0.3

계층별 상세분석

- ◆ '장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 유입(91.0%), 충청권유입(92.6%), 전라권 유입(93.0%), '자결'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27.3%), 강원/제주 (성장)(22.4%) 등으로 나타남

표83. 응답자 특성 : ◀첨가 : 작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자결	장년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14.6	84.8	0.4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14.7	84.8	0.4	0.1
	충청권(거주)	[164]	12.2	87.8	0.0	0.0
	전라권(거주)	[155]	9.0	90.3	0.6	0.0
	경상권(거주)	[414]	15.5	83.6	0.7	0.2
	강원/제주(거주)	[66]	27.3	71.2	0.0	1.5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17.3	82.2	0.3	0.1
	충청권(성장)	[247]	9.3	90.3	0.4	0.0
	전라권(성장)	[273]	7.3	92.3	0.4	0.0
	경상권(성장)	[512]	15.0	84.2	0.6	0.2
	강원/제주(성장)	[85]	22.4	75.3	1.2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17.2	82.4	0.4	0.1
	수도권 유입	[345]	8.4	91.0	0.6	0.0
	지방토박이	[772]	14.2	85.0	0.5	0.3
	지방유입	[27]	22.2	77.8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6.3	92.6	1.1	0.0
	전라권유입	[114]	7.0	93.0	0.0	0.0
	경상권유입	[113]	11.5	88.5	0.0	0.0
	강원/제주유입	[23]	8.7	87.0	4.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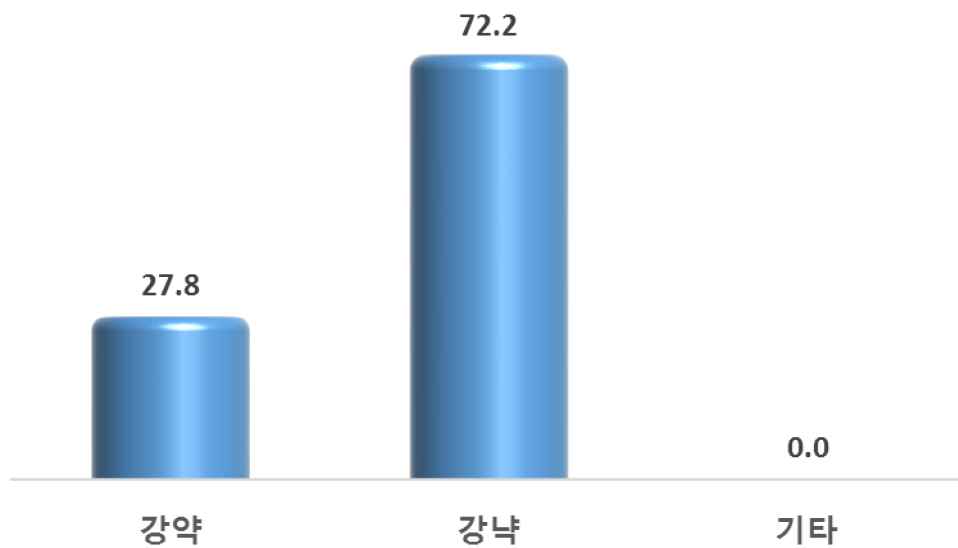
2.3.4 강약

전체 분석

- ◆ (강약)강약에 대한 조사 결과, '강낙' 응답이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약' 응답이 27.8%로 나타남

■ 그림39. ◡첨가 : 강약 ■

(단위 : %)



문26

(강약)강약 조절

계층별 상세분석

- ◆ '강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75.1%), 무직/기타(75.7%), '강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대학원이상(33.3%) 등으로 나타남

표84. 응답자 특성 : ◀ 첨가 : 강박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강박	강박	기타
[전 체]		[2,000]	27.8	72.2	0.0
성별	남성	[1,014]	30.2	69.8	0.0
	여성	[986]	25.4	74.5	0.1
연령별	만 15-19 세	[161]	26.1	73.9	0.0
	20 대	[342]	24.9	75.1	0.0
	30 대	[386]	25.9	74.1	0.0
	40 대	[439]	31.2	68.6	0.2
	50 대	[417]	29.3	70.7	0.0
	60 대	[255]	27.5	72.5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26.2	73.8	0.0
	고졸이하	[848]	27.0	73.0	0.0
	대졸이하	[1,012]	28.3	71.6	0.1
	대학원이상	[60]	33.3	66.7	0.0
직업별	자영업	[350]	28.9	71.1	0.0
	블루칼라	[399]	26.1	73.9	0.0
	화이트칼라	[496]	29.0	71.0	0.0
	전업주부	[343]	27.4	72.3	0.3
	학생	[342]	28.1	71.9	0.0
	무직/기타	[70]	24.3	75.7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29.5	70.5	0.0
	보통	[781]	27.7	72.2	0.1
	무관심	[303]	23.1	76.9	0.0

계층별 상세분석

- ◆ '강낙'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81.9%), 강원/제주(거주)(80.3%), 경상권(성장)(80.9%), 강원/제주(성장)(81.2%), '강약'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34.8%) 등으로 나타남

■ 표85. 응답자 특성 : ◀첨가 : 강약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강약	강낙	기타
[전 체]		[2,000]	27.8	72.2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30.1	69.8	0.1
	충청권(거주)	[164]	31.7	68.3	0.0
	전라권(거주)	[155]	34.8	65.2	0.0
	경상권(거주)	[414]	18.1	81.9	0.0
	강원/제주(거주)	[66]	19.7	80.3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31.6	68.4	0.0
	충청권(성장)	[247]	31.2	68.8	0.0
	전라권(성장)	[273]	31.9	68.1	0.0
	경상권(성장)	[512]	18.9	80.9	0.2
	강원/제주(성장)	[85]	18.8	81.2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31.7	68.3	0.0
	수도권 유입	[345]	26.4	73.3	0.3
	지방토박이	[772]	24.1	75.9	0.0
	지방유입	[27]	29.6	70.4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30.5	69.5	0.0
	전라권유입	[114]	28.1	71.9	0.0
	경상권유입	[113]	22.1	77.0	0.9
	강원/제주유입	[23]	21.7	78.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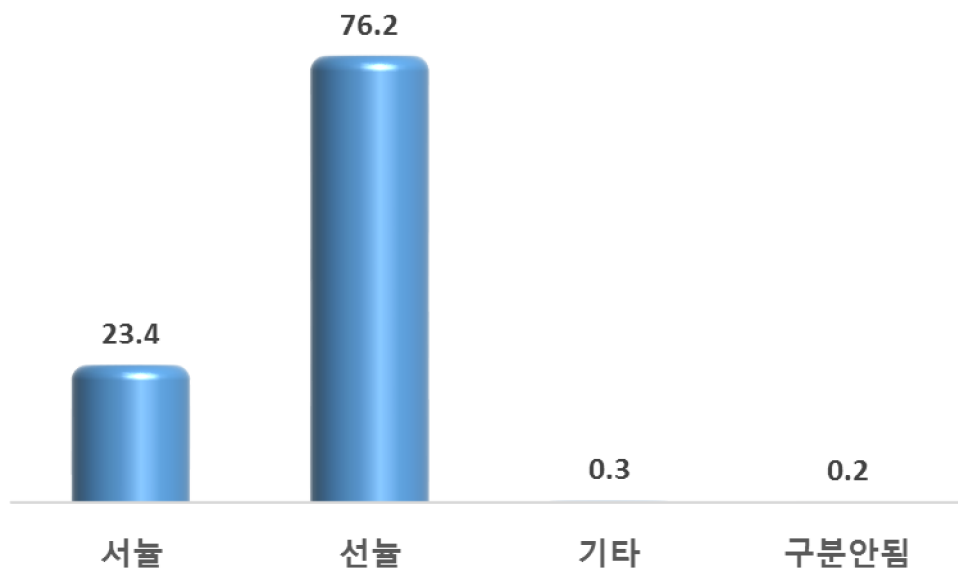
2.3.5 선율

전체 분석

- ◆ (선율)선율에 대한 조사 결과, '선눌' 응답이 76.2%로 가장 높았으며, '서눌' 응답이 23.4%로 나타남

■ 그림40. ㄴ첨가 : 선율 ■

(단위 : %)



문43

(선율)선율

계층별 상세분석

- ◆ '선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성(79.0%), 50대(82.3%), 60대(86.3%), 자영업(81.4%), 전업주부(81.6%), 무관심(82.5%), '서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성(26.1%), 만15-19세(36.0%), 20대(35.1%), 학생(38.9%) 등으로 나타남

표86. 응답자 특성 : ◀첨가 : 선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서놀	선놀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23.4	76.2	0.3	0.2
성별	남성	[1,014]	26.1	73.4	0.4	0.1
	여성	[986]	20.5	79.0	0.2	0.3
연령별	만 15-19 세	[161]	36.0	62.7	0.6	0.6
	20 대	[342]	35.1	64.9	0.0	0.0
	30 대	[386]	23.6	76.2	0.3	0.0
	40 대	[439]	21.4	78.1	0.0	0.5
	50 대	[417]	16.8	82.3	1.0	0.0
	60 대	[255]	13.3	86.3	0.0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18.8	78.8	0.0	2.5
	고졸이하	[848]	21.1	78.4	0.4	0.1
	대졸이하	[1,012]	25.4	74.2	0.3	0.1
	대학원이상	[60]	26.7	73.3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18.3	81.4	0.3	0.0
	블루칼라	[399]	21.6	78.2	0.3	0.0
	화이트칼라	[496]	22.0	77.4	0.4	0.2
	전업주부	[343]	17.5	81.6	0.3	0.6
	학생	[342]	38.9	60.5	0.3	0.3
	무직/기타	[70]	21.4	78.6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25.3	74.1	0.2	0.3
	보통	[781]	23.4	76.1	0.4	0.1
	무관심	[303]	17.2	82.5	0.3	0.0

계층별 상세분석

- ◆ '선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94.0%), 강원/제주(거주)(84.8%), 경상권(성장)(92.4%), 강원/제주(성장)(82.4%), 지방토박이(82.6%), 경상권유입(85.8%), '서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31.1%), 전라권(거주)(35.5%), 수도권(성장)(29.2%), 충청권(성장)(28.7%), 전라권(성장)(31.9%), 수도권 토박이(29.3%) 등으로 나타남

표87. 응답자 특성 : ◀첨가 : 선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서눌	선눌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23.4	76.2	0.3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27.2	72.0	0.4	0.3
	충청권(거주)	[164]	31.1	68.9	0.0	0.0
	전라권(거주)	[155]	35.5	64.5	0.0	0.0
	경상권(거주)	[414]	6.0	94.0	0.0	0.0
	강원/제주(거주)	[66]	13.6	84.8	1.5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29.2	70.1	0.3	0.3
	충청권(성장)	[247]	28.7	70.9	0.0	0.4
	전라권(성장)	[273]	31.9	68.1	0.0	0.0
	경상권(성장)	[512]	7.2	92.4	0.4	0.0
	강원/제주(성장)	[85]	16.5	82.4	1.2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29.3	70.0	0.4	0.4
	수도권 유입	[345]	22.0	77.1	0.6	0.3
	지방토박이	[772]	17.2	82.6	0.1	0.0
	지방유입	[27]	25.9	74.1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27.4	71.6	0.0	1.1
	전라권유입	[114]	26.3	73.7	0.0	0.0
	경상권유입	[113]	12.4	85.8	1.8	0.0
	강원/제주유입	[23]	26.1	73.9	0.0	0.0

2.3.6 야금야금

전체 분석

- ◆ (야금야금)야금야금에 대한 조사 결과, '야금냐금' 응답이 9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야그마금' 응답이 6.8%로 나타남

■ 그림41. ◡ 첨가 : 야금야금 ■

(단위 : %)



문8

(야금야금)야금야금

계층별 상세분석

- ◆ '야금냐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성(94.6%), 전업주부(96.2%), 무관심(95.7%), '야그마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성(9.0%) 등으로 나타남

표88. 응답자 특성 : L첨가 : 야금야금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야그마금	야금냐금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6.8	92.5	0.6	0.2
성별	남성	[1,014]	9.0	90.4	0.4	0.2
	여성	[986]	4.6	94.6	0.7	0.1
연령별	만 15-19 세	[161]	9.3	90.7	0.0	0.0
	20 대	[342]	8.8	90.1	0.6	0.6
	30 대	[386]	7.8	91.7	0.3	0.3
	40 대	[439]	6.6	92.7	0.7	0.0
	50 대	[417]	4.8	94.2	1.0	0.0
	60 대	[255]	4.7	94.9	0.4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5.0	95.0	0.0	0.0
	고졸이하	[848]	5.4	93.8	0.7	0.1
	대졸이하	[1,012]	8.0	91.3	0.5	0.2
	대학원이상	[60]	8.3	91.7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6.0	92.9	0.9	0.3
	블루칼라	[399]	7.0	92.7	0.0	0.3
	화이트칼라	[496]	8.5	90.9	0.4	0.2
	전업주부	[343]	2.3	96.2	1.5	0.0
	학생	[342]	8.5	91.2	0.3	0.0
	무직/기타	[70]	11.4	88.6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6.9	92.4	0.8	0.0
	보통	[781]	7.7	91.4	0.5	0.4
	무관심	[303]	4.3	95.7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야금냐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94.8%), 지방유입(96.3%) 등으로 나타남.

■ 표89. 응답자 특성 : L첨가 : 야금야금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야그야금	야금냐금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6.8	92.5	0.6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7.5	91.9	0.6	0.0
	충청권(거주)	[164]	6.1	93.9	0.0	0.0
	전라권(거주)	[155]	5.2	94.8	0.0	0.0
	경상권(거주)	[414]	5.8	92.5	1.0	0.7
	강원/제주(거주)	[66]	6.1	93.9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7.7	91.5	0.8	0.0
	충청권(성장)	[247]	6.5	93.5	0.0	0.0
	전라권(성장)	[273]	5.9	94.1	0.0	0.0
	경상권(성장)	[512]	5.7	93.0	0.8	0.6
	강원/제주(성장)	[85]	8.2	91.8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7.8	91.4	0.8	0.0
	수도권 유입	[345]	6.7	93.3	0.0	0.0
	지방토박이	[772]	5.8	93.3	0.5	0.4
	지방유입	[27]	3.7	96.3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6.3	93.7	0.0	0.0
	전라권유입	[114]	6.1	93.9	0.0	0.0
	경상권유입	[113]	6.2	93.8	0.0	0.0
	강원/제주유입	[23]	13.0	87.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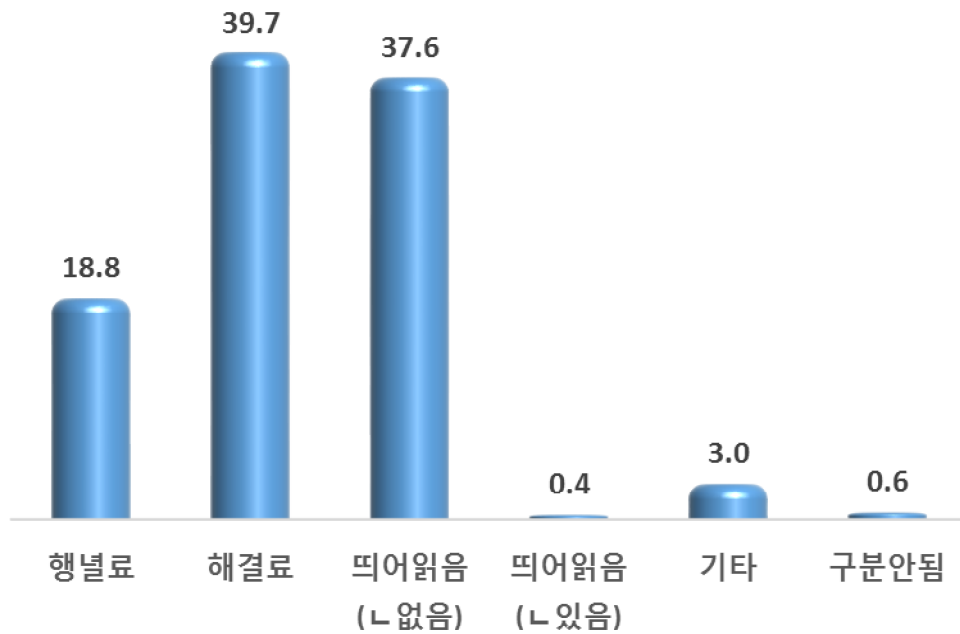
2.3.7 핵연료

전체 분석

- ◆ (핵연료)핵연료에 대한 조사 결과, '해결료' 응답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띄어읽음(ㄴ 없음)'¹⁾ 응답이 37.6%, '행널료' 응답이 18.8%, '띄어읽음(ㄴ 있음)'²⁾ 응답이 0.4% 등으로 조사됨

■ 그림42. ㄴ첨가 : 핵연료 ■

(단위 : %)



문12

(핵연료)핵연료

- 1) 띄어읽음(ㄴ 없음) : 핵연료 발음을 띄어 읽음과 동시에 'ㄴ'이 없는 발음으로, '핵#연료', '핵#열#료', '핵#열료' 등의 발음을 포함함
- 2) 띄어읽음(ㄴ 있음) : 핵연료 발음을 띄어 읽음과 동시에 'ㄴ'이 포함된 발음으로, '핵#년#료', '핵#년료', '핵#널료' 등의 발음을 포함함

계층별 상세분석

- ◆ '해결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성(42.5%), 20대(47.1%), 30대(45.3%), '딛어 읽음(ㄴ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성(40.7%), 60대(46.3%), 전업주부(50.7%), '행널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중졸이하(26.2%), 무관심(24.1%) 등으로 나타남

표90. 응답자 특성 : ㄴ 첨가 : 핵연료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행널료	해결료	딛어읽음 (ㄴ 없음)	딛어읽음 (ㄴ 있음)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18.8	39.7	37.6	0.4	3.0	0.6
성별	남성	[1,014]	18.9	42.5	34.5	0.3	3.0	0.8
	여성	[986]	18.6	36.8	40.7	0.5	2.9	0.5
연령별	만 15-19 세	[161]	18.6	37.3	34.2	1.9	6.8	1.2
	20 대	[342]	16.1	47.1	30.4	0.6	4.1	1.8
	30 대	[386]	16.6	45.3	32.9	0.0	4.9	0.3
	40 대	[439]	17.8	39.0	41.0	0.0	1.8	0.5
	50 대	[417]	23.0	35.5	40.0	0.5	1.0	0.0
	60 대	[255]	20.4	31.0	46.3	0.4	1.2	0.8
학력별	중졸이하	[80]	26.2	27.5	40.0	0.0	6.2	0.0
	고졸이하	[848]	20.2	37.1	39.5	0.4	2.2	0.6
	대졸이하	[1,012]	17.0	42.7	35.7	0.5	3.4	0.8
	대학원이상	[60]	18.3	41.7	38.3	0.0	1.7	0.0
직업별	자영업	[350]	20.6	40.6	37.4	0.0	0.9	0.6
	블루칼라	[399]	22.1	40.6	33.3	0.0	3.3	0.8
	화이트칼라	[496]	16.1	44.2	35.9	0.4	2.8	0.6
	전업주부	[343]	19.0	28.0	50.7	0.6	1.7	0.0
	학생	[342]	17.0	43.0	32.2	0.6	6.1	1.2
	무직/기타	[70]	17.1	40.0	35.7	2.9	2.9	1.4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16.4	40.3	39.5	0.1	2.9	0.8
	보통	[781]	19.5	40.2	35.5	0.8	3.5	0.6
	무관심	[303]	24.1	36.6	37.0	0.3	1.7	0.3

계층별 상세분석

- ◆ '해결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45.7%), '띄어읽음(ㄴ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46.5%), 전라권(성장)(43.6%), '행널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26.1%), 경상권(성장)(26.4%), 경상권유입(26.5%) 등으로 나타남

표91. 응답자 특성 : ㄴ첨가 : 핵연료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행널료	해결료	띄어읽음 (ㄴ 없음)	띄어읽음 (ㄴ 있음)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18.8	39.7	37.6	0.4	3.0	0.6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16.7	41.9	36.6	0.6	3.7	0.5
	충청권(거주)	[164]	23.2	45.7	27.4	0.0	2.4	1.2
	전라권(거주)	[155]	11.6	39.4	46.5	0.0	1.9	0.6
	경상권(거주)	[414]	26.1	30.9	40.3	0.2	1.4	1.0
	강원/제주(거주)	[66]	15.2	40.9	40.9	0.0	3.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15.6	44.2	34.8	0.7	4.2	0.6
	충청권(성장)	[247]	20.6	43.3	33.2	0.0	2.0	0.8
	전라권(성장)	[273]	14.7	39.2	43.6	0.0	2.2	0.4
	경상권(성장)	[512]	26.4	30.5	40.4	0.4	1.6	0.8
	강원/제주(성장)	[85]	12.9	40.0	42.4	0.0	3.5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15.2	44.3	34.9	0.7	4.3	0.6
	수도권 유입	[345]	20.6	35.9	40.9	0.3	2.0	0.3
	지방토박이	[772]	21.5	36.3	39.2	0.1	1.9	0.9
	지방유입	[27]	29.6	40.7	29.6	0.0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18.9	37.9	41.1	0.0	2.1	0.0
	전라권유입	[114]	18.4	39.5	40.4	0.0	1.8	0.0
	경상권유입	[113]	26.5	29.2	41.6	0.9	1.8	0.0
	강원/제주유입	[23]	8.7	43.5	39.1	0.0	4.3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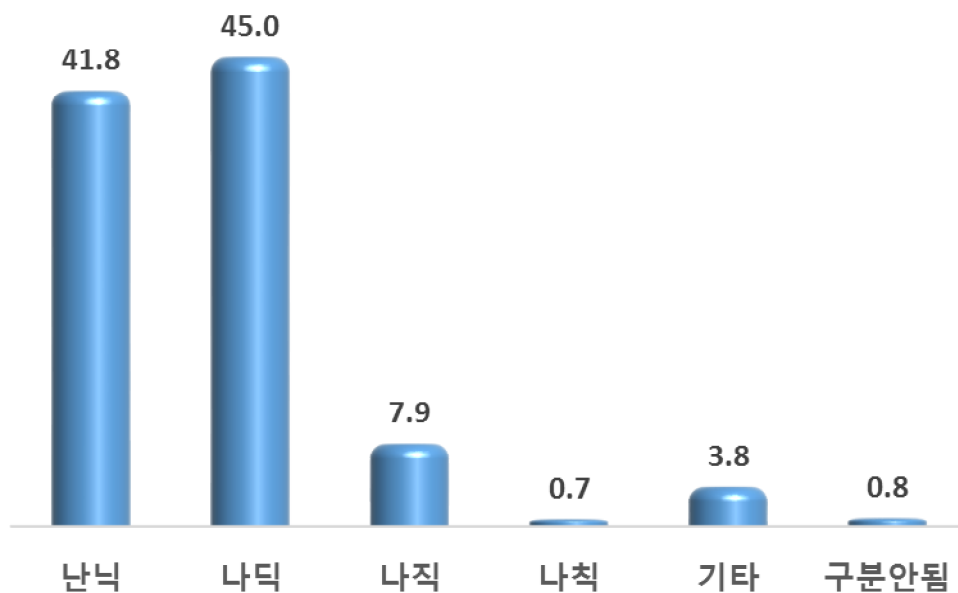
2.3.8 낯익은

전체 분석

- ◆ (낯익은)낯익은 항목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 '나딕' 응답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난닉' 응답이 41.8%로 나타남

■ 그림43. ◡첨가 : 낯익은 ■

(단위 : %)



문1-1

(낯익은)거기에는 낯익은 얼굴 여덟이 있었다.

계층별 상세분석

- ◆ '나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57.1%), 대학원이상(53.3%), 학생(51.8%), '난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성(45.3%), 60대(48.2%), 전업주부(48.4%), 관심(45.7%) 등으로 나타남

표92. 응답자 특성 : 나침가 : 낮익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난딕	나딕	나직	나침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41.8	45.0	7.9	0.7	3.8	0.8
성별	남성	[1,014]	38.5	44.9	10.3	0.9	4.4	1.1
	여성	[986]	45.3	45.2	5.5	0.5	3.0	0.4
연령별	만 15-19 세	[161]	22.4	57.1	13.0	1.9	5.0	0.6
	20 대	[342]	37.7	46.8	11.7	1.8	1.5	0.6
	30 대	[386]	43.5	44.6	8.0	1.0	2.6	0.3
	40 대	[439]	44.9	42.6	6.4	0.2	4.8	1.1
	50 대	[417]	44.1	44.8	5.5	0.0	4.6	1.0
	60 대	[255]	48.2	40.4	5.9	0.0	4.7	0.8
학력별	중졸이하	[80]	42.5	45.0	6.2	1.2	5.0	0.0
	고졸이하	[848]	42.3	44.6	6.6	0.5	5.0	1.1
	대졸이하	[1,012]	41.6	45.0	9.4	0.7	2.8	0.6
	대학원이상	[60]	38.3	53.3	3.3	3.3	1.7	0.0
직업별	자영업	[350]	45.7	41.4	5.4	0.6	4.6	2.3
	블루칼라	[399]	42.9	45.1	8.0	0.0	3.0	1.0
	화이트칼라	[496]	42.1	44.6	9.9	0.8	2.6	0.0
	전업주부	[343]	48.4	42.6	3.8	0.0	5.2	0.0
	학생	[342]	29.5	51.8	12.3	2.3	3.5	0.6
	무직/기타	[70]	42.9	45.7	4.3	0.0	5.7	1.4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45.7	42.7	7.0	0.8	3.1	0.8
	보통	[781]	39.4	46.2	8.6	0.8	4.1	0.9
	무관심	[303]	36.3	49.2	8.9	0.3	5.0	0.3

계층별 상세분석

- ◆ '나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72.0%), 강원/제주(거주)(65.2%), 경상권(성장)(72.3%), 강원/제주(성장)(60.0%), 지방토박이(56.0%), 경상권유입(66.4%), '난닉'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거주)(48.7%), 전라권(거주)(76.1%), 수도권(성장)(47.7%), 충청권(성장)(49.0%), 전라권(성장)(77.3%), 수도권 토박이(48.2%), 수도권 유입(49.9%), 충청권유입(57.9%), 전라권유입(78.1%) 등으로 나타남

표93. 응답자 특성 : 나침가 : 낮익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난닉	나딕	나직	나칙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41.8	45.0	7.9	0.7	3.8	0.8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8.7	38.2	8.1	0.7	3.4	0.8
	충청권(거주)	[164]	44.5	43.9	9.1	0.0	1.8	0.6
	전라권(거주)	[155]	76.1	18.7	4.5	0.6	0.0	0.0
	경상권(거주)	[414]	11.8	72.0	7.7	1.0	6.5	1.0
	강원/제주(거주)	[66]	18.2	65.2	10.6	0.0	6.1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7.7	38.4	9.1	1.1	3.1	0.7
	충청권(성장)	[247]	49.0	38.5	8.9	0.0	2.4	1.2
	전라권(성장)	[273]	77.3	16.8	4.0	0.4	1.1	0.4
	경상권(성장)	[512]	12.3	72.3	7.2	0.6	6.8	0.8
	강원/제주(성장)	[85]	24.7	60.0	9.4	0.0	4.7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8.2	38.4	8.5	1.1	3.0	0.7
	수도권 유입	[345]	49.9	37.7	7.0	0.0	4.3	1.2
	지방토박이	[772]	31.6	56.0	7.0	0.5	4.3	0.6
	지방유입	[27]	29.6	37.0	25.9	3.7	3.7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57.9	29.5	7.4	0.0	3.2	2.1
	전라권유입	[114]	78.1	15.8	2.6	0.0	2.6	0.9
	경상권유입	[113]	16.8	66.4	9.7	0.0	7.1	0.0
	강원/제주유입	[23]	39.1	39.1	13.0	0.0	4.3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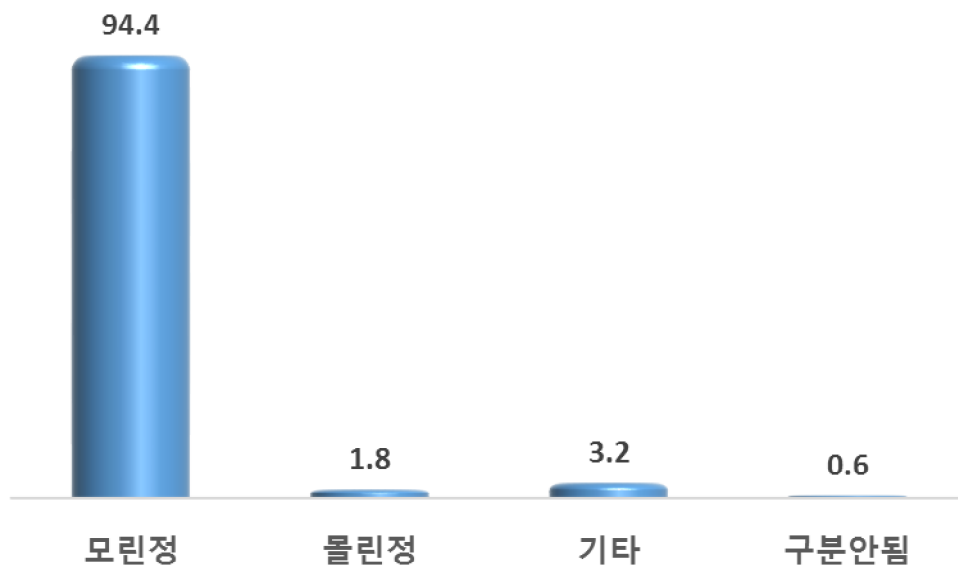
2.3.9 몰인정

전체 분석

- ◆ (몰인정)몰인정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모린정' 응답이 9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몰린정' 응답이 1.8%로 조사됨

■ 그림44. ◡첨가 : 몰인정 ◡

(단위 : %)



문4-1

(몰인정)그들의 부탁을 몰인정하게 거절하는 결례를 범했다.

계층별 상세분석

- ◆ '모린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40대(96.6%), '몰린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중졸이하(5.0%), 대학원이상(3.3%) 등으로 나타남

표94. 응답자 특성 : L 첨가 : 몰린정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모린정	몰린정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94.4	1.8	3.2	0.6
성별	남성	[1,014]	94.4	1.6	3.6	0.5
	여성	[986]	94.5	1.9	2.9	0.6
연령별	만 15-19 세	[161]	92.5	0.6	5.6	1.2
	20 대	[342]	94.4	2.3	3.2	0.0
	30 대	[386]	95.3	1.3	2.6	0.8
	40 대	[439]	96.6	2.1	1.4	0.0
	50 대	[417]	93.8	2.2	3.6	0.5
	60 대	[255]	91.8	1.2	5.5	1.6
학력별	중졸이하	[80]	87.5	5.0	5.0	2.5
	고졸이하	[848]	93.8	1.7	4.1	0.5
	대졸이하	[1,012]	95.6	1.5	2.5	0.5
	대학원이상	[60]	95.0	3.3	1.7	0.0
직업별	자영업	[350]	94.0	1.1	4.0	0.9
	블루칼라	[399]	94.7	1.0	4.0	0.3
	화이트칼라	[496]	96.2	2.2	1.4	0.2
	전업주부	[343]	93.3	2.0	3.8	0.9
	학생	[342]	93.3	2.3	3.8	0.6
	무직/기타	[70]	94.3	1.4	2.9	1.4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94.1	2.5	2.9	0.4
	보통	[781]	94.2	1.5	3.5	0.8
	무관심	[303]	96.0	0.0	3.6	0.3

계층별 상세분석

- ◆ '모린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유입(96.5%), '몰린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유입(4.2%) 등으로 나타남

표95. 응답자 특성 : ◀첨가 : 몰인정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모린정	몰린정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94.4	1.8	3.2	0.6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95.0	1.7	2.9	0.4
	충청권(거주)	[164]	93.9	1.2	4.3	0.6
	전라권(거주)	[155]	94.8	2.6	2.6	0.0
	경상권(거주)	[414]	93.5	1.7	4.1	0.7
	강원/제주(거주)	[66]	90.9	3.0	3.0	3.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95.1	1.6	2.8	0.5
	충청권(성장)	[247]	92.7	2.4	4.0	0.8
	전라권(성장)	[273]	95.6	2.2	2.2	0.0
	경상권(성장)	[512]	93.8	1.4	4.1	0.8
	강원/제주(성장)	[85]	92.9	2.4	3.5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95.4	1.6	2.6	0.4
	수도권 유입	[345]	93.9	1.7	3.8	0.6
	지방토박이	[772]	93.9	1.9	3.5	0.6
	지방유입	[27]	85.2	0.0	11.1	3.7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88.4	4.2	6.3	1.1
	전라권유입	[114]	96.5	1.8	1.8	0.0
	경상권유입	[113]	95.6	0.0	3.5	0.9
	강원/제주유입	[23]	95.7	0.0	4.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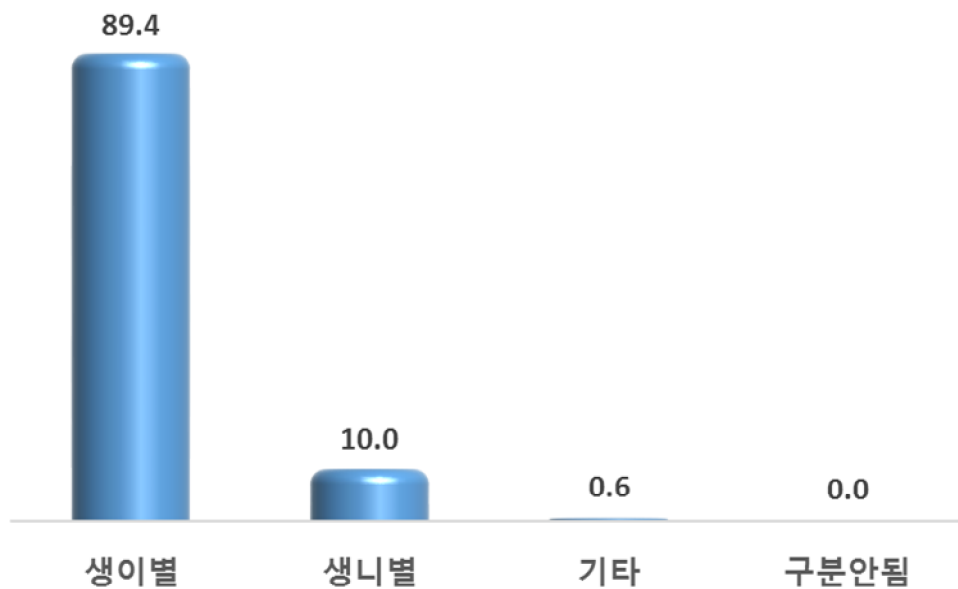
2.3.10 생이별

전체 분석

- ◆ (생이별)생이별에 대한 조사 결과, '생이별' 응답이 89.4%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표준발음인 '생니별' 응답은 10.0%에 불과했음

■ 그림45. ◡첨가 : 생이별 ■

(단위 : %)



문61

(생이별)생이별

계층별 상세분석

- ◆ '생이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40대(91.8%), 학생(92.1%), '생니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13.4%), 화이트칼라(12.3%) 등으로 나타남

표96. 응답자 특성 : L 첨가 : 생이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생이별	생니별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9.4	10.0	0.6	0.0
성별	남성	[1,014]	90.4	9.0	0.6	0.0
	여성	[986]	88.3	11.1	0.5	0.1
연령별	만 15-19 세	[161]	91.9	6.8	1.2	0.0
	20 대	[342]	89.8	9.6	0.6	0.0
	30 대	[386]	87.8	11.4	0.8	0.0
	40 대	[439]	91.8	7.5	0.5	0.2
	50 대	[417]	86.3	13.4	0.2	0.0
	60 대	[255]	90.6	9.0	0.4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90.0	10.0	0.0	0.0
	고졸이하	[848]	88.9	10.4	0.6	0.1
	대졸이하	[1,012]	89.5	9.9	0.6	0.0
	대학원이상	[60]	93.3	6.7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90.6	8.9	0.6	0.0
	블루칼라	[399]	90.0	9.3	0.5	0.3
	화이트칼라	[496]	86.7	12.3	1.0	0.0
	전업주부	[343]	88.9	11.1	0.0	0.0
	학생	[342]	92.1	7.6	0.3	0.0
	무직/기타	[70]	88.6	10.0	1.4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87.8	11.6	0.5	0.1
	보통	[781]	90.9	8.5	0.6	0.0
	무관심	[303]	90.4	9.2	0.3	0.0

계층별 상세분석

- ◆ '생이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95.9%), 강원/제주(거주)(100%), 경상권(성장)(96.1%), 강원/제주(성장)(95.3%), 경상권유입(96.5%), '생니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30.3%), 전라권(성장)(23.8%), 전라권유입(14.9%) 등으로 나타남

표97. 응답자 특성 : ◀첨가 : 생이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생이별	생니별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9.4	10.0	0.6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89.8	9.4	0.7	0.0
	충청권(거주)	[164]	84.8	14.6	0.0	0.6
	전라권(거주)	[155]	69.0	30.3	0.6	0.0
	경상권(거주)	[414]	95.9	3.9	0.2	0.0
	강원/제주(거주)	[66]	100.0	0.0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90.1	9.2	0.7	0.0
	충청권(성장)	[247]	85.8	13.4	0.8	0.0
	전라권(성장)	[273]	75.8	23.8	0.4	0.0
	경상권(성장)	[512]	96.1	3.7	0.2	0.0
	강원/제주(성장)	[85]	95.3	2.4	1.2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89.8	9.5	0.7	0.0
	수도권 유입	[345]	89.9	9.3	0.9	0.0
	지방토박이	[772]	88.3	11.3	0.3	0.1
	지방유입	[27]	100.0	0.0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88.4	9.5	2.1	0.0
	전라권유입	[114]	84.2	14.9	0.9	0.0
	경상권유입	[113]	96.5	3.5	0.0	0.0
	강원/제주유입	[23]	91.3	8.7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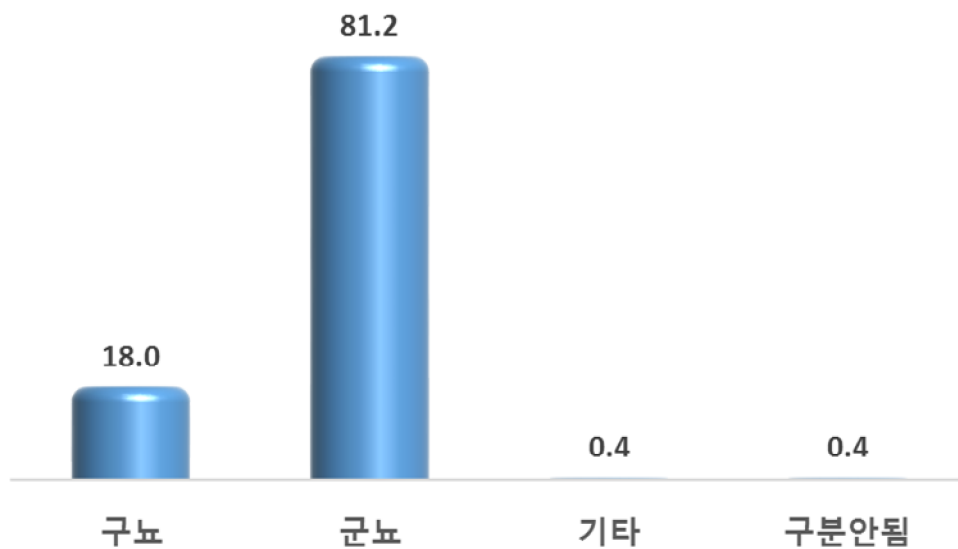
2.3.11 종균요

전체 분석

- ◆ (종균요)종균요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 '균요' 응답이 8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요' 응답이 18.0%로 나타남

■ 그림46. ◡첨가 : 종균요 ■

(단위 : %)



문39-2

(종균요)이 사전은 용례가 많아서 종균요.

계층별 상세분석

- ◆ '군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성(84.7%), 만15-19세(94.4%), 20대(91.8%), 학생(93.9%), '구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성(21.1%), 50대(29.3%), 60대(31.0%), 중졸이하(25.0%), 자영업(27.1%) 등으로 나타남

■ 표98. 응답자 특성 : L 첨가 : 종균요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구뇨	군뇨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18.0	81.2	0.4	0.4
성별	남성	[1,014]	21.1	77.7	0.6	0.6
	여성	[986]	14.9	84.7	0.1	0.3
연령별	만 15-19 세	[161]	5.0	94.4	0.0	0.6
	20 대	[342]	7.6	91.8	0.0	0.6
	30 대	[386]	13.2	85.8	0.8	0.3
	40 대	[439]	17.1	82.0	0.2	0.7
	50 대	[417]	29.3	69.8	0.7	0.2
	60 대	[255]	31.0	68.6	0.0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25.0	75.0	0.0	0.0
	고졸이하	[848]	20.2	79.0	0.4	0.5
	대졸이하	[1,012]	15.9	83.2	0.4	0.5
	대학원이상	[60]	15.0	85.0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27.1	72.3	0.3	0.3
	블루칼라	[399]	18.8	79.9	0.5	0.8
	화이트칼라	[496]	16.7	82.5	0.4	0.4
	전업주부	[343]	19.8	79.6	0.3	0.3
	학생	[342]	5.6	93.9	0.0	0.6
	무직/기타	[70]	30.0	68.6	1.4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15.5	83.5	0.4	0.5
	보통	[781]	20.4	79.1	0.3	0.3
	무관심	[303]	19.8	79.2	0.3	0.7

계층별 상세분석

- ◆ '군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87.0%), 경상권(성장)(87.5%), 경상권 유입(88.5%), '구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24.4%), 전라권(거주)(29.0%), 충청권(성장)(25.5%), 전라권(성장)(33.0%), 수도권 유입(25.2%), 충청권유입(29.5%), 전라권유입(36.0%) 등으로 나타남

표99. 응답자 특성 : ◀첨가 : 종균요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구노	군노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18.0	81.2	0.4	0.4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18.2	81.1	0.2	0.4
	충청권(거주)	[164]	24.4	75.0	0.6	0.0
	전라권(거주)	[155]	29.0	71.0	0.0	0.0
	경상권(거주)	[414]	11.4	87.0	0.7	1.0
	강원/제주(거주)	[66]	15.2	84.8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15.5	83.8	0.1	0.6
	충청권(성장)	[247]	25.5	73.3	0.8	0.4
	전라권(성장)	[273]	33.0	67.0	0.0	0.0
	경상권(성장)	[512]	11.1	87.5	0.8	0.6
	강원/제주(성장)	[85]	16.5	83.5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15.4	83.9	0.1	0.6
	수도권 유입	[345]	25.2	74.2	0.6	0.0
	지방토박이	[772]	17.7	81.2	0.5	0.5
	지방유입	[27]	18.5	81.5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29.5	69.5	1.1	0.0
	전라권유입	[114]	36.0	64.0	0.0	0.0
	경상권유입	[113]	10.6	88.5	0.9	0.0
	강원/제주유입	[23]	26.1	73.9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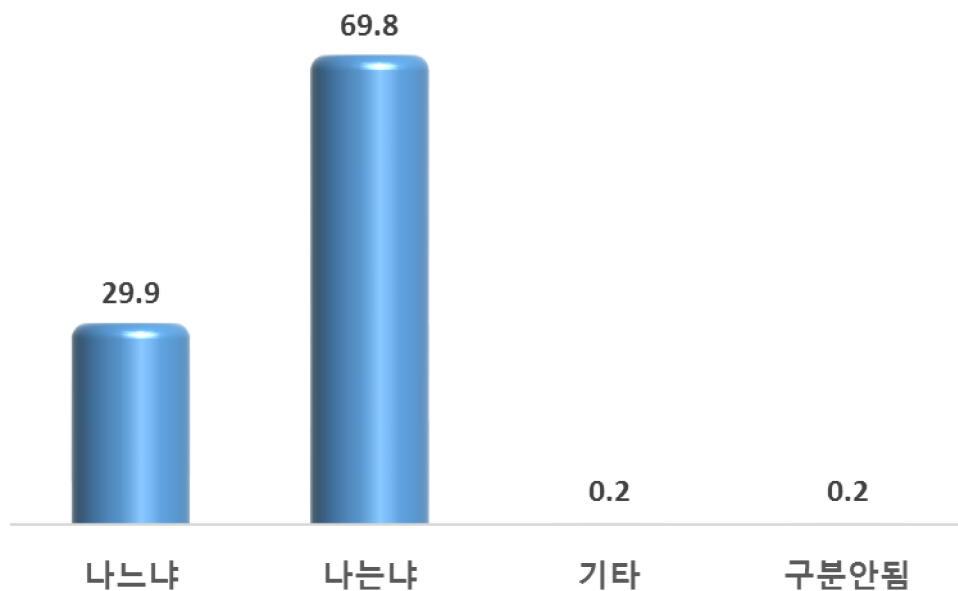
2.3.12 나는야

전체 분석

- ◆ (나는야)나는야에 대한 조사 결과, '나는냐' 응답이 69.8%로 가장 높았으며, '나느냐' 응답이 29.9%로 나타남

■ 그림47. ㄴ첨가 : 나는야 ■

(단위 : %)



문5

(나는야)나는야, 새 나라의 어린이.

계층별 상세분석

- ◆ '나는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88.8%), 20대(89.5%), 30대(75.9%), 대학원이상(76.7%), 학생(89.5%), '나는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40대(35.8%), 50대(45.6%), 60대(40.8%), 자영업(40.0%), 전업주부(39.4%) 등으로 나타남

표100. 응답자 특성 : 나 첨가 : 나는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나는나	나는나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29.9	69.8	0.2	0.2
성별	남성	[1,014]	29.5	70.2	0.3	0.0
	여성	[986]	30.3	69.3	0.1	0.3
연령별	만 15-19 세	[161]	11.2	88.8	0.0	0.0
	20 대	[342]	10.5	89.5	0.0	0.0
	30 대	[386]	24.1	75.9	0.0	0.0
	40 대	[439]	35.8	63.8	0.2	0.2
	50 대	[417]	45.6	53.7	0.5	0.2
	60 대	[255]	40.8	58.4	0.4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32.5	67.5	0.0	0.0
	고졸이하	[848]	33.7	65.7	0.4	0.2
	대졸이하	[1,012]	26.9	72.9	0.1	0.1
	대학원이상	[60]	23.3	76.7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40.0	59.7	0.3	0.0
	블루칼라	[399]	32.6	66.9	0.3	0.3
	화이트칼라	[496]	27.0	72.6	0.4	0.0
	전업주부	[343]	39.4	60.3	0.0	0.3
	학생	[342]	10.5	89.5	0.0	0.0
	무직/기타	[70]	32.9	65.7	0.0	1.4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29.4	70.1	0.2	0.3
	보통	[781]	30.2	69.7	0.1	0.0
	무관심	[303]	30.7	69.0	0.3	0.0

계층별 상세분석

- ◆ '나는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74.2%), 수도권 토박이(72.3%), '나는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성장)(38.1%), 수도권 유입(40.3%), 충청권유입(37.9%), 전라권유입(48.2%) 등으로 나타남

■ 표101. 응답자 특성 : ◀첨가 : 나는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나는나	나는나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29.9	69.8	0.2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31.1	68.5	0.2	0.2
	충청권(거주)	[164]	31.1	68.3	0.0	0.6
	전라권(거주)	[155]	28.4	71.0	0.6	0.0
	경상권(거주)	[414]	27.1	72.7	0.2	0.0
	강원/제주(거주)	[66]	25.8	74.2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27.4	72.4	0.0	0.2
	충청권(성장)	[247]	33.6	66.0	0.0	0.4
	전라권(성장)	[273]	38.1	61.2	0.7	0.0
	경상권(성장)	[512]	27.9	71.7	0.4	0.0
	강원/제주(성장)	[85]	30.6	69.4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27.5	72.3	0.0	0.2
	수도권 유입	[345]	40.3	59.1	0.6	0.0
	지방토박이	[772]	28.1	71.5	0.3	0.1
	지방유입	[27]	25.9	74.1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37.9	62.1	0.0	0.0
	전라권유입	[114]	48.2	50.9	0.9	0.0
	경상권유입	[113]	32.7	66.4	0.9	0.0
	강원/제주유입	[23]	47.8	52.2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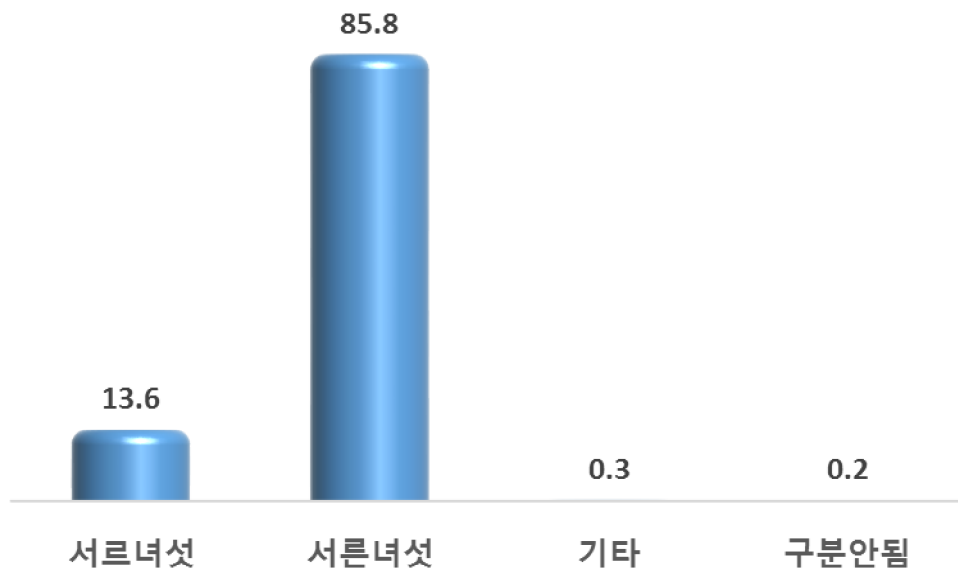
2.3.13 서른여섯

전체 분석

- ◆ (서른여섯)서른여섯에 대한 조사 결과, '서른여섯' 응답이 8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르녀섯' 응답이 13.6%로 조사됨

■ 그림48. ◡ 첨가 : 서른여섯 ■

(단위 : %)



문56

(서른여섯)서른여섯

계층별 상세분석

- ◆ '서른여섯'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89.4%), 60대(88.2%), '서르녀섯'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30대(16.8%), 화이트칼라(15.3%), 무관심(16.8%) 등으로 나타남

■ 표102. 응답자 특성 : ◀첨가 : 서른여섯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서르녀섯	서른여섯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13.6	85.8	0.3	0.2
성별	남성	[1,014]	14.6	84.9	0.2	0.3
	여성	[986]	12.7	86.7	0.4	0.2
연령별	만 15-19 세	[161]	9.3	89.4	1.2	0.0
	20 대	[342]	14.3	84.8	0.3	0.6
	30 대	[386]	16.8	82.1	0.3	0.8
	40 대	[439]	14.4	85.4	0.2	0.0
	50 대	[417]	12.2	87.5	0.2	0.0
	60 대	[255]	11.8	88.2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13.8	85.0	1.2	0.0
	고졸이하	[848]	14.5	85.0	0.4	0.1
	대졸이하	[1,012]	12.9	86.6	0.1	0.4
	대학원이상	[60]	13.3	85.0	1.7	0.0
직업별	자영업	[350]	13.1	86.3	0.3	0.3
	블루칼라	[399]	13.8	85.5	0.3	0.5
	화이트칼라	[496]	15.3	84.1	0.2	0.4
	전업주부	[343]	12.2	87.8	0.0	0.0
	학생	[342]	12.9	86.3	0.9	0.0
	무직/기타	[70]	14.3	85.7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12.1	87.4	0.2	0.2
	보통	[781]	14.2	85.1	0.3	0.4
	무관심	[303]	16.8	82.5	0.7	0.0

계층별 상세분석

- ◆ '서른여섯'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88.4%), 경상권유입(89.4%), '서른여섯'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성장)(14.1%) 등으로 나타남

표103. 응답자 특성 : ◡첨가 : 서른여섯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서른여섯	서른여섯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13.6	85.8	0.3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13.5	86.1	0.2	0.2
	충청권(거주)	[164]	15.2	84.1	0.6	0.0
	전라권(거주)	[155]	11.6	88.4	0.0	0.0
	경상권(거주)	[414]	14.5	84.5	0.2	0.7
	강원/제주(거주)	[66]	12.1	86.4	1.5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13.9	85.5	0.3	0.2
	충청권(성장)	[247]	13.8	85.8	0.4	0.0
	전라권(성장)	[273]	12.1	87.9	0.0	0.0
	경상권(성장)	[512]	13.9	85.4	0.2	0.6
	강원/제주(성장)	[85]	14.1	84.7	1.2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13.8	85.6	0.4	0.2
	수도권 유입	[345]	12.8	87.2	0.0	0.0
	지방토박이	[772]	13.7	85.5	0.4	0.4
	지방유입	[27]	18.5	81.5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12.6	87.4	0.0	0.0
	전라권유입	[114]	12.3	87.7	0.0	0.0
	경상권유입	[113]	10.6	89.4	0.0	0.0
	강원/제주유입	[23]	26.1	73.9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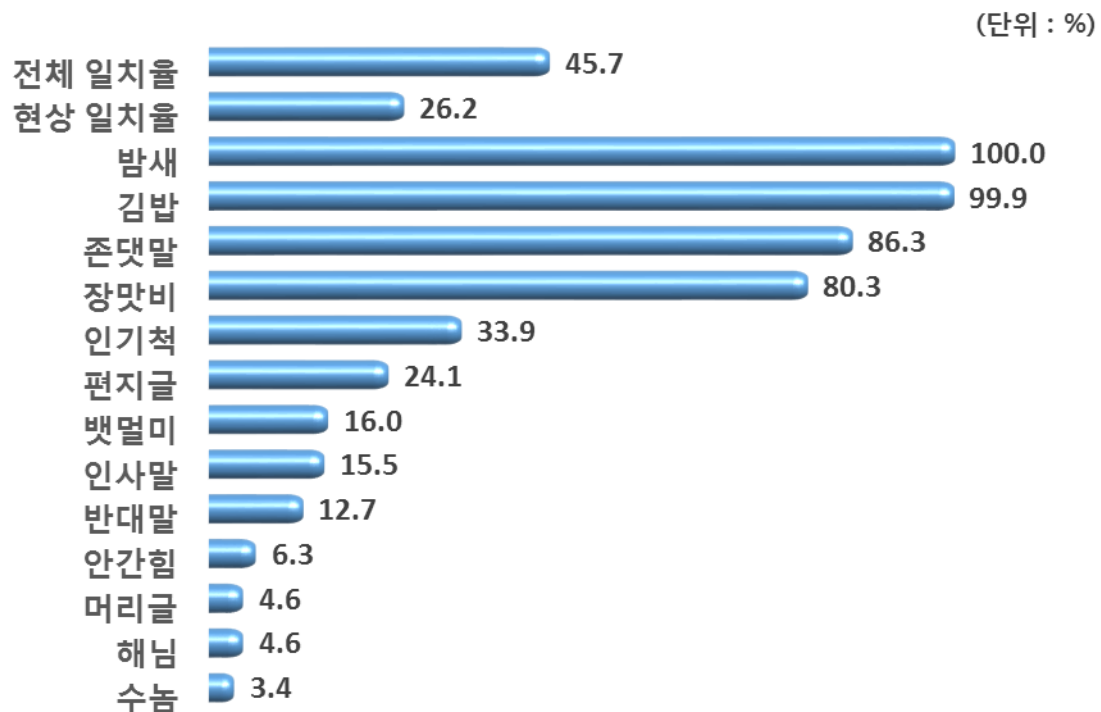
2.4 사잇 소리

2.4.1 사잇 소리_표준발음 일치율

전체 분석

- ◆ 사잇 소리 현상 표준발음 일치율(%)은 26.2%로, 전체 일치율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임. 한편, 개별 항목 별로는 복수 발음이 인정되는 '밤새'와 '김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존댓말' 86.3%, '장맛비' 80.3%, '인기척' 3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49. 표준발음 일치율 ■



문

해당없음

계층별 상세분석

- ◆ '존댓말' 항목의 표준발음 일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학생(92.1%), '장맛비'는 남성(85.2%), 만15-19세(87.6%), 20대(90.6%), 학생(90.6%), '인기척'은 50대(40.9%), 60대(39.2%), 대학원이상(45.0%) 응답자에게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임

표104.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일치율	현상 일치율	수능	안간힘	존댓말	인사말	반대말	편지글	머리글	인기척	벋얼미	해님	장맛비	밤새	김밥
[전 체]		[2,000]	45.7	26.2	3.4	6.3	86.3	15.5	12.7	24.1	4.6	33.9	16.0	4.6	80.3	100.0	99.9
성별	남성	[1,014]	45.1	26.0	3.3	7.5	85.5	14.5	11.8	20.9	3.9	33.2	16.4	4.2	85.2	100.0	100.0
	여성	[986]	46.4	26.3	3.5	5.1	87.1	16.4	13.7	27.5	5.3	34.7	15.5	4.9	75.4	100.0	99.9
연령별	만 15-19 세	[161]	44.0	26.6	5.6	0.0	91.3	11.2	11.8	14.3	6.8	29.2	32.3	2.5	87.6	100.0	100.0
	20 대	[342]	46.8	26.6	2.9	1.2	90.9	12.6	8.5	15.8	4.4	31.6	29.5	4.1	90.6	100.0	100.0
	30 대	[386]	46.7	24.7	4.1	2.3	88.3	11.4	12.4	18.2	4.2	28.0	12.5	6.7	83.4	100.0	100.0
	40 대	[439]	46.0	25.6	3.6	10.0	87.0	14.8	13.4	26.9	3.7	33.0	7.5	5.5	76.5	100.0	99.8
	50 대	[417]	45.0	26.8	2.2	11.3	83.9	17.5	12.8	31.4	3.8	40.9	11.3	3.8	75.8	100.0	100.0
	60 대	[255]	44.6	27.4	3.1	8.6	76.5	26.0	18.0	34.1	6.7	39.2	15.0	2.8	71.4	100.0	100.0
학력별	중졸이하	[80]	44.1	29.5	7.5	7.5	76.2	25.3	21.2	34.2	12.5	37.5	22.8	1.3	76.2	100.0	100.0
	고졸이하	[848]	44.7	26.4	3.3	7.8	83.6	17.2	13.9	29.1	5.0	34.9	14.1	4.4	76.8	100.0	100.0
	대졸이하	[1,012]	46.6	25.7	3.2	5.1	89.2	13.5	11.3	19.0	3.9	32.1	17.2	4.6	83.6	100.0	99.9
	대학원이상	[60]	47.9	26.7	3.3	3.3	88.3	11.7	8.3	28.3	0.0	45.0	13.3	10.0	81.7	100.0	100.0
직업별	자영업	[350]	44.6	25.7	1.7	12.0	82.2	16.9	12.6	29.0	4.6	33.8	9.5	2.9	78.0	100.0	99.7
	블루칼라	[399]	44.5	25.7	3.3	8.8	84.0	15.5	12.5	24.1	3.3	36.1	12.5	5.0	77.4	100.0	100.0
	화이트칼라	[496]	46.9	25.5	5.0	4.0	89.9	12.5	11.3	18.8	3.4	33.3	13.9	5.6	82.3	100.0	100.0
	전업주부	[343]	46.7	27.1	2.9	7.3	82.2	21.9	17.2	36.0	5.3	36.7	10.5	5.6	72.3	100.0	100.0
	학생	[342]	45.9	26.7	3.8	0.9	92.1	11.7	9.6	14.3	5.8	28.1	33.6	3.2	90.6	100.0	100.0
	무직/기타	[70]	45.2	28.3	1.4	1.4	85.7	15.7	17.1	28.6	10.0	41.4	22.9	4.3	84.1	100.0	10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46.4	26.4	4.5	5.9	88.3	14.6	12.2	24.3	4.4	33.9	16.1	6.4	80.1	100.0	99.9
	보통	[781]	45.6	25.7	2.4	6.7	84.6	15.0	11.9	23.4	4.5	34.3	16.9	2.8	80.4	100.0	100.0
	무관심	[303]	43.9	26.4	2.6	6.6	84.5	19.1	16.2	25.7	5.3	33.0	13.2	3.3	80.9	100.0	100.0

계층별 상세분석

- ◆ '존댓말'은 수도권(거주)(91.6%), 수도권(성장)(93.0%), 수도권 토박이(93.6%), '장맛비'는 충청권유입(84.2%), '인기척'은 강원/제주(거주)(39.4%), 충청권유입(35.8%) 응답자에게서 비교적 높은 일치율을 나타냄

표105.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일치율	현상 일치율	수능	안가힘	존댓말	인사말	반대말	편지글	머리글	인기척	벋말미	해님	장맛비	밤새	김밥
[전 체]		[2,000]	45.7	26.2	3.4	6.3	86.3	15.5	12.7	24.1	4.6	33.9	16.0	4.6	80.3	100.0	99.9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6.1	25.8	3.3	6.8	91.6	12.0	9.1	23.6	3.8	32.6	16.3	3.8	80.9	100.0	99.9
	충청권(거주)	[164]	46.5	25.1	2.4	7.3	84.1	9.1	11.6	15.9	5.5	36.0	17.7	5.5	81.1	100.0	100.0
	전라권(거주)	[155]	47.9	25.6	6.5	7.1	75.5	12.3	15.5	23.9	7.1	32.9	14.2	7.1	79.4	100.0	100.0
	경상권(거주)	[414]	43.8	27.5	2.9	4.3	75.4	29.7	22.5	28.6	5.6	36.3	13.6	5.3	78.5	100.0	100.0
	강원/제주(거주)	[66]	44.8	28.0	3.0	4.5	89.4	12.3	13.6	27.7	4.5	39.4	24.6	4.6	81.8	100.0	10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6.1	25.5	3.2	6.0	93.0	10.0	7.6	19.6	3.3	34.1	17.6	3.9	82.1	100.0	99.9
	충청권(성장)	[247]	46.1	25.3	2.8	8.9	85.8	8.5	11.7	20.2	4.5	35.2	13.4	5.3	82.2	100.0	100.0
	전라권(성장)	[273]	48.1	26.7	5.5	7.7	81.7	14.3	16.9	32.2	8.1	30.4	14.3	5.9	77.3	100.0	100.0
	경상권(성장)	[512]	43.9	27.3	2.9	4.5	76.8	29.1	19.9	29.4	5.1	34.6	14.6	4.7	78.3	100.0	100.0
	강원/제주(성장)	[85]	44.5	27.0	3.5	8.2	90.5	14.3	11.8	25.0	3.5	35.3	20.2	4.8	78.8	100.0	10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6.1	25.5	3.2	6.2	93.6	9.7	7.1	19.8	3.3	34.2	17.4	4.0	82.2	100.0	99.9
	수도권 유입	[345]	46.1	26.5	3.8	8.4	86.6	17.7	14.0	33.1	4.9	28.7	13.7	3.5	77.7	100.0	100.0
	지방토박이	[772]	45.2	26.8	3.5	5.7	78.5	20.8	18.0	25.3	5.8	36.1	15.2	5.8	79.5	100.0	100.0
	지방유입	[27]	45.7	24.3	3.7	0.0	74.1	18.5	22.2	14.8	3.7	29.6	23.1	0.0	77.8	100.0	10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5.1	25.0	3.2	10.5	88.4	6.3	9.5	25.3	2.1	35.8	7.4	2.1	84.2	100.0	100.0
	전라권유입	[114]	48.7	28.0	4.4	7.9	89.5	18.4	18.6	41.2	9.6	25.4	14.0	4.4	74.6	100.0	100.0
	경상권유입	[113]	44.4	26.7	2.7	5.3	81.4	26.5	14.2	34.8	3.5	25.7	19.5	3.5	76.1	100.0	100.0
	강원/제주유입	[23]	44.8	24.9	8.7	17.4	90.9	17.4	8.7	17.4	0.0	30.4	8.7	4.3	73.9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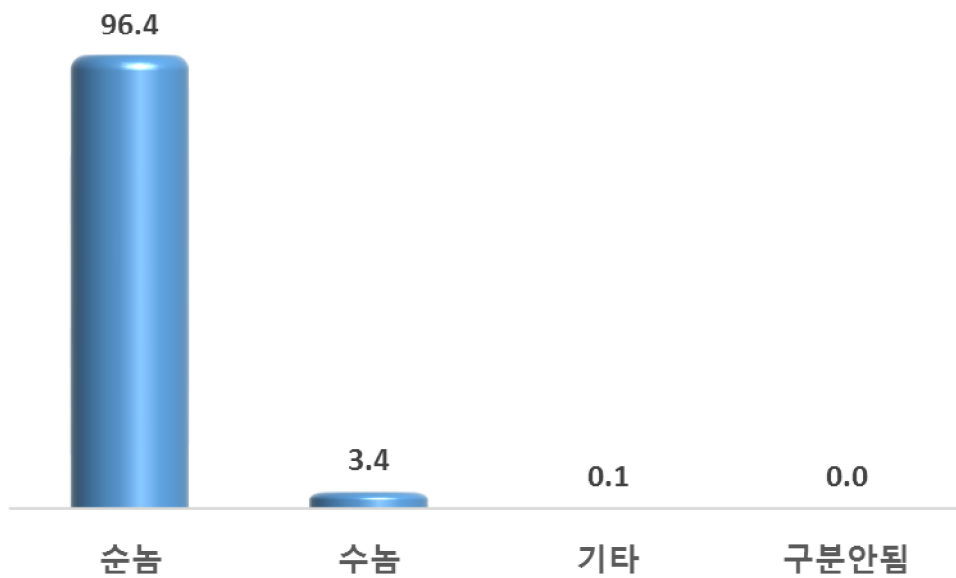
2.4.2 수놈

전체 분석

- ◆ (숫놈/수놈)수놈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 '순놈' 응답이 9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놈' 응답이 3.4%로 나타남

■ 그림50. 사잇 소리 : 수놈 ■

(단위 : %)



문20

(수놈)어제 사온 병아리는 모두 (숫놈/수놈)이었다.

계층별 상세분석

- ◆ '순농'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자영업(98.0%), 무직/기타(98.6%), '수농'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중졸이하(7.5%) 등으로 나타남

표106.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수농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순농	수농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96.4	3.4	0.1	0.0
성별	남성	[1,014]	96.4	3.3	0.2	0.1
	여성	[986]	96.5	3.5	0.0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93.8	5.6	0.0	0.6
	20 대	[342]	97.1	2.9	0.0	0.0
	30 대	[386]	95.9	4.1	0.0	0.0
	40 대	[439]	96.4	3.6	0.0	0.0
	50 대	[417]	97.4	2.2	0.5	0.0
	60 대	[255]	96.9	3.1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92.5	7.5	0.0	0.0
	고졸이하	[848]	96.7	3.3	0.0	0.0
	대졸이하	[1,012]	96.5	3.2	0.2	0.1
	대학원이상	[60]	96.7	3.3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98.0	1.7	0.3	0.0
	블루칼라	[399]	96.7	3.3	0.0	0.0
	화이트칼라	[496]	94.8	5.0	0.2	0.0
	전업주부	[343]	97.1	2.9	0.0	0.0
	학생	[342]	95.9	3.8	0.0	0.3
	무직/기타	[70]	98.6	1.4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95.5	4.5	0.0	0.0
	보통	[781]	97.3	2.4	0.1	0.1
	무관심	[303]	97.0	2.6	0.3	0.0

계층별 상세분석

- ◆ '순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97.6%), '수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6.5%) 등으로 나타남

표107.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수놈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순놈	수놈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96.4	3.4	0.1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96.4	3.3	0.2	0.1
	충청권(거주)	[164]	97.6	2.4	0.0	0.0
	전라권(거주)	[155]	93.5	6.5	0.0	0.0
	경상권(거주)	[414]	97.1	2.9	0.0	0.0
	강원/제주(거주)	[66]	97.0	3.0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96.8	3.2	0.0	0.0
	충청권(성장)	[247]	97.2	2.8	0.0	0.0
	전라권(성장)	[273]	94.1	5.5	0.4	0.0
	경상권(성장)	[512]	96.7	2.9	0.2	0.2
	강원/제주(성장)	[85]	96.5	3.5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96.8	3.2	0.0	0.0
	수도권 유입	[345]	95.4	3.8	0.6	0.3
	지방토박이	[772]	96.5	3.5	0.0	0.0
	지방유입	[27]	96.3	3.7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96.8	3.2	0.0	0.0
	전라권유입	[114]	94.7	4.4	0.9	0.0
	경상권유입	[113]	95.6	2.7	0.9	0.9
	강원/제주유입	[23]	91.3	8.7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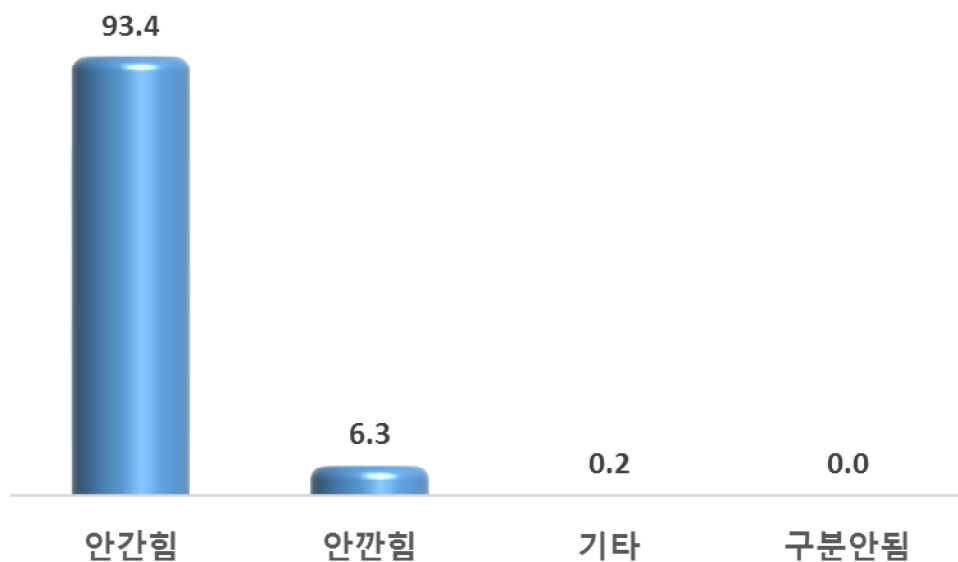
2.4.3 안간힘

전체 분석

- ◆ (안간힘)안간힘에 대한 조사 결과, '안간힘' 응답이 9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 발음인 '안김힘' 응답은 6.3%에 불과했음

■ 그림51. 사이트 소리 : 안간힘 ■

(단위 : %)



문23-2

(안간힘)새로 심은 잔디를 밟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계층별 상세분석

- ◆ '안간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100%), 20대(98.5%), 학생(99.1%), '안간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자영업(12.0%) 등으로 나타남

■ 표108.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안간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안간힘	안간힘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93.4	6.3	0.2	0.0
성별	남성	[1,014]	92.4	7.5	0.0	0.1
	여성	[986]	94.4	5.1	0.5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100.0	0.0	0.0	0.0
	20 대	[342]	98.5	1.2	0.0	0.3
	30 대	[386]	96.9	2.3	0.8	0.0
	40 대	[439]	90.0	10.0	0.0	0.0
	50 대	[417]	88.7	11.3	0.0	0.0
	60 대	[255]	90.6	8.6	0.8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91.2	7.5	1.2	0.0
	고졸이하	[848]	92.1	7.8	0.1	0.0
	대졸이하	[1,012]	94.5	5.1	0.3	0.1
	대학원이상	[60]	96.7	3.3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87.7	12.0	0.3	0.0
	블루칼라	[399]	91.0	8.8	0.3	0.0
	화이트칼라	[496]	95.4	4.0	0.4	0.2
	전업주부	[343]	92.4	7.3	0.3	0.0
	학생	[342]	99.1	0.9	0.0	0.0
	무직/기타	[70]	98.6	1.4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93.9	5.9	0.2	0.0
	보통	[781]	92.8	6.7	0.4	0.1
	무관심	[303]	93.4	6.6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안간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95.5%), '안간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유입(10.5%) 등으로 나타남

■ 표109.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안간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안간힘	안간힘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93.4	6.3	0.2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92.7	6.8	0.4	0.1
	충청권(거주)	[164]	92.7	7.3	0.0	0.0
	전라권(거주)	[155]	92.9	7.1	0.0	0.0
	경상권(거주)	[414]	95.7	4.3	0.0	0.0
	강원/제주(거주)	[66]	95.5	4.5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93.5	6.0	0.3	0.1
	충청권(성장)	[247]	90.3	8.9	0.8	0.0
	전라권(성장)	[273]	92.3	7.7	0.0	0.0
	경상권(성장)	[512]	95.5	4.5	0.0	0.0
	강원/제주(성장)	[85]	91.8	8.2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93.3	6.2	0.4	0.1
	수도권 유입	[345]	91.0	8.4	0.6	0.0
	지방토박이	[772]	94.3	5.7	0.0	0.0
	지방유입	[27]	100.0	0.0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87.4	10.5	2.1	0.0
	전라권유입	[114]	92.1	7.9	0.0	0.0
	경상권유입	[113]	94.7	5.3	0.0	0.0
	강원/제주유입	[23]	82.6	17.4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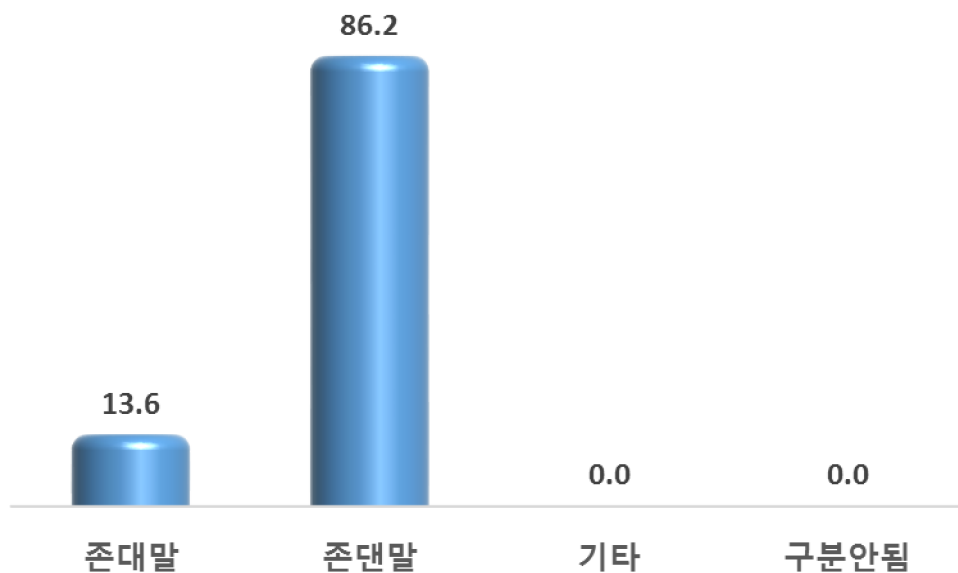
2.4.4 존댓말

전체 분석

- ◆ (존대말/존댓말)존댓말.에 대한 조사 결과, '존댓말' 응답이 8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존대말' 응답이 13.6%로 조사됨

■ 그림52. 사잇 소리 : 존댓말 ■

(단위 : %)



문21

(존댓말)어른에게는 (존대말/존댓말)을 써야 한다.

계층별 상세분석

- ◆ '존댓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91.3%), 학생(92.1%), '존대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23.5%), 중졸이하(23.8%) 등으로 나타남

■ 표110.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존댓말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존대말	존댓말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13.6	86.2	0.0	0.0
성별	남성	[1,014]	14.4	85.4	0.1	0.1
	여성	[986]	12.9	87.1	0.0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8.7	91.3	0.0	0.0
	20 대	[342]	8.8	90.9	0.3	0.0
	30 대	[386]	11.7	88.3	0.0	0.0
	40 대	[439]	13.0	87.0	0.0	0.0
	50 대	[417]	16.1	83.7	0.0	0.2
	60 대	[255]	23.5	76.5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23.8	76.2	0.0	0.0
	고졸이하	[848]	16.4	83.5	0.0	0.1
	대졸이하	[1,012]	10.7	89.2	0.1	0.0
	대학원이상	[60]	11.7	88.3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17.7	82.0	0.0	0.3
	블루칼라	[399]	16.0	84.0	0.0	0.0
	화이트칼라	[496]	10.1	89.9	0.0	0.0
	전업주부	[343]	17.8	82.2	0.0	0.0
	학생	[342]	7.6	92.1	0.3	0.0
	무직/기타	[70]	14.3	85.7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11.7	88.3	0.0	0.0
	보통	[781]	15.2	84.5	0.1	0.1
	무관심	[303]	15.5	84.5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존댓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거주)(91.5%), 수도권(성장)(93.0%), 수도권 토박이(93.6%), '존댓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24.5%), 경상권(거주)(24.6%), 경상권(성장)(23.2%), 지방토박이(21.5%) 등으로 나타남

표111.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존댓말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존대말	존댓말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13.6	86.2	0.0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8.3	91.5	0.1	0.1
	충청권(거주)	[164]	15.9	84.1	0.0	0.0
	전라권(거주)	[155]	24.5	75.5	0.0	0.0
	경상권(거주)	[414]	24.6	75.4	0.0	0.0
	강원/제주(거주)	[66]	10.6	89.4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6.9	93.0	0.1	0.0
	충청권(성장)	[247]	14.2	85.8	0.0	0.0
	전라권(성장)	[273]	18.3	81.7	0.0	0.0
	경상권(성장)	[512]	23.2	76.8	0.0	0.0
	강원/제주(성장)	[85]	9.4	89.4	0.0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6.3	93.6	0.1	0.0
	수도권 유입	[345]	13.3	86.4	0.0	0.3
	지방토박이	[772]	21.5	78.5	0.0	0.0
	지방유입	[27]	25.9	74.1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11.6	88.4	0.0	0.0
	전라권유입	[114]	10.5	89.5	0.0	0.0
	경상권유입	[113]	18.6	81.4	0.0	0.0
	강원/제주유입	[23]	8.7	87.0	0.0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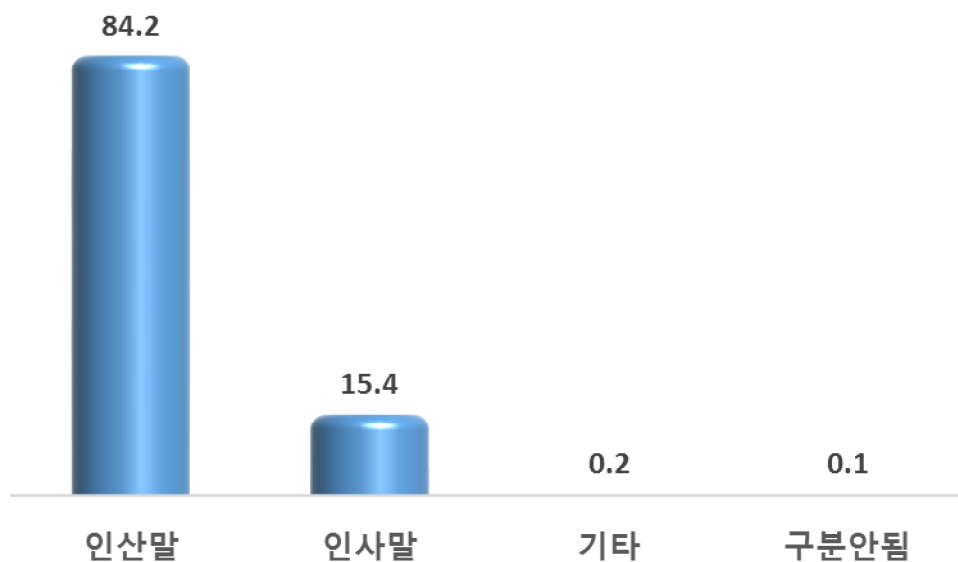
2.4.5 인사말

전체 분석

- ◆ (인삿말/인사말) 인사말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 '인산말' 응답이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사말' 응답이 15.4%로 조사됨

■ 그림53. 사잇 소리 : 인사말 ■

(단위 : %)



문17

(인사말)두 사람은 (인삿말/인사말)을 주고받았다.

계층별 상세분석

- ◆ '인산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88.8%), 30대(88.1%), '인사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25.9%), 중졸이하(25.0%), 전업주부(21.9%) 등으로 나타남

■ 표112.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인사말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인산말	인사말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4.2	15.4	0.2	0.1
성별	남성	[1,014]	85.1	14.5	0.3	0.1
	여성	[986]	83.4	16.4	0.1	0.1
연령별	만 15-19 세	[161]	88.8	11.2	0.0	0.0
	20 대	[342]	87.1	12.6	0.3	0.0
	30 대	[386]	88.1	11.4	0.3	0.3
	40 대	[439]	85.2	14.8	0.0	0.0
	50 대	[417]	82.0	17.5	0.5	0.0
	60 대	[255]	73.7	25.9	0.0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73.8	25.0	0.0	1.2
	고졸이하	[848]	82.7	17.2	0.1	0.0
	대졸이하	[1,012]	86.2	13.4	0.3	0.1
	대학원이상	[60]	88.3	11.7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83.1	16.9	0.0	0.0
	블루칼라	[399]	84.5	15.5	0.0	0.0
	화이트칼라	[496]	86.7	12.5	0.6	0.2
	전업주부	[343]	77.8	21.9	0.0	0.3
	학생	[342]	88.0	11.7	0.3	0.0
	무직/기타	[70]	84.3	15.7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85.2	14.6	0.1	0.1
	보통	[781]	84.8	15.0	0.1	0.1
	무관심	[303]	80.2	19.1	0.7	0.0

계층별 상세분석

- ◆ '인사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90.9%), 수도권(성장)(89.7%), 충청권(성장)(91.5%), 수도권 토박이(90.0%), 충청권유입(93.7%), '인사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29.7%), 경상권(성장)(29.1%), 지방토박이(20.7%), 경상권유입(26.5%) 등으로 나타남

표113.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인사말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인산말	인사말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4.2	15.4	0.2	0.1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87.7	12.0	0.2	0.1
	충청권(거주)	[164]	90.9	9.1	0.0	0.0
	전라권(거주)	[155]	87.7	12.3	0.0	0.0
	경상권(거주)	[414]	70.0	29.7	0.2	0.0
	강원/제주(거주)	[66]	86.4	12.1	0.0	1.5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89.7	10.0	0.2	0.1
	충청권(성장)	[247]	91.5	8.5	0.0	0.0
	전라권(성장)	[273]	85.7	14.3	0.0	0.0
	경상권(성장)	[512]	70.5	29.1	0.4	0.0
	강원/제주(성장)	[85]	84.7	14.1	0.0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90.0	9.7	0.2	0.1
	수도권 유입	[345]	82.0	17.7	0.3	0.0
	지방토박이	[772]	79.0	20.7	0.1	0.1
	지방유입	[27]	81.5	18.5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93.7	6.3	0.0	0.0
	전라권유입	[114]	81.6	18.4	0.0	0.0
	경상권유입	[113]	72.6	26.5	0.9	0.0
	강원/제주유입	[23]	82.6	17.4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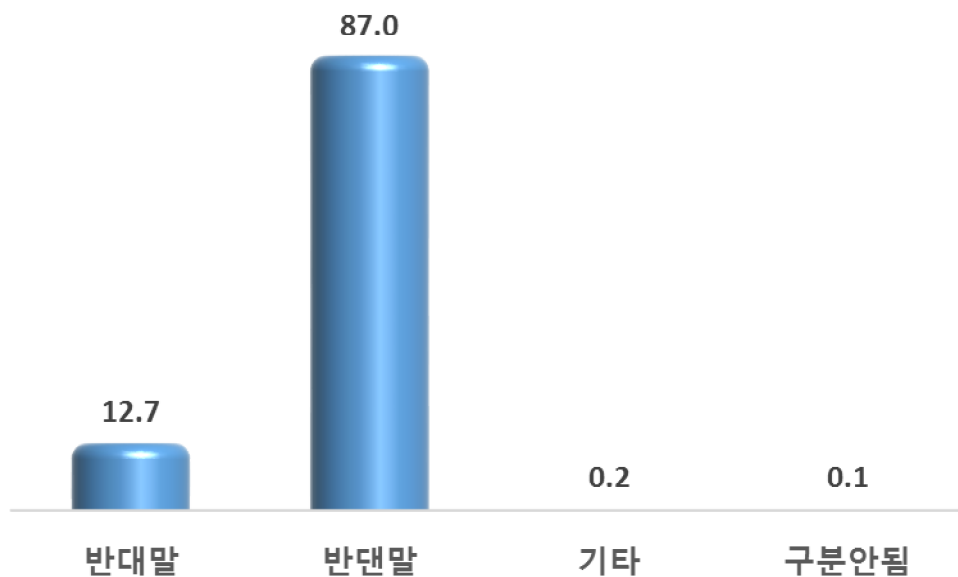
2.4.6 반대말

전체 분석

- ◆ (반대말/반댓말)반대말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 '반댄말' 응답이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말' 응답이 12.7%로 조사됨

■ 그림54. 사잇 소리 : 반대말 ■

(단위 : %)



문52

(반대말)반의어를 흔히 (반대말/반댓말)이라고 한다.

계층별 상세분석

- ◆ '반댄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대학원이상(91.7%), '반대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18.0%), 중졸이하(21.2%) 등으로 나타남

■ 표114.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반대말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반대말	반댄말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12.7	87.0	0.2	0.1
성별	남성	[1,014]	11.7	87.6	0.5	0.2
	여성	[986]	13.7	86.3	0.0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11.8	87.6	0.6	0.0
	20 대	[342]	8.5	91.5	0.0	0.0
	30 대	[386]	12.4	87.3	0.3	0.0
	40 대	[439]	13.4	86.3	0.2	0.0
	50 대	[417]	12.7	86.6	0.2	0.5
	60 대	[255]	18.0	81.6	0.4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21.2	78.8	0.0	0.0
	고졸이하	[848]	13.9	85.7	0.4	0.0
	대졸이하	[1,012]	11.3	88.3	0.2	0.2
	대학원이상	[60]	8.3	91.7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12.6	86.9	0.3	0.3
	블루칼라	[399]	12.5	87.2	0.3	0.0
	화이트칼라	[496]	11.3	88.1	0.4	0.2
	전업주부	[343]	17.2	82.8	0.0	0.0
	학생	[342]	9.6	90.1	0.3	0.0
	무직/기타	[70]	17.1	82.9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12.2	87.6	0.1	0.1
	보통	[781]	11.9	87.6	0.4	0.1
	무관심	[303]	16.2	83.5	0.3	0.0

계층별 상세분석

- ◆ '반대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성장)(92.1%), 수도권 토박이(92.5%), '반대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22.5%), 경상권(성장)(19.9%), 지방 토박이(18.0%), 전라권유입(18.4%) 등으로 나타남

표115.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반대말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반대말	반대말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12.7	87.0	0.2	0.1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9.1	90.5	0.2	0.2
	충청권(거주)	[164]	11.6	88.4	0.0	0.0
	전라권(거주)	[155]	15.5	84.5	0.0	0.0
	경상권(거주)	[414]	22.5	77.1	0.5	0.0
	강원/제주(거주)	[66]	13.6	86.4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7.6	92.1	0.2	0.1
	충청권(성장)	[247]	11.7	88.3	0.0	0.0
	전라권(성장)	[273]	16.8	82.8	0.0	0.4
	경상권(성장)	[512]	19.9	79.5	0.6	0.0
	강원/제주(성장)	[85]	11.8	88.2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7.1	92.5	0.2	0.1
	수도권 유입	[345]	13.9	85.5	0.3	0.3
	지방토박이	[772]	18.0	81.7	0.3	0.0
	지방유입	[27]	22.2	77.8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9.5	90.5	0.0	0.0
	전라권유입	[114]	18.4	80.7	0.0	0.9
	경상권유입	[113]	14.2	85.0	0.9	0.0
	강원/제주유입	[23]	8.7	91.3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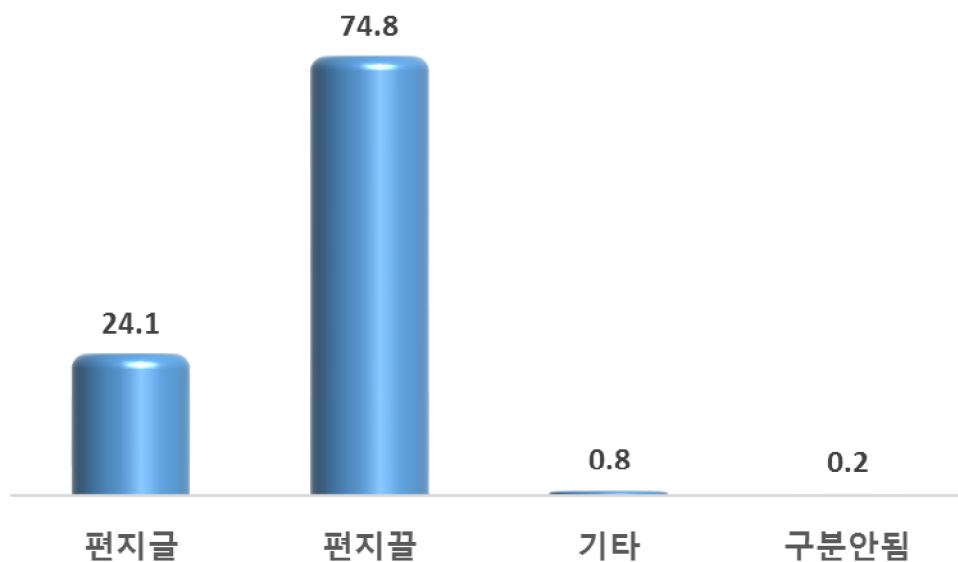
2.4.7 편지글

전체 분석

- ◆ (편지글/편짓글) 편지글에 대한 조사 결과, '편지꼴' 응답이 7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편지글' 응답이 24.1%로 조사됨

■ 그림55. 사잇 소리 : 편지글 ■

(단위 : %)



문50

(편지글)'친구에게'로 시작하년 (편지글/편짓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계층별 상세분석

- ◆ '편지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85.7%), 20대(83.6%), 대졸이하(80.0%), 화이트칼라(80.4%), 학생(85.4%), '편지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31.4%), 60대(33.7%), 중졸이하(33.8%), 전업주부(35.9%) 등으로 나타남

■ 표116.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편지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편지글	편지글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24.1	74.8	0.8	0.2
성별	남성	[1,014]	20.9	78.5	0.6	0.0
	여성	[986]	27.4	71.1	1.1	0.4
연령별	만 15-19 세	[161]	14.3	85.7	0.0	0.0
	20 대	[342]	15.8	83.6	0.6	0.0
	30 대	[386]	18.1	81.1	0.5	0.3
	40 대	[439]	26.9	71.8	1.4	0.0
	50 대	[417]	31.4	67.9	0.7	0.0
	60 대	[255]	33.7	63.5	1.6	1.2
학력별	중졸이하	[80]	33.8	65.0	0.0	1.2
	고졸이하	[848]	29.0	69.8	0.9	0.2
	대졸이하	[1,012]	19.0	80.0	0.9	0.1
	대학원이상	[60]	28.3	71.7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28.9	69.1	1.4	0.6
	블루칼라	[399]	24.1	75.4	0.3	0.3
	화이트칼라	[496]	18.8	80.4	0.8	0.0
	전업주부	[343]	35.9	62.1	1.7	0.3
	학생	[342]	14.3	85.4	0.3	0.0
	무직/기타	[70]	28.6	71.4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24.2	74.8	0.8	0.2
	보통	[781]	23.3	75.2	1.3	0.3
	무관심	[303]	25.7	74.3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편지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82.9%), 지방유입(85.2%), '편지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 유입(33.0%), 전라권유입(41.2%), 경상권유입(34.5%) 등으로 나타남

■ 표117.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편지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편지글	편지글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24.1	74.8	0.8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23.6	75.1	1.2	0.2
	충청권(거주)	[164]	15.9	82.9	1.2	0.0
	전라권(거주)	[155]	23.9	76.1	0.0	0.0
	경상권(거주)	[414]	28.5	71.0	0.2	0.2
	강원/제주(거주)	[66]	27.3	71.2	0.0	1.5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19.6	79.0	1.2	0.1
	충청권(성장)	[247]	20.2	78.9	0.8	0.0
	전라권(성장)	[273]	32.2	67.0	0.7	0.0
	경상권(성장)	[512]	29.3	69.9	0.4	0.4
	강원/제주(성장)	[85]	24.7	74.1	0.0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19.7	78.9	1.3	0.1
	수도권 유입	[345]	33.0	65.8	0.9	0.3
	지방토박이	[772]	25.3	74.1	0.4	0.3
	지방유입	[27]	14.8	85.2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25.3	74.7	0.0	0.0
	전라권유입	[114]	41.2	57.0	1.8	0.0
	경상권유입	[113]	34.5	63.7	0.9	0.9
	강원/제주유입	[23]	17.4	82.6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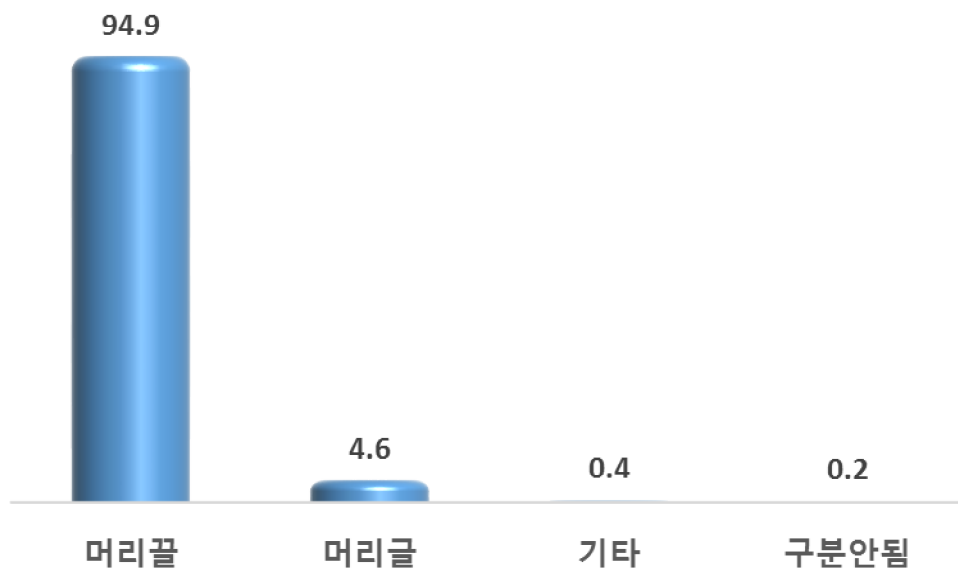
2.4.8 머리글

전체 분석

- ◆ (머릿글/머리글) 머리글.에 대한 조사 결과, '머리글' 응답이 94.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머리글' 응답이 4.6%에 불과했음

■ 그림56. 사이트 소리 : 머리글 ■

(단위 : %)



문54

(머리글)이 글의 첫 단락은 (머릿글/머리글)로 구성되어 있다.

계층별 상세분석

- ◆ '머리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대학원이상(100%), '머리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중졸이하(12.5%) 등으로 나타남

■ 표118.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머리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머리글	머리글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94.9	4.6	0.4	0.2
성별	남성	[1,014]	95.8	3.8	0.2	0.2
	여성	[986]	94.0	5.3	0.6	0.1
연령별	만 15-19 세	[161]	92.5	6.8	0.6	0.0
	20 대	[342]	95.6	4.4	0.0	0.0
	30 대	[386]	95.3	4.1	0.0	0.5
	40 대	[439]	95.7	3.6	0.5	0.2
	50 대	[417]	95.7	3.8	0.5	0.0
	60 대	[255]	92.2	6.7	1.2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86.2	12.5	1.2	0.0
	고졸이하	[848]	94.3	5.0	0.5	0.2
	대졸이하	[1,012]	95.8	3.9	0.3	0.1
	대학원이상	[60]	100.0	0.0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95.1	4.6	0.3	0.0
	블루칼라	[399]	96.0	3.3	0.3	0.5
	화이트칼라	[496]	96.4	3.4	0.2	0.0
	전업주부	[343]	93.3	5.2	1.2	0.3
	학생	[342]	93.9	5.8	0.3	0.0
	무직/기타	[70]	90.0	10.0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95.2	4.4	0.2	0.2
	보통	[781]	94.9	4.5	0.6	0.0
	무관심	[303]	94.1	5.3	0.3	0.3

계층별 상세분석

- ◆ '머리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 토박이(96.3%), 지방유입(96.3%), 충청권유입(97.9%), '머리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성장)(8.1%), 전라권유입(9.6%) 등으로 나타남

표119.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머리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머리글	머리글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94.9	4.6	0.4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95.8	3.7	0.3	0.1
	충청권(거주)	[164]	93.9	5.5	0.6	0.0
	전라권(거주)	[155]	92.9	7.1	0.0	0.0
	경상권(거주)	[414]	93.5	5.6	0.5	0.5
	강원/제주(거주)	[66]	93.9	4.5	1.5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96.3	3.3	0.3	0.1
	충청권(성장)	[247]	95.1	4.5	0.4	0.0
	전라권(성장)	[273]	91.6	8.1	0.4	0.0
	경상권(성장)	[512]	94.1	5.1	0.4	0.4
	강원/제주(성장)	[85]	95.3	3.5	1.2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96.3	3.3	0.4	0.1
	수도권 유입	[345]	94.8	4.9	0.3	0.0
	지방토박이	[772]	93.4	5.8	0.5	0.3
	지방유입	[27]	96.3	3.7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97.9	2.1	0.0	0.0
	전라권유입	[114]	89.5	9.6	0.9	0.0
	경상권유입	[113]	96.5	3.5	0.0	0.0
	강원/제주유입	[23]	10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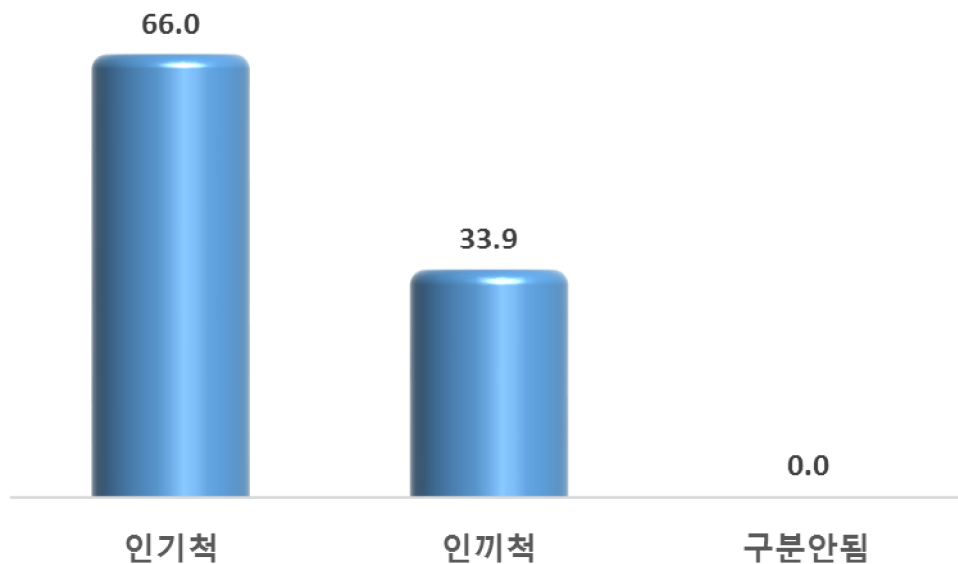
2.4.9 인기척

전체 분석

- ◆ (인기척)인기척에 대한 조사 결과, '인기척' 응답이 66.0%로 가장 높았던 반면, '인끼척' 응답이 33.9%로 나타남

■ 그림57. 사잇 소리 : 인기척 ■

(단위 : %)



문24-2

(인기척)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인기척이 났다.

계층별 상세분석

- ◆ '인기척'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30대(72.0%), 학생(71.9%), '인끼척'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40.8%), 60대(39.2%), 대학원이상(45.0%) 등으로 나타남

표120.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인기척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인기척	인끼척	구분안됨
[전 체]		[2,000]	66.0	33.9	0.0
성별	남성	[1,014]	66.8	33.1	0.1
	여성	[986]	65.3	34.7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70.8	29.2	0.0
	20 대	[342]	68.4	31.6	0.0
	30 대	[386]	72.0	28.0	0.0
	40 대	[439]	67.0	33.0	0.0
	50 대	[417]	59.0	40.8	0.2
	60 대	[255]	60.8	39.2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62.5	37.5	0.0
	고졸이하	[848]	65.1	34.9	0.0
	대졸이하	[1,012]	67.8	32.1	0.1
	대학원이상	[60]	55.0	45.0	0.0
직업별	자영업	[350]	66.0	33.7	0.3
	블루칼라	[399]	63.9	36.1	0.0
	화이트칼라	[496]	66.7	33.3	0.0
	전업주부	[343]	63.3	36.7	0.0
	학생	[342]	71.9	28.1	0.0
	무직/기타	[70]	58.6	41.4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66.0	33.8	0.1
	보통	[781]	65.7	34.3	0.0
	무관심	[303]	67.0	33.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인기척'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 유입(71.3%), 전라권유입(74.6%), 경상권유입(74.3%), '인끼척'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39.4%), 충청권 유입(35.8%) 등으로 나타남

■ 표121.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인기척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인기척	인끼척	구분안됨
[전 체]		[2,000]	66.0	33.9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67.4	32.6	0.0
	충청권(거주)	[164]	64.0	36.0	0.0
	전라권(거주)	[155]	67.1	32.9	0.0
	경상권(거주)	[414]	63.5	36.2	0.2
	강원/제주(거주)	[66]	60.6	39.4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65.9	34.1	0.0
	충청권(성장)	[247]	64.8	35.2	0.0
	전라권(성장)	[273]	69.6	30.4	0.0
	경상권(성장)	[512]	65.2	34.6	0.2
	강원/제주(성장)	[85]	64.7	35.3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65.8	34.2	0.0
	수도권 유입	[345]	71.3	28.7	0.0
	지방토박이	[772]	63.9	36.0	0.1
	지방유입	[27]	70.4	29.6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64.2	35.8	0.0
	전라권유입	[114]	74.6	25.4	0.0
	경상권유입	[113]	74.3	25.7	0.0
	강원/제주유입	[23]	69.6	30.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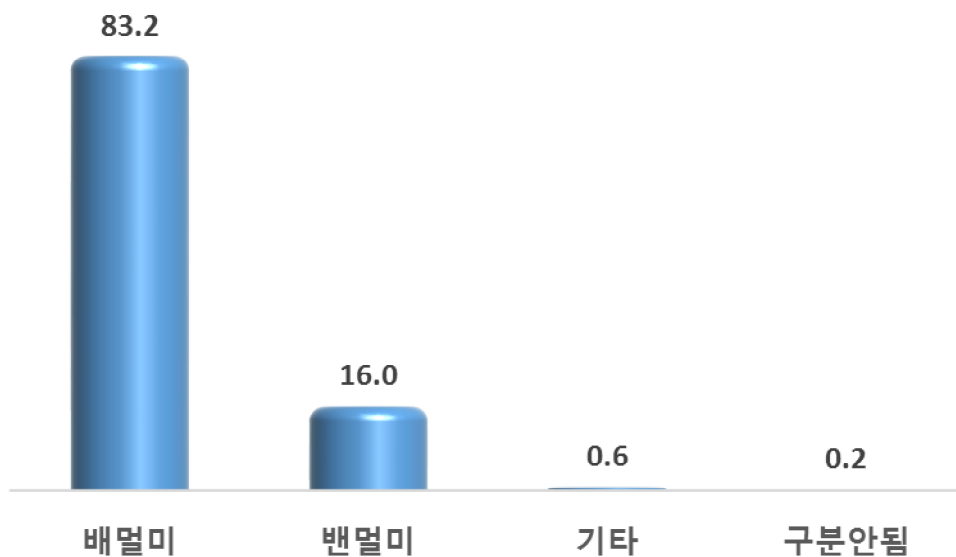
2.4.10 뱃멀미

전체 분석

- ◆ (배멀미/뱃멀미) 뱃멀미에 대한 조사 결과, '배멀미' 응답이 8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뱃멀미' 응답이 16.0%로 조사됨

■ 그림58. 사잇 소리 : 뱃멀미 ■

(단위 : %)



문15

(뱃멀미)배의 요동이 심해서 (배멀미/뱃멀미)가 났다.

계층별 상세분석

- ◆ '배멀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40대(90.9%), 자영업(88.9%), 전업주부(88.3%), '밴멀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32.3%), 20대(29.5%), 중졸이하(22.5%), 학생(33.6%) 등으로 나타남

■ 표122.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뱃멀미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배멀미	밴멀미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3.2	16.0	0.6	0.2
성별	남성	[1,014]	83.1	16.4	0.4	0.1
	여성	[986]	83.4	15.5	0.9	0.2
연령별	만 15-19 세	[161]	67.7	32.3	0.0	0.0
	20 대	[342]	70.2	29.5	0.3	0.0
	30 대	[386]	87.0	12.4	0.3	0.3
	40 대	[439]	90.9	7.5	1.4	0.2
	50 대	[417]	88.2	11.3	0.5	0.0
	60 대	[255]	83.5	14.9	1.2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76.2	22.5	0.0	1.2
	고졸이하	[848]	85.1	14.0	0.6	0.2
	대졸이하	[1,012]	82.1	17.2	0.7	0.0
	대학원이상	[60]	85.0	13.3	1.7	0.0
직업별	자영업	[350]	88.9	9.4	1.4	0.3
	블루칼라	[399]	86.5	12.5	1.0	0.0
	화이트칼라	[496]	85.7	13.9	0.2	0.2
	전업주부	[343]	88.3	10.5	0.9	0.3
	학생	[342]	66.4	33.6	0.0	0.0
	무직/기타	[70]	77.1	22.9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83.3	16.0	0.5	0.1
	보통	[781]	81.8	16.9	1.0	0.3
	무관심	[303]	86.8	13.2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배멀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유입(91.6%), '밴멀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24.2%), 경상권유입(19.5%) 등으로 나타남

표123.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배멀미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배멀미	밴멀미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3.2	16.0	0.6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82.6	16.3	1.0	0.1
	충청권(거주)	[164]	82.3	17.7	0.0	0.0
	전라권(거주)	[155]	85.2	14.2	0.6	0.0
	경상권(거주)	[414]	86.2	13.5	0.0	0.2
	강원/제주(거주)	[66]	74.2	24.2	0.0	1.5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81.2	17.6	1.1	0.1
	충청권(성장)	[247]	86.2	13.4	0.0	0.4
	전라권(성장)	[273]	85.0	14.3	0.7	0.0
	경상권(성장)	[512]	85.4	14.6	0.0	0.0
	강원/제주(성장)	[85]	77.6	20.0	1.2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81.4	17.4	1.2	0.0
	수도권 유입	[345]	85.5	13.6	0.6	0.3
	지방토박이	[772]	84.6	15.2	0.1	0.1
	지방유입	[27]	74.1	22.2	0.0	3.7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91.6	7.4	0.0	1.1
	전라권유입	[114]	84.2	14.0	1.8	0.0
	경상권유입	[113]	80.5	19.5	0.0	0.0
	강원/제주유입	[23]	91.3	8.7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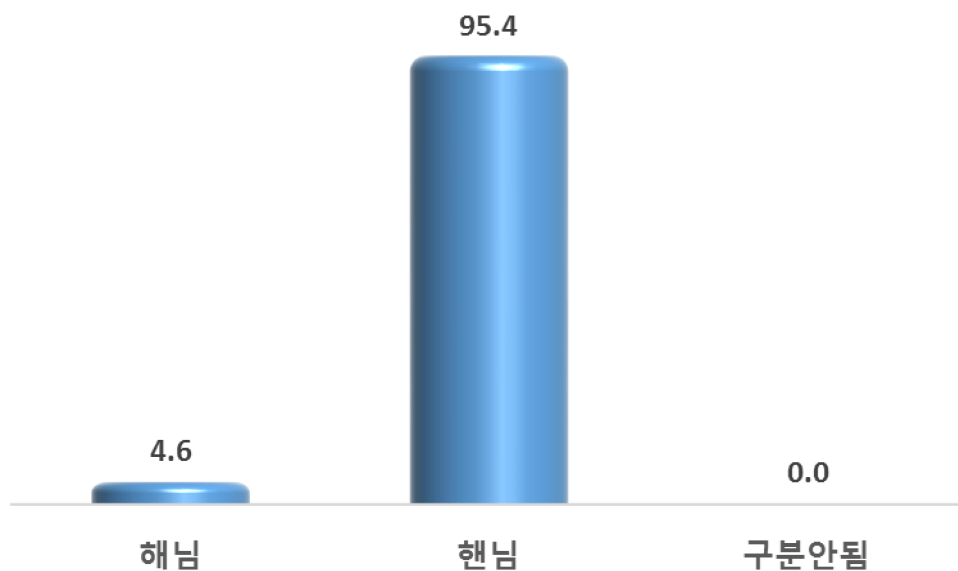
2.4.11 해님

전체 분석

- ◆ (해님/햇님)해님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 '해님' 응답이 9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님' 응답이 4.6%에 불과했음

■ 그림59. 사잇 소리 : 해님 ■

(단위 : %)



문18

(해님)(해님/햇님)이 방긋 웃는다.

계층별 상세분석

- ◆ '해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97.5%), '해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대학원이상(10.0%) 등으로 나타남

표124.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해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해님	한님	구분안됨
[전 체]		[2,000]	4.6	95.4	0.0
성별	남성	[1,014]	4.2	95.8	0.0
	여성	[986]	4.9	95.0	0.1
연령별	만 15-19 세	[161]	2.5	97.5	0.0
	20 대	[342]	4.1	95.9	0.0
	30 대	[386]	6.7	93.3	0.0
	40 대	[439]	5.5	94.5	0.0
	50 대	[417]	3.8	96.2	0.0
	60 대	[255]	2.7	96.9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1.2	97.5	1.2
	고졸이하	[848]	4.4	95.6	0.0
	대졸이하	[1,012]	4.6	95.4	0.0
	대학원이상	[60]	10.0	9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2.9	97.1	0.0
	블루칼라	[399]	5.0	95.0	0.0
	화이트칼라	[496]	5.6	94.4	0.0
	전업주부	[343]	5.5	94.2	0.3
	학생	[342]	3.2	96.8	0.0
	무직/기타	[70]	4.3	95.7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6.4	93.6	0.0
	보통	[781]	2.8	97.1	0.1
	무관심	[303]	3.3	96.7	0.0

계층별 상세분석

- ◆ '해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유입(97.9%), '해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성장)(5.9%), 지방토박이(5.8%) 등으로 나타남

표125.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해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해님	한님	구분안됨
[전 체]		[2,000]	4.6	95.4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3.8	96.2	0.0
	충청권(거주)	[164]	5.5	94.5	0.0
	전라권(거주)	[155]	7.1	92.9	0.0
	경상권(거주)	[414]	5.3	94.7	0.0
	강원/제주(거주)	[66]	4.5	93.9	1.5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3.9	96.1	0.0
	충청권(성장)	[247]	5.3	94.7	0.0
	전라권(성장)	[273]	5.9	94.1	0.0
	경상권(성장)	[512]	4.7	95.3	0.0
	강원/제주(성장)	[85]	4.7	94.1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0	96.0	0.0
	수도권 유입	[345]	3.5	96.5	0.0
	지방토박이	[772]	5.8	94.0	0.1
	지방유입	[27]	0.0	10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2.1	97.9	0.0
	전라권유입	[114]	4.4	95.6	0.0
	경상권유입	[113]	3.5	96.5	0.0
	강원/제주유입	[23]	4.3	95.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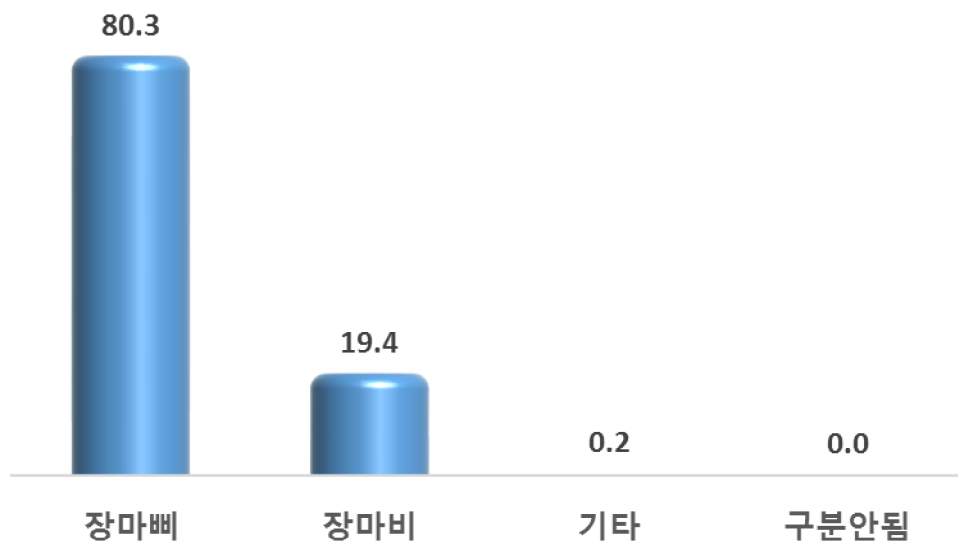
2.4.12 장맛비

전체 분석

- ◆ (장맛비/장마비)장맛비에 대한 조사 결과, '장마뻘' 응답이 8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마비' 응답이 19.4%로 조사됨

■ 그림60. 사잇 소리 : 장맛비 ■

(단위 : %)



문51

(장맛비)(장맛뻘/장마비)가 지나가자 늦더위가 시작되었다.

계층별 상세분석

- ◆ '장마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성(85.1%), 만15-19세(87.6%), 20대(90.6%), 학생(90.6%), '장마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성(24.2%), 60대(28.2%), 전업주부(27.7%) 등으로 나타남

■ 표126.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장맛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장마뻘	장마비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0.3	19.4	0.2	0.0
성별	남성	[1,014]	85.1	14.7	0.1	0.1
	여성	[986]	75.4	24.2	0.4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87.6	12.4	0.0	0.0
	20 대	[342]	90.6	9.1	0.3	0.0
	30 대	[386]	83.4	16.6	0.0	0.0
	40 대	[439]	76.3	23.5	0.0	0.2
	50 대	[417]	75.8	23.5	0.7	0.0
	60 대	[255]	71.4	28.2	0.4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76.2	23.8	0.0	0.0
	고졸이하	[848]	76.8	22.8	0.5	0.0
	대졸이하	[1,012]	83.5	16.3	0.1	0.1
	대학원이상	[60]	81.7	18.3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78.0	22.0	0.0	0.0
	블루칼라	[399]	77.4	22.3	0.3	0.0
	화이트칼라	[496]	82.3	17.3	0.4	0.0
	전업주부	[343]	72.3	27.7	0.0	0.0
	학생	[342]	90.6	9.1	0.3	0.0
	무직/기타	[70]	82.9	14.3	1.4	1.4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80.1	19.7	0.2	0.0
	보통	[781]	80.3	19.5	0.1	0.1
	무관심	[303]	80.9	18.5	0.7	0.0

계층별 상세분석

- ◆ '장마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유입(84.2%), '장마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유입(25.4%) 등으로 나타남

표127.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장맛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장마뻘	장마비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0.3	19.4	0.2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80.8	18.8	0.2	0.1
	충청권(거주)	[164]	81.1	18.9	0.0	0.0
	전라권(거주)	[155]	79.4	20.6	0.0	0.0
	경상권(거주)	[414]	78.5	21.0	0.5	0.0
	강원/제주(거주)	[66]	81.8	18.2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82.0	17.7	0.2	0.1
	충청권(성장)	[247]	82.2	17.4	0.4	0.0
	전라권(성장)	[273]	77.3	22.7	0.0	0.0
	경상권(성장)	[512]	78.3	21.3	0.4	0.0
	강원/제주(성장)	[85]	78.8	21.2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82.1	17.5	0.2	0.1
	수도권 유입	[345]	77.7	22.0	0.3	0.0
	지방토박이	[772]	79.5	20.2	0.3	0.0
	지방유입	[27]	77.8	22.2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84.2	14.7	1.1	0.0
	전라권유입	[114]	74.6	25.4	0.0	0.0
	경상권유입	[113]	76.1	23.9	0.0	0.0
	강원/제주유입	[23]	73.9	26.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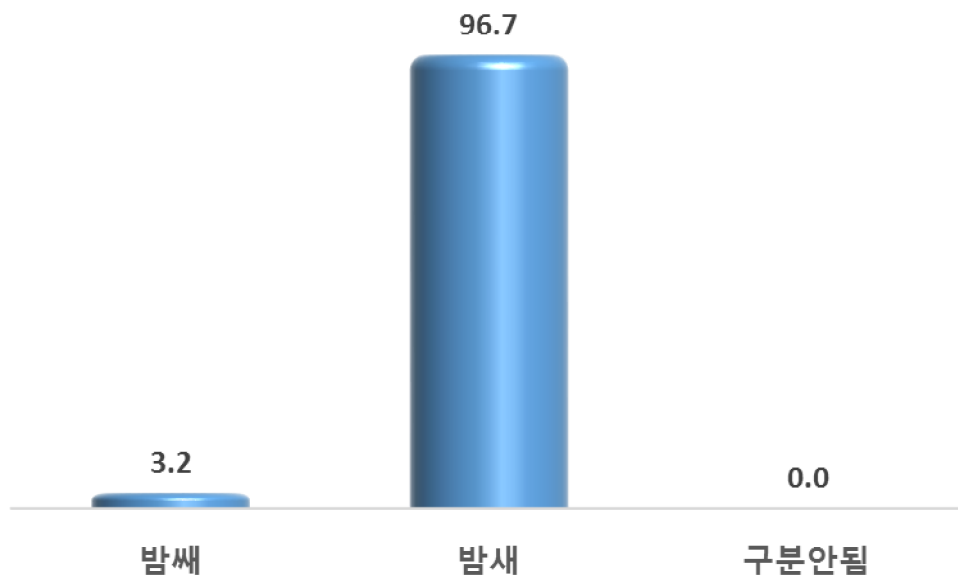
2.4.13 밤새

전체 분석

- ◆ (밤새)밤새에 대한 조사 결과, '밤새' 응답이 9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밤쌔' 응답이 3.2%로 나타남

■ 그림61. 사잇 소리 : 밤새 ■

(단위 : %)



문3-2

(밤새)그는 녀을 잃고 밤새 바깥만 바라보고 있었다.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밤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30대(99.2%), '밤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6.7%) 등으로 나타남

표128.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밤새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밤새	밤새	구분안됨
[전 체]		[2,000]	3.2	96.7	0.0
성별	남성	[1,014]	2.9	97.0	0.1
	여성	[986]	3.7	96.3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1.2	98.8	0.0
	20 대	[342]	2.3	97.4	0.3
	30 대	[386]	0.8	99.2	0.0
	40 대	[439]	3.6	96.4	0.0
	50 대	[417]	4.6	95.4	0.0
	60 대	[255]	6.7	93.3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5.0	95.0	0.0
	고졸이하	[848]	4.0	96.0	0.0
	대졸이하	[1,012]	2.5	97.4	0.1
	대학원이상	[60]	3.3	96.7	0.0
직업별	자영업	[350]	5.1	94.9	0.0
	블루칼라	[399]	3.3	96.7	0.0
	화이트칼라	[496]	2.4	97.4	0.2
	전업주부	[343]	4.7	95.3	0.0
	학생	[342]	1.5	98.5	0.0
	무직/기타	[70]	1.4	98.6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2.7	97.2	0.1
	보통	[781]	3.6	96.4	0.0
	무관심	[303]	4.0	96.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밤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100%), 강원/제주(성장)(100%), '밤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지방토박이(4.4%), 경상권유입(6.2%) 등으로 나타남

표129.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밤새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밤새	밤새	구분안됨
[전 체]		[2,000]	3.2	96.7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2.6	97.4	0.0
	충청권(거주)	[164]	3.7	96.3	0.0
	전라권(거주)	[155]	2.6	97.4	0.0
	경상권(거주)	[414]	5.8	94.0	0.2
	강원/제주(거주)	[66]	0.0	10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2.2	97.8	0.0
	충청권(성장)	[247]	3.2	96.8	0.0
	전라권(성장)	[273]	2.6	97.4	0.0
	경상권(성장)	[512]	6.1	93.8	0.2
	강원/제주(성장)	[85]	0.0	10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2.2	97.8	0.0
	수도권 유입	[345]	3.5	96.5	0.0
	지방토박이	[772]	4.4	95.5	0.1
	지방유입	[27]	0.0	10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3.2	96.8	0.0
	전라권유입	[114]	1.8	98.2	0.0
	경상권유입	[113]	6.2	93.8	0.0
	강원/제주유입	[23]	0.0	1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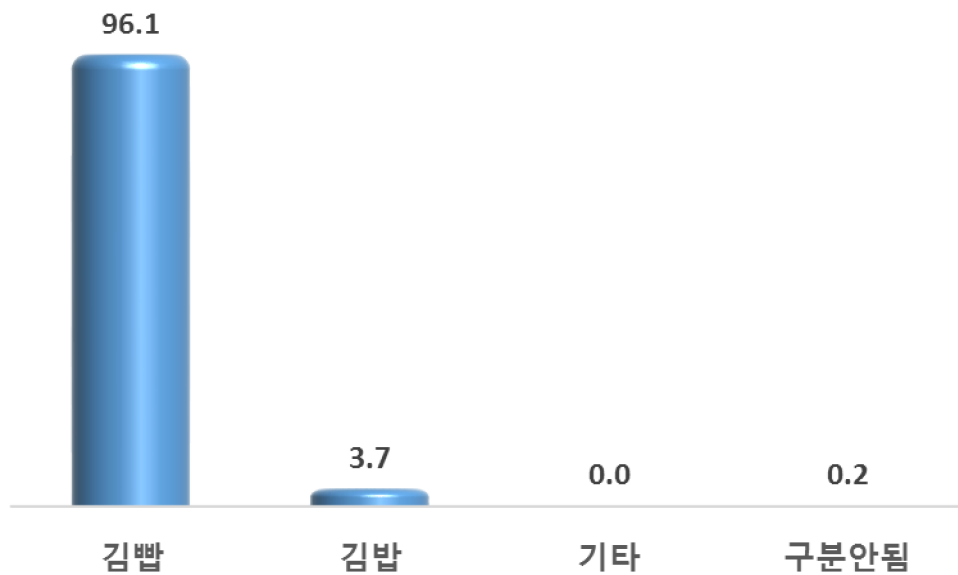
2.4.14 김밥

전체 분석

- ◆ (김밥)김밥에 대한 조사 결과, '김밥' 응답이 96.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김밥' 응답이 3.7%로 나타남

■ 그림62. 사이트 소리 : 김밥 ■

(단위 : %)



문44

(김밥)김밥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김밥'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98.1%), '김밥'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7.5%) 등으로 나타남

■ 표130.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김밥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김밥	김밥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96.1	3.7	0.0	0.2
성별	남성	[1,014]	96.2	3.6	0.0	0.2
	여성	[986]	96.0	3.8	0.1	0.1
연령별	만 15-19 세	[161]	98.1	1.9	0.0	0.0
	20 대	[342]	96.8	2.9	0.0	0.3
	30 대	[386]	96.9	3.1	0.0	0.0
	40 대	[439]	96.6	2.7	0.2	0.5
	50 대	[417]	95.7	4.3	0.0	0.0
	60 대	[255]	92.5	7.5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93.8	6.2	0.0	0.0
	고졸이하	[848]	95.9	4.0	0.0	0.1
	대졸이하	[1,012]	96.5	3.2	0.1	0.2
	대학원이상	[60]	95.0	5.0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95.4	4.3	0.3	0.0
	블루칼라	[399]	95.7	4.3	0.0	0.0
	화이트칼라	[496]	96.4	3.2	0.0	0.4
	전업주부	[343]	96.2	3.8	0.0	0.0
	학생	[342]	97.4	2.3	0.0	0.3
	무직/기타	[70]	92.9	7.1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95.2	4.6	0.1	0.1
	보통	[781]	96.8	2.9	0.0	0.3
	무관심	[303]	97.0	3.0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김밥'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97.4%), '김밥'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9.1%) 등으로 나타남

표131.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김밥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김밥	김밥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96.1	3.7	0.0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96.5	3.2	0.1	0.2
	충청권(거주)	[164]	90.9	9.1	0.0	0.0
	전라권(거주)	[155]	97.4	2.6	0.0	0.0
	경상권(거주)	[414]	96.6	3.1	0.0	0.2
	강원/제주(거주)	[66]	95.5	4.5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96.5	3.2	0.1	0.2
	충청권(성장)	[247]	92.3	7.7	0.0	0.0
	전라권(성장)	[273]	97.1	2.9	0.0	0.0
	경상권(성장)	[512]	96.9	2.9	0.0	0.2
	강원/제주(성장)	[85]	95.3	4.7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96.5	3.2	0.1	0.2
	수도권 유입	[345]	96.5	3.5	0.0	0.0
	지방토박이	[772]	95.5	4.4	0.0	0.1
	지방유입	[27]	96.3	3.7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95.8	4.2	0.0	0.0
	전라권유입	[114]	96.5	3.5	0.0	0.0
	경상권유입	[113]	97.3	2.7	0.0	0.0
	강원/제주유입	[23]	95.7	4.3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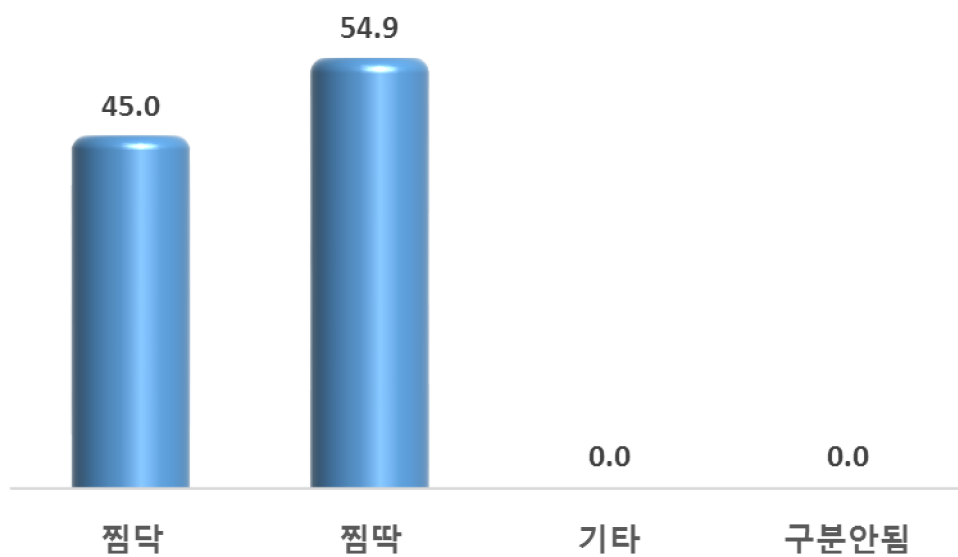
2.4.15 찹닭

전체 분석

- ◆ (찹닭)찹닭에 대한 조사 결과, '찹딱' 응답이 54.9%, '찹닥' 응답이 45.0%로 조사됨

■ 그림63. 사이트 소리 : 찹닭 ■

(단위 : %)



문49

(찹닭)찹닭

계층별 상세분석

- ◆ '찜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68.9%), 20대(69.3%), 30대(62.4%), 학생(69.3%), '찜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56.8%), 60대(64.3%), 중졸이하(60.0%), 자영업(55.1%), 전업주부(52.8%) 등으로 나타남

표132.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찜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찜딱	찜딱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45.0	54.9	0.0	0.0
성별	남성	[1,014]	42.0	57.8	0.1	0.1
	여성	[986]	48.1	51.9	0.0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31.1	68.9	0.0	0.0
	20 대	[342]	30.7	69.3	0.0	0.0
	30 대	[386]	37.6	62.4	0.0	0.0
	40 대	[439]	45.3	54.4	0.0	0.2
	50 대	[417]	56.8	42.9	0.2	0.0
	60 대	[255]	64.3	35.7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60.0	40.0	0.0	0.0
	고졸이하	[848]	47.1	52.7	0.1	0.1
	대졸이하	[1,012]	42.1	57.9	0.0	0.0
	대학원이상	[60]	45.0	55.0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55.1	44.6	0.3	0.0
	블루칼라	[399]	45.6	54.4	0.0	0.0
	화이트칼라	[496]	41.9	57.9	0.0	0.2
	전업주부	[343]	52.8	47.2	0.0	0.0
	학생	[342]	30.7	69.3	0.0	0.0
	무직/기타	[70]	44.3	55.7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44.0	55.8	0.1	0.1
	보통	[781]	44.7	55.3	0.0	0.0
	무관심	[303]	48.8	51.2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찜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67.1%), 전라권(거주)(78.7%), 전라권(성장)(68.1%), 수도권 토박이(63.8%), '찜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73.2%), 경상권(성장)(71.5%), 경상권유입(62.8%) 등으로 나타남

표133.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찜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찜딱	찜딱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45.0	54.9	0.0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0.1	59.7	0.1	0.1
	충청권(거주)	[164]	32.9	67.1	0.0	0.0
	전라권(거주)	[155]	21.3	78.7	0.0	0.0
	경상권(거주)	[414]	73.2	26.8	0.0	0.0
	강원/제주(거주)	[66]	42.4	57.6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36.5	63.4	0.0	0.1
	충청권(성장)	[247]	37.2	62.8	0.0	0.0
	전라권(성장)	[273]	31.5	68.1	0.4	0.0
	경상권(성장)	[512]	71.5	28.5	0.0	0.0
	강원/제주(성장)	[85]	40.0	60.0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36.1	63.8	0.0	0.1
	수도권 유입	[345]	50.1	49.6	0.3	0.0
	지방토박이	[772]	52.5	47.5	0.0	0.0
	지방유입	[27]	48.1	51.9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4.2	55.8	0.0	0.0
	전라권유입	[114]	43.9	55.3	0.9	0.0
	경상권유입	[113]	62.8	37.2	0.0	0.0
	강원/제주유입	[23]	43.5	56.5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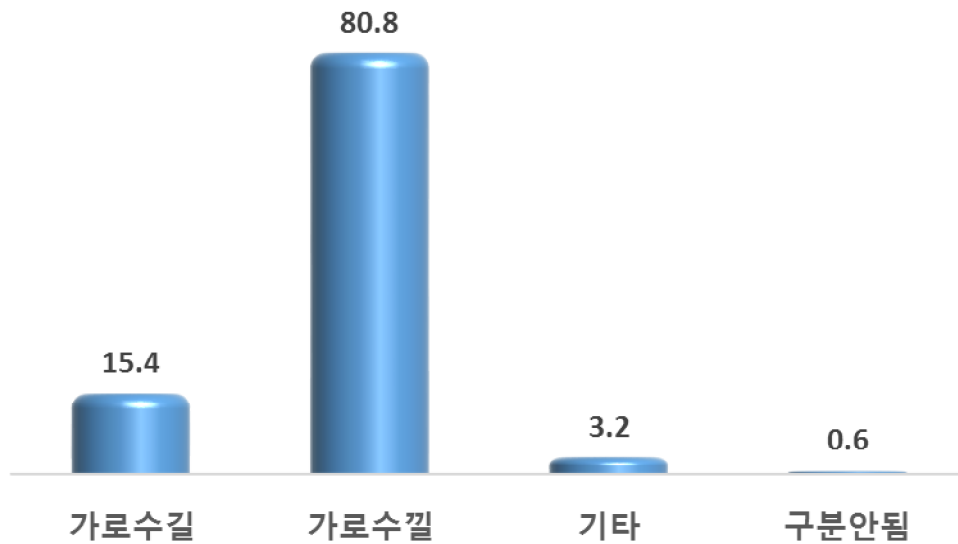
2.4.16 가로수 길

전체 분석

- ◆ (가로수 길)가로수 길에 대한 조사 결과, '가로수길' 응답이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로수길' 응답이 15.4%로 나타남

■ 그림64. 사잇 소리 : 가로수 길 ■

(단위 : %)



문63

(가로수 길)“가로수”가 줄지어서 많이 있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 하면 될까요?

계층별 상세분석

- ◆ '가로수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87.6%), 20대(88.3%), 화이트칼라(85.9%), 학생(89.2%), '가로수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22.0%), 중졸이하(28.8%), 자영업(20.6%) 등으로 나타남

표134.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가로수 길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가로수길	가로수길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15.4	80.8	3.2	0.6
성별	남성	[1,014]	15.9	81.3	2.4	0.5
	여성	[986]	14.9	80.4	4.0	0.7
연령별	만 15-19 세	[161]	11.2	87.6	0.6	0.6
	20 대	[342]	9.9	88.3	1.8	0.0
	30 대	[386]	11.9	84.7	2.3	1.0
	40 대	[439]	18.0	79.5	2.3	0.2
	50 대	[417]	18.0	75.8	5.0	1.2
	60 대	[255]	22.0	71.4	6.3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28.8	66.2	3.8	1.2
	고졸이하	[848]	17.0	78.7	3.8	0.6
	대졸이하	[1,012]	12.8	84.0	2.6	0.6
	대학원이상	[60]	18.3	78.3	3.3	0.0
직업별	자영업	[350]	20.6	74.0	3.7	1.7
	블루칼라	[399]	17.8	79.2	2.5	0.5
	화이트칼라	[496]	11.7	85.9	2.0	0.4
	전업주부	[343]	18.7	74.6	6.4	0.3
	학생	[342]	8.8	89.2	1.8	0.3
	무직/기타	[70]	18.6	78.6	2.9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15.2	80.6	3.5	0.8
	보통	[781]	14.0	82.7	2.9	0.4
	무관심	[303]	19.8	76.9	2.6	0.7

계층별 상세분석

- ◆ '가로수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86.5%), '가로수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25.1%), 강원/제주(거주)(22.7%), 경상권(성장)(22.9%) 등으로 나타남

표135.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가로수 길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가로수길	가로수길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15.4	80.8	3.2	0.6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12.6	83.8	3.1	0.6
	충청권(거주)	[164]	12.8	84.1	3.0	0.0
	전라권(거주)	[155]	11.0	86.5	1.9	0.6
	경상권(거주)	[414]	25.1	69.6	4.3	1.0
	강원/제주(거주)	[66]	22.7	77.3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11.1	85.4	3.1	0.5
	충청권(성장)	[247]	13.0	84.2	2.4	0.4
	전라권(성장)	[273]	15.8	80.2	3.3	0.7
	경상권(성장)	[512]	22.9	72.3	4.1	0.8
	강원/제주(성장)	[85]	21.2	77.6	0.0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11.1	85.4	3.0	0.5
	수도권 유입	[345]	16.2	79.7	3.2	0.9
	지방토박이	[772]	19.9	76.2	3.2	0.6
	지방유입	[27]	11.1	85.2	3.7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12.6	83.2	3.2	1.1
	전라권유입	[114]	21.1	73.7	4.4	0.9
	경상권유입	[113]	15.0	82.3	2.7	0.0
	강원/제주유입	[23]	13.0	82.6	0.0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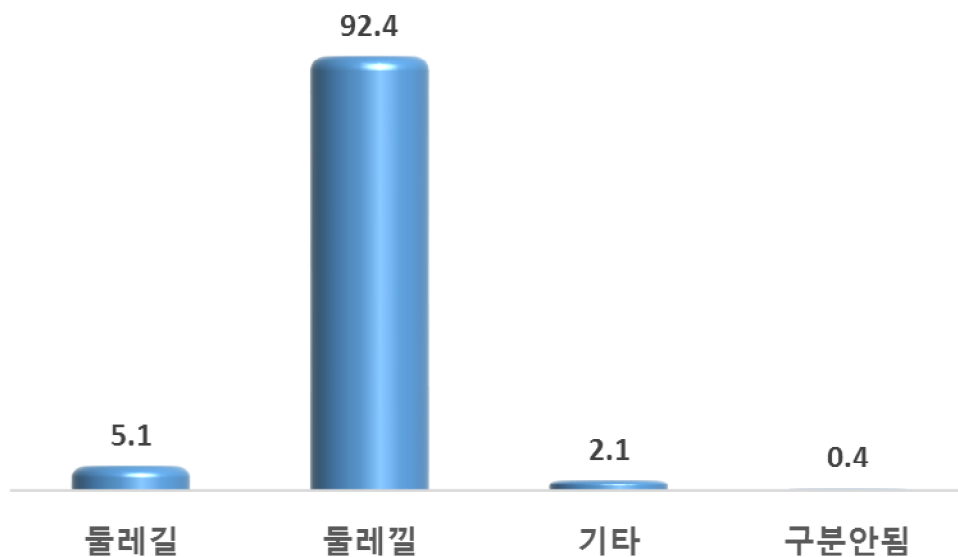
2.4.17 둘레 길

전체 분석

- ◆ (둘레 길)둘레 길에 대한 조사 결과, '둘레길' 응답이 92.4%로 가장 높았으며, '둘레길' 응답이 5.1%로 나타남

■ 그림65. 사이트 소리 : 둘레 길 ■

(단위 : %)



문64

(둘레 길)산의 "둘레"를 산책하기 좋게 꾸며 놓은 "길"은 무슨 길이라고 하나요?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둘레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95.0%), '둘레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중졸이하(11.2%) 등으로 나타남

표136.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둘레 길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둘레길	둘레길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1	92.4	2.1	0.4
성별	남성	[1,014]	5.4	92.6	1.7	0.3
	여성	[986]	4.8	92.1	2.5	0.6
연령별	만 15-19 세	[161]	4.3	95.0	0.6	0.0
	20 대	[342]	5.3	93.3	1.5	0.0
	30 대	[386]	2.6	94.6	2.1	0.8
	40 대	[439]	4.6	94.3	0.9	0.2
	50 대	[417]	6.5	89.9	2.9	0.7
	60 대	[255]	7.8	86.7	4.7	0.8
학력별	중졸이하	[80]	11.2	85.0	2.5	1.2
	고졸이하	[848]	5.7	91.3	2.6	0.5
	대졸이하	[1,012]	4.2	93.7	1.7	0.4
	대학원이상	[60]	3.3	95.0	1.7	0.0
직업별	자영업	[350]	6.6	90.3	2.3	0.9
	블루칼라	[399]	6.0	91.7	1.8	0.5
	화이트칼라	[496]	3.0	94.8	1.6	0.6
	전업주부	[343]	5.2	90.7	3.8	0.3
	학생	[342]	4.4	94.2	1.5	0.0
	무직/기타	[70]	10.0	88.6	1.4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5.3	91.4	2.5	0.8
	보통	[781]	4.1	94.0	1.9	0.0
	무관심	[303]	6.9	91.1	1.3	0.7

계층별 상세분석

- ◆ '둘레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96.3%), '둘레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지방유입(7.4%) 등으로 나타남

표137.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둘레 길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둘레길	둘레길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1	92.4	2.1	0.4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1	93.1	2.2	0.6
	충청권(거주)	[164]	3.0	96.3	0.6	0.0
	전라권(거주)	[155]	4.5	94.8	0.6	0.0
	경상권(거주)	[414]	8.9	87.4	3.1	0.5
	강원/제주(거주)	[66]	6.1	93.9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2	93.2	2.3	0.3
	충청권(성장)	[247]	3.2	94.7	1.2	0.8
	전라권(성장)	[273]	5.1	93.0	1.5	0.4
	경상권(성장)	[512]	7.4	89.3	2.9	0.4
	강원/제주(성장)	[85]	5.9	92.9	0.0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1	93.2	2.3	0.4
	수도권 유입	[345]	4.1	92.8	2.0	1.2
	지방토박이	[772]	6.6	91.2	1.9	0.3
	지방유입	[27]	7.4	92.6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2	91.6	2.1	2.1
	전라권유입	[114]	5.3	91.2	2.6	0.9
	경상권유입	[113]	2.7	95.6	1.8	0.0
	강원/제주유입	[23]	4.3	91.3	0.0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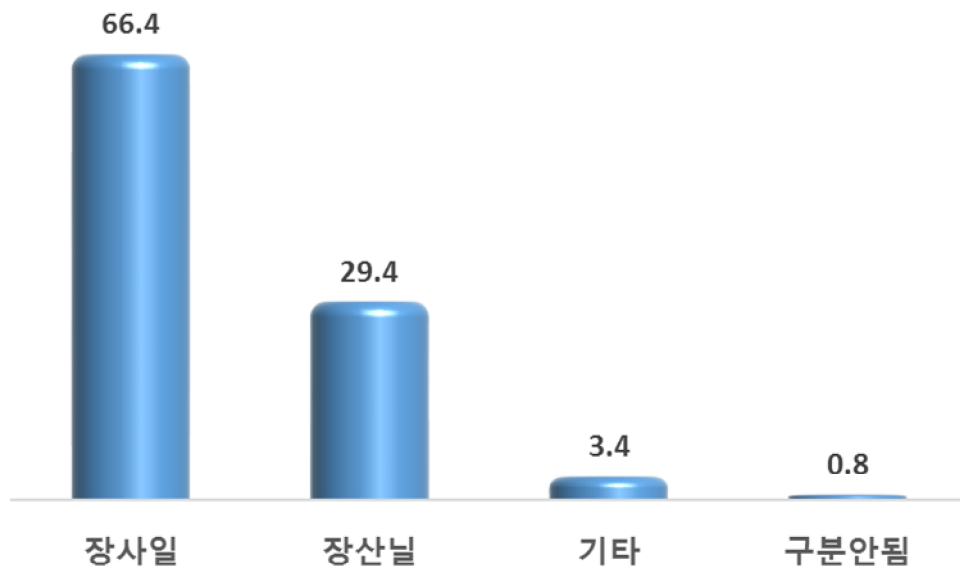
2.4.18 장사 일

전체 분석

- ◆ (장사 일)장사 일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 '장사일' 응답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산닐' 응답이 29.4%로 나타남

■ 그림66. 사잇 소리 : 장사 일 ■

(단위 : %)



문65

(장사 일)물건을 팔기 위해 "장사"를 하는 "일"을 하러 나가면 무슨 일을 하러 나갔다고 하나요?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장사일'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80.8%), 고졸이하(72.5%), 자영업(76.3%), '장산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43.6%), 대학원 이상(45.0%), 학생(41.2%) 등으로 조사됨

표138.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장사 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장사일	장산닐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66.4	29.4	3.4	0.8
성별	남성	[1,014]	65.2	31.4	2.7	0.8
	여성	[986]	67.5	27.5	4.2	0.8
연령별	만 15-19 세	[161]	57.8	37.3	4.3	0.6
	20 대	[342]	52.6	43.6	3.8	0.0
	30 대	[386]	58.0	37.3	3.1	1.6
	40 대	[439]	72.7	24.8	2.1	0.5
	50 대	[417]	73.1	21.8	3.8	1.2
	60 대	[255]	80.8	14.1	4.3	0.8
학력별	중졸이하	[80]	70.0	23.8	3.8	2.5
	고졸이하	[848]	72.5	23.0	3.7	0.8
	대졸이하	[1,012]	61.8	34.4	3.2	0.7
	대학원이상	[60]	51.7	45.0	3.3	0.0
직업별	자영업	[350]	76.3	20.0	2.3	1.4
	블루칼라	[399]	71.7	26.1	1.8	0.5
	화이트칼라	[496]	61.1	35.1	3.0	0.8
	전업주부	[343]	71.4	22.2	5.5	0.9
	학생	[342]	53.5	41.2	5.0	0.3
	무직/기타	[70]	61.4	34.3	2.9	1.4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64.2	30.7	4.0	1.1
	보통	[781]	66.6	30.2	2.7	0.5
	무관심	[303]	72.3	23.8	3.3	0.7

계층별 상세분석

- ◆ '장사일'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74.9%), 경상권(성장)(75.0%), 수도권 유입(76.2%), 충청권유입(76.8%), 경상권유입(77.9%), '장산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47.1%), 강원/제주(거주)(45.5%), 전라권(성장)(36.3%) 등으로 나 타남

표139.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장사 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장사일	장산닐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66.4	29.4	3.4	0.8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66.4	29.8	3.2	0.7
	충청권(거주)	[164]	67.7	30.5	1.2	0.6
	전라권(거주)	[155]	49.7	47.1	3.2	0.0
	경상권(거주)	[414]	74.9	18.8	4.6	1.7
	강원/제주(거주)	[66]	48.5	45.5	6.1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61.9	34.1	3.5	0.5
	충청권(성장)	[247]	72.1	25.1	2.0	0.8
	전라권(성장)	[273]	60.8	36.3	2.6	0.4
	경상권(성장)	[512]	75.0	19.3	4.1	1.6
	강원/제주(성장)	[85]	61.2	32.9	4.7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62.4	33.6	3.5	0.5
	수도권 유입	[345]	76.2	20.3	2.3	1.2
	지방토박이	[772]	67.0	28.2	3.8	1.0
	지방유입	[27]	48.1	48.1	3.7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76.8	17.9	3.2	2.1
	전라권유입	[114]	71.9	25.4	1.8	0.9
	경상권유입	[113]	77.9	19.5	2.7	0.0
	강원/제주유입	[23]	87.0	8.7	0.0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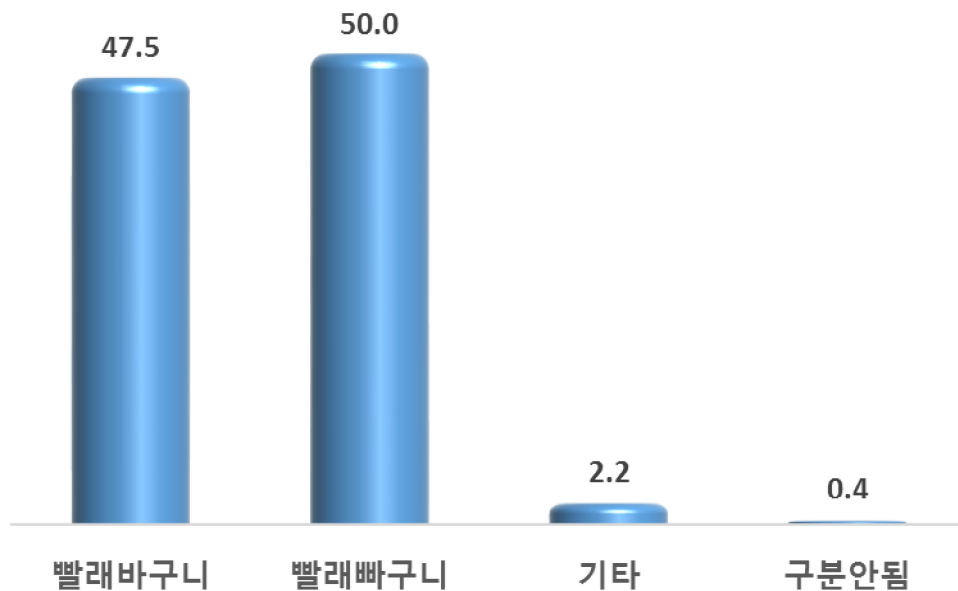
2.4.19 빨래 바구니

전체 분석

- ◆ (빨래 바구니)빨래 바구니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 '빨래빠구니' 응답이 50.0%, '빨래바구니' 응답이 47.5%로 조사됨

■ 그림67. 사잇 소리 : 빨래 바구니 ■

(단위 : %)



문66

(빨래 바구니)“빨래”할 옷을 담아 놓는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고 하나요?

계층별 상세분석

- ◆ '빨래빠구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70.2%), 20대(67.0%), 학생(72.5%), '빨래바구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40대(56.0%), 50대(54.9%), 60대(61.6%) 등으로 나타남

표140.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빨래 바구니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빨래바구니	빨래빠구니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47.5	50.0	2.2	0.4
성별	남성	[1,014]	45.9	52.3	1.8	0.1
	여성	[986]	49.2	47.7	2.5	0.6
연령별	만 15-19 세	[161]	29.2	70.2	0.6	0.0
	20 대	[342]	32.2	67.0	0.9	0.0
	30 대	[386]	41.7	55.4	2.1	0.8
	40 대	[439]	56.0	41.9	1.8	0.2
	50 대	[417]	54.9	41.5	2.9	0.7
	60 대	[255]	61.6	34.1	4.3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52.5	45.0	1.2	1.2
	고졸이하	[848]	50.4	46.3	2.9	0.4
	대졸이하	[1,012]	44.7	53.5	1.6	0.3
	대학원이상	[60]	48.3	50.0	1.7	0.0
직업별	자영업	[350]	54.3	42.6	2.6	0.6
	블루칼라	[399]	53.1	44.4	2.0	0.5
	화이트칼라	[496]	48.2	50.2	1.2	0.4
	전업주부	[343]	53.9	41.4	4.4	0.3
	학생	[342]	26.6	72.5	0.9	0.0
	무직/기타	[70]	47.1	50.0	2.9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46.7	50.1	2.5	0.7
	보통	[781]	48.9	49.4	1.7	0.0
	무관심	[303]	46.2	51.2	2.3	0.3

계층별 상세분석

- ◆ '빨래빠구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65.9%), 전라권(거주)(67.7%), 충청권(성장)(57.5%), '빨래빠구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61.1%), 경상권(성장)(60.7%), 경상권유입(61.1%) 등으로 나타남

■ 표141.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빨래 바구니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빨래바구니	빨래빠구니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47.5	50.0	2.2	0.4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6.7	50.6	2.2	0.5
	충청권(거주)	[164]	32.9	65.9	1.2	0.0
	전라권(거주)	[155]	31.6	67.7	0.6	0.0
	경상권(거주)	[414]	61.1	35.3	3.4	0.2
	강원/제주(거주)	[66]	50.0	50.0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3.7	54.1	1.8	0.3
	충청권(성장)	[247]	40.1	57.5	2.0	0.4
	전라권(성장)	[273]	41.0	56.4	2.2	0.4
	경상권(성장)	[512]	60.7	35.9	3.1	0.2
	강원/제주(성장)	[85]	49.4	49.4	0.0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3.2	54.6	1.9	0.4
	수도권 유입	[345]	55.4	40.9	2.9	0.9
	지방토박이	[772]	48.3	49.4	2.2	0.1
	지방유입	[27]	59.3	40.7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54.7	41.1	3.2	1.1
	전라권유입	[114]	52.6	42.1	4.4	0.9
	경상권유입	[113]	61.1	37.2	1.8	0.0
	강원/제주유입	[23]	43.5	52.2	0.0	4.3

2.4.20 새우 살

전체 분석

- ◆ (새우 살)새우 살에 대한 조사 결과, '새우살' 응답이 54.6%로, '새우살' 응답 43.2% 대비 높게 나타남

■ 그림68. 사잇 소리 : 새우 살 ■

(단위 : %)



문67

(새우 살)새우 살: "새우"의 "살" 부분은 무슨 살이라고 하나요?

계층별 상세분석

- ◆ '새우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63.5%), 60대(60.8%), 중졸이하(61.2%), 전업주부(61.8%), '새우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50.9%), 20대(50.6%), 30대(52.1%), 학생(52.6%) 등으로 나타남

표142.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새우 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새우살	새우쌀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4.6	43.2	1.6	0.6
성별	남성	[1,014]	52.4	46.1	1.2	0.4
	여성	[986]	56.9	40.2	2.1	0.8
연령별	만 15-19 세	[161]	47.8	50.9	0.6	0.6
	20 대	[342]	47.7	50.6	1.5	0.3
	30 대	[386]	45.3	52.1	1.8	0.8
	40 대	[439]	58.5	40.5	0.5	0.5
	50 대	[417]	63.5	33.3	2.2	1.0
	60 대	[255]	60.8	35.3	3.5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61.2	35.0	1.2	2.5
	고졸이하	[848]	57.7	39.7	2.2	0.4
	대졸이하	[1,012]	51.8	46.3	1.2	0.7
	대학원이상	[60]	50.0	48.3	1.7	0.0
직업별	자영업	[350]	58.3	39.1	1.7	0.9
	블루칼라	[399]	58.9	39.6	1.0	0.5
	화이트칼라	[496]	50.0	48.2	0.8	1.0
	전업주부	[343]	61.8	34.1	3.8	0.3
	학생	[342]	45.6	52.6	1.5	0.3
	무직/기타	[70]	52.9	45.7	1.4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54.7	42.5	2.0	0.9
	보통	[781]	53.4	44.8	1.4	0.4
	무관심	[303]	57.4	40.9	1.3	0.3

계층별 상세분석

- ◆ '새우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65.2%), 경상권(성장)(66.0%), 경상권유입(71.7%), '새우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58.5%), 전라권(거주)(53.5%), 충청권(성장)(54.3%) 등으로 나타남

표143. 응답자 특성 : 사잇 소리 : 새우 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새우살	새우쌀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4.6	43.2	1.6	0.6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53.8	44.1	1.6	0.5
	충청권(거주)	[164]	40.2	58.5	0.6	0.6
	전라권(거주)	[155]	45.2	53.5	0.6	0.6
	경상권(거주)	[414]	65.2	30.9	2.9	1.0
	강원/제주(거주)	[66]	60.6	39.4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51.6	46.3	1.7	0.3
	충청권(성장)	[247]	44.1	54.3	0.8	0.8
	전라권(성장)	[273]	50.2	48.0	1.1	0.7
	경상권(성장)	[512]	66.0	30.7	2.5	0.8
	강원/제주(성장)	[85]	61.2	37.6	0.0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51.3	46.6	1.8	0.4
	수도권 유입	[345]	60.0	38.0	1.2	0.9
	지방토박이	[772]	55.6	41.8	1.8	0.8
	지방유입	[27]	63.0	37.0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50.5	47.4	1.1	1.1
	전라권유입	[114]	57.0	40.4	1.8	0.9
	경상권유입	[113]	71.7	27.4	0.9	0.0
	강원/제주유입	[23]	56.5	39.1	0.0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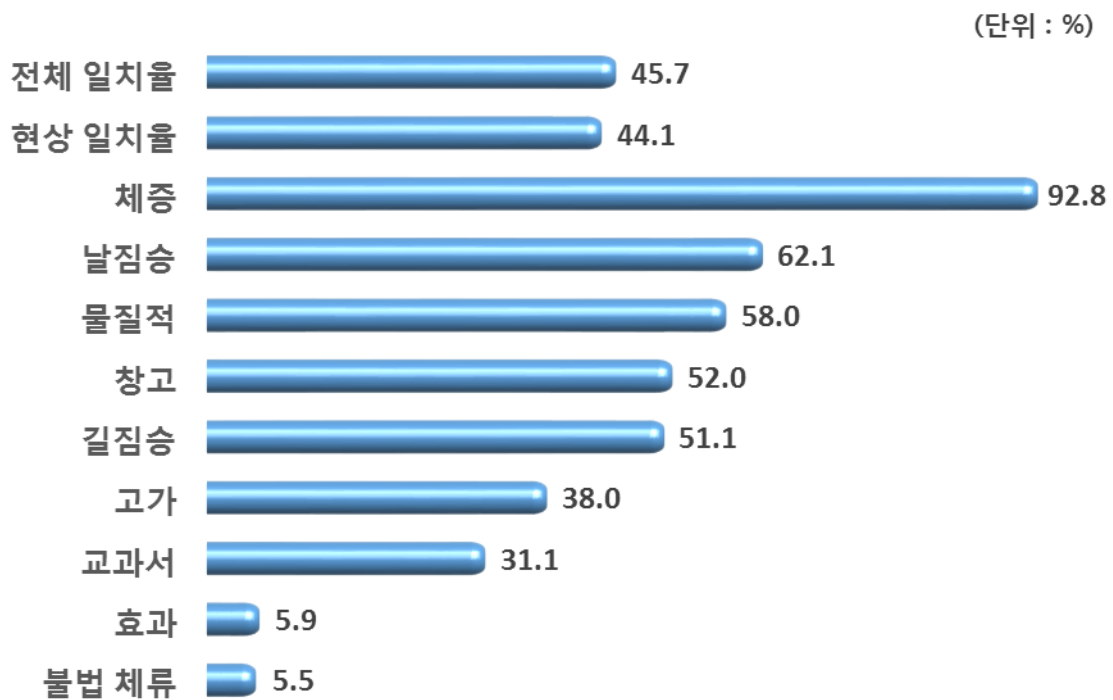
2.5 경음화

2.5.1 경음화_표준발음 일치율

전체 분석

- ◆ 경음화 현상에 대한 표준발음 일치율(%)은 전체 일치율 대비 1.6%p 낮았음. 한편, 개별 항목 별로 '체증' 항목에 대한 표준발음 일치율이 9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날짐승' 62.1%, '물질적' 5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69. 표준발음 일치율 ■



문

해당없음

계층별 상세분석

- ◆ '체증'은 대부분의 응답자에게서 90% 이상의 높은 일치율을 보였던 한편, '날짐승'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학생(73.4%), '물질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30대(64.8%) 등으로 나타남

표144.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일치율	현상 일치율	고가	체증	창고	교과서	효과	물질적	불법 체류	갈짐승	날짐승
[전 체]		[2,000]	45.7	44.1	38.0	92.8	52.0	31.1	5.9	58.0	5.5	51.1	62.1
성별	남성	[1,014]	45.1	45.7	42.7	94.8	50.1	33.4	5.0	58.2	7.0	55.0	64.7
	여성	[986]	46.4	42.4	33.3	90.9	54.0	28.7	6.8	57.8	3.9	47.1	59.4
연령별	만 15-19 세	[161]	44.0	43.1	26.7	94.4	42.2	22.4	5.6	59.0	5.0	60.2	72.0
	20 대	[342]	46.8	43.2	27.5	95.3	34.3	21.6	6.1	61.7	2.6	66.9	72.8
	30 대	[386]	46.7	43.3	32.6	90.7	43.3	25.9	6.0	64.8	2.1	57.1	66.8
	40 대	[439]	46.0	43.6	40.6	90.4	55.6	33.9	6.9	59.1	5.9	44.5	55.6
	50 대	[417]	45.0	44.2	48.1	93.0	65.7	36.2	3.1	48.1	5.3	43.9	54.4
	60 대	[255]	44.6	47.6	46.7	95.7	66.7	43.9	8.6	56.5	14.1	38.0	58.0
학력별	중졸이하	[80]	44.1	47.6	58.8	93.8	60.0	33.8	8.8	48.8	10.0	43.8	71.2
	고졸이하	[848]	44.7	44.5	40.6	94.1	59.1	31.6	5.4	57.8	6.1	44.9	60.8
	대졸이하	[1,012]	46.6	43.3	34.5	92.1	45.6	29.2	5.8	59.0	4.6	56.3	62.3
	대학원이상	[60]	47.9	46.5	35.0	86.7	50.0	51.7	10.0	56.7	5.0	60.0	63.3
직업별	자영업	[350]	44.6	45.9	45.6	93.7	63.7	40.9	5.2	54.0	7.2	45.1	57.7
	블루칼라	[399]	44.5	43.5	39.3	93.2	52.3	30.8	4.8	59.0	6.3	46.5	58.6
	화이트칼라	[496]	46.9	44.1	38.6	90.5	50.2	29.6	6.0	59.0	4.8	54.3	64.2
	전업주부	[343]	46.7	43.3	39.4	92.7	60.1	32.7	6.1	57.6	3.5	42.3	55.7
	학생	[342]	45.9	43.1	26.3	95.0	35.4	21.1	6.7	59.6	3.8	66.3	73.4
	무직/기타	[70]	45.2	46.2	40.0	92.9	47.1	35.7	10.0	58.6	14.3	52.9	64.3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46.4	44.1	37.8	91.6	52.7	30.3	6.7	57.2	5.4	53.1	61.9
	보통	[781]	45.6	44.1	36.5	93.6	51.5	28.7	5.4	60.6	5.5	51.7	63.1
	무관심	[303]	43.9	44.0	42.7	94.7	51.2	39.6	5.0	53.8	5.6	43.2	60.1

계층별 상세분석

- ◆ '날짐승'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78.8%), 강원/제주(성장)(69.4%), 수도권 토박이(69.0%), '물질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75.0%), 충청권(성장)(70.9%), 강원/제주(성장)(71.8%) 등으로 나타남

■ 표145.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일치율	현상 일치율	고가	체증	창고	교과서	효과	물질적	불법 체류	갈짐승	날짐승
[전 체]		[2,000]	45.7	44.1	38.0	92.8	52.0	31.1	5.9	58.0	5.5	51.1	62.1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6.1	42.9	34.9	91.5	42.0	26.4	5.8	59.8	5.3	55.7	64.5
	충청권(거주)	[164]	46.5	47.0	32.3	96.3	78.0	14.0	4.9	75.0	5.5	50.6	65.9
	전라권(거주)	[155]	47.9	47.3	41.9	96.1	79.4	12.9	5.8	63.6	2.6	56.5	67.1
	경상권(거주)	[414]	43.8	45.9	49.5	94.4	66.6	61.6	7.3	41.9	7.2	35.6	48.9
	강원/제주(거주)	[66]	44.8	39.1	27.3	90.9	15.2	10.6	1.5	69.7	4.5	53.0	78.8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6.1	42.4	33.9	91.4	31.9	25.5	5.7	61.2	4.1	59.3	68.7
	충청권(성장)	[247]	46.1	46.4	32.0	95.1	74.9	14.6	4.1	70.9	6.5	54.1	64.8
	전라권(성장)	[273]	48.1	47.1	44.7	94.9	82.1	17.2	7.0	59.2	4.8	51.3	63.0
	경상권(성장)	[512]	43.9	45.1	46.1	93.6	65.2	59.6	7.4	43.2	7.8	35.2	47.6
	강원/제주(성장)	[85]	44.5	38.6	28.2	90.6	18.8	10.6	1.2	71.8	4.7	51.8	69.4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6.1	42.3	33.6	91.4	31.0	25.2	5.8	61.3	4.0	59.6	69.0
	수도권 유입	[345]	46.1	44.3	38.3	91.9	69.3	29.3	5.8	56.2	8.5	45.8	53.3
	지방토박이	[772]	45.2	45.8	42.6	94.9	67.3	38.3	6.2	55.1	5.7	44.0	58.4
	지방유입	[27]	45.7	45.3	44.4	92.6	63.0	33.3	0.0	59.3	7.4	48.1	59.3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5.1	45.1	30.5	93.7	70.5	15.8	3.2	62.1	8.5	58.5	62.1
	전라권유입	[114]	48.7	46.7	49.1	93.0	84.2	21.9	8.8	53.5	6.2	46.0	57.0
	경상권유입	[113]	44.4	42.1	35.4	89.4	61.1	49.6	6.2	50.4	9.7	34.5	42.5
	강원/제주유입	[23]	44.8	40.1	30.4	91.3	30.4	21.7	0.0	73.9	13.0	47.8	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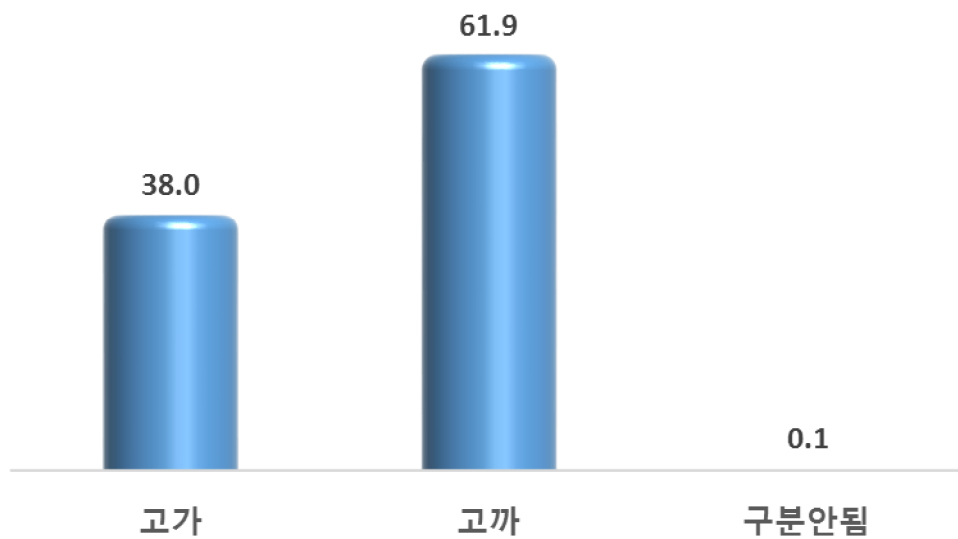
2.5.2 고가

전체 분석

- ◆ (고가)고가에 대한 조사 결과, '고까' 응답이 61.9%로, '고가' 응답(38.0%)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 그림70. 경음화 : 고가 ■

(단위 : %)



문33

(고가)고가 도로

계층별 상세분석

- ◆ '고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73.3%), 20대(72.5%), 학생(73.7%), '고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성(42.6%), 50대(48.0%), 60대(46.7%), 중졸이하(58.8%) 등으로 나타남

■ 표146.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고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고가	고가	구분안됨
[전 체]		[2,000]	38.0	61.9	0.1
성별	남성	[1,014]	42.6	57.2	0.2
	여성	[986]	33.3	66.7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26.7	73.3	0.0
	20 대	[342]	27.5	72.5	0.0
	30 대	[386]	32.6	67.4	0.0
	40 대	[439]	40.5	59.2	0.2
	50 대	[417]	48.0	51.8	0.2
	60 대	[255]	46.7	53.3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58.8	41.2	0.0
	고졸이하	[848]	40.6	59.4	0.0
	대졸이하	[1,012]	34.4	65.4	0.2
	대학원이상	[60]	35.0	65.0	0.0
직업별	자영업	[350]	45.4	54.3	0.3
	블루칼라	[399]	39.3	60.7	0.0
	화이트칼라	[496]	38.5	61.3	0.2
	전업주부	[343]	39.4	60.6	0.0
	학생	[342]	26.3	73.7	0.0
	무직/기타	[70]	40.0	6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37.8	62.2	0.0
	보통	[781]	36.5	63.4	0.1
	무관심	[303]	42.6	57.1	0.3

계층별 상세분석

- ◆ '고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72.7%), 강원/제주(성장)(71.8%), 충청권유입(69.5%), '고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49.5%), 경상권(성장)(46.1%), 전라권유입(49.1%) 등으로 나타남

표147.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고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고가	고가	구분안됨
[전 체]		[2,000]	38.0	61.9	0.1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34.9	64.9	0.2
	충청권(거주)	[164]	32.3	67.7	0.0
	전라권(거주)	[155]	41.9	58.1	0.0
	경상권(거주)	[414]	49.5	50.5	0.0
	강원/제주(거주)	[66]	27.3	72.7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33.9	65.9	0.2
	충청권(성장)	[247]	32.0	68.0	0.0
	전라권(성장)	[273]	44.7	55.3	0.0
	경상권(성장)	[512]	46.1	53.9	0.0
	강원/제주(성장)	[85]	28.2	71.8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33.5	66.2	0.2
	수도권 유입	[345]	38.3	61.7	0.0
	지방토박이	[772]	42.6	57.4	0.0
	지방유입	[27]	44.4	55.6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30.5	69.5	0.0
	전라권유입	[114]	49.1	50.9	0.0
	경상권유입	[113]	35.4	64.6	0.0
	강원/제주유입	[23]	30.4	69.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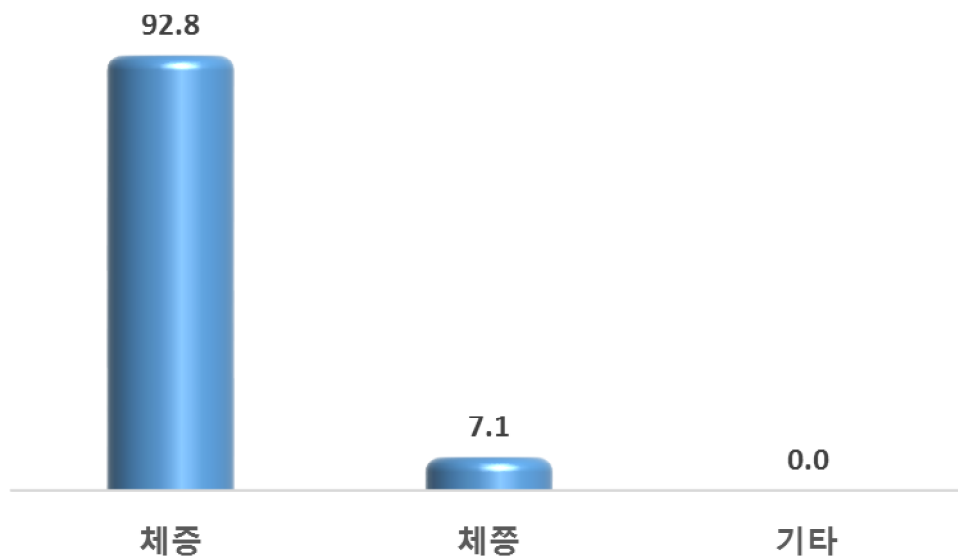
2.5.3 체증

전체 분석

- ◆ (체증)체증에 대한 조사 결과, '체증' 응답이 9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체증' 응답이 7.1%로 조사됨

■ 그림71. 경음화 : 체증 ■

(단위 : %)



문2-1

(체증)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크다.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체증'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95.3%), 학생(95.0%), '체증'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대학원이상(13.3%) 등으로 나타남

표148.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체증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체증	체증	기타
[전 체]		[2,000]	92.8	7.1	0.0
성별	남성	[1,014]	94.8	5.2	0.0
	여성	[986]	90.9	9.0	0.1
연령별	만 15-19 세	[161]	94.4	5.6	0.0
	20 대	[342]	95.3	4.7	0.0
	30 대	[386]	90.7	9.1	0.3
	40 대	[439]	90.4	9.6	0.0
	50 대	[417]	93.0	7.0	0.0
	60 대	[255]	95.7	4.3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93.8	6.2	0.0
	고졸이하	[848]	94.1	5.9	0.0
	대졸이하	[1,012]	92.1	7.8	0.1
	대학원이상	[60]	86.7	13.3	0.0
직업별	자영업	[350]	93.7	6.3	0.0
	블루칼라	[399]	93.2	6.5	0.3
	화이트칼라	[496]	90.5	9.5	0.0
	전업주부	[343]	92.7	7.3	0.0
	학생	[342]	95.0	5.0	0.0
	무직/기타	[70]	92.9	7.1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91.6	8.3	0.1
	보통	[781]	93.6	6.4	0.0
	무관심	[303]	94.7	5.3	0.0

계층별 상세분석

- ◆ '체증'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96.3%), 전라권(거주)(96.1%), '체증'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9.1%), 경상권유입(10.6%) 등임

■ 표149.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체증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체증	체증	기타
[전 체]		[2,000]	92.8	7.1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91.5	8.4	0.1
	충청권(거주)	[164]	96.3	3.7	0.0
	전라권(거주)	[155]	96.1	3.9	0.0
	경상권(거주)	[414]	94.4	5.6	0.0
	강원/제주(거주)	[66]	90.9	9.1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91.4	8.5	0.1
	충청권(성장)	[247]	95.1	4.9	0.0
	전라권(성장)	[273]	94.9	5.1	0.0
	경상권(성장)	[512]	93.6	6.4	0.0
	강원/제주(성장)	[85]	90.6	9.4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91.4	8.5	0.1
	수도권 유입	[345]	91.9	8.1	0.0
	지방토박이	[772]	94.9	5.1	0.0
	지방유입	[27]	92.6	7.4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93.7	6.3	0.0
	전라권유입	[114]	93.0	7.0	0.0
	경상권유입	[113]	89.4	10.6	0.0
	강원/제주유입	[23]	91.3	8.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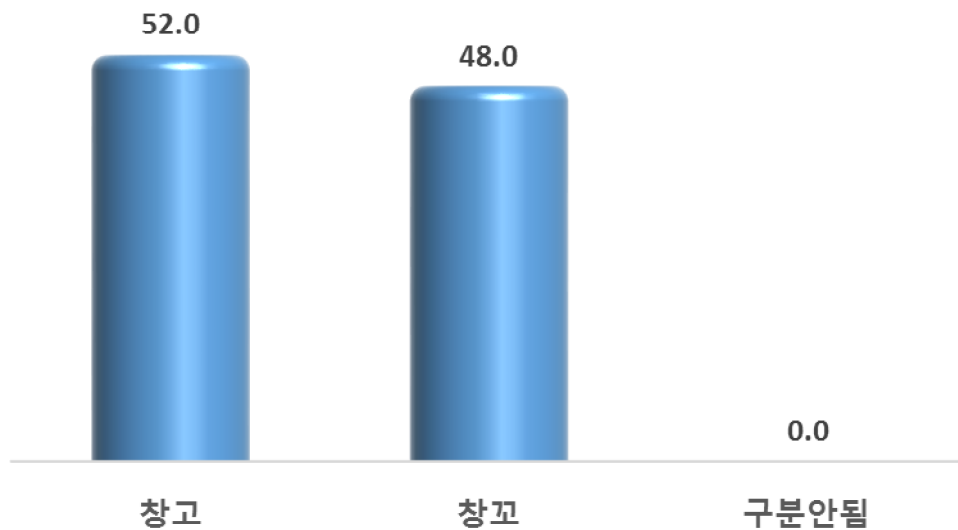
2.5.4 창고

전체 분석

- ◆ (창고)창고에 대한 조사 결과, '창고' 응답이 52.0%로, '창꼬' 응답(48.0%) 대비 소폭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그림72. 경음화 : 창고 ■

(단위 : %)



문11

(창고)창고

계층별 상세분석

- ◆ '창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65.7%), 60대(66.7%), 자영업(63.7%), '창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57.8%), 20대(65.5%), 학생(64.6%) 등으로 나타남

■ 표150.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창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창고	창고	구분안됨
[전 체]		[2,000]	52.0	48.0	0.0
성별	남성	[1,014]	50.1	49.8	0.1
	여성	[986]	54.0	46.0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42.2	57.8	0.0
	20 대	[342]	34.2	65.5	0.3
	30 대	[386]	43.3	56.7	0.0
	40 대	[439]	55.6	44.4	0.0
	50 대	[417]	65.7	34.3	0.0
	60 대	[255]	66.7	33.3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60.0	40.0	0.0
	고졸이하	[848]	59.1	40.8	0.1
	대졸이하	[1,012]	45.6	54.4	0.0
	대학원이상	[60]	50.0	5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63.7	36.3	0.0
	블루칼라	[399]	52.1	47.6	0.3
	화이트칼라	[496]	50.2	49.8	0.0
	전업주부	[343]	60.1	39.9	0.0
	학생	[342]	35.4	64.6	0.0
	무직/기타	[70]	47.1	52.9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52.7	47.3	0.0
	보통	[781]	51.5	48.4	0.1
	무관심	[303]	51.2	48.8	0.0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창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78.0%), 전라권(거주)(79.4%), 전라권(성장)(82.1%), 전라권유입(84.2%), '창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84.8%), 강원/제주(성장)(81.2%), 수도권 토박이(69.0%) 등으로 나 타남

표151.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창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창고	창고	구분안됨
[전 체]		[2,000]	52.0	48.0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2.0	58.0	0.0
	충청권(거주)	[164]	78.0	22.0	0.0
	전라권(거주)	[155]	79.4	20.6	0.0
	경상권(거주)	[414]	66.4	33.3	0.2
	강원/제주(거주)	[66]	15.2	84.8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31.9	68.1	0.0
	충청권(성장)	[247]	74.9	25.1	0.0
	전라권(성장)	[273]	82.1	17.9	0.0
	경상권(성장)	[512]	65.0	34.8	0.2
	강원/제주(성장)	[85]	18.8	81.2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31.0	69.0	0.0
	수도권 유입	[345]	69.3	30.7	0.0
	지방토박이	[772]	67.2	32.6	0.1
	지방유입	[27]	63.0	37.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70.5	29.5	0.0
	전라권유입	[114]	84.2	15.8	0.0
	경상권유입	[113]	61.1	38.9	0.0
	강원/제주유입	[23]	30.4	69.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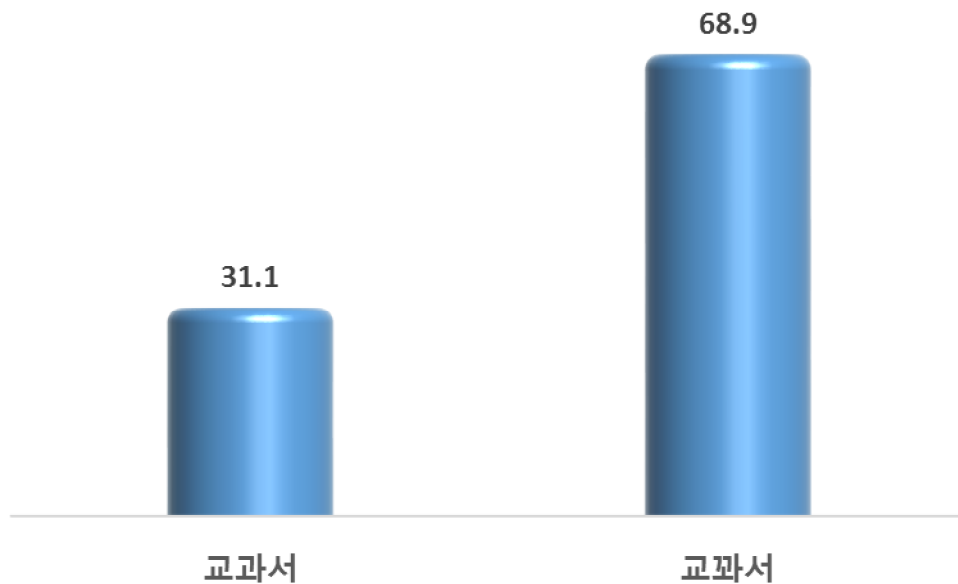
2.5.5 교과서

전체 분석

- ◆ (교과서)교과서에 대한 조사 결과, '교과서' 응답이 68.9%로, '교과서'(31.1%)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그림73. 경음화 : 교과서

(단위 : %)



문30

(교과서)교과서

계층별 상세분석

- ◆ '교과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77.6%), 20대(78.4%), 학생(78.9%), '교과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43.9%), 대학원이상(51.7%), 자영업(40.9%) 등으로 나타남

표152.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교과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교과서	교과서
[전 체]		[2,000]	31.1	68.9
성별	남성	[1,014]	33.4	66.6
	여성	[986]	28.7	71.3
연령별	만 15-19 세	[161]	22.4	77.6
	20 대	[342]	21.6	78.4
	30 대	[386]	25.9	74.1
	40 대	[439]	33.9	66.1
	50 대	[417]	36.2	63.8
	60 대	[255]	43.9	56.1
학력별	중졸이하	[80]	33.8	66.2
	고졸이하	[848]	31.6	68.4
	대졸이하	[1,012]	29.2	70.8
	대학원이상	[60]	51.7	48.3
직업별	자영업	[350]	40.9	59.1
	블루칼라	[399]	30.8	69.2
	화이트칼라	[496]	29.6	70.4
	전업주부	[343]	32.7	67.3
	학생	[342]	21.1	78.9
	무직/기타	[70]	35.7	64.3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30.3	69.7
	보통	[781]	28.7	71.3
	무관심	[303]	39.6	60.4

계층별 상세분석

- ◆ '교과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86.0%), 전라권(거주)(87.1%), 강원/제주(거주)(89.4%), 충청권(성장)(85.4%), 강원/제주(성장)(89.4%), 충청권유입(84.2%), '교과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61.6%), 경상권(성장)(59.6%) 등으로 나타남

■ 표153.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교과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교과서	교과서
[전 체]		[2,000]	31.1	68.9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26.4	73.6
	충청권(거주)	[164]	14.0	86.0
	전라권(거주)	[155]	12.9	87.1
	경상권(거주)	[414]	61.6	38.4
	강원/제주(거주)	[66]	10.6	89.4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25.5	74.5
	충청권(성장)	[247]	14.6	85.4
	전라권(성장)	[273]	17.2	82.8
	경상권(성장)	[512]	59.6	40.4
	강원/제주(성장)	[85]	10.6	89.4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25.2	74.8
	수도권 유입	[345]	29.3	70.7
	지방토박이	[772]	38.3	61.7
	지방유입	[27]	33.3	66.7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15.8	84.2
	전라권유입	[114]	21.9	78.1
	경상권유입	[113]	49.6	50.4
	강원/제주유입	[23]	21.7	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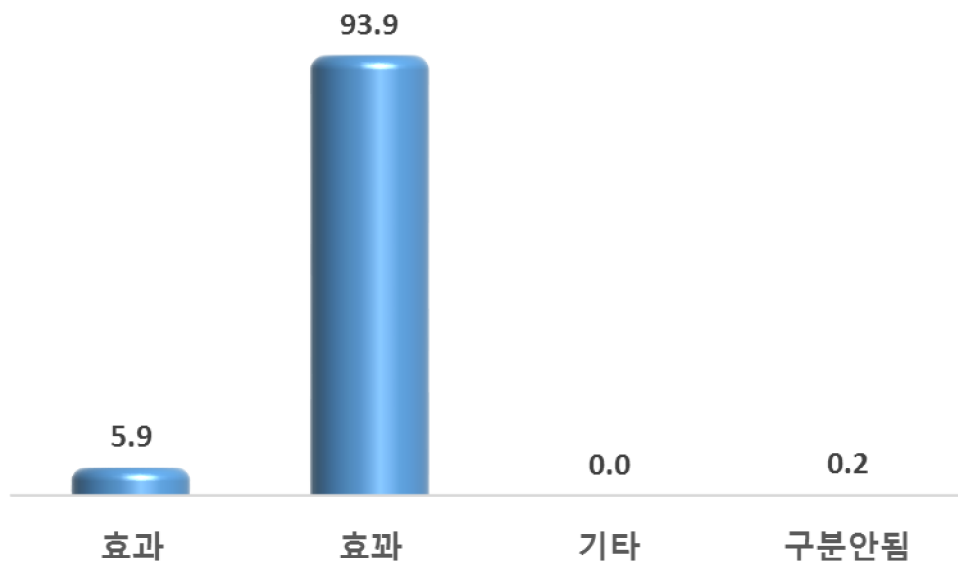
2.5.6 효과

전체 분석

- ◆ (효과)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 '효과' 응답이 93.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효과' 응답이 5.9%에 불과했음

■ 그림 74. 경음화 : 효과 ■

(단위 : %)



문2-2

(효과)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크다.

계층별 상세분석

- ◆ '효과'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94.4%), 자영업(94.6%), 블루칼라(94.7%), '효과'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대학원이상(10.0%) 등으로 나타남

■ 표154.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효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효과	효과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9	93.9	0.0	0.2
성별	남성	[1,014]	5.0	94.7	0.0	0.3
	여성	[986]	6.8	93.1	0.1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5.6	94.4	0.0	0.0
	20 대	[342]	6.1	93.6	0.3	0.0
	30 대	[386]	6.0	93.8	0.0	0.3
	40 대	[439]	6.8	92.7	0.0	0.5
	50 대	[417]	3.1	96.9	0.0	0.0
	60 대	[255]	8.6	91.4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8.8	91.2	0.0	0.0
	고졸이하	[848]	5.4	94.6	0.0	0.0
	대졸이하	[1,012]	5.8	93.8	0.1	0.3
	대학원이상	[60]	10.0	90.0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5.1	94.6	0.0	0.3
	블루칼라	[399]	4.8	94.7	0.0	0.5
	화이트칼라	[496]	6.0	93.8	0.2	0.0
	전업주부	[343]	6.1	93.9	0.0	0.0
	학생	[342]	6.7	93.3	0.0	0.0
	무직/기타	[70]	10.0	90.0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6.7	93.1	0.1	0.1
	보통	[781]	5.4	94.4	0.0	0.3
	무관심	[303]	5.0	95.0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효과'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98.5%), 강원/제주(성장)(98.8%), '효과'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유입(8.8%) 등으로 나타남

표155.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효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효과	효과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9	93.9	0.0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5.8	93.9	0.1	0.2
	충청권(거주)	[164]	4.9	95.1	0.0	0.0
	전라권(거주)	[155]	5.8	94.2	0.0	0.0
	경상권(거주)	[414]	7.2	92.5	0.0	0.2
	강원/제주(거주)	[66]	1.5	98.5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5.7	94.1	0.1	0.1
	충청권(성장)	[247]	4.0	95.5	0.0	0.4
	전라권(성장)	[273]	7.0	93.0	0.0	0.0
	경상권(성장)	[512]	7.4	92.4	0.0	0.2
	강원/제주(성장)	[85]	1.2	98.8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5.8	93.9	0.1	0.1
	수도권 유입	[345]	5.8	93.9	0.0	0.3
	지방토박이	[772]	6.2	93.7	0.0	0.1
	지방유입	[27]	0.0	100.0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3.2	95.8	0.0	1.1
	전라권유입	[114]	8.8	91.2	0.0	0.0
	경상권유입	[113]	6.2	93.8	0.0	0.0
	강원/제주유입	[23]	0.0	10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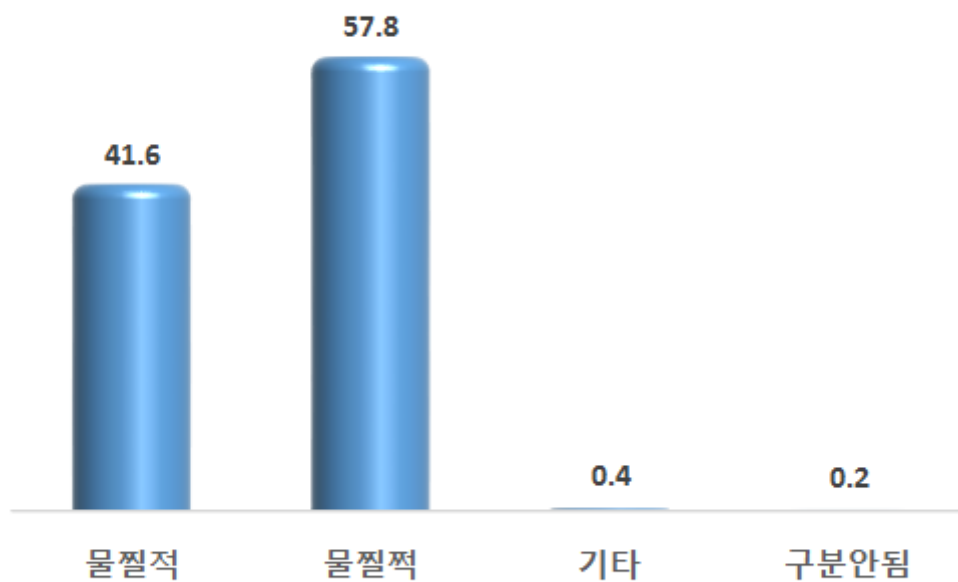
2.5.7 물질적

전체 분석

- ◆ (물질적)물질적에 대한 조사 결과, '물질적' 응답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물질적' 응답이 41.6%로 조사됨

■ 그림75. 경음화 : 물질적 ■

(단위 : %)



문46

(물질적)물질적

계층별 상세분석

- ◆ '물절쩍'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30대(64.8%), 보통(60.4%), '물절쩍'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51.3%), 중졸이하(51.2%) 등으로 나타남

표156.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물질적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물절적	물절쩍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41.6	57.8	0.4	0.2
성별	남성	[1,014]	41.1	58.0	0.6	0.3
	여성	[986]	42.0	57.7	0.1	0.2
연령별	만 15-19 세	[161]	41.0	59.0	0.0	0.0
	20 대	[342]	38.3	61.7	0.0	0.0
	30 대	[386]	35.0	64.8	0.3	0.0
	40 대	[439]	39.6	58.5	0.9	0.9
	50 대	[417]	51.3	48.0	0.5	0.2
	60 대	[255]	43.5	56.5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51.2	48.8	0.0	0.0
	고졸이하	[848]	41.4	57.5	0.7	0.4
	대졸이하	[1,012]	40.8	58.9	0.1	0.2
	대학원이상	[60]	43.3	56.7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45.1	54.0	0.9	0.0
	블루칼라	[399]	40.4	58.9	0.5	0.3
	화이트칼라	[496]	40.5	58.7	0.2	0.6
	전업주부	[343]	42.0	57.4	0.3	0.3
	학생	[342]	40.4	59.6	0.0	0.0
	무직/기타	[70]	41.4	58.6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42.6	57.0	0.1	0.3
	보통	[781]	38.7	60.4	0.6	0.3
	무관심	[303]	45.9	53.8	0.3	0.0

계층별 상세분석

- ◆ '물찹찹'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75.0%), 강원/제주(거주)(69.7%), 충청권(성장)(70.9%), 강원/제주(성장)(71.8%), '물찹찹'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57.5%), 경상권(성장)(56.2%), 경상권유입(49.6%) 등으로 나타남

표157.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물질적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물찹찹	물찹찹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41.6	57.8	0.4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39.8	59.7	0.2	0.2
	충청권(거주)	[164]	25.0	75.0	0.0	0.0
	전라권(거주)	[155]	36.1	63.2	0.0	0.6
	경상권(거주)	[414]	57.5	41.8	0.5	0.2
	강원/제주(거주)	[66]	27.3	69.7	3.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38.2	61.0	0.5	0.3
	충청권(성장)	[247]	29.1	70.9	0.0	0.0
	전라권(성장)	[273]	40.7	59.0	0.0	0.4
	경상권(성장)	[512]	56.2	43.2	0.4	0.2
	강원/제주(성장)	[85]	27.1	71.8	1.2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38.2	61.1	0.4	0.4
	수도권 유입	[345]	43.8	56.2	0.0	0.0
	지방토박이	[772]	44.4	54.9	0.4	0.3
	지방유입	[27]	37.0	59.3	3.7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37.9	62.1	0.0	0.0
	전라권유입	[114]	46.5	53.5	0.0	0.0
	경상권유입	[113]	49.6	50.4	0.0	0.0
	강원/제주유입	[23]	26.1	73.9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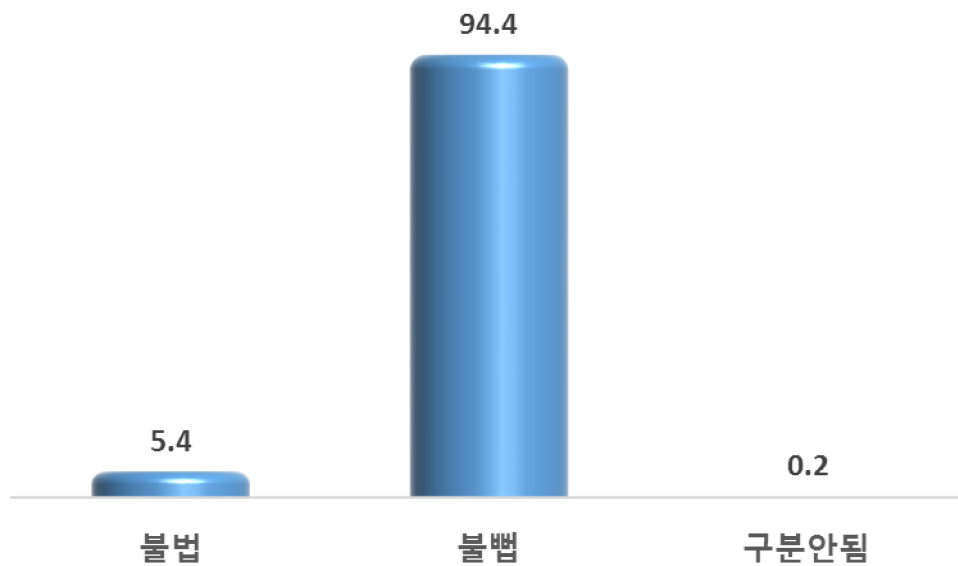
2.5.8 불법 체류

전체 분석

- ◆ (불법 체류)불법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 응답이 94.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불법' 응답은 5.4%에 불과했음

■ 그림76. 경음화 : 불법 체류 ■

(단위 : %)



문57

(불법 체류)불법 체류

계층별 상세분석

- ◆ '불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97.4%), 학생(96.2%), '불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14.1%) 등으로 나타남.

■ 표158.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불법 체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불법	불법	구분안됨
[전 체]		[2,000]	5.4	94.4	0.2
성별	남성	[1,014]	7.0	92.9	0.1
	여성	[986]	3.9	95.9	0.2
연령별	만 15-19 세	[161]	5.0	95.0	0.0
	20 대	[342]	2.6	97.4	0.0
	30 대	[386]	2.1	97.7	0.3
	40 대	[439]	5.9	93.8	0.2
	50 대	[417]	5.3	94.5	0.2
	60 대	[255]	14.1	85.9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10.0	90.0	0.0
	고졸이하	[848]	6.1	93.8	0.1
	대졸이하	[1,012]	4.5	95.3	0.2
	대학원이상	[60]	5.0	95.0	0.0
직업별	자영업	[350]	7.1	92.3	0.6
	블루칼라	[399]	6.3	93.7	0.0
	화이트칼라	[496]	4.8	95.2	0.0
	전업주부	[343]	3.5	96.2	0.3
	학생	[342]	3.8	96.2	0.0
	무직/기타	[70]	14.3	85.7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5.3	94.4	0.2
	보통	[781]	5.5	94.5	0.0
	무관심	[303]	5.6	94.1	0.3

계층별 상세분석

- ◆ '불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97.4%), '불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 유입(8.4%) 등으로 나타남.

표159.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불법 체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불법	불법	구분안됨
[전 체]		[2,000]	5.4	94.4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5.2	94.5	0.2
	충청권(거주)	[164]	5.5	94.5	0.0
	전라권(거주)	[155]	2.6	97.4	0.0
	경상권(거주)	[414]	7.2	92.8	0.0
	강원/제주(거주)	[66]	4.5	95.5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1	95.8	0.1
	충청권(성장)	[247]	6.5	93.1	0.4
	전라권(성장)	[273]	4.8	94.9	0.4
	경상권(성장)	[512]	7.8	92.2	0.0
	강원/제주(성장)	[85]	4.7	95.3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0	95.9	0.1
	수도권 유입	[345]	8.4	91.0	0.6
	지방토박이	[772]	5.7	94.3	0.0
	지방유입	[27]	7.4	92.6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8.4	90.5	1.1
	전라권유입	[114]	6.1	93.0	0.9
	경상권유입	[113]	9.7	90.3	0.0
	강원/제주유입	[23]	13.0	87.0	0.0

2.5.9 길짐승

전체 분석

- ◆ (길짐승)길짐승에 대한 조사 결과, '길짐승' 응답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길짐승' 응답이 48.2%로 나타남

■ 그림77. 경음화 : 길짐승 ■

(단위 : %)



문42

(길짐승)길짐승

계층별 상세분석

- ◆ '길짐승'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60.2%), 20대(66.7%), 대학원이상(60.0%), 학생(66.1%), '길짐승'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55.6%), 60대(60.8%), 중졸이하(55.0%), 전업주부(57.1%) 등으로 나타남

표160.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길짐승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길짐승	길짐승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1.0	48.2	0.6	0.2
성별	남성	[1,014]	54.8	44.3	0.6	0.3
	여성	[986]	47.0	52.1	0.7	0.2
연령별	만 15-19 세	[161]	60.2	39.1	0.6	0.0
	20 대	[342]	66.7	33.0	0.0	0.3
	30 대	[386]	57.0	41.5	1.3	0.3
	40 대	[439]	44.4	54.7	0.7	0.2
	50 대	[417]	43.6	55.6	0.2	0.5
	60 대	[255]	38.0	60.8	1.2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43.8	55.0	1.2	0.0
	고졸이하	[848]	44.8	54.5	0.5	0.2
	대졸이하	[1,012]	56.1	42.9	0.7	0.3
	대학원이상	[60]	60.0	38.3	1.7	0.0
직업별	자영업	[350]	44.9	54.0	0.6	0.6
	블루칼라	[399]	46.4	52.9	0.5	0.3
	화이트칼라	[496]	54.2	44.6	1.0	0.2
	전업주부	[343]	42.3	57.1	0.6	0.0
	학생	[342]	66.1	33.3	0.3	0.3
	무직/기타	[70]	52.9	45.7	1.4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52.9	45.9	0.9	0.3
	보통	[781]	51.6	47.6	0.5	0.3
	무관심	[303]	43.2	56.4	0.3	0.0

계층별 상세분석

- ◆ '길짐승'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56.1%), 수도권(성장)(59.2%), 수도권 토박이(59.6%), 충청권유입(57.9%), '길짐승'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63.8%), 경상권(성장)(64.3%), 경상권유입(65.5%) 등으로 나타남

■ 표161.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길짐승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길짐승	길짐승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1.0	48.2	0.6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55.5	43.4	0.8	0.2
	충청권(거주)	[164]	50.6	49.4	0.0	0.0
	전라권(거주)	[155]	56.1	43.2	0.0	0.6
	경상권(거주)	[414]	35.5	63.8	0.5	0.2
	강원/제주(거주)	[66]	53.0	45.5	1.5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59.2	39.9	0.8	0.1
	충청권(성장)	[247]	53.8	44.9	0.8	0.4
	전라권(성장)	[273]	50.9	48.0	0.4	0.7
	경상권(성장)	[512]	35.2	64.3	0.4	0.2
	강원/제주(성장)	[85]	51.8	47.1	1.2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59.6	39.5	0.8	0.1
	수도권 유입	[345]	45.5	53.0	0.9	0.6
	지방토박이	[772]	43.9	55.4	0.4	0.3
	지방유입	[27]	48.1	51.9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57.9	38.9	2.1	1.1
	전라권유입	[114]	45.6	52.6	0.9	0.9
	경상권유입	[113]	34.5	65.5	0.0	0.0
	강원/제주유입	[23]	47.8	52.2	0.0	0.0

2.5.10 날짐승

전체 분석

- ◆ (날짐승)날짐승에 대한 조사 결과, '날짐승' 응답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날짐승' 응답은 37.8%로 조사됨

■ 그림78. 경음화 : 날짐승 ■

(단위 : %)



문59

(날짐승)날짐승

계층별 상세분석

- ◆ '날짐승'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72.0%), 20대(72.8%), 중졸이하(71.2%), 학생(73.4%), '날짐승'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성(40.5%), 40대(44.0%), 50대(45.3%), 전업주부(44.3%) 등으로 나타남

■ 표162.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날짐승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날짐승	날짐승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62.0	37.8	0.2	0.0
성별	남성	[1,014]	64.7	35.1	0.2	0.0
	여성	[986]	59.3	40.5	0.1	0.1
연령별	만 15-19 세	[161]	72.0	28.0	0.0	0.0
	20 대	[342]	72.8	27.2	0.0	0.0
	30 대	[386]	66.6	33.2	0.0	0.3
	40 대	[439]	55.6	44.0	0.5	0.0
	50 대	[417]	54.4	45.3	0.2	0.0
	60 대	[255]	58.0	42.0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71.2	28.8	0.0	0.0
	고졸이하	[848]	60.8	39.0	0.1	0.0
	대졸이하	[1,012]	62.3	37.5	0.2	0.1
	대학원이상	[60]	63.3	36.7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57.7	42.0	0.3	0.0
	블루칼라	[399]	58.6	41.4	0.0	0.0
	화이트칼라	[496]	64.1	35.3	0.4	0.2
	전업주부	[343]	55.7	44.3	0.0	0.0
	학생	[342]	73.4	26.6	0.0	0.0
	무직/기타	[70]	64.3	35.7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61.8	38.0	0.1	0.1
	보통	[781]	63.1	36.7	0.1	0.0
	무관심	[303]	60.1	39.6	0.3	0.0

계층별 상세분석

- ◆ '날짐승'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67.1%), 강원/제주(거주)(78.8%), 수도권(성장)(68.7%), 강원/제주(성장)(69.4%), 수도권 토박이(69.0%), '날짐승'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51.0%), 경상권(성장)(52.1%), 경상권유입(56.6%) 등으로 나타남

표163. 응답자 특성 : 경음화 : 날짐승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날짐승	날짐승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62.0	37.8	0.2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64.5	35.2	0.2	0.0
	충청권(거주)	[164]	65.9	34.1	0.0	0.0
	전라권(거주)	[155]	67.1	32.9	0.0	0.0
	경상권(거주)	[414]	48.8	51.0	0.0	0.2
	강원/제주(거주)	[66]	78.8	21.2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68.7	31.1	0.1	0.0
	충청권(성장)	[247]	64.8	34.8	0.4	0.0
	전라권(성장)	[273]	63.0	37.0	0.0	0.0
	경상권(성장)	[512]	47.5	52.1	0.2	0.2
	강원/제주(성장)	[85]	69.4	30.6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69.0	30.8	0.1	0.0
	수도권 유입	[345]	53.3	46.1	0.6	0.0
	지방토박이	[772]	58.3	41.6	0.0	0.1
	지방유입	[27]	59.3	40.7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62.1	36.8	1.1	0.0
	전라권유입	[114]	57.0	43.0	0.0	0.0
	경상권유입	[113]	42.5	56.6	0.9	0.0
	강원/제주유입	[23]	52.2	47.8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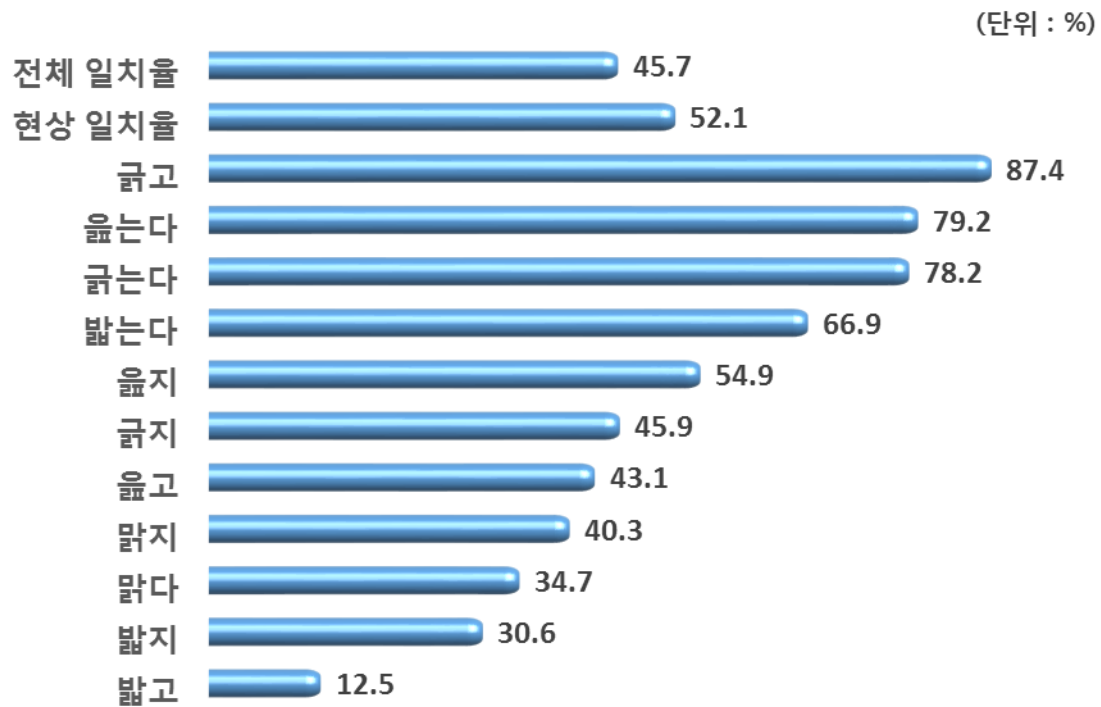
2.6 자음군 단순화

2.6.1 자음군 단순화_표준발음 일치율

전체 분석

- ◆ 자음군 단순화 현상 일치율(%)은 전체 일치율 대비 6.4%p 높은 수준으로 조사된 한편, 개별 항목 별로 '굵고' 항목의 표준발음 일치율이 8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옳는다' 79.2%, '굵는다' 78.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얇고' 항목에 대한 표준발음 일치율은 12.5%로 가장 낮았음

■ 그림79. 표준발음 일치율 ■



문

해당없음

계층별 상세분석

- ◆ '굵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96.3%), 20대(93.9%), 학생(95.9%), '옳는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30대(85.2%), '굵는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40대(84.0%), 화이트칼라(83.3%) 등으로 나타남

표164.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일치율	현상 일치율	굵고	굵지	굵는다	옳고	옳지	옳는다	뵈고	뵈지	뵈는다	맑고	맑다
[전 체]		[2,000]	45.7	52.1	87.4	45.9	78.2	43.1	54.9	79.2	12.5	30.6	66.9	40.3	34.7
성별	남성	[1,014]	45.1	50.5	87.3	41.2	75.5	41.6	53.6	79.1	13.0	29.1	66.7	36.8	32.4
	여성	[986]	46.4	53.8	87.6	50.8	80.9	44.7	56.3	79.3	11.9	32.2	67.0	43.9	37.1
연령별	만 15-19 세	[161]	44.0	41.0	96.3	17.4	65.8	38.0	42.9	78.0	8.7	16.1	45.3	24.2	19.3
	20 대	[342]	46.8	42.6	93.9	25.7	69.6	36.1	46.8	71.5	7.0	17.0	55.7	26.0	19.9
	30 대	[386]	46.7	51.6	90.2	40.8	82.4	44.3	57.3	85.2	9.4	23.1	71.3	35.6	28.8
	40 대	[439]	46.0	56.0	86.3	51.5	84.0	48.2	58.3	84.1	13.5	35.8	75.3	43.1	35.7
	50 대	[417]	45.0	57.3	83.7	59.7	80.0	45.9	58.3	79.1	16.5	39.4	70.7	51.3	45.2
	60 대	[255]	44.6	57.7	77.3	66.7	78.0	40.6	58.3	73.0	18.4	45.9	67.7	54.1	54.9
학력별	중졸이하	[80]	44.1	52.6	78.8	52.5	70.0	40.3	48.1	73.4	20.0	42.5	60.8	45.0	46.2
	고졸이하	[848]	44.7	53.2	84.8	50.7	79.1	42.8	55.4	79.5	14.6	33.0	68.6	40.9	36.1
	대졸이하	[1,012]	46.6	51.4	90.2	42.0	78.5	43.4	54.5	79.8	10.2	27.9	66.0	39.3	33.4
	대학원이상	[60]	47.9	49.5	90.0	35.0	70.0	46.7	63.3	73.3	10.0	26.7	65.0	43.3	21.7
직업별	자영업	[350]	44.6	54.7	81.1	52.9	78.8	45.1	57.5	78.9	15.5	36.7	69.5	45.0	41.3
	블루칼라	[399]	44.5	52.9	85.9	51.0	78.4	40.8	54.6	80.4	12.8	31.6	71.6	39.3	35.9
	화이트칼라	[496]	46.9	54.1	89.5	45.8	83.3	45.2	58.3	83.2	11.5	30.1	71.3	42.2	34.4
	전업주부	[343]	46.7	56.9	84.8	58.6	81.6	49.0	59.4	79.8	14.6	38.8	70.0	48.0	41.5
	학생	[342]	45.9	41.5	95.9	20.5	66.1	36.4	44.3	74.0	8.8	17.3	48.2	26.3	19.6
	무직/기타	[70]	45.2	49.6	84.3	45.7	80.0	35.7	49.3	68.6	10.0	22.9	71.0	40.0	38.6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46.4	53.0	88.2	46.3	80.0	43.2	54.1	80.7	12.0	30.6	68.2	43.1	36.9
	보통	[781]	45.6	52.7	87.2	47.8	79.1	42.8	56.8	80.2	13.1	31.6	69.1	39.2	33.8
	무관심	[303]	43.9	47.9	85.8	39.9	70.3	43.7	52.5	72.2	12.3	28.1	57.0	34.7	30.8

계층별 상세분석

- ◆ '굵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93.5%), 경상권(성장)(92.6%), '옳는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88.3%), 충청권(성장)(88.2%), 전라권(성장)(86.4%), 충청권유입(89.5%), 전라권유입(90.4%), '굵는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96.8%), 충청권(성장)(91.1%), 전라권(성장)(97.8%), 충청권유입(96.8%), 전라권유입(99.1%) 등으로 나타남

■ 표165.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일치율	현상 일치율	굵고	굵지	굵는다	옳고	옳지	옳는다	뵈고	뵈지	뵈는다	막지	막다
[전 체]		[2,000]	45.7	52.1	87.4	45.9	78.2	43.1	54.9	79.2	12.5	30.6	66.9	40.3	34.7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6.1	53.5	87.8	48.3	87.3	41.6	53.8	83.2	11.5	30.1	73.9	38.6	33.1
	충청권(거주)	[164]	46.5	56.8	86.0	63.4	88.3	37.4	47.6	88.3	13.4	35.6	78.7	46.6	39.9
	전라권(거주)	[155]	47.9	72.3	68.4	80.0	96.8	61.4	77.4	83.9	35.5	70.3	83.9	74.8	62.6
	경상권(거주)	[414]	43.8	39.9	93.5	22.2	43.2	42.9	53.3	64.8	7.5	16.5	37.0	31.3	27.4
	강원/제주(거주)	[66]	44.8	44.4	92.4	27.3	62.1	43.9	50.0	63.6	4.5	22.7	56.1	31.8	33.3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6.1	51.2	90.4	42.2	88.0	40.0	51.9	82.7	9.5	25.0	74.1	32.7	26.8
	충청권(성장)	[247]	46.1	56.5	86.6	62.3	91.1	35.9	47.8	88.2	10.9	32.1	80.5	45.9	40.5
	전라권(성장)	[273]	48.1	73.1	68.1	83.5	97.8	60.6	74.0	86.4	34.8	72.5	85.3	74.7	66.1
	경상권(성장)	[512]	43.9	41.6	92.6	26.4	46.7	42.6	53.8	66.7	7.4	18.0	39.6	33.7	30.0
	강원/제주(성장)	[85]	44.5	45.8	90.6	34.1	65.9	43.5	51.8	69.4	5.9	24.7	56.5	31.8	29.4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6.1	51.2	90.4	42.5	88.2	40.1	52.2	82.8	9.5	24.8	74.1	32.7	26.5
	수도권 유입	[345]	46.1	59.2	81.2	62.9	85.2	45.2	57.8	84.1	16.6	43.2	73.3	53.0	49.3
	지방토박이	[772]	45.2	50.0	86.9	42.6	63.8	45.8	57.0	73.1	14.0	31.3	55.7	43.3	37.4
	지방유입	[27]	45.7	49.7	88.9	33.3	81.5	37.0	42.3	77.8	11.1	33.3	73.1	33.3	33.3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5.1	55.7	87.4	60.0	96.8	32.6	47.4	89.5	7.4	26.3	83.0	42.1	41.1
	전라권유입	[114]	48.7	74.4	68.4	87.7	99.1	58.0	71.1	90.4	33.3	75.4	86.8	76.3	71.7
	경상권유입	[113]	44.4	48.4	87.6	41.6	61.9	44.2	55.4	72.6	8.9	26.5	52.2	42.5	38.4
	강원/제주유입	[23]	44.8	52.2	87.0	56.5	82.6	39.1	47.8	87.0	8.7	34.8	69.6	34.8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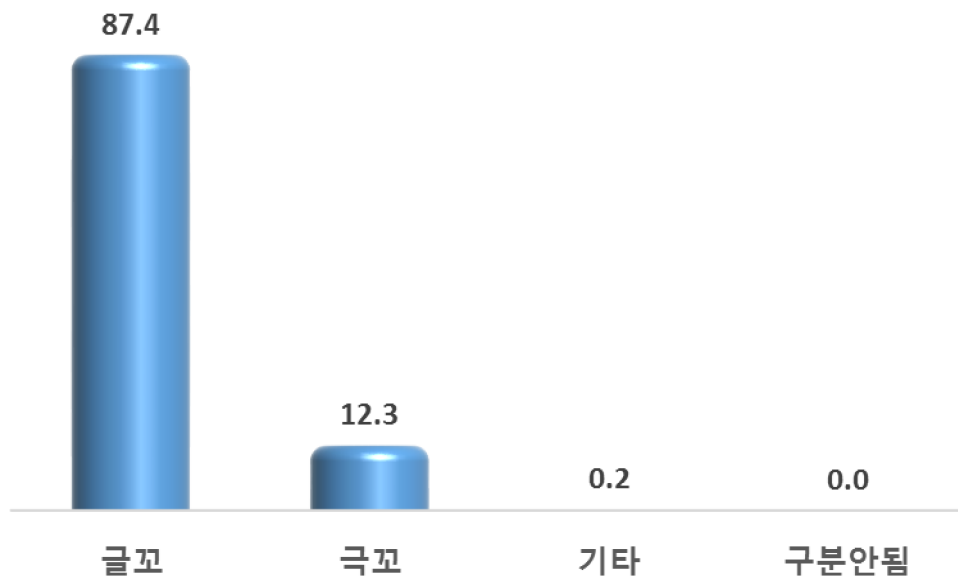
2.6.2 굵고

전체 분석

- ◆ (굵고)굵고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 '글꼬' 응답이 8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극꼬' 응답은 12.3%로 조사됨

■ 그림80. 자음군 단순화 : 굵고 ■

(단위 : %)



문22-1

(굵고)모기 물린 데는 굵고 싶어도 굵지 마라.

계층별 상세분석

- ◆ '글꼬'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96.3%), 20대(93.9%), 학생(95.9%), '극꼬'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22.7%), 중졸이하(21.2%) 등으로 나타남

■ 표166.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굵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글꼬	극꼬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7.4	12.3	0.2	0.0
성별	남성	[1,014]	87.2	12.6	0.1	0.1
	여성	[986]	87.6	12.0	0.4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96.3	3.7	0.0	0.0
	20 대	[342]	93.9	5.6	0.6	0.0
	30 대	[386]	90.2	9.6	0.3	0.0
	40 대	[439]	86.1	13.7	0.0	0.2
	50 대	[417]	83.7	15.8	0.5	0.0
	60 대	[255]	77.3	22.7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78.8	21.2	0.0	0.0
	고졸이하	[848]	84.7	14.9	0.4	0.1
	대졸이하	[1,012]	90.2	9.6	0.2	0.0
	대학원이상	[60]	90.0	10.0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81.1	18.9	0.0	0.0
	블루칼라	[399]	85.7	13.5	0.5	0.3
	화이트칼라	[496]	89.5	10.3	0.2	0.0
	전업주부	[343]	84.8	14.9	0.3	0.0
	학생	[342]	95.9	3.8	0.3	0.0
	무직/기타	[70]	84.3	15.7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88.2	11.6	0.2	0.0
	보통	[781]	87.1	12.7	0.1	0.1
	무관심	[303]	85.8	13.5	0.7	0.0

계층별 상세분석

- ◆ '글꼬'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93.5%), 경상권(성장)(92.6%), '극꼬'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31.6%), 전라권(성장)(31.9%), 전라권유입(31.6%) 등으로 나타남

표167.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글꼬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글꼬	극꼬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7.4	12.3	0.2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87.7	11.9	0.3	0.1
	충청권(거주)	[164]	86.0	14.0	0.0	0.0
	전라권(거주)	[155]	68.4	31.6	0.0	0.0
	경상권(거주)	[414]	93.5	6.3	0.2	0.0
	강원/제주(거주)	[66]	92.4	7.6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90.3	9.3	0.3	0.1
	충청권(성장)	[247]	86.6	13.4	0.0	0.0
	전라권(성장)	[273]	68.1	31.9	0.0	0.0
	경상권(성장)	[512]	92.6	7.0	0.4	0.0
	강원/제주(성장)	[85]	90.6	9.4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90.3	9.2	0.4	0.1
	수도권 유입	[345]	81.2	18.6	0.3	0.0
	지방토박이	[772]	86.9	13.0	0.1	0.0
	지방유입	[27]	88.9	11.1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87.4	12.6	0.0	0.0
	전라권유입	[114]	68.4	31.6	0.0	0.0
	경상권유입	[113]	87.6	11.5	0.9	0.0
	강원/제주유입	[23]	87.0	13.0	0.0	0.0

2.6.3 굵지

전체 분석

- ◆ (굵지)굵지에 대한 조사 결과, '글씨' 응답이 53.8%로, '극씨'(45.9%) 대비 높게 나타남

■ 그림81. 자음군 단순화 : 굵지 ■

(단위 : %)



문22-2

(굵지)모기 물린 데는 굵고 싶어도 굵지 마라.

계층별 상세분석

- ◆ '글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82.6%), 20대(73.7%), 대학원이상(65.0%), 학생(78.9%), '극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59.7%), 60대(66.7%), 전업주부(58.6%) 등으로 나타남

표168.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글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글씨	극씨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3.8	45.9	0.2	0.0
성별	남성	[1,014]	58.7	41.2	0.1	0.0
	여성	[986]	48.9	50.7	0.3	0.1
연령별	만 15-19 세	[161]	82.6	17.4	0.0	0.0
	20 대	[342]	73.7	25.7	0.6	0.0
	30 대	[386]	59.1	40.7	0.0	0.3
	40 대	[439]	48.5	51.5	0.0	0.0
	50 대	[417]	40.0	59.7	0.2	0.0
	60 대	[255]	32.9	66.7	0.4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47.5	52.5	0.0	0.0
	고졸이하	[848]	49.1	50.7	0.2	0.0
	대졸이하	[1,012]	57.7	42.0	0.2	0.1
	대학원이상	[60]	65.0	35.0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47.1	52.9	0.0	0.0
	블루칼라	[399]	48.9	50.9	0.0	0.3
	화이트칼라	[496]	54.2	45.8	0.0	0.0
	전업주부	[343]	40.8	58.6	0.6	0.0
	학생	[342]	78.9	20.5	0.6	0.0
	무직/기타	[70]	54.3	45.7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53.5	46.3	0.1	0.1
	보통	[781]	52.1	47.8	0.1	0.0
	무관심	[303]	59.4	39.9	0.7	0.0

계층별 상세분석

- ◆ '글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77.8%), 강원/제주(거주)(72.7%), 경상권(성장)(73.4%), '극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63.4%), 전라권(거주)(80.0%), 전라권(성장)(83.5%), 전라권유입(87.7%) 등으로 나타남

■ 표169.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글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글씨	극씨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3.8	45.9	0.2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51.3	48.3	0.3	0.1
	충청권(거주)	[164]	36.6	63.4	0.0	0.0
	전라권(거주)	[155]	20.0	80.0	0.0	0.0
	경상권(거주)	[414]	77.8	22.2	0.0	0.0
	강원/제주(거주)	[66]	72.7	27.3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57.4	42.1	0.3	0.1
	충청권(성장)	[247]	37.7	62.3	0.0	0.0
	전라권(성장)	[273]	16.5	83.5	0.0	0.0
	경상권(성장)	[512]	73.4	26.4	0.2	0.0
	강원/제주(성장)	[85]	65.9	34.1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57.1	42.4	0.4	0.1
	수도권 유입	[345]	36.8	62.9	0.3	0.0
	지방토박이	[772]	57.4	42.6	0.0	0.0
	지방유입	[27]	66.7	33.3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0.0	60.0	0.0	0.0
	전라권유입	[114]	12.3	87.7	0.0	0.0
	경상권유입	[113]	57.5	41.6	0.9	0.0
	강원/제주유입	[23]	43.5	56.5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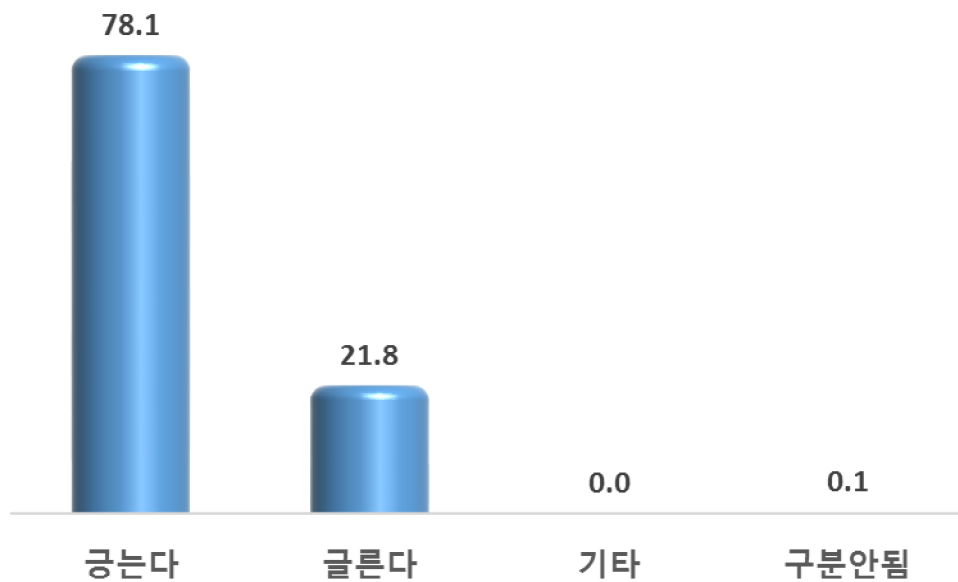
2.6.4 굵는다

전체 분석

- ◆ (굵는다)굵는다에 대한 조사 결과, '굵는다' 응답이 7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던 반면, '글른다' 응답은 21.8%로 조사됨

■ 그림82. 자음군 단순화 : 굵는다 ■

(단위 : %)



문31

(굵는다)굵는다

계층별 상세분석

- ◆ '궁는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성(80.9%), 40대(83.8%), 화이트칼라(83.3%), '글른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34.2%), 20대(30.4%), 중졸이하(30.0%), 대학원이상(30.0%), 학생(33.9%) 등으로 나타남

■ 표170.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굵는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궁는다	글른다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78.1	21.8	0.0	0.1
성별	남성	[1,014]	75.3	24.5	0.0	0.2
	여성	[986]	80.9	19.0	0.1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65.8	34.2	0.0	0.0
	20 대	[342]	69.6	30.4	0.0	0.0
	30 대	[386]	82.4	17.6	0.0	0.0
	40 대	[439]	83.8	15.9	0.0	0.2
	50 대	[417]	79.9	19.7	0.2	0.2
	60 대	[255]	78.0	22.0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70.0	30.0	0.0	0.0
	고졸이하	[848]	79.0	20.8	0.1	0.1
	대졸이하	[1,012]	78.5	21.4	0.0	0.1
	대학원이상	[60]	70.0	30.0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78.6	21.1	0.0	0.3
	블루칼라	[399]	78.2	21.6	0.0	0.3
	화이트칼라	[496]	83.3	16.7	0.0	0.0
	전업주부	[343]	81.6	18.1	0.3	0.0
	학생	[342]	66.1	33.9	0.0	0.0
	무직/기타	[70]	80.0	20.0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80.0	20.0	0.0	0.0
	보통	[781]	78.9	20.9	0.0	0.3
	무관심	[303]	70.3	29.4	0.3	0.0

계층별 상세분석

- ◆ '금는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96.8%), 충청권(성장)(90.7%), 전라권(성장)(97.8%), 충청권유입(96.8%), 전라권유입(99.1%), '글른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56.5%), 경상권(성장)(53.1%), 경상권유입(38.1%) 등으로 나타남

표171.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금는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금는다	글른다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78.1	21.8	0.0	0.1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87.3	12.7	0.0	0.1
	충청권(거주)	[164]	87.8	11.6	0.0	0.6
	전라권(거주)	[155]	96.8	3.2	0.0	0.0
	경상권(거주)	[414]	43.2	56.5	0.2	0.0
	강원/제주(거주)	[66]	62.1	37.9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87.9	12.0	0.0	0.1
	충청권(성장)	[247]	90.7	8.9	0.0	0.4
	전라권(성장)	[273]	97.8	2.2	0.0	0.0
	경상권(성장)	[512]	46.7	53.1	0.2	0.0
	강원/제주(성장)	[85]	65.9	34.1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88.1	11.8	0.0	0.1
	수도권 유입	[345]	85.2	14.8	0.0	0.0
	지방토박이	[772]	63.7	36.0	0.1	0.1
	지방유입	[27]	81.5	18.5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96.8	3.2	0.0	0.0
	전라권유입	[114]	99.1	0.9	0.0	0.0
	경상권유입	[113]	61.9	38.1	0.0	0.0
	강원/제주유입	[23]	82.6	17.4	0.0	0.0

2.6.5 읍고

전체 분석

- ◆ (읍고)읍고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 '읍꼬' 응답이 52.0%로, '읍꼬'(42.8%) 대비 높게 나타남

■ 그림83. 자음군 단순화 : 읍고 ■

(단위 : %)



문25-2

(읍고)양 무릎에 손을 얹고 시조를 읍고 있다.

계층별 상세분석

- ◆ '을꼬'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57.6%), 학생(58.2%), '을꼬'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40대(48.1%), 전업주부(48.7%) 등으로 나타남

■ 표172.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을꼬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을꼬	읍꼬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2.0	42.8	4.6	0.6
성별	남성	[1,014]	53.8	41.2	4.0	0.9
	여성	[986]	50.0	44.5	5.2	0.3
연령별	만 15-19 세	[161]	56.5	37.3	4.3	1.9
	20 대	[342]	57.6	36.0	6.1	0.3
	30 대	[386]	50.8	44.0	4.7	0.5
	40 대	[439]	46.7	48.1	5.0	0.2
	50 대	[417]	49.9	45.8	4.1	0.2
	60 대	[255]	55.7	40.0	2.7	1.6
학력별	중졸이하	[80]	53.8	38.8	3.8	3.8
	고졸이하	[848]	52.5	42.5	4.2	0.8
	대졸이하	[1,012]	51.5	43.3	5.0	0.2
	대학원이상	[60]	50.0	46.7	3.3	0.0
직업별	자영업	[350]	51.1	44.9	3.4	0.6
	블루칼라	[399]	54.6	40.4	4.0	1.0
	화이트칼라	[496]	49.6	45.2	5.2	0.0
	전업주부	[343]	45.8	48.7	5.0	0.6
	학생	[342]	58.2	36.0	4.7	1.2
	무직/기타	[70]	57.1	35.7	7.1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51.7	43.0	4.8	0.4
	보통	[781]	52.1	42.5	4.7	0.6
	무관심	[303]	52.1	43.2	3.6	1.0

계층별 상세분석

- ◆ '을꼬'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58.5%), 충청권(성장)(59.5%), 충청권 유입(63.2%), '읍꼬'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60.6%), 전라권(성장)(59.7%), 전라권유입(57.0%) 등으로 나타남

■ 표173.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읍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을꼬	읍꼬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2.0	42.8	4.6	0.6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52.3	41.4	5.9	0.4
	충청권(거주)	[164]	58.5	37.2	3.7	0.6
	전라권(거주)	[155]	34.8	60.6	3.2	1.3
	경상권(거주)	[414]	54.3	42.5	2.2	1.0
	강원/제주(거주)	[66]	54.5	43.9	1.5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53.8	39.9	6.0	0.3
	충청권(성장)	[247]	59.5	35.6	4.0	0.8
	전라권(성장)	[273]	33.3	59.7	5.5	1.5
	경상권(성장)	[512]	54.5	42.4	2.5	0.6
	강원/제주(성장)	[85]	55.3	43.5	1.2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53.7	40.0	6.0	0.4
	수도권 유입	[345]	48.7	44.9	5.8	0.6
	지방토박이	[772]	51.3	45.3	2.5	0.9
	지방유입	[27]	55.6	37.0	7.4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63.2	32.6	4.2	0.0
	전라권유입	[114]	31.6	57.0	9.6	1.8
	경상권유입	[113]	51.3	44.2	4.4	0.0
	강원/제주유입	[23]	60.9	39.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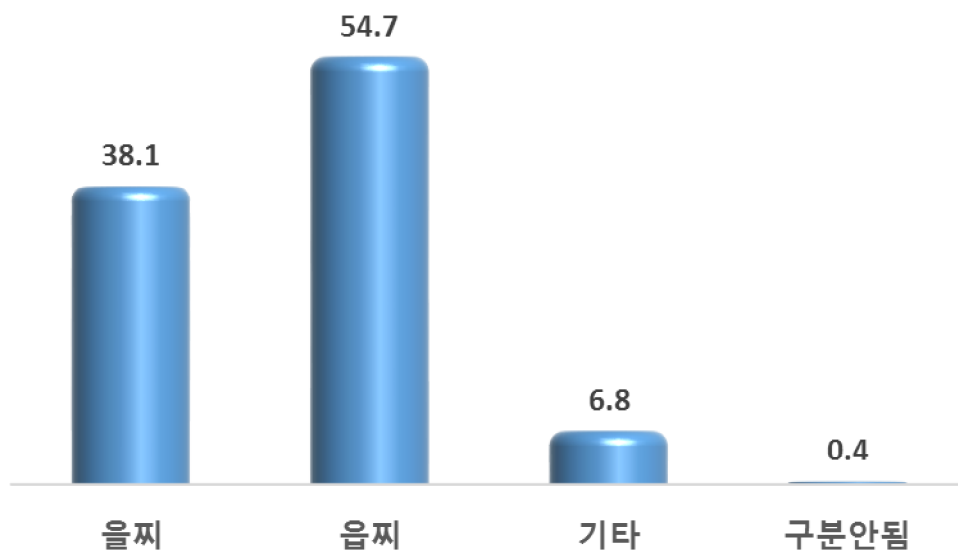
2.6.6 읍지

전체 분석

- ◆ (읍지)내 차례가 됐으니, 시 한 구절 읍지 않을 수 없군에 대한 조사 결과, '읍씨' 응답이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을씨' 응답이 38.1%로 나타남

■ 그림84. 자음군 단순화 : 읍지 ■

(단위 : %)



문6-2

(읍지)내 차례가 됐으니, 시 한 구절 읍지 않을 수 없군.

계층별 상세분석

- ◆ '읍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대학원이상(63.3%), '을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49.1%), 20대(45.9%), 학생(48.0%) 등으로 나타남

■ 표174.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읍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읍씨	을씨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38.1	54.7	6.8	0.4
성별	남성	[1,014]	39.4	53.4	6.8	0.4
	여성	[986]	36.7	56.1	6.9	0.3
연령별	만 15-19 세	[161]	49.1	42.9	8.1	0.0
	20 대	[342]	45.9	46.5	7.0	0.6
	30 대	[386]	34.7	57.0	7.8	0.5
	40 대	[439]	34.2	58.3	7.5	0.0
	50 대	[417]	36.2	58.3	5.5	0.0
	60 대	[255]	35.7	57.6	5.5	1.2
학력별	중졸이하	[80]	42.5	47.5	8.8	1.2
	고졸이하	[848]	37.9	55.3	6.6	0.2
	대졸이하	[1,012]	38.4	54.2	6.9	0.4
	대학원이상	[60]	30.0	63.3	6.7	0.0
직업별	자영업	[350]	36.9	57.1	5.4	0.6
	블루칼라	[399]	40.1	54.6	5.3	0.0
	화이트칼라	[496]	33.7	58.1	7.9	0.4
	전업주부	[343]	32.9	59.2	7.6	0.3
	학생	[342]	48.0	44.2	7.6	0.3
	무직/기타	[70]	41.4	48.6	8.6	1.4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37.6	53.8	8.2	0.4
	보통	[781]	38.0	56.7	5.1	0.1
	무관심	[303]	39.9	52.1	7.3	0.7

계층별 상세분석

- ◆ '읍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77.4%), 전라권(성장)(74.0%), 전라권 유입(71.1%), '을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46.3%), 강원/제주(거주)(47.0%), 충청권(성장)(44.5%), 강원/제주(성장)(44.7%) 등으로 나타남

표175.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읍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을씨	읍씨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38.1	54.7	6.8	0.4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37.5	53.6	8.6	0.3
	충청권(거주)	[164]	46.3	47.6	6.1	0.0
	전라권(거주)	[155]	19.4	77.4	3.2	0.0
	경상권(거주)	[414]	42.3	52.9	4.1	0.7
	강원/제주(거주)	[66]	47.0	50.0	3.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39.0	51.6	8.9	0.5
	충청권(성장)	[247]	44.5	47.8	7.7	0.0
	전라권(성장)	[273]	20.1	74.0	5.9	0.0
	경상권(성장)	[512]	42.0	53.5	3.9	0.6
	강원/제주(성장)	[85]	44.7	51.8	3.5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38.9	52.0	8.8	0.4
	수도권 유입	[345]	33.9	57.7	8.1	0.3
	지방토박이	[772]	39.0	56.9	3.9	0.3
	지방유입	[27]	40.7	40.7	14.8	3.7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2.1	47.4	10.5	0.0
	전라권유입	[114]	19.3	71.1	9.6	0.0
	경상권유입	[113]	38.9	54.9	5.3	0.9
	강원/제주유입	[23]	47.8	47.8	4.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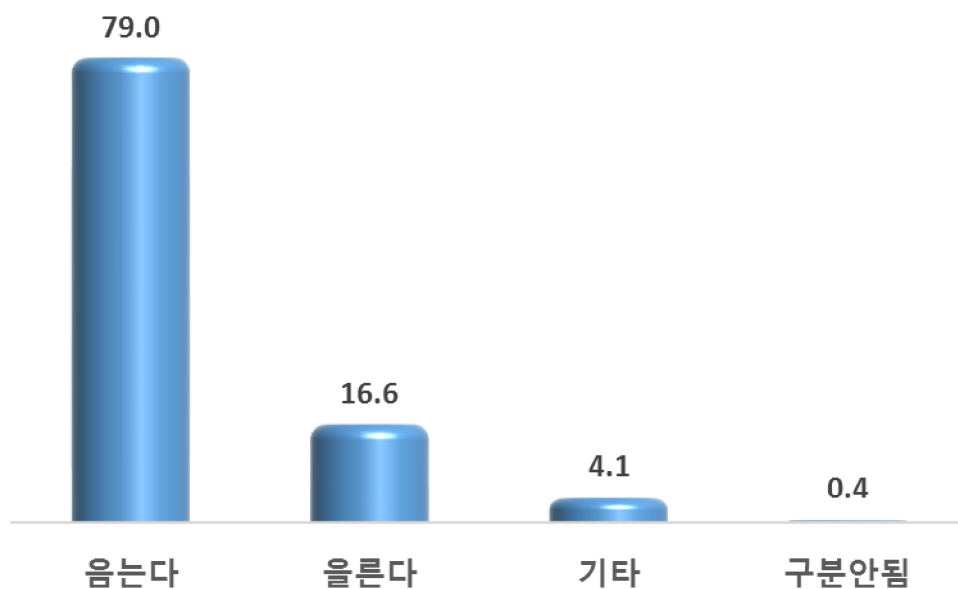
2.6.7 읊는다

전체 분석

- ◆ (읊는다)읊는다에 대한 조사 결과, '읊는다' 응답이 7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을른다' 응답이 16.6%로 나타남

■ 그림85. 자음군 단순화 : 읊는다 ■

(단위 : %)



문9

(읊는다)읊는다

계층별 상세분석

- ◆ '옳는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30대(85.2%), 40대(84.1%), '옳는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대학원이상(25.0%), 무관심(22.8%) 등으로 나타남

표176.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옳는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옳는다	옳른다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79.0	16.6	4.1	0.4
성별	남성	[1,014]	78.8	17.5	3.4	0.4
	여성	[986]	79.1	15.7	4.9	0.3
연령별	만 15-19 세	[161]	77.0	16.8	5.0	1.2
	20 대	[342]	71.1	21.1	7.3	0.6
	30 대	[386]	85.2	10.6	4.1	0.0
	40 대	[439]	84.1	12.8	3.2	0.0
	50 대	[417]	79.1	19.4	1.4	0.0
	60 대	[255]	72.2	21.6	5.1	1.2
학력별	중졸이하	[80]	72.5	17.5	8.8	1.2
	고졸이하	[848]	79.1	17.2	3.2	0.5
	대졸이하	[1,012]	79.6	15.5	4.6	0.2
	대학원이상	[60]	73.3	25.0	1.7	0.0
직업별	자영업	[350]	78.9	17.7	3.4	0.0
	블루칼라	[399]	80.2	16.5	3.0	0.3
	화이트칼라	[496]	83.1	13.1	3.6	0.2
	전업주부	[343]	79.3	16.3	3.8	0.6
	학생	[342]	73.4	19.9	5.8	0.9
	무직/기타	[70]	68.6	21.4	1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80.5	14.8	4.4	0.3
	보통	[781]	79.9	16.3	3.5	0.4
	무관심	[303]	71.9	22.8	5.0	0.3

계층별 상세분석

- ◆ '옴는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87.8%), 충청권(성장)(87.9%), 전라권(성장)(86.1%), 수도권 유입(84.1%), 충청권유입(89.5%), 전라권유입(90.4%), '옴른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31.9%), 강원/제주(거주)(30.3%), 경상권(성장)(30.3%) 등으로 나타남

■ 표177.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옴는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옴는다	옴른다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79.0	16.6	4.1	0.4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83.1	12.4	4.4	0.1
	충청권(거주)	[164]	87.8	9.8	1.8	0.6
	전라권(거주)	[155]	83.9	9.7	6.5	0.0
	경상권(거주)	[414]	64.0	31.9	2.9	1.2
	강원/제주(거주)	[66]	63.6	30.3	6.1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82.6	12.1	5.2	0.1
	충청권(성장)	[247]	87.9	8.9	2.8	0.4
	전라권(성장)	[273]	86.1	9.5	4.0	0.4
	경상권(성장)	[512]	66.2	30.3	2.7	0.8
	강원/제주(성장)	[85]	69.4	25.9	4.7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82.7	11.9	5.3	0.1
	수도권 유입	[345]	84.1	13.6	2.3	0.0
	지방토박이	[772]	72.5	23.1	3.6	0.8
	지방유입	[27]	77.8	18.5	3.7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89.5	6.3	4.2	0.0
	전라권유입	[114]	90.4	8.8	0.9	0.0
	경상권유입	[113]	72.6	24.8	2.7	0.0
	강원/제주유입	[23]	87.0	13.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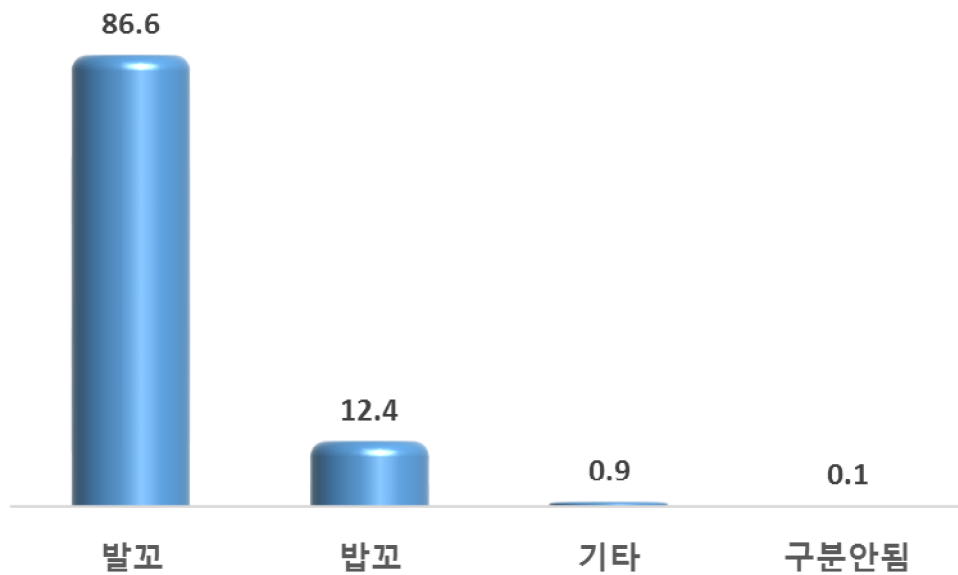
2.6.8 밭고

전체 분석

- ◆ (밭고)축축한 흙을 밭고 있다.에 대한 조사 결과, '밭꼬' 응답이 8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밥꼬' 응답이 12.4%로 나타남

■ 그림86. 자음군 단순화 : 밭고 ■

(단위 : %)



문41-2

(밭고)축축한 흙을 밭고 있다.

계층별 상세분석

- ◆ '발꼬'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90.1%), 대학원이상(90.0%), '밥꼬'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18.4%), 중졸이하(20.0%) 등으로 나타남

■ 표178.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발꼬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발꼬	밥꼬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6.6	12.4	0.9	0.1
성별	남성	[1,014]	86.5	13.0	0.3	0.2
	여성	[986]	86.6	11.9	1.5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90.1	8.7	1.2	0.0
	20 대	[342]	90.1	7.0	2.9	0.0
	30 대	[386]	89.9	9.3	0.5	0.3
	40 대	[439]	85.6	13.4	0.7	0.2
	50 대	[417]	83.2	16.5	0.2	0.0
	60 대	[255]	81.6	18.4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80.0	20.0	0.0	0.0
	고졸이하	[848]	84.7	14.6	0.6	0.1
	대졸이하	[1,012]	88.4	10.2	1.3	0.1
	대학원이상	[60]	90.0	10.0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84.0	15.4	0.3	0.3
	블루칼라	[399]	86.7	12.8	0.5	0.0
	화이트칼라	[496]	87.5	11.5	0.8	0.2
	전업주부	[343]	84.8	14.6	0.6	0.0
	학생	[342]	88.9	8.8	2.3	0.0
	무직/기타	[70]	88.6	10.0	1.4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86.7	12.0	1.2	0.1
	보통	[781]	86.2	13.1	0.8	0.0
	무관심	[303]	87.1	12.2	0.3	0.3

계층별 상세분석

- ◆ '발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95.5%), 강원/제주(성장)(94.1%), 충청권유입(92.6%), '밥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35.5%), 전라권(성장)(34.8%), 전라권유입(33.3%) 등으로 나타남

표179.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밥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발고	밥고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6.6	12.4	0.9	0.1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86.8	11.5	1.5	0.2
	충청권(거주)	[164]	86.6	13.4	0.0	0.0
	전라권(거주)	[155]	64.5	35.5	0.0	0.0
	경상권(거주)	[414]	92.5	7.5	0.0	0.0
	강원/제주(거주)	[66]	95.5	4.5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88.7	9.5	1.7	0.1
	충청권(성장)	[247]	89.1	10.9	0.0	0.0
	전라권(성장)	[273]	64.5	34.8	0.7	0.0
	경상권(성장)	[512]	92.2	7.4	0.2	0.2
	강원/제주(성장)	[85]	94.1	5.9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88.7	9.5	1.8	0.1
	수도권 유입	[345]	82.3	16.5	0.9	0.3
	지방토박이	[772]	86.0	14.0	0.0	0.0
	지방유입	[27]	88.9	11.1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92.6	7.4	0.0	0.0
	전라권유입	[114]	64.9	33.3	1.8	0.0
	경상권유입	[113]	89.4	8.8	0.9	0.9
	강원/제주유입	[23]	91.3	8.7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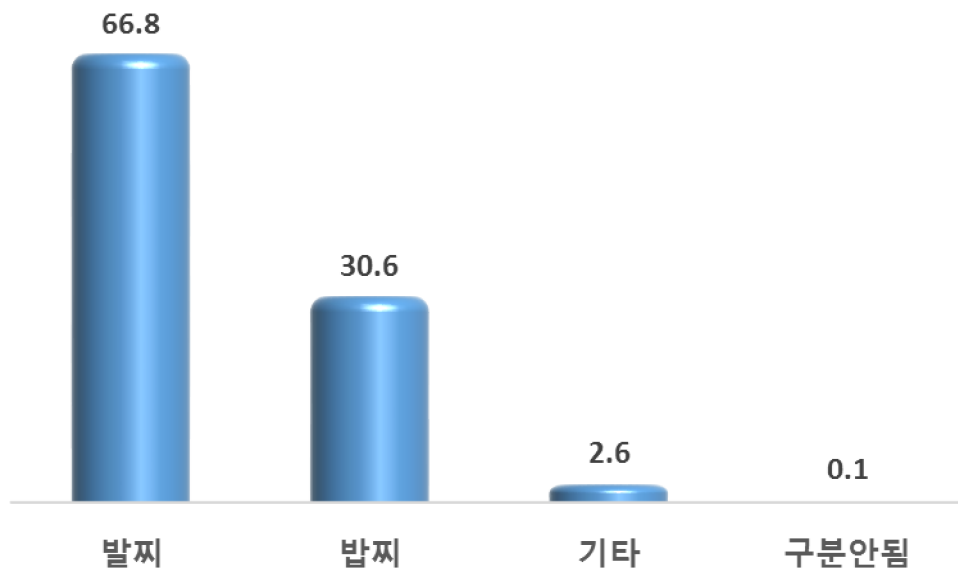
2.6.9 밭지

전체 분석

- ◆ (밭지)밭지에 대한 발음조사 결과, '밭찌' 응답이 66.8%로 가장 높았던 반면, '밥찌' 응답은 30.6%로 조사됨

■ 그림87. 자음군 단순화 : 밭지 ■

(단위 : %)



문23-1

(밭지)새로 심은 잔디를 밭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계층별 상세분석

- ◆ '발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78.9%), 20대(78.9%), 학생(77.8%), '밥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39.3%), 60대(45.9%), 중졸이하(42.5%), 전업주부(38.8%) 등으로 나타남

표180.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발찌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발찌	밥찌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66.8	30.6	2.6	0.1
성별	남성	[1,014]	68.7	29.0	2.1	0.2
	여성	[986]	64.7	32.2	3.1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78.9	16.1	5.0	0.0
	20 대	[342]	78.9	17.0	4.1	0.0
	30 대	[386]	73.8	23.1	3.1	0.0
	40 대	[439]	61.5	35.8	2.5	0.2
	50 대	[417]	59.2	39.3	1.2	0.2
	60 대	[255]	53.3	45.9	0.8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53.8	42.5	3.8	0.0
	고졸이하	[848]	65.3	32.9	1.5	0.2
	대졸이하	[1,012]	68.7	27.9	3.5	0.0
	대학원이상	[60]	71.7	26.7	1.7	0.0
직업별	자영업	[350]	62.0	36.6	1.1	0.3
	블루칼라	[399]	66.4	31.6	2.0	0.0
	화이트칼라	[496]	67.7	30.0	2.0	0.2
	전업주부	[343]	58.3	38.8	2.9	0.0
	학생	[342]	77.8	17.3	5.0	0.0
	무직/기타	[70]	72.9	22.9	4.3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66.5	30.6	2.9	0.0
	보통	[781]	65.8	31.5	2.4	0.3
	무관심	[303]	70.0	28.1	2.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발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82.9%), 강원/제주(거주)(75.8%), 경상권(성장)(81.2%), '밥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70.3%), 전라권(성장)(72.5%), 전라권유입(75.4%) 등으로 나타남

■ 표181.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발찌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발찌	밥찌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66.8	30.6	2.6	0.1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65.9	30.1	4.0	0.0
	충청권(거주)	[164]	63.4	35.4	0.6	0.6
	전라권(거주)	[155]	29.7	70.3	0.0	0.0
	경상권(거주)	[414]	82.9	16.4	0.5	0.2
	강원/제주(거주)	[66]	75.8	22.7	1.5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70.7	25.0	4.3	0.0
	충청권(성장)	[247]	66.0	32.0	1.6	0.4
	전라권(성장)	[273]	25.3	72.5	2.2	0.0
	경상권(성장)	[512]	81.2	18.0	0.6	0.2
	강원/제주(성장)	[85]	74.1	24.7	1.2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70.9	24.8	4.3	0.0
	수도권 유입	[345]	53.6	43.2	3.2	0.0
	지방토박이	[772]	68.1	31.2	0.4	0.3
	지방유입	[27]	63.0	33.3	3.7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70.5	26.3	3.2	0.0
	전라권유입	[114]	19.3	75.4	5.3	0.0
	경상권유입	[113]	71.7	26.5	1.8	0.0
	강원/제주유입	[23]	65.2	34.8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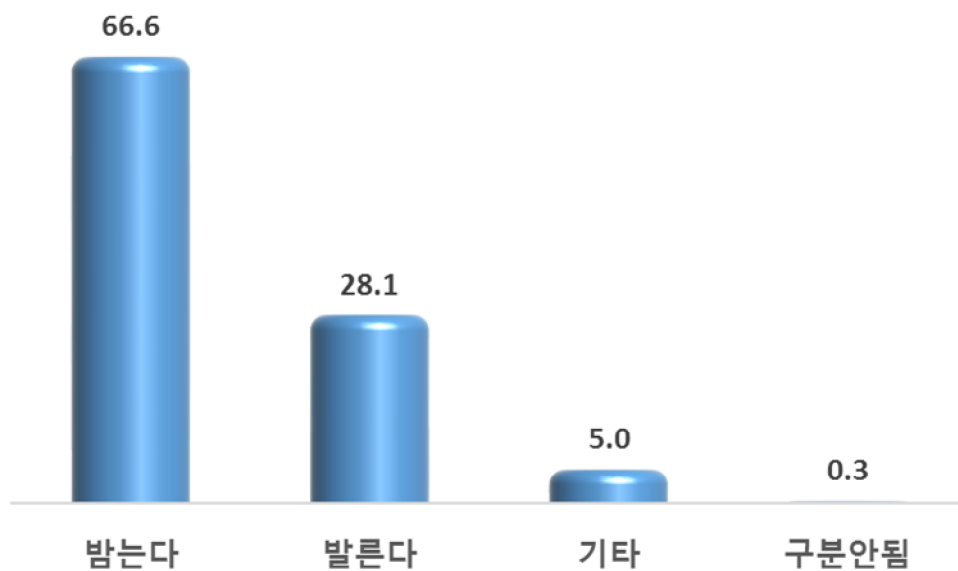
2.6.10 밍는다

전체 분석

- ◆ (밍는다)밍는다에 대한 조사 결과, '밍는다' 응답이 66.6%로 가장 높았고, '발른다' 응답은 28.1%로 나타남

■ 그림88. 자음군 단순화 : 밍는다 ■

(단위 : %)



문58

(밍는다)밍는다

계층별 상세분석

- ◆ '밤는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40대(75.2%), '발른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46.0%), 중졸이하(36.2%), 학생(39.5%), 무관심(37.3%) 등으로 나타남

■ 표182.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밤는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밤는다	발른다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66.6	28.1	5.0	0.3
성별	남성	[1,014]	66.5	29.3	3.8	0.4
	여성	[986]	66.8	26.9	6.1	0.2
연령별	만 15-19 세	[161]	45.3	46.0	8.7	0.0
	20 대	[342]	55.6	30.7	13.5	0.3
	30 대	[386]	70.7	24.4	4.1	0.8
	40 대	[439]	75.2	22.1	2.5	0.2
	50 대	[417]	70.7	27.6	1.7	0.0
	60 대	[255]	67.5	30.2	2.0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60.0	36.2	2.5	1.2
	고졸이하	[848]	68.4	27.8	3.5	0.2
	대졸이하	[1,012]	65.8	27.6	6.3	0.3
	대학원이상	[60]	65.0	30.0	5.0	0.0
직업별	자영업	[350]	69.1	28.9	1.4	0.6
	블루칼라	[399]	71.4	24.8	3.5	0.3
	화이트칼라	[496]	71.0	23.6	5.0	0.4
	전업주부	[343]	70.0	27.4	2.6	0.0
	학생	[342]	48.2	39.5	12.3	0.0
	무직/기타	[70]	70.0	22.9	5.7	1.4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68.1	26.4	5.3	0.1
	보통	[781]	68.9	26.5	4.4	0.3
	무관심	[303]	56.4	37.3	5.3	1.0

계층별 상세분석

- ◆ '밤는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78.7%), 전라권(거주)(83.9%), 충청권(성장)(80.2%), 전라권(성장)(85.3%), 충청권유입(82.1%), 전라권유입(86.8%), '발른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60.6%), 경상권(성장)(57.8%), 경상권유입(44.2%) 등으로 나타남

표183.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밤는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밤는다	발른다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66.6	28.1	5.0	0.3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73.7	19.8	6.2	0.2
	충청권(거주)	[164]	78.7	16.5	4.9	0.0
	전라권(거주)	[155]	83.9	12.3	3.9	0.0
	경상권(거주)	[414]	36.7	60.6	1.9	0.7
	강원/제주(거주)	[66]	56.1	40.9	3.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73.8	18.8	7.0	0.3
	충청권(성장)	[247]	80.2	14.6	4.9	0.4
	전라권(성장)	[273]	85.3	10.6	4.0	0.0
	경상권(성장)	[512]	39.5	57.8	2.3	0.4
	강원/제주(성장)	[85]	56.5	41.2	2.4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73.9	18.8	7.0	0.2
	수도권 유입	[345]	73.0	22.3	4.3	0.3
	지방토박이	[772]	55.6	41.3	2.8	0.3
	지방유입	[27]	70.4	18.5	7.4	3.7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82.1	11.6	5.3	1.1
	전라권유입	[114]	86.8	7.9	5.3	0.0
	경상권유입	[113]	52.2	44.2	3.5	0.0
	강원/제주유입	[23]	69.6	30.4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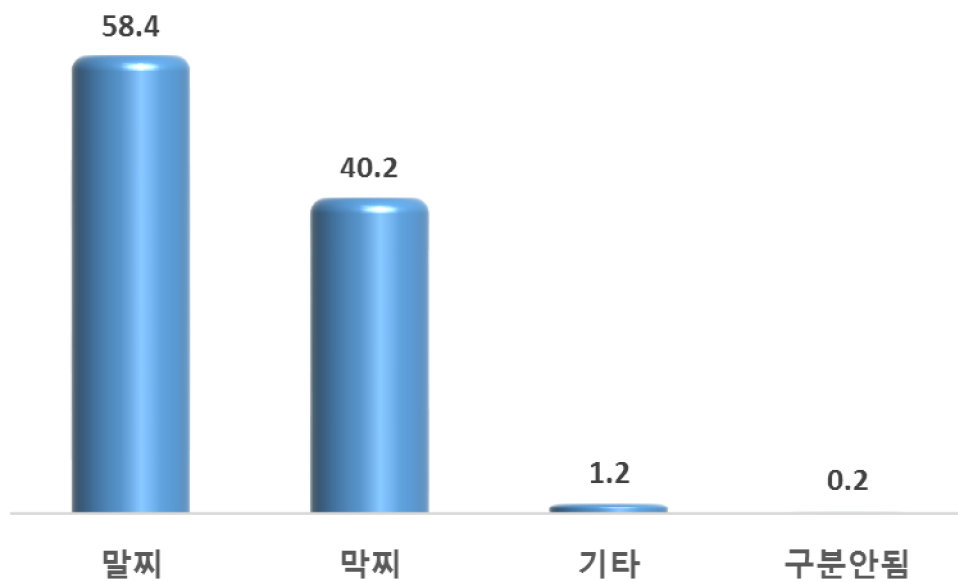
2.6.11 맑지

전체 분석

- ◆ (맑지)맑지에 대한 조사 결과, '말찌' 응답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막찌' 응답이 40.2%로 나타남

■ 그림89. 자음군 단순화 : 맑지 ■

(단위 : %)



문29

(맑지)맑지

계층별 상세분석

- ◆ '말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74.5%), 20대(71.9%), 학생(71.6%), 무관심(64.7%), '막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51.1%), 60대(54.1%), 전업주부(47.8%) 등으로 나타남

표184.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맑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말씨	막씨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8.4	40.2	1.2	0.2
성별	남성	[1,014]	62.2	36.8	1.0	0.0
	여성	[986]	54.5	43.8	1.4	0.3
연령별	만 15-19 세	[161]	74.5	24.2	1.2	0.0
	20 대	[342]	71.9	26.0	2.0	0.0
	30 대	[386]	62.4	35.5	1.8	0.3
	40 대	[439]	56.0	43.1	0.9	0.0
	50 대	[417]	48.0	51.1	0.5	0.5
	60 대	[255]	45.1	54.1	0.8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55.0	45.0	0.0	0.0
	고졸이하	[848]	58.4	40.8	0.6	0.2
	대졸이하	[1,012]	58.8	39.2	1.9	0.1
	대학원이상	[60]	56.7	43.3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54.0	44.9	0.9	0.3
	블루칼라	[399]	58.9	39.3	1.8	0.0
	화이트칼라	[496]	56.5	42.1	1.2	0.2
	전업주부	[343]	51.6	47.8	0.3	0.3
	학생	[342]	71.6	26.3	2.0	0.0
	무직/기타	[70]	60.0	40.0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55.8	43.1	1.1	0.0
	보통	[781]	59.0	39.1	1.5	0.4
	무관심	[303]	64.7	34.7	0.7	0.0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말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67.6%), 강원/제주(거주)(68.2%), 강원/제주(성장)(68.2%), '막씨'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74.8%), 전라권(성장)(74.7%), 수도권 유입(53.0%), 전라권유입(76.3%) 등으로 나타남

■ 표185.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맑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말씨	막씨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8.4	40.2	1.2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59.7	38.6	1.7	0.0
	충청권(거주)	[164]	53.0	46.3	0.0	0.6
	전라권(거주)	[155]	25.2	74.8	0.0	0.0
	경상권(거주)	[414]	67.6	31.2	0.7	0.5
	강원/제주(거주)	[66]	68.2	31.8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65.5	32.7	1.8	0.0
	충청권(성장)	[247]	52.6	45.7	1.2	0.4
	전라권(성장)	[273]	24.5	74.7	0.7	0.0
	경상권(성장)	[512]	65.4	33.6	0.6	0.4
	강원/제주(성장)	[85]	68.2	31.8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65.5	32.7	1.8	0.0
	수도권 유입	[345]	45.2	53.0	1.7	0.0
	지방토박이	[772]	56.2	43.1	0.3	0.4
	지방유입	[27]	63.0	33.3	3.7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54.7	42.1	3.2	0.0
	전라권유입	[114]	22.8	76.3	0.9	0.0
	경상권유입	[113]	55.8	42.5	1.8	0.0
	강원/제주유입	[23]	65.2	34.8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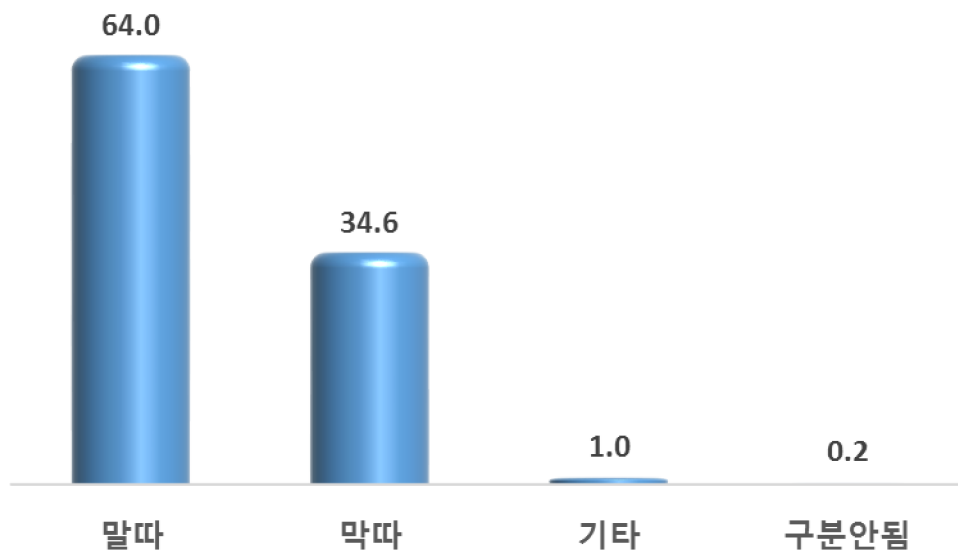
2.6.12 맑다

전체 분석

- ◆ (맑다)맑다에 대한 조사 결과, '말따' 응답이 6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막따' 응답이 34.6%로 나타남

■ 그림90. 자음군 단순화 : 맑다 ■

(단위 : %)



문47

(맑다)맑다

계층별 상세분석

- ◆ '말따'는 만15-19세(80.1%), 20대(78.4%), 30대(70.2%), '막따'는 50대(44.8%), 60대(54.9%), 중졸이하(46.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186.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맑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말따	막따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64.0	34.6	1.0	0.2
성별	남성	[1,014]	66.3	32.3	1.2	0.2
	여성	[986]	61.8	37.0	0.9	0.3
연령별	만 15-19 세	[161]	80.1	19.3	0.6	0.0
	20 대	[342]	78.4	19.9	1.8	0.0
	30 대	[386]	70.2	28.8	1.0	0.0
	40 대	[439]	63.3	35.5	0.7	0.5
	50 대	[417]	54.0	44.8	0.5	0.7
	60 대	[255]	43.1	54.9	2.0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52.5	46.2	1.2	0.0
	고졸이하	[848]	62.7	36.0	0.8	0.5
	대졸이하	[1,012]	65.2	33.4	1.3	0.1
	대학원이상	[60]	78.3	21.7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57.1	41.1	1.4	0.3
	블루칼라	[399]	62.2	35.8	1.8	0.3
	화이트칼라	[496]	65.1	34.3	0.2	0.4
	전업주부	[343]	57.7	41.4	0.6	0.3
	학생	[342]	78.9	19.6	1.5	0.0
	무직/기타	[70]	60.0	38.6	1.4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61.9	36.8	1.1	0.2
	보통	[781]	65.3	33.7	0.8	0.3
	무관심	[303]	67.3	30.7	1.7	0.3

계층별 상세분석

- ◆ '말따'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거주)(71.3%), 수도권(성장)(71.7%), 강원/제주(성장)(70.6%), 수도권 토박이(71.8%), '막따'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62.6%), 전라권(성장)(65.6%), 수도권 유입(49.0%), 전라권유입(71.1%) 등임

표187. 응답자 특성 : 자음군 단순화 : 맑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말따	막따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64.0	34.6	1.0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65.5	33.0	1.2	0.2
	충청권(거주)	[164]	59.1	39.6	0.6	0.6
	전라권(거주)	[155]	37.4	62.6	0.0	0.0
	경상권(거주)	[414]	71.3	27.3	1.2	0.2
	강원/제주(거주)	[66]	66.7	33.3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71.7	26.7	1.5	0.1
	충청권(성장)	[247]	58.7	40.5	0.8	0.0
	전라권(성장)	[273]	33.0	65.6	0.7	0.7
	경상권(성장)	[512]	68.9	29.9	0.8	0.4
	강원/제주(성장)	[85]	70.6	29.4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71.8	26.5	1.5	0.1
	수도권 유입	[345]	49.9	49.0	0.6	0.6
	지방토박이	[772]	61.7	37.3	0.8	0.3
	지방유입	[27]	66.7	33.3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57.9	41.1	1.1	0.0
	전라권유입	[114]	27.2	71.1	0.9	0.9
	경상권유입	[113]	61.1	38.1	0.0	0.9
	강원/제주유입	[23]	73.9	26.1	0.0	0.0

2.7 공명음 뒤 "ㅎ" 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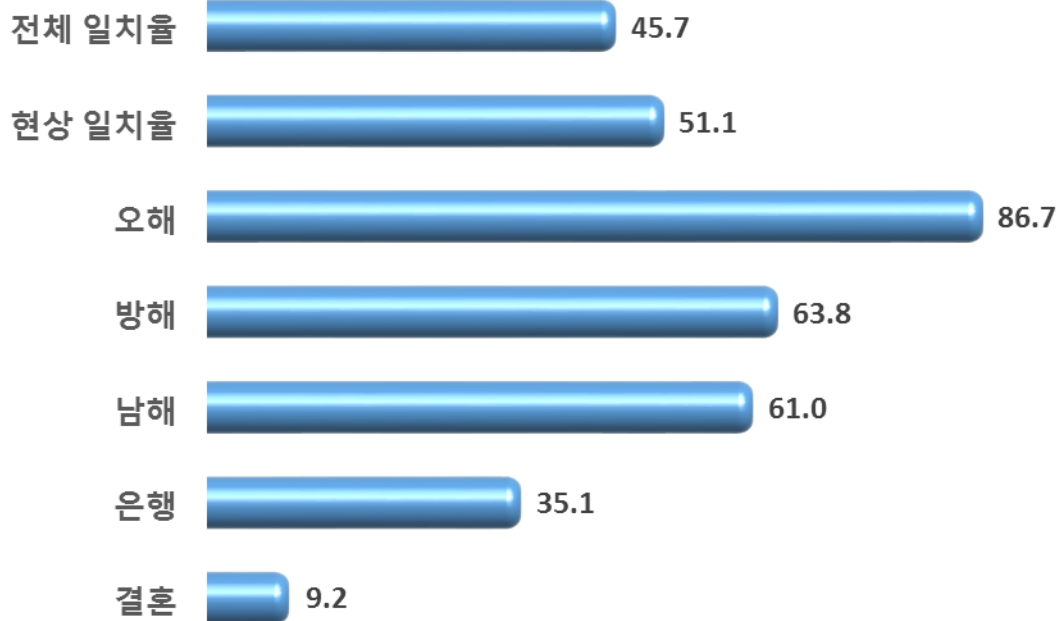
2.7.1 공명음 뒤 "ㅎ" 탈락_표준발음 일치율

전체 분석

- ◆ 공명음 뒤 "ㅎ" 탈락 현상에 대한 표준발음 일치율(%)은 전체 일치율 대비 소폭 높았고, 개별 항목 별로 '오해' 항목의 일치율이 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해' 응답이 63.8%, '남해' 응답이 61.0%로 나타남. 한편, '결혼'에 대한 일치율은 10% 미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그림91. 표준발음 일치율 ■

(단위 : %)



문

해당없음

계층별 상세분석

- ◆ '방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성(69.1%), 40대(69.9%), 60대(69.4%), 전업주부(75.5%), '남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성(66.0%) 등으로 나타남

표188.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일치율	현상 일치율	오해	남해	은행	방해	결혼
[전 체]		[2,000]	45.7	51.1	86.7	61.0	35.1	63.8	9.2
성별	남성	[1,014]	45.1	47.7	84.4	56.2	30.9	58.6	8.6
	여성	[986]	46.4	54.7	89.1	66.0	39.5	69.1	9.7
연령별	만 15-19 세	[161]	44.0	48.1	82.0	62.1	36.0	50.3	9.9
	20 대	[342]	46.8	46.5	84.5	59.5	27.9	51.5	9.4
	30 대	[386]	46.7	52.4	88.1	61.6	36.1	64.5	11.7
	40 대	[439]	46.0	53.4	89.1	62.0	36.1	69.9	10.1
	50 대	[417]	45.0	52.3	88.0	60.9	37.4	68.6	6.7
	60 대	[255]	44.6	51.7	84.7	60.2	37.3	69.4	7.1
학력별	중졸이하	[80]	44.1	49.0	87.5	52.5	33.8	63.8	7.5
	고졸이하	[848]	44.7	50.5	85.5	60.3	34.4	63.2	9.2
	대졸이하	[1,012]	46.6	51.9	87.7	62.1	35.9	64.5	9.2
	대학원이상	[60]	47.9	51.0	86.7	65.0	33.3	60.0	10.0
직업별	자영업	[350]	44.6	50.0	86.8	56.4	32.1	65.1	9.7
	블루칼라	[399]	44.5	49.4	87.0	59.0	31.9	62.2	7.0
	화이트칼라	[496]	46.9	52.6	87.1	63.8	37.6	65.5	9.3
	전업주부	[343]	46.7	56.5	88.6	65.9	43.4	75.5	9.0
	학생	[342]	45.9	46.4	83.0	59.4	30.1	49.4	10.2
	무직/기타	[70]	45.2	53.1	91.4	60.0	34.3	67.1	12.9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46.4	52.2	86.1	62.4	37.0	66.2	9.4
	보통	[781]	45.6	50.9	87.8	60.8	35.4	61.8	8.7
	무관심	[303]	43.9	48.5	85.8	57.3	28.5	61.4	9.6

계층별 상세분석

- ◆ '오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93.9%), 강원/제주(성장)(94.1%), '방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74.2%), 강원/제주(성장)(72.9%), 충청권유입(71.6%), '남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68.2%), 강원/제주(성장)(67.1%) 등으로 나타남

■ 표189.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일치율	현상 일치율	오해	남해	은행	방해	결혼
[전 체]		[2,000]	45.7	51.1	86.7	61.0	35.1	63.8	9.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6.1	51.3	86.8	62.9	36.0	63.8	7.0
	충청권(거주)	[164]	46.5	52.8	85.4	64.6	38.4	64.0	11.6
	전라권(거주)	[155]	47.9	49.9	81.3	61.9	31.6	59.4	15.5
	경상권(거주)	[414]	43.8	49.7	87.9	52.7	31.6	63.8	12.8
	강원/제주(거주)	[66]	44.8	56.4	93.9	68.2	40.9	74.2	4.5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6.1	51.5	87.0	64.3	35.4	63.4	7.8
	충청권(성장)	[247]	46.1	53.2	86.2	63.2	38.1	67.6	10.9
	전라권(성장)	[273]	48.1	47.8	81.3	59.3	30.8	57.5	9.9
	경상권(성장)	[512]	43.9	50.6	88.3	54.3	34.9	64.5	11.2
	강원/제주(성장)	[85]	44.5	55.3	94.1	67.1	38.8	72.9	3.5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6.1	51.3	86.5	64.1	35.6	63.0	7.5
	수도권 유입	[345]	46.1	51.2	87.5	60.0	37.1	65.5	5.8
	지방토박이	[772]	45.2	50.7	86.1	57.8	33.9	63.5	12.2
	지방유입	[27]	45.7	58.5	100.0	70.4	29.6	74.1	18.5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5.1	52.8	87.4	60.0	36.8	71.6	8.4
	전라권유입	[114]	48.7	46.1	83.3	56.1	31.6	56.1	3.5
	경상권유입	[113]	44.4	54.7	90.3	61.9	44.2	69.9	7.1
	강원/제주유입	[23]	44.8	52.2	95.7	69.6	30.4	65.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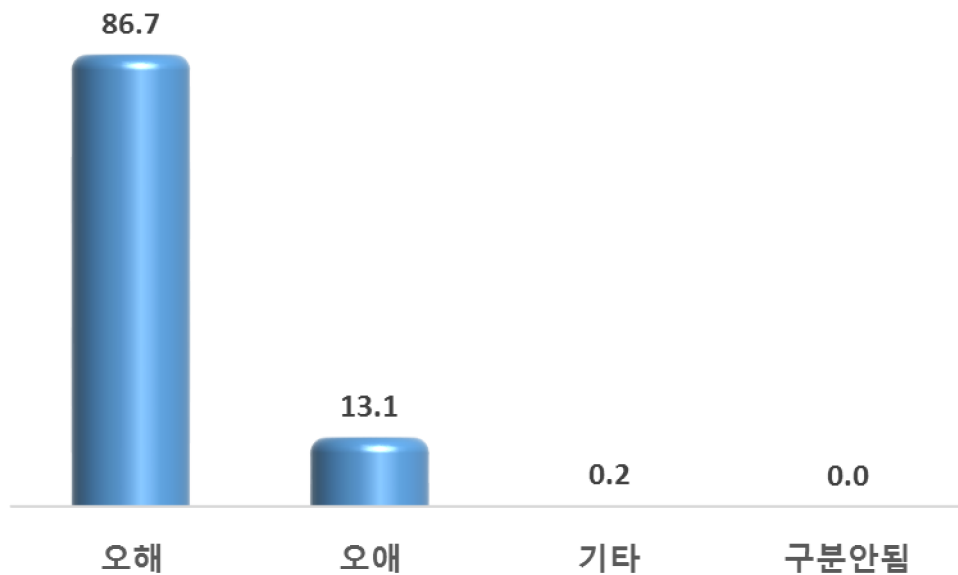
2.7.2 오해

전체 분석

- ◆ (오해)오해에 대한 조사 결과, '오해' 응답이 86.7%로 가장 높았던 반면, '오애' 응답이 13.1%로 조사됨

■ 그림92. 공명음 뒤 'ㅎ' 탈락 : 오해 ■

(단위 : %)



문27

(오해)오해

계층별 상세분석

- ◆ '오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성(89.1%), 무직/기타(91.4%), '오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15.2%), 학생(16.4%) 등으로 나타남

■ 표190.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오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오해	오애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6.7	13.1	0.2	0.0
성별	남성	[1,014]	84.3	15.3	0.3	0.1
	여성	[986]	89.1	10.9	0.0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82.0	17.4	0.6	0.0
	20 대	[342]	84.5	15.2	0.3	0.0
	30 대	[386]	88.1	11.9	0.0	0.0
	40 대	[439]	89.1	10.7	0.2	0.0
	50 대	[417]	87.8	12.0	0.0	0.2
	60 대	[255]	84.7	15.3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87.5	12.5	0.0	0.0
	고졸이하	[848]	85.5	14.4	0.1	0.0
	대졸이하	[1,012]	87.6	12.1	0.2	0.1
	대학원이상	[60]	86.7	13.3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86.6	13.1	0.0	0.3
	블루칼라	[399]	87.0	13.0	0.0	0.0
	화이트칼라	[496]	87.1	12.7	0.2	0.0
	전업주부	[343]	88.6	11.4	0.0	0.0
	학생	[342]	83.0	16.4	0.6	0.0
	무직/기타	[70]	91.4	8.6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86.1	13.8	0.1	0.0
	보통	[781]	87.7	12.0	0.1	0.1
	무관심	[303]	85.8	13.9	0.3	0.0

계층별 상세분석

- ◆ '오해' 응답은 강원/제주(거주)(93.9%), 강원/제주(성장)(94.1%), '오애' 응답은 전라권(거주)(18.7%), 전라권(성장)(18.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표191.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오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오해	오애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6.7	13.1	0.2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86.8	12.9	0.2	0.1
	충청권(거주)	[164]	85.4	14.6	0.0	0.0
	전라권(거주)	[155]	81.3	18.7	0.0	0.0
	경상권(거주)	[414]	87.9	12.1	0.0	0.0
	강원/제주(거주)	[66]	93.9	6.1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86.9	12.7	0.3	0.1
	충청권(성장)	[247]	86.2	13.8	0.0	0.0
	전라권(성장)	[273]	81.3	18.7	0.0	0.0
	경상권(성장)	[512]	88.3	11.7	0.0	0.0
	강원/제주(성장)	[85]	94.1	5.9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86.4	13.1	0.4	0.1
	수도권 유입	[345]	87.5	12.5	0.0	0.0
	지방토박이	[772]	86.1	13.9	0.0	0.0
	지방유입	[27]	100.0	0.0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87.4	12.6	0.0	0.0
	전라권유입	[114]	83.3	16.7	0.0	0.0
	경상권유입	[113]	90.3	9.7	0.0	0.0
	강원/제주유입	[23]	95.7	4.3	0.0	0.0

2.7.3 남해

전체 분석

- ◆ (남해)남해에 대한 조사 결과, '남해' 응답이 61.0%로, '나매' 응답(38.5%) 대비 높게 나타남

■ 그림93. 공명음 뒤 'ㅎ' 탈락 : 남해 ■

(단위 : %)



문7

(남해)남해

계층별 상세분석

- ◆ '남해' 응답은 여성(66.0%), '나매' 응답은 남성(43.2%), 중졸이하(47.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192.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남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남해	나매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61.0	38.5	0.4	0.2
성별	남성	[1,014]	56.0	43.2	0.5	0.3
	여성	[986]	66.0	33.7	0.3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62.1	37.9	0.0	0.0
	20 대	[342]	59.4	40.4	0.0	0.3
	30 대	[386]	61.4	38.3	0.0	0.3
	40 대	[439]	62.0	36.7	1.4	0.0
	50 대	[417]	60.9	38.6	0.5	0.0
	60 대	[255]	60.0	39.6	0.0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52.5	47.5	0.0	0.0
	고졸이하	[848]	60.1	39.0	0.6	0.2
	대졸이하	[1,012]	62.1	37.5	0.3	0.1
	대학원이상	[60]	65.0	35.0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56.3	42.6	0.9	0.3
	블루칼라	[399]	58.9	40.4	0.5	0.3
	화이트칼라	[496]	63.7	35.9	0.2	0.2
	전업주부	[343]	65.9	33.5	0.6	0.0
	학생	[342]	59.4	40.6	0.0	0.0
	무직/기타	[70]	60.0	40.0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62.4	37.2	0.3	0.0
	보통	[781]	60.7	38.7	0.4	0.3
	무관심	[303]	57.1	41.9	0.7	0.3

계층별 상세분석

- ◆ '남해' 응답은 강원/제주(거주)(68.2%), 강원/제주(성장)(67.1%), '나매' 응답은 경상권(거주)(46.6%), 경상권(성장)(45.1%), 전라권유입(43.9%)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표193.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남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남해	나매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61.0	38.5	0.4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62.9	36.6	0.5	0.1
	충청권(거주)	[164]	64.6	35.4	0.0	0.0
	전라권(거주)	[155]	61.9	38.1	0.0	0.0
	경상권(거주)	[414]	52.4	46.6	0.5	0.5
	강원/제주(거주)	[66]	68.2	31.8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64.2	35.3	0.3	0.1
	충청권(성장)	[247]	63.2	35.6	1.2	0.0
	전라권(성장)	[273]	59.3	40.7	0.0	0.0
	경상권(성장)	[512]	54.1	45.1	0.4	0.4
	강원/제주(성장)	[85]	67.1	32.9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64.0	35.5	0.4	0.1
	수도권 유입	[345]	60.0	39.1	0.9	0.0
	지방토박이	[772]	57.6	41.8	0.3	0.3
	지방유입	[27]	70.4	29.6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60.0	36.8	3.2	0.0
	전라권유입	[114]	56.1	43.9	0.0	0.0
	경상권유입	[113]	61.9	38.1	0.0	0.0
	강원/제주유입	[23]	69.6	30.4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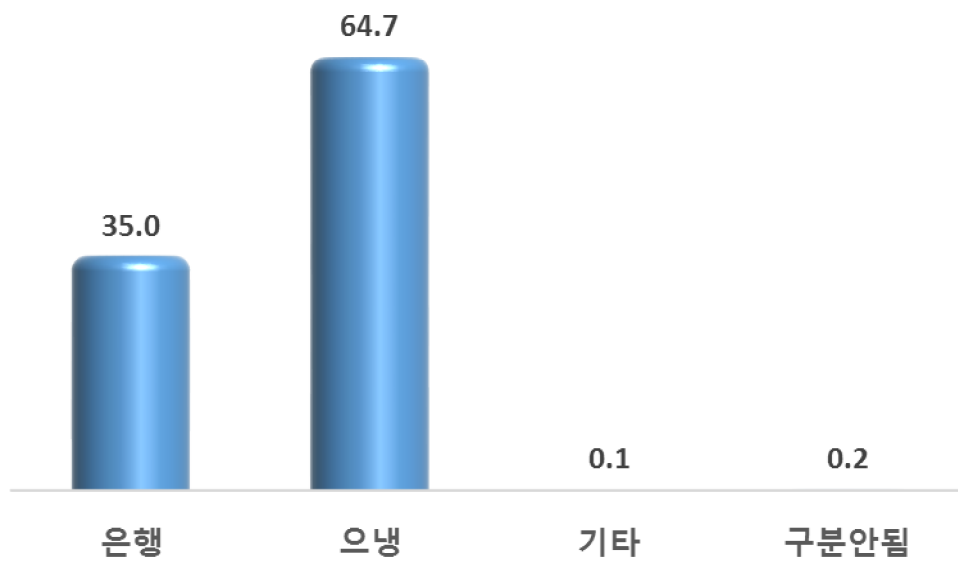
2.7.4 은행

전체 분석

- ◆ (은행)은행에 대한 조사 결과, '으냉' 응답이 64.7%로 가장 높았던 반면, '은행' 응답은 35.0%로 나타남

■ 그림94. 공명음 뒤 'ㅎ' 탈락 : 은행 ■

(단위 : %)



문13

(은행)은행

계층별 상세분석

- ◆ '으냉' 응답은 남성(68.8%), 20대(71.9%), 무관심(71.3%), '은행' 응답은 여성(39.5%), 전업주부(43.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표194.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은행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은행	으냉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35.0	64.7	0.1	0.2
성별	남성	[1,014]	30.8	68.8	0.1	0.3
	여성	[986]	39.5	60.4	0.1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36.0	63.4	0.6	0.0
	20 대	[342]	27.8	71.9	0.0	0.3
	30 대	[386]	36.0	63.7	0.0	0.3
	40 대	[439]	36.0	63.8	0.0	0.2
	50 대	[417]	37.4	62.4	0.2	0.0
	60 대	[255]	37.3	62.7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33.8	66.2	0.0	0.0
	고졸이하	[848]	34.3	65.2	0.2	0.2
	대졸이하	[1,012]	35.9	64.0	0.0	0.1
	대학원이상	[60]	33.3	66.7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32.0	67.7	0.0	0.3
	블루칼라	[399]	31.8	67.9	0.0	0.3
	화이트칼라	[496]	37.5	62.3	0.0	0.2
	전업주부	[343]	43.4	56.3	0.3	0.0
	학생	[342]	30.1	69.6	0.3	0.0
	무직/기타	[70]	34.3	65.7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37.0	62.8	0.1	0.1
	보통	[781]	35.3	64.4	0.1	0.1
	무관심	[303]	28.4	71.3	0.0	0.3

계층별 상세분석

- ◆ '은행'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40.9%), 경상권유입(44.2%) 등으로 나타남

표195.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은행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은행	으녕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35.0	64.7	0.1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36.0	63.9	0.1	0.1
	충청권(거주)	[164]	38.4	61.6	0.0	0.0
	전라권(거주)	[155]	31.6	68.4	0.0	0.0
	경상권(거주)	[414]	31.4	67.9	0.2	0.5
	강원/제주(거주)	[66]	40.9	59.1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35.3	64.4	0.1	0.1
	충청권(성장)	[247]	38.1	61.9	0.0	0.0
	전라권(성장)	[273]	30.8	69.2	0.0	0.0
	경상권(성장)	[512]	34.8	64.6	0.2	0.4
	강원/제주(성장)	[85]	38.8	61.2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35.5	64.3	0.1	0.1
	수도권 유입	[345]	37.1	62.9	0.0	0.0
	지방토박이	[772]	33.8	65.8	0.1	0.3
	지방유입	[27]	29.6	70.4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36.8	63.2	0.0	0.0
	전라권유입	[114]	31.6	68.4	0.0	0.0
	경상권유입	[113]	44.2	55.8	0.0	0.0
	강원/제주유입	[23]	30.4	69.6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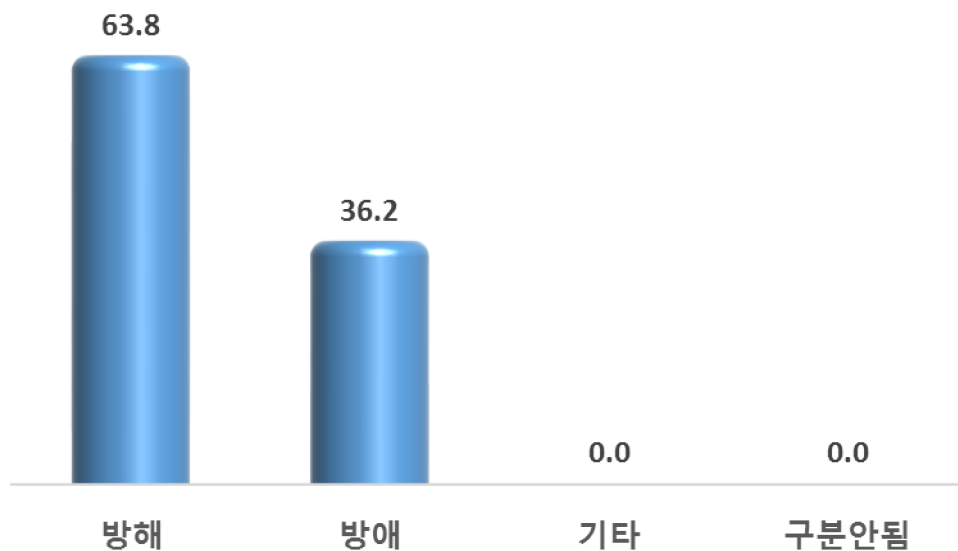
2.7.5 방해

전체 분석

- ◆ (방해)방해에 대한 조사 결과, '방해' 응답이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애' 응답이 36.2%로 조사됨

■ 그림95. 공명음 뒤 'ㅎ' 탈락 : 방해 ■

(단위 : %)



문45

(방해)방해

계층별 상세분석

- ◆ '방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성(69.1%), 40대(69.7%), 60대(69.4%), 전업주부(75.5%), '방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49.7%), 20대(48.5%), 학생(50.6%) 등으로 나타남

표196.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방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방해	방애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63.8	36.2	0.0	0.0
성별	남성	[1,014]	58.6	41.2	0.1	0.1
	여성	[986]	69.1	30.9	0.0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50.3	49.7	0.0	0.0
	20 대	[342]	51.5	48.5	0.0	0.0
	30 대	[386]	64.5	35.5	0.0	0.0
	40 대	[439]	69.7	29.8	0.2	0.2
	50 대	[417]	68.6	31.4	0.0	0.0
	60 대	[255]	69.4	30.6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63.8	36.2	0.0	0.0
	고졸이하	[848]	63.1	36.8	0.0	0.1
	대졸이하	[1,012]	64.5	35.4	0.1	0.0
	대학원이상	[60]	60.0	40.0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65.1	34.9	0.0	0.0
	블루칼라	[399]	62.2	37.8	0.0	0.0
	화이트칼라	[496]	65.3	34.3	0.2	0.2
	전업주부	[343]	75.5	24.5	0.0	0.0
	학생	[342]	49.4	50.6	0.0	0.0
	무직/기타	[70]	67.1	32.9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66.2	33.6	0.1	0.1
	보통	[781]	61.8	38.2	0.0	0.0
	무관심	[303]	61.4	38.6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방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74.2%), 강원/제주(성장)(72.9%), 충청권유입(71.6%), '방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성장)(42.5%), 전라권 유입(43.9%) 등으로 나타남

■ 표197.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방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방해	방애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63.8	36.2	0.0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63.7	36.1	0.1	0.1
	충청권(거주)	[164]	64.0	36.0	0.0	0.0
	전라권(거주)	[155]	59.4	40.6	0.0	0.0
	경상권(거주)	[414]	63.8	36.2	0.0	0.0
	강원/제주(거주)	[66]	74.2	25.8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63.3	36.5	0.1	0.1
	충청권(성장)	[247]	67.6	32.4	0.0	0.0
	전라권(성장)	[273]	57.5	42.5	0.0	0.0
	경상권(성장)	[512]	64.5	35.5	0.0	0.0
	강원/제주(성장)	[85]	72.9	27.1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63.0	36.8	0.1	0.1
	수도권 유입	[345]	65.5	34.5	0.0	0.0
	지방토박이	[772]	63.5	36.5	0.0	0.0
	지방유입	[27]	74.1	25.9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71.6	28.4	0.0	0.0
	전라권유입	[114]	56.1	43.9	0.0	0.0
	경상권유입	[113]	69.9	30.1	0.0	0.0
	강원/제주유입	[23]	65.2	34.8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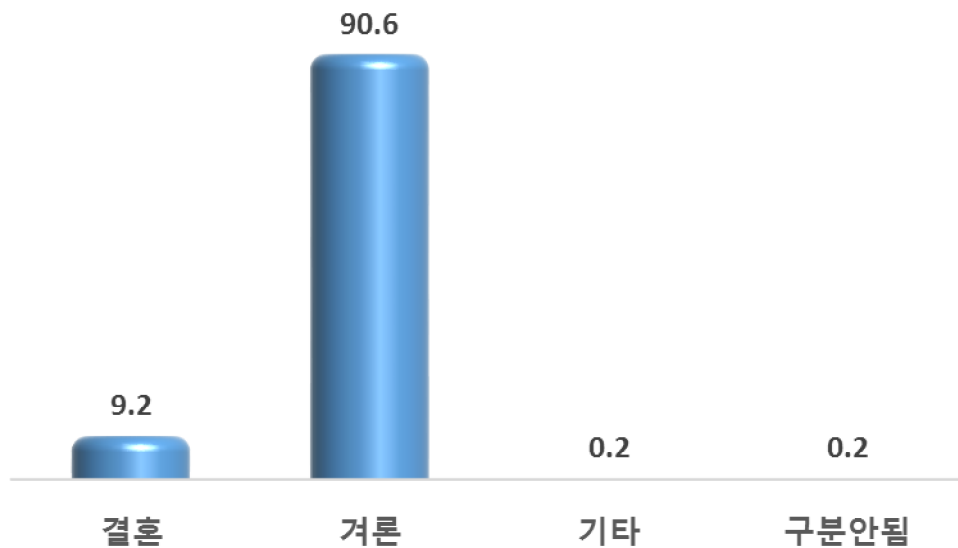
2.7.6 결혼

전체 분석

- ◆ (결혼)결혼 항목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 '겨론' 응답이 9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응답은 9.2%로 조사됨

■ 그림96. 공명음 뒤 'ㅎ' 탈락 : 결혼 ■

(단위 : %)



문36-2

(결혼)양가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

계층별 상세분석

- ◆ '거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93.0%), 블루칼라(92.7%), '결혼'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30대(11.7%), 무직/기타(12.9%) 등으로 나타남

■ 표198.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결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결혼	거론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9.2	90.6	0.2	0.2
성별	남성	[1,014]	8.6	91.2	0.0	0.2
	여성	[986]	9.7	89.9	0.3	0.1
연령별	만 15-19 세	[161]	9.9	90.1	0.0	0.0
	20 대	[342]	9.4	90.6	0.0	0.0
	30 대	[386]	11.7	88.3	0.0	0.0
	40 대	[439]	10.0	89.1	0.2	0.7
	50 대	[417]	6.7	93.0	0.2	0.0
	60 대	[255]	7.1	92.5	0.4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7.5	91.2	1.2	0.0
	고졸이하	[848]	9.2	90.3	0.1	0.4
	대졸이하	[1,012]	9.2	90.7	0.1	0.0
	대학원이상	[60]	10.0	90.0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9.7	89.4	0.6	0.3
	블루칼라	[399]	7.0	92.7	0.0	0.3
	화이트칼라	[496]	9.3	90.5	0.0	0.2
	전업주부	[343]	9.0	90.7	0.3	0.0
	학생	[342]	10.2	89.8	0.0	0.0
	무직/기타	[70]	12.9	87.1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9.4	90.3	0.1	0.2
	보통	[781]	8.7	90.9	0.3	0.1
	무관심	[303]	9.6	90.4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겨론' 응답은 강원/제주(성장)(95.3%), 전라권유입(96.5%), '결혼' 응답은 전라권(거주)(15.5%), 경상권(거주)(12.8%) 등으로 나타남

■ 표199. 응답자 특성 : 공명음 뒤 'ㅎ' 탈락 : 결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결혼	겨론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9.2	90.6	0.2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7.0	92.6	0.2	0.2
	충청권(거주)	[164]	11.6	88.4	0.0	0.0
	전라권(거주)	[155]	15.5	84.5	0.0	0.0
	경상권(거주)	[414]	12.8	87.2	0.0	0.0
	강원/제주(거주)	[66]	4.5	93.9	1.5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7.8	91.7	0.2	0.2
	충청권(성장)	[247]	10.9	89.1	0.0	0.0
	전라권(성장)	[273]	9.9	90.1	0.0	0.0
	경상권(성장)	[512]	11.1	88.7	0.0	0.2
	강원/제주(성장)	[85]	3.5	95.3	1.2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7.5	92.1	0.2	0.2
	수도권 유입	[345]	5.8	93.9	0.0	0.3
	지방토박이	[772]	12.2	87.7	0.1	0.0
	지방유입	[27]	18.5	81.5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8.4	91.6	0.0	0.0
	전라권유입	[114]	3.5	96.5	0.0	0.0
	경상권유입	[113]	7.1	92.0	0.0	0.9
	강원/제주유입	[23]	0.0	10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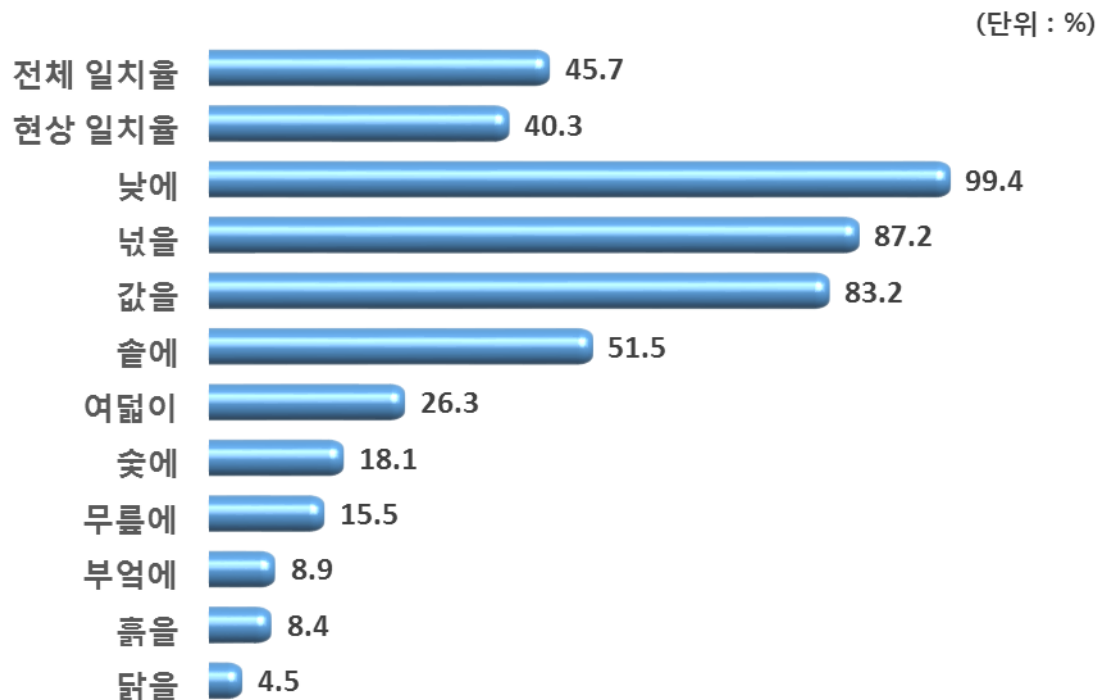
2.8 체언 어간 변화

2.8.1 체언 어간 변화_표준발음 일치율

전체 분석

- ◆ 체언 어간 변화 현상 일치율은 전체 대비 약 5%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한편, 개별 항목 별로 '낮에' 항목에 대한 표준발음 일치율이 99.4%로 가장 높았으며, '넋을' 응답이 87.2%, '값을' 응답이 83.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닭을' 및 '흙을', '부엌에' 항목에 대한 일치율은 10% 미만으로 타 항목 대비 비교적 낮게 나타남

■ 그림97. 표준발음 일치율 ■



문

해당없음

계층별 상세분석

- ◆ '넋을' 응답은 계층은 여성(91.2%), 20대(92.7%), 30대(93.5%), 대학원이상(93.3%), 화이트칼라(92.3%), '값을' 응답은 20대(90.6%), 30대(91.7%), 대학원이상(90.0%), 학생(90.4%)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200.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장체 일치율	현상 일치율	답을	여름이	값을	무릎에	부엌에	낮에	숫에	술에	넋을	흠을
[전 체]		[2,000]	45.7	40.3	4.5	26.3	83.2	15.5	8.9	99.4	18.1	51.5	87.2	8.4
성별	남성	[1,014]	45.1	38.4	4.7	21.5	78.2	15.5	8.4	99.0	18.6	47.0	83.3	7.3
	여성	[986]	46.4	42.3	4.2	31.2	88.3	15.4	9.3	99.8	17.7	56.2	91.2	9.5
연령별	만 15-19 세	[161]	44.0	38.9	0.6	19.5	88.2	21.1	9.3	98.8	24.8	36.6	85.7	5.0
	20 대	[342]	46.8	43.2	3.2	17.4	90.6	31.1	15.2	99.1	30.4	45.5	92.7	6.7
	30 대	[386]	46.7	41.3	4.4	20.6	91.7	19.2	7.5	99.0	22.1	48.3	93.5	7.3
	40 대	[439]	46.0	38.8	3.9	27.1	81.3	11.4	6.2	99.8	11.6	48.7	87.9	9.8
	50 대	[417]	45.0	39.3	6.0	34.8	75.8	7.0	7.2	99.8	13.5	58.9	81.5	8.4
	60 대	[255]	44.6	39.9	7.1	35.8	72.5	6.3	9.4	99.6	10.2	66.5	79.2	12.2
학력별	중졸이하	[80]	44.1	40.2	8.8	32.9	73.8	10.1	13.9	100.0	16.2	66.2	68.8	10.0
	고졸이하	[848]	44.7	39.1	3.8	29.2	80.4	11.5	7.4	99.5	14.0	52.5	84.7	8.3
	대졸이하	[1,012]	46.6	41.1	4.7	23.9	85.9	18.5	9.4	99.2	21.5	49.7	90.3	7.9
	대학원이상	[60]	47.9	43.7	5.0	18.3	90.0	28.3	13.3	100.0	23.3	48.3	93.3	16.7
직업별	자영업	[350]	44.6	36.1	6.0	25.7	71.1	5.7	4.3	99.4	11.0	53.3	78.2	6.6
	블루칼라	[399]	44.5	39.3	3.0	27.0	81.7	13.8	9.0	99.5	14.6	50.6	85.9	8.0
	화이트칼라	[496]	46.9	41.3	5.5	24.1	87.5	17.8	9.1	99.0	19.8	48.5	92.3	9.1
	전업주부	[343]	46.7	42.7	5.0	37.3	84.8	10.8	9.1	100.0	15.7	63.7	88.6	12.0
	학생	[342]	45.9	42.2	2.0	19.2	90.4	28.7	12.6	99.1	31.0	42.8	90.3	6.1
	무직/기타	[70]	45.2	38.5	7.2	21.4	78.6	15.9	10.0	100.0	11.4	51.4	80.0	8.6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46.4	41.6	4.9	27.6	86.1	17.8	9.6	99.5	19.8	52.0	89.5	9.4
	보통	[781]	45.6	39.0	4.1	24.1	80.4	13.8	7.6	99.1	18.1	49.9	85.6	7.3
	무관심	[303]	43.9	39.6	4.0	28.1	81.5	12.9	9.9	100.0	13.2	54.0	84.2	8.3

계층별 상세분석

◆ 강원/제주(89.4%) 거주자에서 '값을' 응답에 대한 일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201.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잔체 일치율	현상 일치율	답을	여름이	값을	무릎에	부엌에	낮에	숫에	솔에	넋을	흙을
[전 체]		[2,000]	45.7	40.3	4.5	26.3	83.2	15.5	8.9	99.4	18.1	51.5	87.2	8.4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6.1	40.2	4.6	25.5	84.0	14.9	10.4	99.2	18.4	49.3	87.4	8.5
	충청권(거주)	[164]	46.5	36.1	2.4	17.1	75.6	11.6	6.7	100.0	12.8	46.3	82.8	6.7
	전라권(거주)	[155]	47.9	40.1	5.2	38.7	79.4	11.0	3.9	100.0	15.6	53.5	87.7	6.5
	경상권(거주)	[414]	43.8	41.7	4.8	26.4	84.3	18.9	6.5	99.3	20.8	58.4	88.4	9.7
	강원/제주(거주)	[66]	44.8	43.0	3.0	33.8	89.4	26.2	12.1	100.0	16.7	56.1	84.8	7.6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6.1	40.1	3.6	22.3	85.9	16.4	11.5	99.0	19.9	44.9	89.4	7.4
	충청권(성장)	[247]	46.1	36.4	3.2	17.9	78.5	10.1	5.3	100.0	13.4	45.9	82.4	8.5
	전라권(성장)	[273]	48.1	40.4	6.6	43.2	75.8	11.4	6.6	100.0	14.4	57.1	81.2	8.1
	경상권(성장)	[512]	43.9	42.1	5.7	27.9	84.0	17.2	6.8	99.4	19.7	61.4	88.8	10.7
	강원/제주(성장)	[85]	44.5	42.3	2.4	28.6	87.1	25.0	11.8	100.0	16.5	58.3	87.1	5.9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6.1	40.2	3.6	22.3	86.0	16.6	11.7	98.9	19.8	45.2	89.8	7.3
	수도권 유입	[345]	46.1	40.4	7.0	33.5	79.1	10.4	7.2	100.0	14.8	59.7	81.3	11.6
	지방토박이	[772]	45.2	40.5	4.3	27.7	81.9	16.8	6.6	99.6	17.6	55.4	87.3	8.2
	지방유입	[27]	45.7	36.7	3.7	22.2	85.2	7.4	3.7	100.0	22.2	37.0	74.1	11.1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5.1	36.5	4.2	18.1	82.1	7.4	4.2	100.0	13.7	43.5	82.8	10.5
	전라권유입	[114]	48.7	41.5	9.6	50.0	71.9	12.3	10.5	100.0	14.2	59.6	75.4	11.4
	경상권유입	[113]	44.4	43.0	8.0	34.8	83.2	10.6	6.2	100.0	15.9	72.3	85.0	14.2
	강원/제주유입	[23]	44.8	38.5	0.0	8.7	82.6	13.0	8.7	100.0	17.4	63.6	87.0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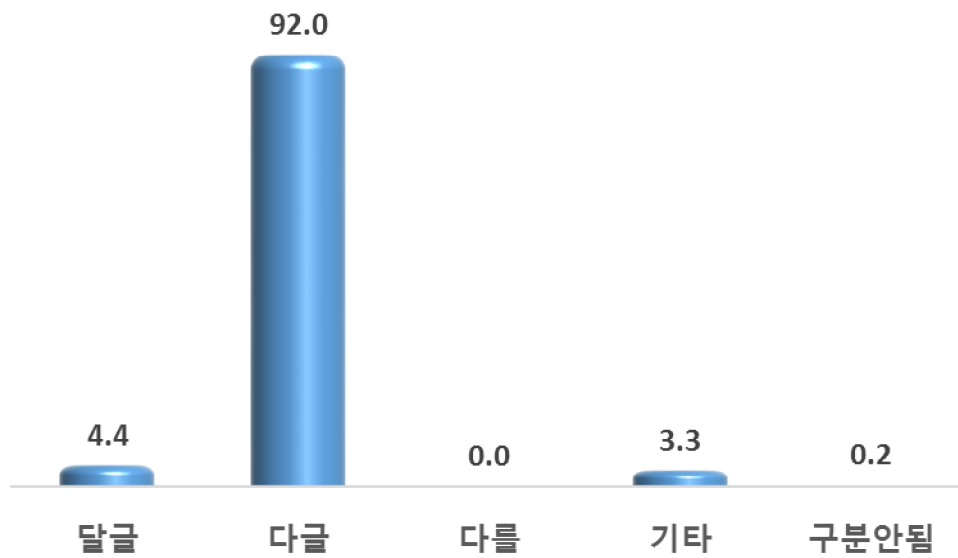
2.8.2 닭을

전체 분석

- ◆ (닭을)엄청나게 큰 솥에 닭을 넣고 있다.에 대한 조사 결과, '다글' 응답이 92.0%로 가장 높았던 반면, '달글' 발음은 4.4%에 불과했음

■ 그림98. 체언 어간변화 : 닭을 ■

(단위 : %)



문37-2

(닭을)엄청나게 큰 솥에 닭을 넣고 있다.

계층별 상세분석

- ◆ '다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95.0%), 대학원이상(95.0%), 블루칼라(94.5%), '달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중졸이하(8.8%) 등으로 나타남

■ 표202.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닭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달글	다글	다를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4.4	92.0	0.0	3.3	0.2
성별	남성	[1,014]	4.7	91.7	0.0	3.3	0.3
	여성	[986]	4.2	92.4	0.1	3.3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0.6	95.0	0.0	4.3	0.0
	20 대	[342]	3.2	92.1	0.0	4.7	0.0
	30 대	[386]	4.4	92.0	0.0	3.4	0.3
	40 대	[439]	3.9	94.1	0.0	1.6	0.5
	50 대	[417]	6.0	90.6	0.0	3.4	0.0
	60 대	[255]	7.1	89.0	0.4	3.5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8.8	86.2	1.2	3.8	0.0
	고졸이하	[848]	3.8	93.3	0.0	2.8	0.1
	대졸이하	[1,012]	4.6	91.3	0.0	3.9	0.2
	대학원이상	[60]	5.0	95.0	0.0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6.0	90.6	0.0	3.4	0.0
	블루칼라	[399]	3.0	94.5	0.0	2.3	0.3
	화이트칼라	[496]	5.4	90.5	0.0	3.8	0.2
	전업주부	[343]	5.0	92.7	0.3	2.0	0.0
	학생	[342]	2.0	93.3	0.0	4.7	0.0
	무직/기타	[70]	7.1	87.1	0.0	4.3	1.4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4.9	92.1	0.0	2.8	0.1
	보통	[781]	4.1	91.8	0.0	3.8	0.3
	무관심	[303]	4.0	92.4	0.3	3.3	0.0

계층별 상세분석

- ◆ '다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95.5%), 강원/제주(성장)(96.5%), '다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유입(9.6%) 등으로 나타남

표203.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닭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달글	다글	다를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4.4	92.0	0.0	3.3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6	92.1	0.0	3.1	0.2
	충청권(거주)	[164]	2.4	92.1	0.0	5.5	0.0
	전라권(거주)	[155]	5.2	92.9	0.0	1.9	0.0
	경상권(거주)	[414]	4.8	91.1	0.2	3.9	0.0
	강원/제주(거주)	[66]	3.0	95.5	0.0	1.5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3.6	93.3	0.0	2.7	0.3
	충청권(성장)	[247]	3.2	91.9	0.0	4.9	0.0
	전라권(성장)	[273]	6.6	91.9	0.0	1.5	0.0
	경상권(성장)	[512]	5.7	89.3	0.2	4.9	0.0
	강원/제주(성장)	[85]	2.4	96.5	0.0	1.2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3.6	93.3	0.0	2.7	0.4
	수도권 유입	[345]	7.0	89.0	0.0	4.1	0.0
	지방토박이	[772]	4.3	92.0	0.1	3.6	0.0
	지방유입	[27]	3.7	92.6	0.0	3.7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2	91.6	0.0	4.2	0.0
	전라권유입	[114]	9.6	89.5	0.0	0.9	0.0
	경상권유입	[113]	8.0	84.1	0.0	8.0	0.0
	강원/제주유입	[23]	0.0	10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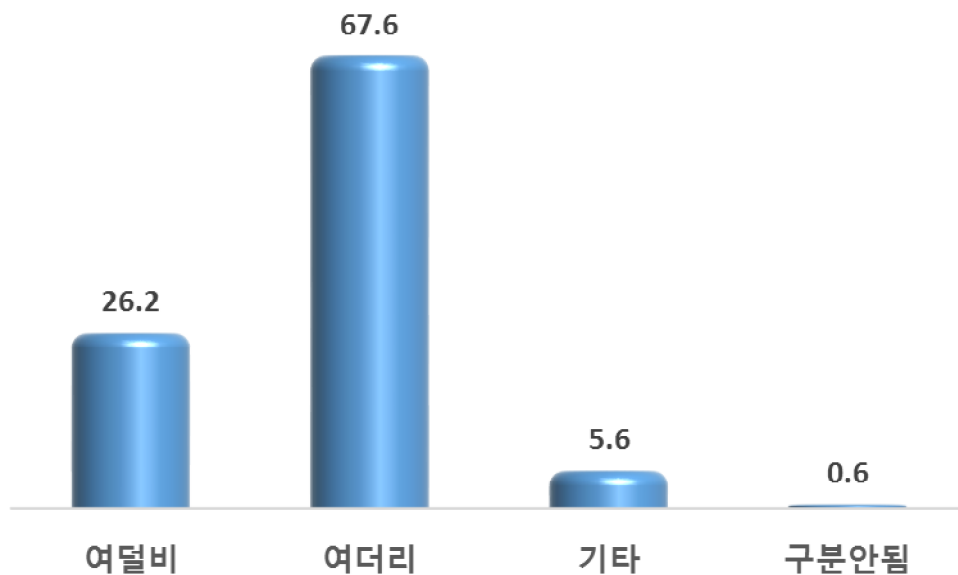
2.8.3 여덟이

전체 분석

- ◆ (여덟이)여덟이에 대해 '여더리' 응답이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덜비' 응답이 26.2%로 조사됨

■ 그림99. 체언 어간변화 : 여덟이 ■

(단위 : %)



문1-2

(여덟이)거기에는 낯익은 얼굴 여덟이 있었다.

계층별 상세분석

- ◆ '여더리'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77.6%), 20대(78.1%), 30대(76.2%), 학생(75.7%), '여덜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34.8%), 60대(35.7%), 전업주부(37.3%) 등으로 나타남

표204.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여덜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여덜비	여더리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26.2	67.6	5.6	0.6
성별	남성	[1,014]	21.3	71.7	6.0	1.0
	여성	[986]	31.1	63.3	5.3	0.3
연령별	만 15-19 세	[161]	19.3	77.6	1.9	1.2
	20 대	[342]	17.3	78.1	3.8	0.9
	30 대	[386]	20.5	76.2	2.6	0.8
	40 대	[439]	26.9	66.3	5.9	0.9
	50 대	[417]	34.8	57.1	8.2	0.0
	60 대	[255]	35.7	53.3	10.6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32.5	57.5	8.8	1.2
	고졸이하	[848]	29.0	63.8	6.6	0.6
	대졸이하	[1,012]	23.7	71.2	4.3	0.7
	대학원이상	[60]	18.3	71.7	1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25.4	63.4	10.0	1.1
	블루칼라	[399]	26.8	68.7	3.8	0.8
	화이트칼라	[496]	24.0	70.4	5.2	0.4
	전업주부	[343]	37.3	56.9	5.8	0.0
	학생	[342]	19.0	75.7	4.1	1.2
	무직/기타	[70]	21.4	74.3	4.3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27.5	66.7	5.3	0.4
	보통	[781]	23.8	69.4	5.8	1.0
	무관심	[303]	28.1	65.3	6.3	0.3

계층별 상세분석

- ◆ '여더리'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78.7%), 충청권(성장)(78.5%), 충청권유입(78.9%), '여덜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38.7%), 전라권(성장)(43.2%), 전라권유입(50.0%) 등으로 나타남

■ 표205.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여덜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여덜비	여더리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26.2	67.6	5.6	0.6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25.4	69.6	4.4	0.6
	충청권(거주)	[164]	17.1	78.7	4.3	0.0
	전라권(거주)	[155]	38.7	47.1	14.2	0.0
	경상권(거주)	[414]	26.1	65.9	6.8	1.2
	강원/제주(거주)	[66]	33.3	60.6	4.5	1.5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22.2	73.7	3.5	0.6
	충청권(성장)	[247]	17.8	78.5	3.2	0.4
	전라권(성장)	[273]	43.2	42.9	13.9	0.0
	경상권(성장)	[512]	27.5	64.8	6.4	1.2
	강원/제주(성장)	[85]	28.2	67.1	3.5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22.2	73.8	3.4	0.6
	수도권 유입	[345]	33.3	59.1	7.0	0.6
	지방토박이	[772]	27.5	64.2	7.5	0.8
	지방유입	[27]	22.2	70.4	7.4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17.9	78.9	2.1	1.1
	전라권유입	[114]	50.0	36.8	13.2	0.0
	경상권유입	[113]	34.5	58.4	6.2	0.9
	강원/제주유입	[23]	8.7	91.3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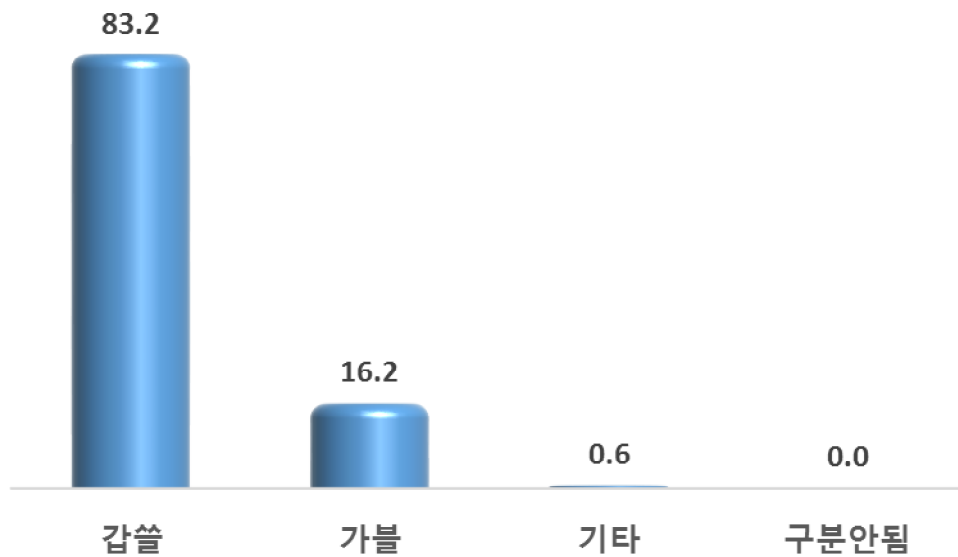
2.8.4 값을

전체 분석

- ◆ (값을)값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 '갑쓸' 응답이 83.2%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가블' 응답이 16.2%로 조사됨

■ 그림100. 체언 어간변화 : 값을 ■

(단위 : %)



문40-2

(값을)이 솟에서는 연기가 많이 난다고 값을 깎았다.

계층별 상세분석

- ◆ '갑쓸'은 20대(90.6%), 30대(91.7%), 대학원이상(90.0%), 학생(90.4%), '가블' 응답은 60대(27.5%), 중졸이하(26.2%), 자영업(28.3%) 등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임

■ 표206.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값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갑쓸	가블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3.2	16.2	0.6	0.0
성별	남성	[1,014]	78.1	21.0	0.8	0.1
	여성	[986]	88.3	11.3	0.4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88.2	10.6	1.2	0.0
	20 대	[342]	90.6	9.1	0.3	0.0
	30 대	[386]	91.7	7.5	0.8	0.0
	40 대	[439]	81.1	17.5	1.1	0.2
	50 대	[417]	75.8	24.0	0.2	0.0
	60 대	[255]	72.5	27.5	0.0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73.8	26.2	0.0	0.0
	고졸이하	[848]	80.3	18.8	0.8	0.1
	대졸이하	[1,012]	85.9	13.6	0.5	0.0
	대학원이상	[60]	90.0	10.0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71.1	28.3	0.6	0.0
	블루칼라	[399]	81.7	17.5	0.8	0.0
	화이트칼라	[496]	87.3	12.3	0.2	0.2
	전업주부	[343]	84.8	14.9	0.3	0.0
	학생	[342]	90.4	8.8	0.9	0.0
	무직/기타	[70]	78.6	18.6	2.9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86.0	12.9	1.0	0.1
	보통	[781]	80.4	19.2	0.4	0.0
	무관심	[303]	81.5	18.5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갑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89.4%), '가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23.8%), 전라권(성장)(22.3%), 전라권유입(27.2%) 등으로 나
타남

표207.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값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갑쓸	가블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3.2	16.2	0.6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83.9	15.5	0.5	0.1
	충청권(거주)	[164]	75.6	23.8	0.6	0.0
	전라권(거주)	[155]	79.4	18.1	2.6	0.0
	경상권(거주)	[414]	84.3	15.5	0.2	0.0
	강원/제주(거주)	[66]	89.4	10.6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85.8	13.5	0.6	0.1
	충청권(성장)	[247]	78.5	21.1	0.4	0.0
	전라권(성장)	[273]	75.8	22.3	1.8	0.0
	경상권(성장)	[512]	84.0	15.8	0.2	0.0
	강원/제주(성장)	[85]	87.1	12.9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85.9	13.4	0.6	0.1
	수도권 유입	[345]	79.1	20.6	0.3	0.0
	지방토박이	[772]	81.9	17.4	0.8	0.0
	지방유입	[27]	85.2	14.8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82.1	17.9	0.0	0.0
	전라권유입	[114]	71.9	27.2	0.9	0.0
	경상권유입	[113]	83.2	16.8	0.0	0.0
	강원/제주유입	[23]	82.6	17.4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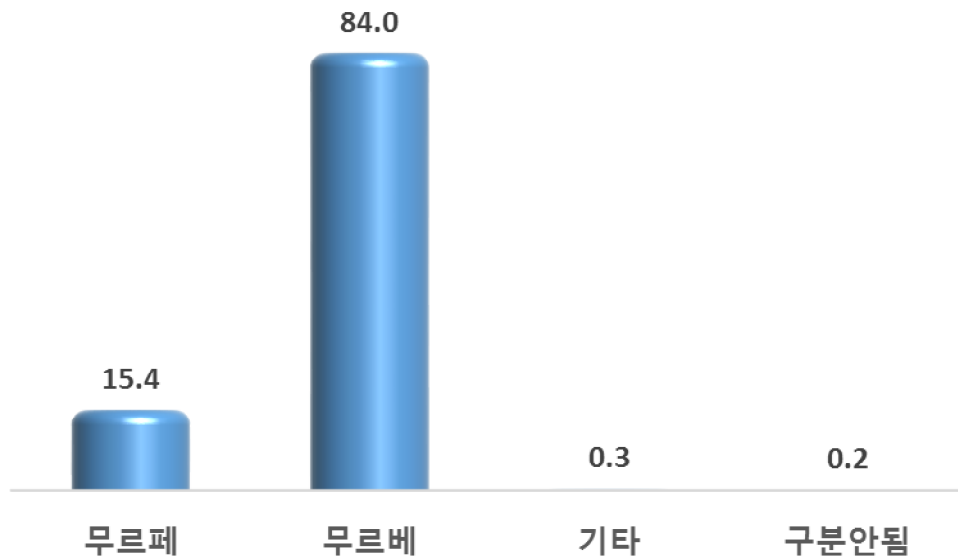
2.8.5 무릎에

전체 분석

- ◆ (무릎에)무릎에에 대한 조사 결과, '무르베' 응답이 84.0%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무르페' 응답은 15.4%로 나타남

■ 그림101. 체언 어간변화 : 무릎에 ■

(단위 : %)



문25-1

(무릎에)양 무릎에 손을 얹고 시조를 읊고 있다.

계층별 상세분석

- ◆ '무르베' 응답은 50대(92.8%), 60대(92.9%), 자영업(94.0%), '무르페' 응답은 만15-19세(21.1%), 20대(31.0%), 대학원이상(28.3%), 학생(28.7%)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표208.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무릎에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무르페	무르베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15.4	84.0	0.3	0.2
성별	남성	[1,014]	15.5	83.9	0.3	0.3
	여성	[986]	15.4	84.1	0.3	0.2
연령별	만 15-19 세	[161]	21.1	78.9	0.0	0.0
	20 대	[342]	31.0	68.7	0.0	0.3
	30 대	[386]	19.2	80.1	0.5	0.3
	40 대	[439]	11.4	87.7	0.5	0.5
	50 대	[417]	7.0	92.8	0.2	0.0
	60 대	[255]	6.3	92.9	0.4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10.0	88.8	0.0	1.2
	고졸이하	[848]	11.4	88.0	0.4	0.2
	대졸이하	[1,012]	18.5	81.0	0.3	0.2
	대학원이상	[60]	28.3	71.7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5.7	94.0	0.3	0.0
	블루칼라	[399]	13.8	85.5	0.5	0.3
	화이트칼라	[496]	17.7	81.7	0.2	0.4
	전업주부	[343]	10.8	88.6	0.6	0.0
	학생	[342]	28.7	71.1	0.0	0.3
	무직/기타	[70]	15.7	82.9	0.0	1.4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17.8	81.7	0.3	0.2
	보통	[781]	13.7	85.7	0.3	0.4
	무관심	[303]	12.9	86.8	0.3	0.0

계층별 상세분석

- ◆ '무르베' 응답은 충청권(성장)(89.9%), 수도권 유입(89.3%), 충청권유입(92.6%), 경상권유입(89.4%), '무르페' 응답은 강원/제주(거주)(25.8%), 강원/제주(성장)(24.7%) 등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임

■ 표209.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무릎에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무르페	무르베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15.4	84.0	0.3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14.8	84.6	0.3	0.2
	충청권(거주)	[164]	11.6	88.4	0.0	0.0
	전라권(거주)	[155]	11.0	88.4	0.6	0.0
	경상권(거주)	[414]	18.8	80.7	0.2	0.2
	강원/제주(거주)	[66]	25.8	72.7	0.0	1.5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16.3	83.0	0.3	0.3
	충청권(성장)	[247]	10.1	89.9	0.0	0.0
	전라권(성장)	[273]	11.4	87.9	0.7	0.0
	경상권(성장)	[512]	17.2	82.6	0.0	0.2
	강원/제주(성장)	[85]	24.7	72.9	1.2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16.6	82.7	0.4	0.4
	수도권 유입	[345]	10.4	89.3	0.3	0.0
	지방토박이	[772]	16.7	82.8	0.3	0.3
	지방유입	[27]	7.4	92.6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7.4	92.6	0.0	0.0
	전라권유입	[114]	12.3	87.7	0.0	0.0
	경상권유입	[113]	10.6	89.4	0.0	0.0
	강원/제주유입	[23]	13.0	82.6	4.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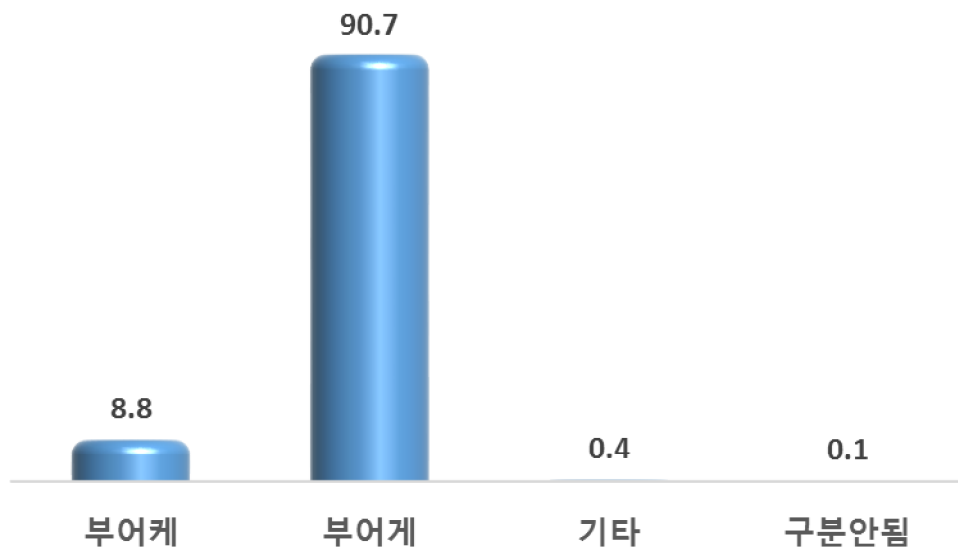
2.8.6 부엌에

전체 분석

- ◆ (부엌에)부엌에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부어게' 응답이 90.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어케' 응답은 8.8%에 불과했음

■ 그림102. 체언 어간변화 : 부엌에 ■

(단위 : %)



문24-1

(부엌에)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인기척이 났다.

계층별 상세분석

- ◆ '부어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40대(93.4%), 자영업(95.4%), '부어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15.2%) 등으로 나타남

■ 표210.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부어게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부어게	부어게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8	90.7	0.4	0.1
성별	남성	[1,014]	8.4	91.1	0.5	0.0
	여성	[986]	9.3	90.3	0.2	0.2
연령별	만 15-19 세	[161]	9.3	89.4	1.2	0.0
	20 대	[342]	15.2	84.5	0.3	0.0
	30 대	[386]	7.5	92.2	0.3	0.0
	40 대	[439]	6.2	93.4	0.5	0.0
	50 대	[417]	7.2	92.3	0.2	0.2
	60 대	[255]	9.4	90.2	0.0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13.8	83.8	1.2	1.2
	고졸이하	[848]	7.4	92.0	0.5	0.1
	대졸이하	[1,012]	9.4	90.4	0.2	0.0
	대학원이상	[60]	13.3	86.7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4.3	95.4	0.3	0.0
	블루칼라	[399]	9.0	90.5	0.3	0.3
	화이트칼라	[496]	9.1	90.7	0.2	0.0
	전업주부	[343]	9.0	90.7	0.0	0.3
	학생	[342]	12.6	86.8	0.6	0.0
	무직/기타	[70]	10.0	87.1	2.9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9.6	90.2	0.1	0.1
	보통	[781]	7.6	92.1	0.4	0.0
	무관심	[303]	9.9	88.8	1.0	0.3

계층별 상세분석

- ◆ '부어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96.1%), 충청권유입(95.8%), '부어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12.1%) 등으로 나타남

표211.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부어게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부어게	부어게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8	90.7	0.4	0.1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10.4	89.1	0.4	0.1
	충청권(거주)	[164]	6.7	93.3	0.0	0.0
	전라권(거주)	[155]	3.9	96.1	0.0	0.0
	경상권(거주)	[414]	6.5	93.0	0.2	0.2
	강원/제주(거주)	[66]	12.1	86.4	1.5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11.4	87.9	0.6	0.1
	충청권(성장)	[247]	5.3	94.7	0.0	0.0
	전라권(성장)	[273]	6.6	93.4	0.0	0.0
	경상권(성장)	[512]	6.8	92.8	0.2	0.2
	강원/제주(성장)	[85]	11.8	87.1	1.2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11.7	87.6	0.6	0.1
	수도권 유입	[345]	7.2	92.8	0.0	0.0
	지방토박이	[772]	6.6	93.0	0.3	0.1
	지방유입	[27]	3.7	96.3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2	95.8	0.0	0.0
	전라권유입	[114]	10.5	89.5	0.0	0.0
	경상권유입	[113]	6.2	93.8	0.0	0.0
	강원/제주유입	[23]	8.7	91.3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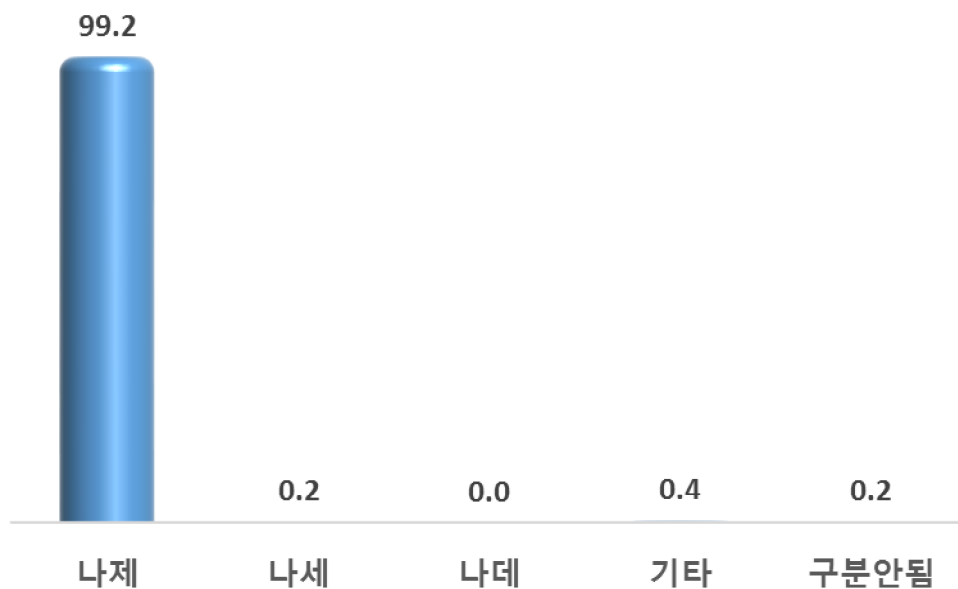
2.8.7 낮에

전체 분석

- ◆ (낮에)낮에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나제' 응답이 99.2%로 가장 높았던 반면, '나세' 응답은 0.2%에 불과했음

■ 그림103. 체언 어간변화 : 낮에 ■

(단위 : %)



문38-1

(낮에)오늘 낮에는 태양이 뜨겁게 작열했다.

계층별 상세분석

◆ 계층 전반에서 '나제' 발음에 대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212.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낮에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나제	나세	나데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99.2	0.2	0.0	0.4	0.2
성별	남성	[1,014]	98.8	0.2	0.0	0.8	0.2
	여성	[986]	99.7	0.1	0.1	0.0	0.1
연령별	만 15~19 세	[161]	98.1	1.2	0.0	0.0	0.6
	20 대	[342]	99.1	0.0	0.3	0.6	0.0
	30 대	[386]	98.7	0.0	0.0	1.0	0.3
	40 대	[439]	99.5	0.0	0.0	0.2	0.2
	50 대	[417]	99.8	0.2	0.0	0.0	0.0
	60 대	[255]	99.6	0.0	0.0	0.4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100.0	0.0	0.0	0.0	0.0
	고졸이하	[848]	99.3	0.2	0.0	0.2	0.2
	대졸이하	[1,012]	99.1	0.1	0.1	0.6	0.1
	대학원이상	[60]	100.0	0.0	0.0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99.1	0.3	0.0	0.3	0.3
	블루칼라	[399]	99.5	0.0	0.0	0.5	0.0
	화이트칼라	[496]	98.8	0.0	0.2	0.8	0.2
	전업주부	[343]	100.0	0.0	0.0	0.0	0.0
	학생	[342]	98.8	0.6	0.0	0.3	0.3
	무직/기타	[70]	100.0	0.0	0.0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99.2	0.2	0.0	0.3	0.2
	보통	[781]	99.0	0.1	0.1	0.6	0.1
	무관심	[303]	100.0	0.0	0.0	0.0	0.0

계층별 상세분석

◆ 계층 전반에서 '나제' 발음에 대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213.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낮에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나제	나세	나데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99.2	0.2	0.0	0.4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99.2	0.2	0.0	0.6	0.1
	충청권(거주)	[164]	99.4	0.0	0.0	0.0	0.6
	전라권(거주)	[155]	100.0	0.0	0.0	0.0	0.0
	경상권(거주)	[414]	99.0	0.2	0.2	0.2	0.2
	강원/제주(거주)	[66]	100.0	0.0	0.0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98.9	0.2	0.0	0.8	0.1
	충청권(성장)	[247]	99.6	0.0	0.0	0.0	0.4
	전라권(성장)	[273]	100.0	0.0	0.0	0.0	0.0
	경상권(성장)	[512]	99.2	0.2	0.2	0.2	0.2
	강원/제주(성장)	[85]	100.0	0.0	0.0	0.0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98.8	0.2	0.0	0.8	0.1
	수도권 유입	[345]	100.0	0.0	0.0	0.0	0.0
	지방토박이	[772]	99.4	0.1	0.1	0.1	0.3
	지방유입	[27]	100.0	0.0	0.0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100.0	0.0	0.0	0.0	0.0
	전라권유입	[114]	100.0	0.0	0.0	0.0	0.0
	경상권유입	[113]	100.0	0.0	0.0	0.0	0.0
	강원/제주유입	[23]	10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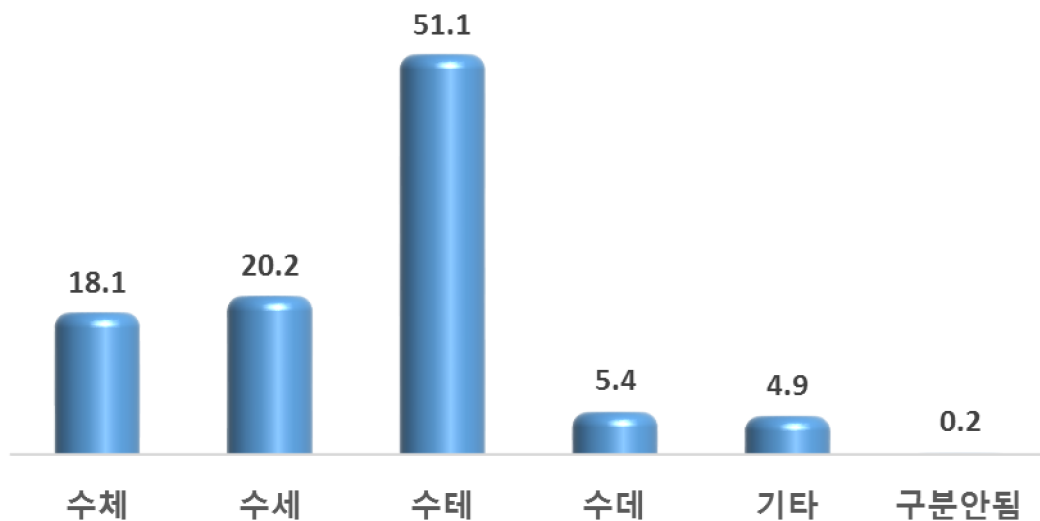
2.8.8 솟에

전체 분석

- ◆ (솟에)솟에 발음에 대한 조사 결과, '수테' 응답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수세' 20.2%, '수체' 18.1%, '수데' 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104. 체언 어간변화 : 솟에 ■

(단위 : %)



문40-1

(솟에)이 솟에서는 연기가 많이 난다고 값을 깎았다.

계층별 상세분석

- ◆ '수테' 응답은 50대(57.8%), 60대(57.6%), '수세' 응답은 남성(23.1%), 만15-19세(29.2%), '수체' 응답은 만15-19세(24.8%), 20대(30.4%), 대학원이상(23.3%), 학생(31.0%)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표214.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숫에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수체	수세	수테	수데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18.1	20.2	51.1	5.4	4.9	0.2
성별	남성	[1,014]	18.5	23.1	47.0	6.2	4.8	0.3
	여성	[986]	17.6	17.3	55.3	4.6	5.0	0.2
연령별	만 15-19 세	[161]	24.8	29.2	42.2	1.2	2.5	0.0
	20 대	[342]	30.4	20.5	44.2	2.0	2.9	0.0
	30 대	[386]	22.0	23.3	45.3	5.4	3.4	0.5
	40 대	[439]	11.6	20.7	54.7	7.1	5.7	0.2
	50 대	[417]	13.4	17.7	57.8	6.2	4.6	0.2
	60 대	[255]	10.2	12.9	57.6	8.2	10.6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16.2	13.8	51.2	7.5	11.2	0.0
	고졸이하	[848]	13.9	21.5	54.0	5.4	4.8	0.4
	대졸이하	[1,012]	21.4	19.9	48.7	5.2	4.5	0.2
	대학원이상	[60]	23.3	18.3	50.0	5.0	3.3	0.0
직업별	자영업	[350]	10.9	19.7	52.3	8.6	7.7	0.9
	블루칼라	[399]	14.5	22.1	53.9	4.0	5.3	0.3
	화이트칼라	[496]	19.8	19.8	51.2	6.5	2.6	0.2
	전업주부	[343]	15.7	14.6	56.6	6.4	6.7	0.0
	학생	[342]	31.0	23.7	41.5	1.2	2.6	0.0
	무직/기타	[70]	11.4	27.1	48.6	5.7	7.1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19.8	19.2	51.5	5.1	4.0	0.3
	보통	[781]	18.1	20.4	49.6	6.3	5.6	0.1
	무관심	[303]	13.2	23.1	53.8	4.0	5.6	0.3

계층별 상세분석

- ◆ 계층별 분석에서 '수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57.6%), '수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거주)(26.8%) 등으로 나타남

■ 표215.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숫에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수체	수세	수태	수데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18.1	20.2	51.1	5.4	4.9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18.3	21.3	50.0	4.7	5.4	0.3
	충청권(거주)	[164]	12.8	26.8	50.0	5.5	4.9	0.0
	전라권(거주)	[155]	15.5	16.1	52.9	12.9	1.9	0.6
	경상권(거주)	[414]	20.8	16.7	53.1	5.1	4.3	0.0
	강원/제주(거주)	[66]	16.7	16.7	57.6	3.0	6.1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19.8	22.0	48.6	4.2	5.1	0.3
	충청권(성장)	[247]	13.4	24.3	51.4	4.9	6.1	0.0
	전라권(성장)	[273]	14.3	17.9	53.8	10.3	2.9	0.7
	경상권(성장)	[512]	19.7	17.0	53.5	5.1	4.7	0.0
	강원/제주(성장)	[85]	16.5	17.6	52.9	5.9	7.1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19.7	21.8	48.9	4.0	5.1	0.4
	수도권 유입	[345]	14.8	20.0	52.5	6.4	6.1	0.3
	지방토박이	[772]	17.6	18.4	53.4	6.3	4.1	0.1
	지방유입	[27]	22.2	25.9	37.0	11.1	3.7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13.7	20.0	52.6	5.3	8.4	0.0
	전라권유입	[114]	14.0	19.3	51.8	9.6	4.4	0.9
	경상권유입	[113]	15.9	20.4	54.0	4.4	5.3	0.0
	강원/제주유입	[23]	17.4	21.7	47.8	4.3	8.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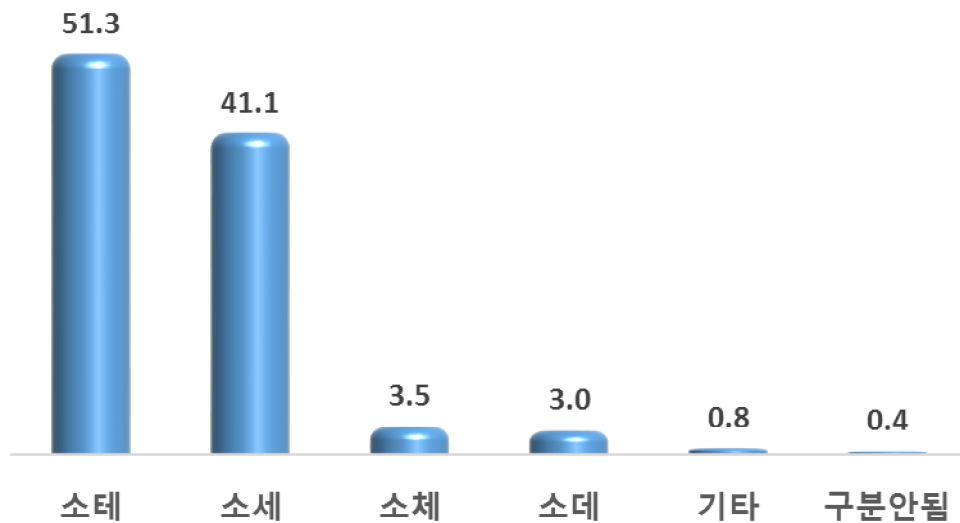
2.8.9 솔에

전체 분석

- ◆ (솔에)솔에 항목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 '소테' 응답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세' 응답이 41.1%로 나타남

■ 그림105. 체언 어간변화 : 솔에 ■

(단위 : %)



문37-1

(솔에)엄청나게 큰 솔에 닭을 넣고 있다.

계층별 상세분석

- ◆ '소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66.3%), 중졸이하(66.2%), 전업주부(63.6%), '소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51.6%), 20대(47.4%), 학생(47.1%) 등으로 나타남

표216.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솔에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소테	소세	소체	소데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1.3	41.1	3.5	3.0	0.8	0.4
성별	남성	[1,014]	46.7	44.4	3.6	4.2	0.5	0.5
	여성	[986]	56.0	37.7	3.3	1.6	1.0	0.3
연령별	만 15-19 세	[161]	36.6	51.6	4.3	6.8	0.6	0.0
	20 대	[342]	45.3	47.4	3.2	2.9	0.9	0.3
	30 대	[386]	47.9	45.9	3.1	1.8	0.5	0.8
	40 대	[439]	48.5	45.1	2.7	3.0	0.2	0.5
	50 대	[417]	58.8	32.6	5.0	2.2	1.2	0.2
	60 대	[255]	66.3	25.9	2.7	3.5	1.2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66.2	23.8	3.8	5.0	1.2	0.0
	고졸이하	[848]	52.2	39.3	4.2	2.9	0.8	0.5
	대졸이하	[1,012]	49.5	43.8	3.0	2.8	0.6	0.4
	대학원이상	[60]	48.3	45.0	1.7	3.3	1.7	0.0
직업별	자영업	[350]	53.1	36.9	4.9	3.4	1.4	0.3
	블루칼라	[399]	50.4	42.4	3.5	2.5	0.8	0.5
	화이트칼라	[496]	48.2	46.4	2.4	2.2	0.2	0.6
	전업주부	[343]	63.6	30.0	3.2	2.0	0.9	0.3
	학생	[342]	42.7	47.1	4.4	5.0	0.6	0.3
	무직/기타	[70]	51.4	42.9	1.4	2.9	1.4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51.9	40.0	3.9	3.4	0.5	0.3
	보통	[781]	49.7	42.8	3.2	2.9	0.9	0.5
	무관심	[303]	53.8	40.3	3.0	1.7	1.0	0.3

계층별 상세분석

- ◆ '소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경상권(성장)(61.1%), 수도권 유입(58.8%), 전라권 유입(59.6%), 경상권유입(71.7%), '소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성장)(48.9%), 충청권(성장)(49.0%), 충청권유입(51.6%) 등으로 나타남

■ 표217.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솔에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소테	소세	소체	소대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1.3	41.1	3.5	3.0	0.8	0.4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9.0	44.0	3.0	2.9	0.5	0.6
	충청권(거주)	[164]	46.3	48.2	0.6	4.9	0.0	0.0
	전라권(거주)	[155]	53.5	41.3	0.6	3.9	0.6	0.0
	경상권(거주)	[414]	58.2	30.7	7.2	1.9	1.7	0.2
	강원/제주(거주)	[66]	56.1	36.4	3.0	3.0	1.5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4.8	48.9	3.1	2.6	0.3	0.2
	충청권(성장)	[247]	45.3	49.0	0.8	3.6	0.0	1.2
	전라권(성장)	[273]	57.1	34.4	2.2	5.9	0.4	0.0
	경상권(성장)	[512]	61.1	28.1	6.4	2.0	2.0	0.4
	강원/제주(성장)	[85]	57.6	36.5	2.4	1.2	1.2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5.1	48.7	2.9	2.7	0.4	0.2
	수도권 유입	[345]	58.8	32.2	3.2	3.5	0.9	1.4
	지방토박이	[772]	55.3	36.1	4.1	3.1	1.2	0.1
	지방유입	[27]	37.0	55.6	7.4	0.0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2.1	51.6	1.1	2.1	0.0	3.2
	전라권유입	[114]	59.6	29.8	4.4	6.1	0.0	0.0
	경상권유입	[113]	71.7	18.6	3.5	2.7	2.7	0.9
	강원/제주유입	[23]	60.9	30.4	4.3	0.0	0.0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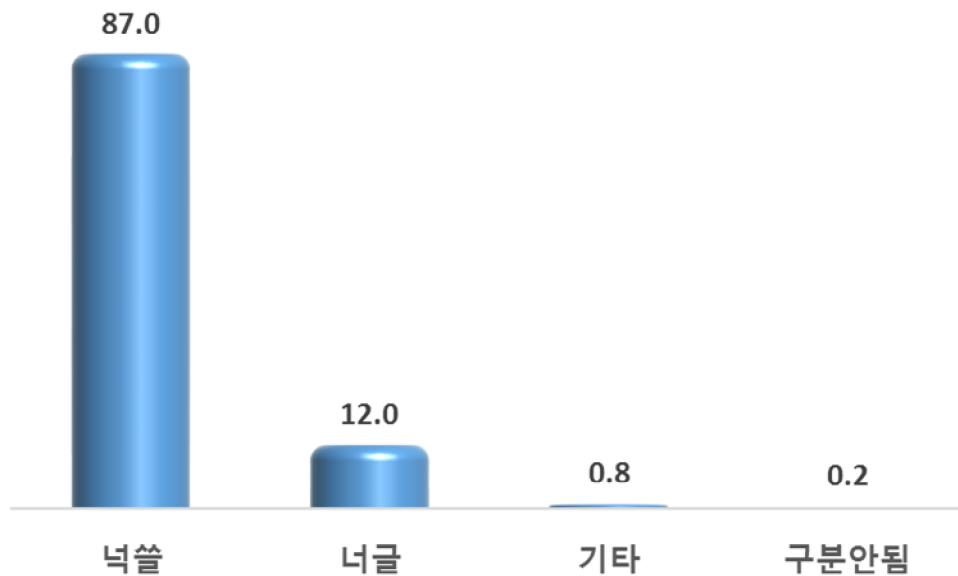
2.8.10 녀을

전체 분석

- ◆ (녀을)녀을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넉쓸' 응답이 87.0%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너글' 응답은 12.0%로 조사됨

■ 그림106. 체언 어간변화 : 녀을 ■

(단위 : %)



문3-1

(녀을)그는 녀을 잃고 밤새 바깥만 바라보고 있었다.

계층별 상세분석

- ◆ '넉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성(91.0%), 20대(92.4%), 30대(93.3%), 대학원 이상(93.3%), 화이트칼라(92.1%), '너글' 응답은 60대(19.2%), 중졸이하(28.8%), 자영업(20.3%)에게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임

■ 표218.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뉘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넉쓸	너글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7.0	12.0	0.8	0.2
성별	남성	[1,014]	83.0	15.7	1.0	0.3
	여성	[986]	91.0	8.1	0.7	0.2
연령별	만 15-19 세	[161]	85.7	13.0	1.2	0.0
	20 대	[342]	92.4	6.4	0.9	0.3
	30 대	[386]	93.3	5.4	1.0	0.3
	40 대	[439]	87.5	11.8	0.2	0.5
	50 대	[417]	81.3	17.7	0.7	0.2
	60 대	[255]	79.2	19.2	1.6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68.8	28.8	2.5	0.0
	고졸이하	[848]	84.4	14.2	1.1	0.4
	대졸이하	[1,012]	90.1	9.1	0.6	0.2
	대학원이상	[60]	93.3	6.7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77.7	20.3	1.4	0.6
	블루칼라	[399]	85.7	13.0	1.0	0.3
	화이트칼라	[496]	92.1	7.3	0.4	0.2
	전업주부	[343]	88.6	11.1	0.3	0.0
	학생	[342]	90.1	8.5	1.2	0.3
	무직/기타	[70]	80.0	18.6	1.4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89.2	9.7	0.8	0.3
	보통	[781]	85.4	13.6	0.8	0.3
	무관심	[303]	84.2	14.5	1.3	0.0

계층별 상세분석

- ◆ '넉쓸' 응답은 수도권(성장)(89.4%), 수도권 토박이(89.8%), '너글' 응답은 전라권(성장)(17.9%), 수도권 유입(17.4%), 전라권유입(23.7%) 등으로 나타남

■ 표219.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뉘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넉쓸	너글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7.0	12.0	0.8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87.3	11.8	0.7	0.2
	충청권(거주)	[164]	82.3	15.9	1.2	0.6
	전라권(거주)	[155]	87.1	11.6	0.6	0.6
	경상권(거주)	[414]	88.2	10.6	1.0	0.2
	강원/제주(거주)	[66]	84.8	13.6	1.5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89.4	10.0	0.7	0.0
	충청권(성장)	[247]	81.4	16.6	0.8	1.2
	전라권(성장)	[273]	81.0	17.9	0.7	0.4
	경상권(성장)	[512]	88.7	10.0	1.2	0.2
	강원/제주(성장)	[85]	87.1	11.8	1.2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89.8	9.6	0.6	0.0
	수도권 유입	[345]	80.9	17.4	1.2	0.6
	지방토박이	[772]	86.9	11.8	0.9	0.4
	지방유입	[27]	74.1	22.2	3.7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81.1	16.8	0.0	2.1
	전라권유입	[114]	75.4	23.7	0.9	0.0
	경상권유입	[113]	85.0	12.4	2.7	0.0
	강원/제주유입	[23]	87.0	13.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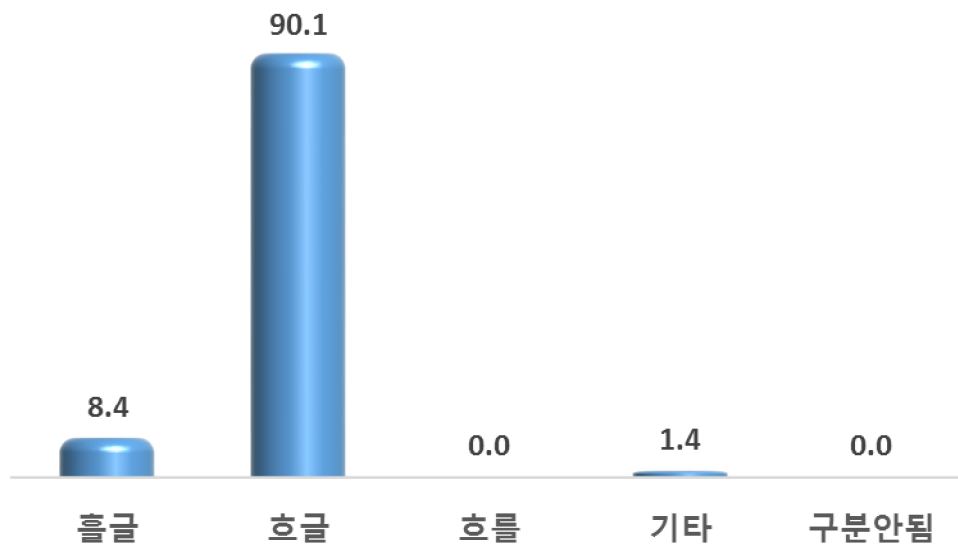
2.8.11 흠을

전체 분석

- ◆ (흠을)흠을 발음에 대한 조사 결과, '흐글' 응답이 90.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흠글' 응답이 8.4%로 조사됨

■ 그림107. 체언 어간변화 : 흠을 ■

(단위 : %)



문41-1

(흠을)축축한 흠을 밟고 있다.

계층별 상세분석

- ◆ '흐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93.0%), '흘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60대(12.2%), 대학원이상(16.7%), 전업주부(12.0%) 등으로 나타남

■ 표220.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흘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흘글	흐글	흐를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4	90.1	0.0	1.4	0.0
성별	남성	[1,014]	7.3	91.2	0.0	1.4	0.1
	여성	[986]	9.5	88.9	0.1	1.4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5.0	93.8	0.0	1.2	0.0
	20 대	[342]	6.7	93.0	0.0	0.3	0.0
	30 대	[386]	7.3	91.2	0.0	1.6	0.0
	40 대	[439]	9.8	88.8	0.0	1.1	0.2
	50 대	[417]	8.4	90.2	0.0	1.4	0.0
	60 대	[255]	12.2	84.3	0.4	3.1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10.0	86.2	1.2	2.5	0.0
	고졸이하	[848]	8.3	89.6	0.0	2.0	0.1
	대졸이하	[1,012]	7.9	91.4	0.0	0.7	0.0
	대학원이상	[60]	16.7	80.0	0.0	3.3	0.0
직업별	자영업	[350]	6.6	92.3	0.0	1.1	0.0
	블루칼라	[399]	8.0	89.7	0.0	2.3	0.0
	화이트칼라	[496]	9.1	89.7	0.0	1.0	0.2
	전업주부	[343]	12.0	86.6	0.3	1.2	0.0
	학생	[342]	6.1	92.7	0.0	1.2	0.0
	무직/기타	[70]	8.6	88.6	0.0	2.9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9.4	89.4	0.0	1.1	0.1
	보통	[781]	7.3	91.2	0.0	1.5	0.0
	무관심	[303]	8.3	89.4	0.3	2.0	0.0

계층별 상세분석

- ◆ '흐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성장)(92.9%), '홀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 유입(11.6%), 전라권유입(11.4%), 경상권유입(14.2%) 등으로 나타남

■ 표221. 응답자 특성 : 체언 어간변화 : 흠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흠글	홀글	흐를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8.4	90.1	0.0	1.4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8.5	90.6	0.0	0.8	0.1
	충청권(거주)	[164]	6.7	91.5	0.0	1.8	0.0
	전라권(거주)	[155]	6.5	92.9	0.0	0.6	0.0
	경상권(거주)	[414]	9.7	87.0	0.2	3.1	0.0
	강원/제주(거주)	[66]	7.6	90.9	0.0	1.5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7.4	91.7	0.0	0.8	0.1
	충청권(성장)	[247]	8.5	90.3	0.0	1.2	0.0
	전라권(성장)	[273]	8.1	91.6	0.0	0.4	0.0
	경상권(성장)	[512]	10.7	85.9	0.2	3.1	0.0
	강원/제주(성장)	[85]	5.9	92.9	0.0	1.2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7.2	91.9	0.0	0.7	0.1
	수도권 유입	[345]	11.6	87.2	0.0	1.2	0.0
	지방토박이	[772]	8.2	89.5	0.1	2.2	0.0
	지방유입	[27]	11.1	85.2	0.0	3.7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10.5	89.5	0.0	0.0	0.0
	전라권유입	[114]	11.4	88.6	0.0	0.0	0.0
	경상권유입	[113]	14.2	82.3	0.0	3.5	0.0
	강원/제주유입	[23]	4.3	95.7	0.0	0.0	0.0

2.9 용언 어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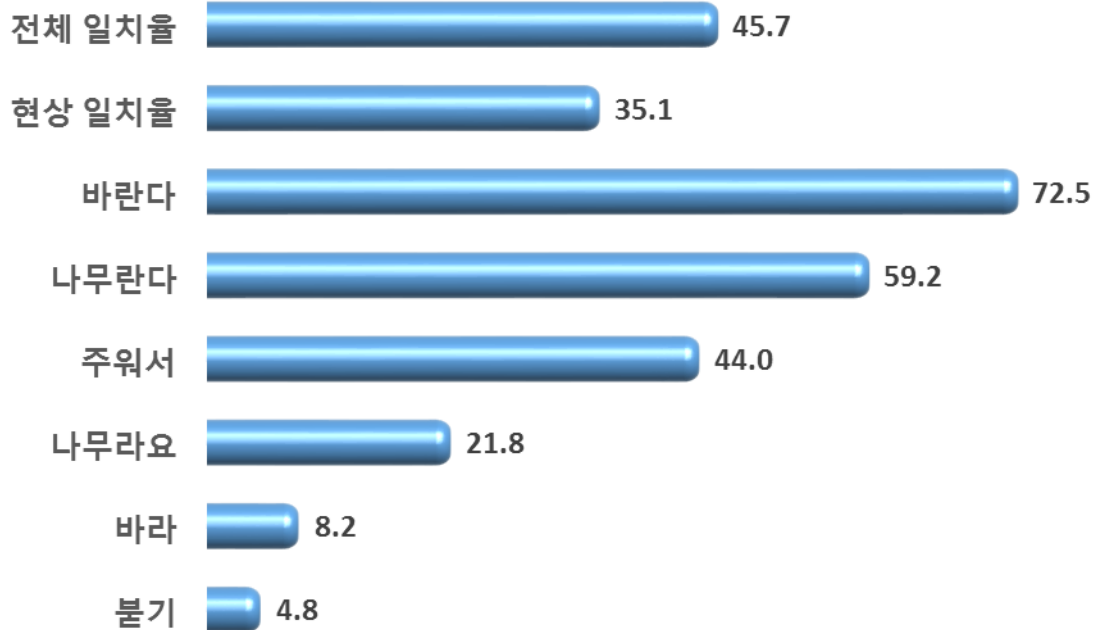
2.9.1 용언 어간 변화_표준발음 일치율

전체 분석

- ◆ 용언 어간 변화 현상 일치율은 전체 대비 10%p 이상 낮게 나타남. 한편, 개별 항목 별로 '바란다' 항목에 대한 일치율이 7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무란다' 응답이 59.2%, '주워서' 응답이 4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108. 표준발음 일치율 ■

(단위 : %)



문

해당없음

계층별 상세분석

- ◆ '바란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81.9%), 학생(82.4%), '나무란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64.7%), '주워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대학원이상(65.0%) 등으로 나타남

■ 표222.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제 일치율	현상 일치율	주워서	불기	나무 라요	나무 란다	바라	바란다
[전 체]		[2,000]	45.7	35.1	44.0	4.8	21.8	59.2	8.2	72.5
성별	남성	[1,014]	45.1	34.5	44.3	4.6	19.2	60.5	8.4	69.8
	여성	[986]	46.4	35.7	43.7	4.9	24.6	57.9	8.0	75.3
연령별	만 15-19 세	[161]	44.0	37.9	41.0	1.2	37.9	57.8	8.1	81.9
	20 대	[342]	46.8	41.5	50.0	1.5	40.6	64.7	16.1	76.6
	30 대	[386]	46.7	36.5	50.8	2.6	21.2	58.3	11.2	74.6
	40 대	[439]	46.0	32.7	44.9	5.7	16.9	55.6	4.3	68.6
	50 대	[417]	45.0	32.1	38.4	7.2	13.0	60.9	3.6	69.3
	60 대	[255]	44.6	31.8	35.4	9.0	10.2	57.6	7.6	70.2
학력별	중졸이하	[80]	44.1	31.5	33.8	7.5	19.0	51.2	7.9	67.5
	고졸이하	[848]	44.7	32.3	38.1	5.4	17.7	57.5	5.1	69.8
	대졸이하	[1,012]	46.6	37.5	48.5	4.0	25.7	61.6	10.5	75.0
	대학원이상	[60]	47.9	38.9	65.0	5.0	18.3	53.3	15.0	76.7
직업별	자영업	[350]	44.6	31.7	41.5	6.6	10.9	60.6	6.0	64.3
	블루칼라	[399]	44.5	32.4	38.8	5.5	17.3	56.8	5.5	70.7
	화이트칼라	[496]	46.9	35.8	46.0	4.3	24.4	58.5	9.7	72.0
	전업주부	[343]	46.7	33.8	44.9	6.4	15.8	56.6	5.0	73.8
	학생	[342]	45.9	41.6	47.4	0.9	41.2	63.6	14.6	82.4
	무직/기타	[70]	45.2	37.2	51.4	5.7	18.6	62.9	8.8	74.3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46.4	35.9	43.4	5.0	23.7	59.3	9.3	74.4
	보통	[781]	45.6	35.0	45.6	4.2	21.3	59.9	7.6	71.4
	무관심	[303]	43.9	33.0	41.9	5.3	17.5	57.0	6.6	69.6

계층별 상세분석

- ◆ '바란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성장)(81.2%), '나무란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유입(65.8%), '주워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유입(57.0%), 경상권유입(54.0%) 등으로 나타남

표223.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일치율	현상 일치율	주워서	분기	나무 라요	나무 란다	바라	바란다
[전 체]		[2,000]	45.7	35.1	44.0	4.8	21.8	59.2	8.2	72.5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6.1	35.4	46.4	4.4	21.3	60.1	8.8	71.3
	충청권(거주)	[164]	46.5	33.3	32.3	3.7	23.2	62.2	5.5	73.2
	전라권(거주)	[155]	47.9	33.4	38.7	2.6	23.9	50.3	10.3	74.8
	경상권(거주)	[414]	43.8	35.6	43.5	7.5	22.2	59.2	7.3	74.2
	강원/제주(거주)	[66]	44.8	34.9	45.5	1.5	20.0	56.1	6.5	77.3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6.1	36.0	43.9	3.7	24.3	60.5	11.0	72.8
	충청권(성장)	[247]	46.1	32.4	38.9	4.9	18.6	56.5	5.3	70.4
	전라권(성장)	[273]	48.1	33.9	46.9	3.3	19.4	55.7	7.0	71.4
	경상권(성장)	[512]	43.9	35.5	45.7	7.8	20.7	60.4	6.1	72.3
	강원/제주(성장)	[85]	44.5	34.7	41.2	1.2	20.2	57.6	4.9	8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6.1	36.1	44.3	3.9	24.0	60.6	11.0	72.7
	수도권 유입	[345]	46.1	33.7	51.6	5.8	14.8	59.0	3.2	67.8
	지방토박이	[772]	45.2	34.7	40.8	5.4	22.2	57.8	7.3	74.4
	지방유입	[27]	45.7	35.2	29.6	0.0	33.3	59.3	12.0	74.1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5.1	30.1	45.3	6.3	11.6	48.9	4.3	64.2
	전라권유입	[114]	48.7	35.4	57.0	3.5	14.9	65.8	3.5	67.5
	경상권유입	[113]	44.4	34.8	54.0	8.8	15.0	61.1	1.8	68.1
	강원/제주유입	[23]	44.8	34.8	39.1	0.0	26.1	56.5	4.3	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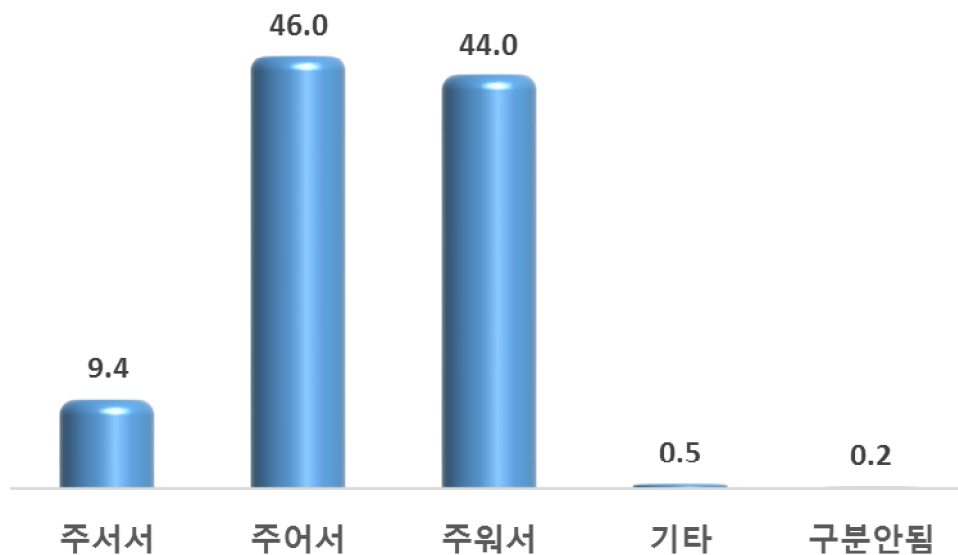
2.9.2 주워서

전체 분석

- ◆ (주서서/주어서/주워서/줍어서) 주워서 발음에 대한 조사 결과, '주어서' 응답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주워서' 응답이 44.0%, '주서서' 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109. 용언 어간변화 : 주워서 ■

(단위 : %)



문34

(주워서)저 지갑 (주서서/주어서/주워서/줍어서) 주인 찾아 주자.

계층별 상세분석

- ◆ '주어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52.0%), '주워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50.0%), 30대(50.8%), 대학원이상(65.0%) 등으로 나타남

표224.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주워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주서서	주어서	주워서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9.4	46.0	44.0	0.5	0.2
성별	남성	[1,014]	11.2	43.5	44.2	0.8	0.3
	여성	[986]	7.6	48.5	43.7	0.2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11.2	47.8	41.0	0.0	0.0
	20 대	[342]	5.6	44.4	50.0	0.0	0.0
	30 대	[386]	10.1	38.9	50.8	0.3	0.0
	40 대	[439]	9.6	44.9	44.6	0.5	0.5
	50 대	[417]	8.6	52.0	38.4	1.0	0.0
	60 대	[255]	13.7	49.4	35.3	1.2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16.2	50.0	33.8	0.0	0.0
	고졸이하	[848]	10.3	50.5	38.1	1.1	0.1
	대졸이하	[1,012]	8.7	42.7	48.4	0.0	0.2
	대학원이상	[60]	1.7	31.7	65.0	1.7	0.0
직업별	자영업	[350]	9.7	47.4	41.4	1.1	0.3
	블루칼라	[399]	12.5	47.6	38.8	1.0	0.0
	화이트칼라	[496]	9.1	44.6	45.8	0.2	0.4
	전업주부	[343]	7.3	47.8	44.9	0.0	0.0
	학생	[342]	7.9	44.7	47.4	0.0	0.0
	무직/기타	[70]	11.4	35.7	51.4	1.4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8.8	46.9	43.2	0.7	0.3
	보통	[781]	9.2	44.8	45.6	0.4	0.0
	무관심	[303]	11.9	45.9	41.9	0.3	0.0

계층별 상세분석

- ◆ '주어서' 응답은 충청권(거주)(60.4%), 충청권(성장)(53.4%), 지방토박이(51.4%), '주워서' 응답은 전라권유입(57.0%), 경상권유입(54.0%)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표225.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주워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주서서	주어서	주워서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9.4	46.0	44.0	0.5	0.2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10.7	42.1	46.3	0.7	0.2
	충청권(거주)	[164]	7.3	60.4	32.3	0.0	0.0
	전라권(거주)	[155]	9.7	51.0	38.7	0.6	0.0
	경상권(거주)	[414]	6.3	50.2	43.5	0.0	0.0
	강원/제주(거주)	[66]	12.1	40.9	45.5	1.5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11.8	43.7	43.7	0.5	0.3
	충청권(성장)	[247]	6.5	53.4	38.9	1.2	0.0
	전라권(성장)	[273]	8.4	44.0	46.9	0.7	0.0
	경상권(성장)	[512]	7.2	47.1	45.7	0.0	0.0
	강원/제주(성장)	[85]	10.6	47.1	41.2	1.2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11.8	43.2	44.2	0.5	0.4
	수도권 유입	[345]	7.8	39.4	51.6	1.2	0.0
	지방토박이	[772]	7.5	51.4	40.8	0.3	0.0
	지방유입	[27]	11.1	59.3	29.6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6.3	45.3	45.3	3.2	0.0
	전라권유입	[114]	6.1	36.0	57.0	0.9	0.0
	경상권유입	[113]	10.6	35.4	54.0	0.0	0.0
	강원/제주유입	[23]	8.7	52.2	39.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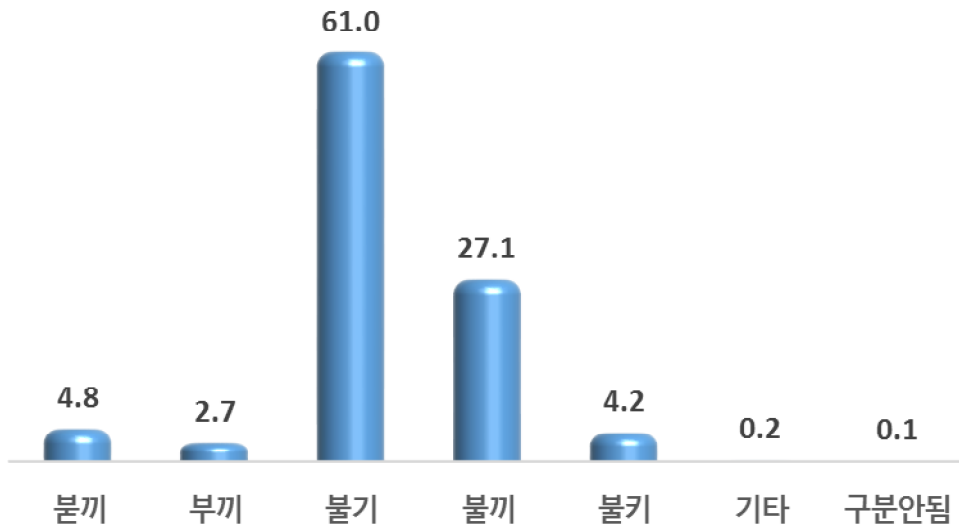
2.9.3 불기

전체 분석

- ◆ (불기/불기) 불기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 '불기' 응답이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불끼' 응답이 27.1%, '불끼' 4.8%, '부끼' 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110. 용언 어간변화 : 불기 ■

(단위 : %)



문35

(불기)라면이 (불기/불기) 전에 얼른 먹어.

계층별 상세분석

- ◆ '불기'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84.5%), 20대(80.4%), 대학원이상(71.7%), 학생(85.1%), '불끼'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대(36.2%), 60대(40.8%), 전업주부(38.5%) 등으로 나타남

■ 표226.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불기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불끼	부끼	불기	불끼	불기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4.8	2.7	61.0	27.1	4.2	0.2	0.1
성별	남성	[1,014]	4.6	2.2	66.5	23.5	3.1	0.1	0.1
	여성	[986]	4.9	3.2	55.5	30.8	5.3	0.2	0.1
연령별	만 15-19 세	[161]	1.2	1.9	84.5	11.8	0.6	0.0	0.0
	20 대	[342]	1.5	0.3	80.4	15.2	2.3	0.3	0.0
	30 대	[386]	2.6	1.0	68.9	23.1	4.4	0.0	0.0
	40 대	[439]	5.7	2.5	57.2	28.9	5.2	0.0	0.5
	50 대	[417]	7.2	4.3	47.7	36.2	4.3	0.2	0.0
	60 대	[255]	9.0	6.7	36.9	40.8	6.3	0.4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7.5	8.8	43.8	30.0	8.8	1.2	0.0
	고졸이하	[848]	5.4	2.9	54.6	32.1	4.6	0.1	0.2
	대졸이하	[1,012]	4.0	2.1	67.2	23.0	3.7	0.1	0.0
	대학원이상	[60]	5.0	1.7	71.7	21.7	0.0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6.6	4.0	51.7	31.1	6.3	0.3	0.0
	블루칼라	[399]	5.5	2.0	61.4	25.8	5.0	0.3	0.0
	화이트칼라	[496]	4.2	2.0	62.1	28.6	2.4	0.2	0.4
	전업주부	[343]	6.4	4.4	44.6	38.5	6.1	0.0	0.0
	학생	[342]	0.9	1.2	85.1	10.8	2.0	0.0	0.0
	무직/기타	[70]	5.7	4.3	61.4	27.1	1.4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5.0	1.9	63.0	26.1	3.8	0.1	0.1
	보통	[781]	4.2	2.9	61.2	26.9	4.6	0.1	0.0
	무관심	[303]	5.3	4.6	54.8	30.7	4.0	0.3	0.3

계층별 상세분석

- ◆ '불기'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71.6%), 수도권(성장)(67.3%), 수도권 토박이(66.8%), '불끼'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40.9%), 강원/제주(성장)(42.4%), 경상권유입(41.6%) 등으로 나타남

표227.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불기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불기	부끼	불기	불끼	불기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4.8	2.7	61.0	27.1	4.2	0.2	0.1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4	1.7	61.7	26.4	5.5	0.2	0.1
	충청권(거주)	[164]	3.7	2.4	57.3	31.7	4.9	0.0	0.0
	전라권(거주)	[155]	2.6	2.6	71.6	20.0	3.2	0.0	0.0
	경상권(거주)	[414]	7.5	5.3	58.7	27.8	0.5	0.2	0.0
	강원/제주(거주)	[66]	1.5	4.5	48.5	40.9	3.0	0.0	1.5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3.7	0.9	67.3	22.4	5.3	0.2	0.1
	충청권(성장)	[247]	4.9	1.6	55.5	31.6	6.5	0.0	0.0
	전라권(성장)	[273]	3.3	2.6	65.2	24.9	4.0	0.0	0.0
	경상권(성장)	[512]	7.8	6.2	53.1	31.6	1.0	0.2	0.0
	강원/제주(성장)	[85]	1.2	3.5	47.1	42.4	4.7	0.0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3.9	0.8	66.8	22.8	5.4	0.2	0.1
	수도권 유입	[345]	5.8	4.1	49.0	35.4	5.8	0.0	0.0
	지방토박이	[772]	5.4	4.1	59.3	28.8	2.1	0.1	0.1
	지방유입	[27]	0.0	3.7	81.5	11.1	3.7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6.3	2.1	49.5	32.6	9.5	0.0	0.0
	전라권유입	[114]	3.5	2.6	59.6	28.9	5.3	0.0	0.0
	경상권유입	[113]	8.8	8.0	38.9	41.6	2.7	0.0	0.0
	강원/제주유입	[23]	0.0	0.0	43.5	47.8	8.7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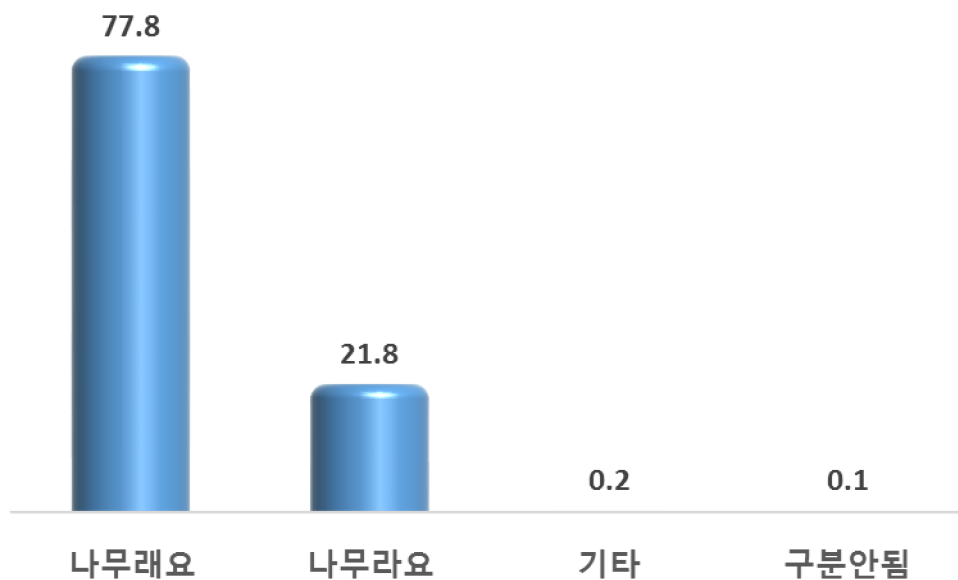
2.9.4 나무라요

전체 분석

- ◆ (나무래요/나무라요)나무라요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 '나무래요' 응답이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무라요' 응답이 21.8%로 조사됨

■ 그림111. 용언 어간변화 : 나무라요 ■

(단위 : %)



문19

(나무라요)님, 나 좀 그만 (나무래요/나무라요)

계층별 상세분석

- ◆ '나무래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성(80.4%), 40대(82.9%), 50대(86.6%), 60대(89.4%), 자영업(88.6%), 전업주부(84.0%), '나무라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37.9%), 20대(40.6%), 학생(41.2%) 등으로 나타남

표228.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나무라요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나무래요	나무라요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77.8	21.8	0.2	0.1
성별	남성	[1,014]	80.4	19.1	0.4	0.1
	여성	[986]	75.3	24.5	0.1	0.1
연령별	만 15-19 세	[161]	61.5	37.9	0.6	0.0
	20 대	[342]	59.1	40.6	0.3	0.0
	30 대	[386]	78.5	21.2	0.3	0.0
	40 대	[439]	82.9	16.9	0.2	0.0
	50 대	[417]	86.6	12.9	0.2	0.2
	60 대	[255]	89.4	10.2	0.0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80.0	18.8	0.0	1.2
	고졸이하	[848]	81.8	17.7	0.4	0.1
	대졸이하	[1,012]	74.1	25.7	0.2	0.0
	대학원이상	[60]	81.7	18.3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88.6	10.9	0.3	0.3
	블루칼라	[399]	82.5	17.3	0.3	0.0
	화이트칼라	[496]	75.4	24.4	0.2	0.0
	전업주부	[343]	84.0	15.7	0.0	0.3
	학생	[342]	58.5	41.2	0.3	0.0
	무직/기타	[70]	80.0	18.6	1.4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76.1	23.7	0.2	0.0
	보통	[781]	78.2	21.3	0.3	0.3
	무관심	[303]	82.2	17.5	0.3	0.0

계층별 상세분석

- ◆ '나무래요' 응답은 수도권 유입(85.2%), 충청권유입(88.4%), 전라권유입(85.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표229.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나무래요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나무래요	나무라요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77.8	21.8	0.2	0.1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78.5	21.3	0.1	0.1
	충청권(거주)	[164]	76.8	23.2	0.0	0.0
	전라권(거주)	[155]	75.5	23.9	0.6	0.0
	경상권(거주)	[414]	77.3	22.2	0.5	0.0
	강원/제주(거주)	[66]	77.3	19.7	1.5	1.5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75.5	24.2	0.1	0.1
	충청권(성장)	[247]	81.4	18.6	0.0	0.0
	전라권(성장)	[273]	80.2	19.4	0.4	0.0
	경상권(성장)	[512]	78.9	20.7	0.4	0.0
	강원/제주(성장)	[85]	77.6	20.0	1.2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75.8	23.9	0.1	0.1
	수도권 유입	[345]	85.2	14.8	0.0	0.0
	지방토박이	[772]	77.2	22.2	0.5	0.1
	지방유입	[27]	66.7	33.3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88.4	11.6	0.0	0.0
	전라권유입	[114]	85.1	14.9	0.0	0.0
	경상권유입	[113]	85.0	15.0	0.0	0.0
	강원/제주유입	[23]	73.9	26.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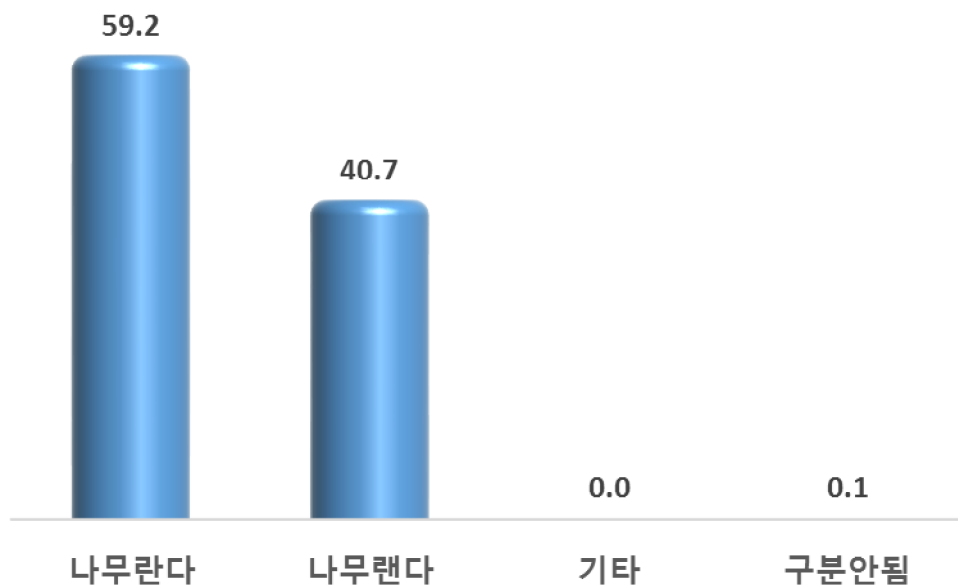
2.9.5 나무란다

전체 분석

- ◆ (나무란다/나무랜다)나무란다에 대한 조사 결과, '나무란다' 응답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던 한편, '나무랜다' 응답은 40.7%로 나타남

■ 그림112. 용언 어간변화 : 나무란다 ■

(단위 : %)



문53

(나무란다)형은 언제나 내가 잘못했다고 나만 (나무란다/나무랜다).

계층별 상세분석

- ◆ '나무란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64.3%), 대졸이하(61.5%), 학생(63.5%), 무직/기타(62.9%), '나무란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40대(44.4%), 중졸이하(47.5%), 대학원이상(46.7%) 등으로 나타남

■ 표230.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나무란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나무란다	나무랜다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9.2	40.7	0.0	0.1
성별	남성	[1,014]	60.4	39.4	0.0	0.2
	여성	[986]	57.9	42.0	0.1	0.0
연령별	만 15-19 세	[161]	57.8	42.2	0.0	0.0
	20 대	[342]	64.3	35.1	0.0	0.6
	30 대	[386]	58.3	41.7	0.0	0.0
	40 대	[439]	55.6	44.4	0.0	0.0
	50 대	[417]	60.9	39.1	0.0	0.0
	60 대	[255]	57.6	42.0	0.4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51.2	47.5	1.2	0.0
	고졸이하	[848]	57.5	42.5	0.0	0.0
	대졸이하	[1,012]	61.5	38.3	0.0	0.2
	대학원이상	[60]	53.3	46.7	0.0	0.0
직업별	자영업	[350]	60.6	39.1	0.3	0.0
	블루칼라	[399]	56.6	43.1	0.0	0.3
	화이트칼라	[496]	58.5	41.5	0.0	0.0
	전업주부	[343]	56.6	43.4	0.0	0.0
	학생	[342]	63.5	36.3	0.0	0.3
	무직/기타	[70]	62.9	37.1	0.0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59.3	40.6	0.0	0.1
	보통	[781]	59.9	39.9	0.1	0.0
	무관심	[303]	56.8	42.9	0.0	0.3

계층별 상세분석

- ◆ '나무란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유입(65.8%), '나무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거주)(49.7%), 충청권유입(50.5%) 등으로 나타남

표231.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나무란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나무란다	나무랜다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59.2	40.7	0.0	0.1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60.0	39.8	0.0	0.2
	충청권(거주)	[164]	62.2	37.8	0.0	0.0
	전라권(거주)	[155]	50.3	49.7	0.0	0.0
	경상권(거주)	[414]	59.2	40.8	0.0	0.0
	강원/제주(거주)	[66]	56.1	42.4	1.5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60.5	39.4	0.0	0.1
	충청권(성장)	[247]	56.3	43.3	0.0	0.4
	전라권(성장)	[273]	55.7	44.3	0.0	0.0
	경상권(성장)	[512]	60.4	39.6	0.0	0.0
	강원/제주(성장)	[85]	57.6	41.2	1.2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60.5	39.4	0.0	0.1
	수도권 유입	[345]	58.8	40.9	0.0	0.3
	지방토박이	[772]	57.8	42.1	0.1	0.0
	지방유입	[27]	59.3	40.7	0.0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8.4	50.5	0.0	1.1
	전라권유입	[114]	65.8	34.2	0.0	0.0
	경상권유입	[113]	61.1	38.9	0.0	0.0
	강원/제주유입	[23]	56.5	43.5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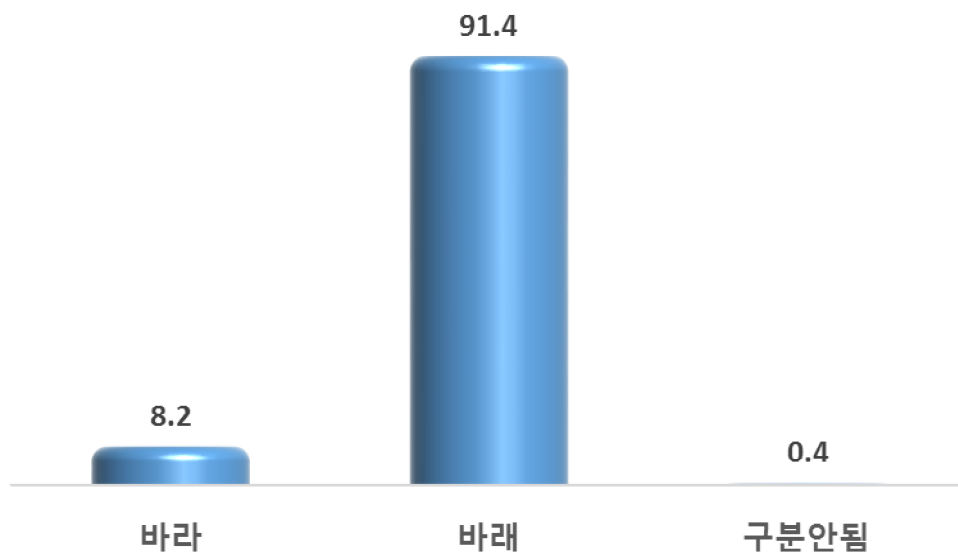
2.9.6 바라

전체 분석

- ◆ (바라/바래)바라에 대한 조사 결과, '바래' 응답이 91.4%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표준 발음인 '바라' 응답 비율은 8.2%에 불과했음

■ 그림113. 용언 어간변화 : 바라 ■

(단위 : %)



문16

(바라)잘 지내기를 (바라/바래).

계층별 상세분석

- ◆ '바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고졸이하(94.7%), '바라'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20대(16.1%), 대학원이상(15.0%), 학생(14.6%) 등으로 나타남

표232.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바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바라	바래	구분안됨
[전 체]		[2,000]	8.2	91.4	0.4
성별	남성	[1,014]	8.4	91.2	0.4
	여성	[986]	8.0	91.7	0.3
연령별	만 15-19 세	[161]	8.1	91.9	0.0
	20 대	[342]	16.1	83.9	0.0
	30 대	[386]	11.1	88.6	0.3
	40 대	[439]	4.3	95.4	0.2
	50 대	[417]	3.6	96.2	0.2
	60 대	[255]	7.5	91.0	1.6
학력별	중졸이하	[80]	7.5	87.5	5.0
	고졸이하	[848]	5.1	94.7	0.2
	대졸이하	[1,012]	10.5	89.4	0.1
	대학원이상	[60]	15.0	85.0	0.0
직업별	자영업	[350]	6.0	93.7	0.3
	블루칼라	[399]	5.5	94.5	0.0
	화이트칼라	[496]	9.7	89.9	0.4
	전업주부	[343]	5.0	94.5	0.6
	학생	[342]	14.6	85.4	0.0
	무직/기타	[70]	8.6	88.6	2.9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9.3	90.5	0.2
	보통	[781]	7.6	91.9	0.5
	무관심	[303]	6.6	93.1	0.3

계층별 상세분석

- ◆ '바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전라권유입(96.5%), 경상권유입(97.3%), '바라'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성장)(11.0%), 수도권 토박이(11.0%), 지방유입(11.1%) 등으로 나타남

■ 표233.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바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바라	바래	구분안됨
[전 체]		[2,000]	8.2	91.4	0.4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8.7	91.1	0.2
	충청권(거주)	[164]	5.5	94.5	0.0
	전라권(거주)	[155]	10.3	89.7	0.0
	경상권(거주)	[414]	7.2	92.5	0.2
	강원/제주(거주)	[66]	6.1	87.9	6.1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11.0	88.8	0.2
	충청권(성장)	[247]	5.3	94.3	0.4
	전라권(성장)	[273]	7.0	93.0	0.0
	경상권(성장)	[512]	6.1	93.8	0.2
	강원/제주(성장)	[85]	4.7	91.8	3.5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11.0	89.0	0.0
	수도권 유입	[345]	3.2	96.2	0.6
	지방토박이	[772]	7.3	92.4	0.4
	지방유입	[27]	11.1	81.5	7.4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2	94.7	1.1
	전라권유입	[114]	3.5	96.5	0.0
	경상권유입	[113]	1.8	97.3	0.9
	강원/제주유입	[23]	4.3	95.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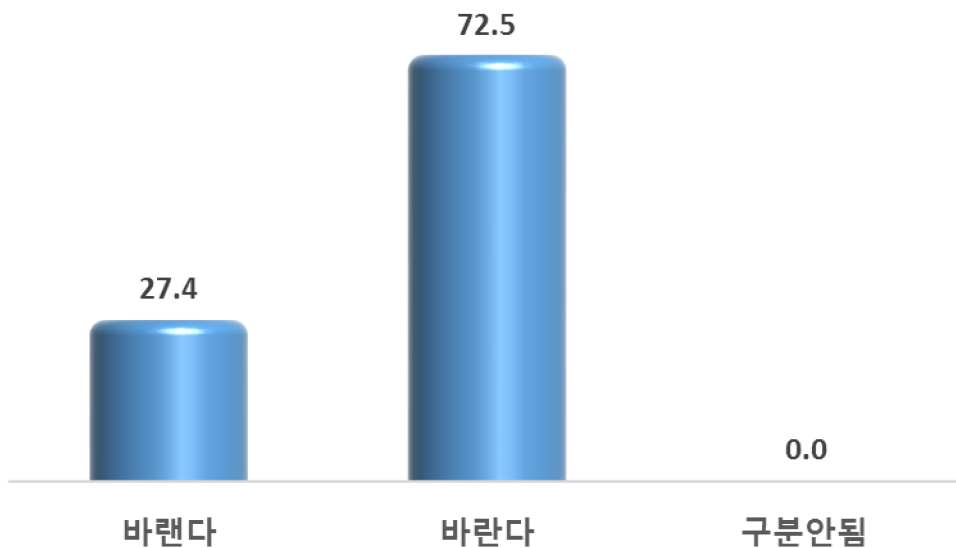
2.9.7 바란다

전체 분석

- ◆ (바랜다/바란다)바란다 발음에 대한 조사 결과, '바란다' 응답이 7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바랜다' 응답이 27.4%로 조사됨

■ 그림114. 용언 어간변화 : 바란다 ■

(단위 : %)



문55

(바란다)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랜다/바란다).

계층별 상세분석

- ◆ '바란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81.4%), 학생(82.2%), '바란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성(30.2%), 중졸이하(32.5%), 자영업(35.7%) 등으로 나타남

■ 표234.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바란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바란다	바란다	구분안됨
[전 체]		[2,000]	27.4	72.5	0.0
성별	남성	[1,014]	30.2	69.8	0.0
	여성	[986]	24.6	75.3	0.1
연령별	만 15-19 세	[161]	18.0	81.4	0.6
	20 대	[342]	23.4	76.6	0.0
	30 대	[386]	25.4	74.6	0.0
	40 대	[439]	31.4	68.6	0.0
	50 대	[417]	30.7	69.3	0.0
	60 대	[255]	29.8	70.2	0.0
학력별	중졸이하	[80]	32.5	67.5	0.0
	고졸이하	[848]	30.2	69.7	0.1
	대졸이하	[1,012]	25.0	75.0	0.0
	대학원이상	[60]	23.3	76.7	0.0
직업별	자영업	[350]	35.7	64.3	0.0
	블루칼라	[399]	29.3	70.7	0.0
	화이트칼라	[496]	28.0	72.0	0.0
	전업주부	[343]	26.2	73.8	0.0
	학생	[342]	17.5	82.2	0.3
	무직/기타	[70]	25.7	74.3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25.5	74.3	0.1
	보통	[781]	28.6	71.4	0.0
	무관심	[303]	30.4	69.6	0.0

계층별 상세분석

- ◆ '바란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성장)(81.2%), '바란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청권유입(35.8%), 전라권유입(32.5%) 등으로 나타남

표235. 응답자 특성 : 용언 어간변화 : 바란다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바란다	바란다	구분안됨
[전 체]		[2,000]	27.4	72.5	0.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28.6	71.3	0.1
	충청권(거주)	[164]	26.8	73.2	0.0
	전라권(거주)	[155]	25.2	74.8	0.0
	경상권(거주)	[414]	25.8	74.2	0.0
	강원/제주(거주)	[66]	22.7	77.3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27.2	72.7	0.1
	충청권(성장)	[247]	29.6	70.4	0.0
	전라권(성장)	[273]	28.6	71.4	0.0
	경상권(성장)	[512]	27.7	72.3	0.0
	강원/제주(성장)	[85]	18.8	81.2	0.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27.2	72.7	0.1
	수도권 유입	[345]	32.2	67.8	0.0
	지방토박이	[772]	25.6	74.4	0.0
	지방유입	[27]	25.9	74.1	0.0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35.8	64.2	0.0
	전라권유입	[114]	32.5	67.5	0.0
	경상권유입	[113]	31.9	68.1	0.0
	강원/제주유입	[23]	17.4	82.6	0.0

2.10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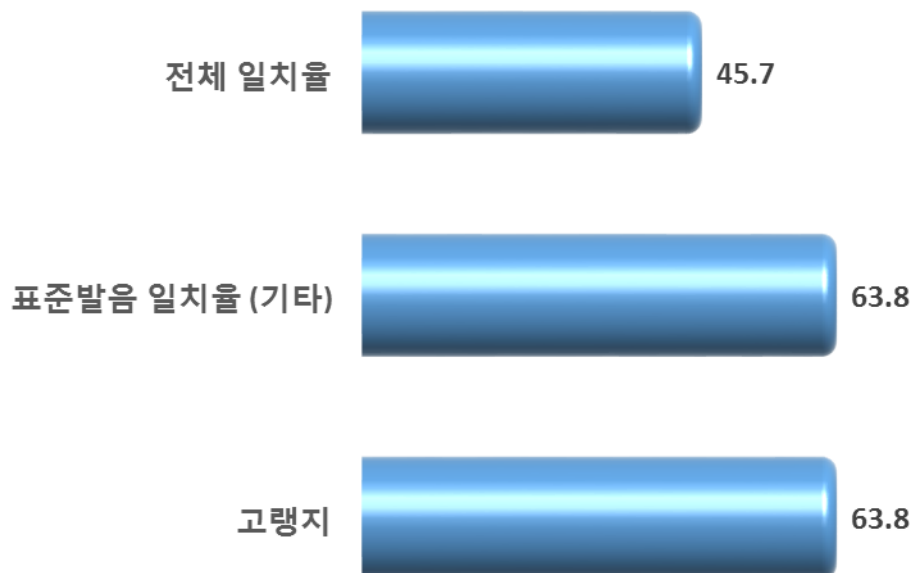
2.10.1 기타_표준발음 일치율

전체 분석

- ◆ 기타 현상 일치율은 63.8%로, 전체 대비 높게 나타남. 이는 유일한 개별 항목인 '고랭지'에 대한 표준 발음 일치율임

■ 그림115. 표준발음 일치율 ■

(단위 : %)



문

해당없음

계층별 상세분석

- ◆ '고랭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만15-19세(81.1%), 20대(88.2%), 학생(86.1%) 등으로 나타남

■ 표236.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일치율	현상 일치율	고랭지
[전 체]		[2,000]	45.7	63.8	63.8
성별	남성	[1,014]	45.1	64.6	64.6
	여성	[986]	46.4	63.0	63.0
연령별	만 15-19 세	[161]	44.0	81.1	81.1
	20 대	[342]	46.8	88.2	88.2
	30 대	[386]	46.7	72.8	72.8
	40 대	[439]	46.0	60.1	60.1
	50 대	[417]	45.0	46.3	46.3
	60 대	[255]	44.6	41.7	41.7
학력별	중졸이하	[80]	44.1	51.3	51.3
	고졸이하	[848]	44.7	57.2	57.2
	대졸이하	[1,012]	46.6	69.9	69.9
	대학원이상	[60]	47.9	71.7	71.7
직업별	자영업	[350]	44.6	54.1	54.1
	블루칼라	[399]	44.5	57.3	57.3
	화이트칼라	[496]	46.9	67.8	67.8
	전업주부	[343]	46.7	54.9	54.9
	학생	[342]	45.9	86.1	86.1
	무직/기타	[70]	45.2	57.1	57.1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46.4	64.5	64.5
	보통	[781]	45.6	64.7	64.7
	무관심	[303]	43.9	59.7	59.7

계층별 상세분석

- ◆ '고랭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74.2%), 강원/제주(성장)(69.0%) 등으로 나타남

■ 표237. 응답자 특성 : 표준발음 일치율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일치율	표준발음 일치율 (기타)	고랭지
[전 체]		[2,000]	45.7	63.8	63.8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6.1	63.8	63.8
	충청권(거주)	[164]	46.5	65.9	65.9
	전라권(거주)	[155]	47.9	59.7	59.7
	경상권(거주)	[414]	43.8	63.0	63.0
	강원/제주(거주)	[66]	44.8	74.2	74.2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6.1	68.0	68.0
	충청권(성장)	[247]	46.1	60.5	60.5
	전라권(성장)	[273]	48.1	58.5	58.5
	경상권(성장)	[512]	43.9	60.3	60.3
	강원/제주(성장)	[85]	44.5	69.0	69.0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6.1	67.9	67.9
	수도권 유입	[345]	46.1	53.7	53.7
	지방토박이	[772]	45.2	63.6	63.6
	지방유입	[27]	45.7	73.1	73.1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5.1	51.6	51.6
	전라권유입	[114]	48.7	56.2	56.2
	경상권유입	[113]	44.4	50.9	50.9
	강원/제주유입	[23]	44.8	63.6	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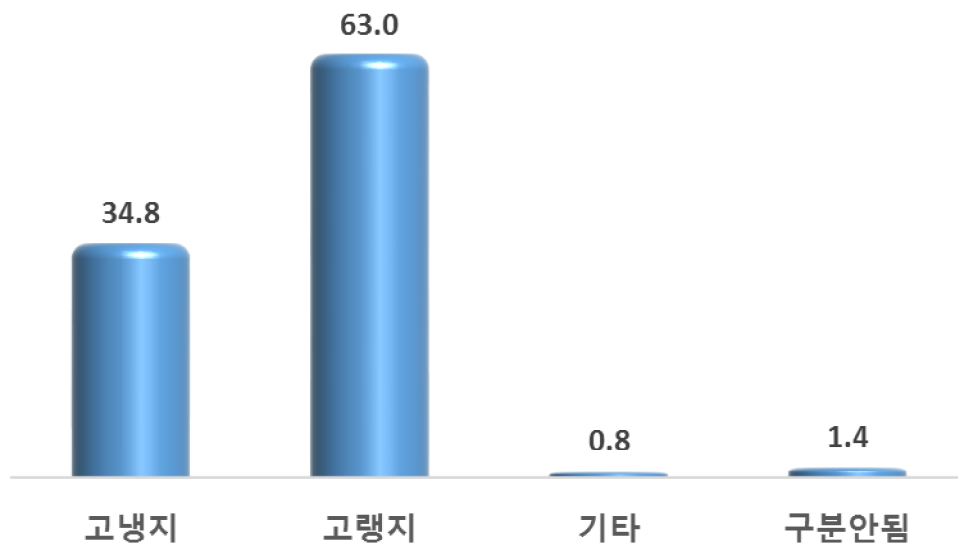
2.10.2 고랭지

전체 분석

- ◆ (고랭지)고랭지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 '고랭지' 응답이 63.0%로, '고냉지' 응답 대비 높게 나타남

■ 그림116. 기타 : 고랭지 ■

(단위 : %)



문68

(고랭지)높고 서늘한 데서 배추를 키우려고 하는데, 이런 곳을 "고냉지"라고 하나요 "고랭지"라고 하나요?

계층별 상세분석

- ◆ '고랭지' 응답은 만15-19세(80.1%), 20대(87.1%), 학생(85.1%), '고냉지' 응답은 50대(52.3%), 60대(57.3%), 중졸이하(46.2%) 등으로 나타남

■ 표238. 응답자 특성 : 기타 : 고랭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고냉지	고랭지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34.8	63.0	0.8	1.4
성별	남성	[1,014]	34.2	64.0	0.8	1.0
	여성	[986]	35.5	61.9	0.8	1.8
연령별	만 15-19 세	[161]	16.1	80.1	2.5	1.2
	20 대	[342]	11.1	87.1	0.6	1.2
	30 대	[386]	25.4	71.5	1.3	1.8
	40 대	[439]	39.0	59.5	0.5	1.1
	50 대	[417]	52.3	45.3	0.2	2.2
	60 대	[255]	57.3	41.6	0.8	0.4
학력별	중졸이하	[80]	46.2	50.0	1.2	2.5
	고졸이하	[848]	41.0	56.4	1.1	1.5
	대졸이하	[1,012]	29.2	69.0	0.5	1.3
	대학원이상	[60]	26.7	71.7	1.7	0.0
직업별	자영업	[350]	44.3	53.1	0.9	1.7
	블루칼라	[399]	41.4	56.4	0.8	1.5
	화이트칼라	[496]	31.5	66.7	0.2	1.6
	전업주부	[343]	44.0	54.2	0.6	1.2
	학생	[342]	12.3	85.1	1.5	1.2
	무직/기타	[70]	40.0	57.1	2.9	0.0
표준발음 관심도별	관심	[916]	34.2	63.2	0.7	2.0
	보통	[781]	34.3	64.1	0.6	0.9
	무관심	[303]	38.3	59.1	1.7	1.0

계층별 상세분석

- ◆ '고랭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강원/제주(거주)(74.2%), 강원/제주(성장)(68.2%), '고냉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수도권 유입(45.2%), 충청권유입(46.3%), 전라권유입(43.0%), 경상권유입(48.7%) 등으로 나타남

표239. 응답자 특성 : 기타 : 고랭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고냉지	고랭지	기타	구분안됨
[전 체]		[2,000]	34.8	63.0	0.8	1.4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34.9	62.7	0.7	1.7
	충청권(거주)	[164]	34.1	65.9	0.0	0.0
	전라권(거주)	[155]	40.0	59.4	0.0	0.6
	경상권(거주)	[414]	34.5	62.1	1.9	1.4
	강원/제주(거주)	[66]	25.8	74.2	0.0	0.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30.6	66.9	0.9	1.6
	충청권(성장)	[247]	38.9	59.5	0.0	1.6
	전라권(성장)	[273]	40.7	57.9	0.4	1.1
	경상권(성장)	[512]	37.9	59.6	1.4	1.2
	강원/제주(성장)	[85]	30.6	68.2	0.0	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30.7	66.8	0.9	1.5
	수도권 유입	[345]	45.2	52.5	0.0	2.3
	지방토박이	[772]	35.1	63.1	1.0	0.8
	지방유입	[27]	25.9	70.4	0.0	3.7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6.3	49.5	0.0	4.2
	전라권유입	[114]	43.0	55.3	0.0	1.8
	경상권유입	[113]	48.7	50.4	0.0	0.9
	강원/제주유입	[23]	34.8	60.9	0.0	4.3

4장. 부록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월드리서치의 전문 조사원 ○○○입니다.

본 조사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발음에 관한 객관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의뢰로 (주)월드리서치에서 수행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발음 관련 국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주관기관

조사대행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주)월드리서치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답자 성명

주소

응답자 전화번호

____시/도____구/시/군 ____동/읍/면

SQ1. 성 별

☐ ① 남성

☐ ② 여성

SQ2. 출 생 년 도
(만 15세 미만,
만 70세 이상 제외)

 년도

☞ 1946년 7월 6일~2001년 7월 5일 출생자
조사 진행

☐ ① 만15~19세
(96.7.6~01.7.5)

☐ ② 20대
(86.7.6~96.7.5)

☐ ③ 30대
(76.7.6~86.7.5)

☐ ④ 40대
(66.7.6~76.7.5)

☐ ⑤ 50대
(56.7.6~66.7.5)

☐ ⑥ 60대
(46.7.6~56.7.5)

SQ3. 거 주 지 역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세종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⑰ 제주

SQ4. 거 주 기 간

약 _____ 년 (SQ3에서 선택한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0'으로 기입)

SQ5. 거주지 규모

☐ ① 대도시

☐ ② 중소 도시

☐ ③ 군 지역

면접원

성 명

면접장소

면접일시

2016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검증원

성 명

검증결과

발음 부문

※ 이 조사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발음을 조사하여 표준 발음의 기준을 세우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래 물음들에 대해 평소에 사용하시는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읽지 마시고, 평소 말씀하시듯 적당한 속도로 읽어주십시오.

■ 다음 문장을 평소 사용하시는 발음대로 읽어 주세요.[1~6]

- 문1. 거기에는 낯익은 얼굴 여덟이 있었다.
문2.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크다.
문3. 그는 낯을 잃고 밤새 바깥만 바라보고 있었다.
문4. 그들의 부탁을 몰인정하게 거절하는 결례를 범했다.
문5. 나는야, 새 나라의 어린이.
문6. 내 차례가 됐으니, 시 한 구절 읊지 않을 수 없군.

■ 다음 단어들을 평소 사용하시는 발음대로 읽어 주세요.[7~14]

- | | | | |
|---------|----------|---------|------------|
| 문7. 남해 | 문8. 야금야금 | 문9. 읊는다 | 문10. 장례 |
| 문11. 창고 | 문12. 핵연료 | 문13. 은행 | 문14. 한랭 기후 |

■ 괄호 안의 표현 중 평소 사용하시는 발음을 골라서 문장을 읽어 주세요.[15~21]

- 문15. 배의 요동이 심해서 (배멀미/뱃멀미)가 났다.
문16. 잘 지내기를 (바라/바래).
문17. 두 사람은 (인삿말/인사말)을 주고받았다.
문18. (해님/햇님)이 방긋 웃는다.
문19. 님, 나 좀 그만 (나무래요/나무라요)
문20. 어제 사온 병아리는 모두 (숫놈/수놈)이었다.
문21. 어른에게는 (존대말/존댓말)을 써야 한다.

■ 다음 문장을 평소 사용하시는 발음대로 읽어 주세요.[22~25]

- 문22. 모기 물린 데는 긁고 싶어도 긁지 마라.
문23. 새로 심은 잔디를 밟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문24.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인기척이 났다.
문25. 양 무릎에 손을 얹고 시조를 읊고 있다.

■ 다음 단어들을 평소 사용하시는 발음대로 읽어 주세요.[26~33]

- | | | | |
|------------|----------|------------|------------|
| 문26. 강약 조절 | 문27. 오해 | 문28. 공권력 | 문29. 맑지 |
| 문30. 교과서 | 문31. 굶는다 | 문32. 금융 부담 | 문33. 고가 도로 |

■ 괄호 안의 표현 중 평소 사용하시는 발음을 골라서 문장을 읽어 주세요.[34~35]

문34. 저 지갑 (주서서/주어서/주워서/줍어서) 주인 찾아 주자.

문35. 라면이 (불기/불기) 전에 얼른 먹어.

■ 다음 문장을 평소 사용하시는 발음대로 읽어 주세요.[36~41]

문36.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

문37. 엄청나게 큰 술에 닭을 넣고 있다.

문38. 오늘 낮에는 태양이 뜨겁게 작열했다.

문39. 이 사건은 용례가 많아서 좋군요.

문40. 이 솥에서는 연기가 많이 난다고 값을 깎았다.

문41. 축축한 흙을 밟고 있다.

■ 다음 단어들을 평소 사용하시는 발음대로 읽어 주세요[42~49]

문42. 길짐승

문43. 선율

문44. 김밥

문45. 방해

문46. 물질적

문47. 맑다

문48. 노예

문49. 찜닭

■ 괄호 안의 표현 중 평소 사용하시는 발음을 골라서 문장을 읽어 주세요.[50~55]

문50. ‘친구에게’로 시작하는 (편지글/편짓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문51. (장맛비/장마비)가 지나가자 늦더위가 시작되었다.

문52. 반의어를 흔히 (반대말/반댓말)이라고 한다.

문53. 형은 언제나 내가 잘못했다고 나만 (나무란다/나무랜다).

문54. 이 글의 첫 단락은 (머릿글/머리글)로 구성되어 있다.

문55.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랜다/바란다).

■ 다음 단어들을 평소 사용하시는 발음대로 읽어 주세요[56~62]

문56. 서른여섯

문57. 불법 체류

문58. 밟는다

문59. 날짐승

문60. 비례

문61. 생이별

문62. 실례

■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63~68]

문63. “가로수”가 줄지어서 많이 있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 하면 될까요?

문64. 산의 “둘레”를 산책하기 좋게 꾸며 놓은 “길”은 무슨 길이라고 하나요?

문65. 물건을 팔기 위해 “장사”를 하는 “일”을 하러 나가면 무슨 일을 하러 나갔다고 하나요?

문66. “빨래”할 옷을 담아 놓는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고 하나요?

문67. 새우 살: “새우”의 “살” 부분은 무슨 살이라고 하나요?

문68. 높고 서늘한 데서 배추를 키우려고 하는데,

이런 곳을 “고냉지”라고 하나요 “고랭지”라고 하나요?

인식 부분

■ 국어 관심도(문69)

문69. 귀하께서는 **국어와 국어 사용**에 관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용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 이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1) 말하기 능력 (말하는 태도, 방법 등)	①	②	③	④	⑤
2) 글쓰기 능력 (자기 의사를 글로 표현하기)	①	②	③	④	⑤
3) 맞춤법 (정확하게 쓰기)	①	②	③	④	⑤
4) 표준 발음 (표준 발음으로 말하기)	①	②	③	④	⑤

■ 발음 관련 경험(문70~문74)

문70. 귀하께서는 평소 **표준 발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71. 평소 우리말 발음과 관련해 **주변 사람의 잘못된 발음에 대해 지적하거나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었다 ☐ ④ 자주 있었다

문72. 그럼 본인의 우리말 발음과 관련해 **주변 사람에게서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전혀 없다 ☐ ② 거의 없다 ☐ ③ 가끔 있었다 ☐ ④ 자주 있었다

문73. 평소 본인의 발음과 관련해서 **가장 기준이 되는 매체 또는 정보원**은 어디입니까? **우선순위대로 3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① 뉴스 아나운서 ☐ ② 방송 진행자(MC) ☐ ③ 선생님 ☐ ④ 좋아하는 연예인
☐ ⑤ 가족 ☐ ⑥ 친구 등 지인 ☐ ⑦ 기타(기재 :)

문74. 만약, 본인이 **평소 하던 발음이 표준 발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귀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시는 편입니까?

- ☐ 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 ② 상황에 따라 표준 발음을 쓴다
☐ ③ 최대한 표준 발음으로 고쳐 발음한다

■ 발음 관련 정책(문75~문79)

문75. 귀하께서는 **표준 발음을 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필요 없다 ☐ ② 별로 필요 없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문76. 귀하께서는 **학교에서 표준 발음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가르칠 필요 없다 ☐ ② 별로 가르칠 필요 없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가르쳐야 한다 ☐ ⑤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문77. **국가 차원에서 표준 발음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필요 없다 ☐ ② 별로 필요 없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문78. 다음 예시처럼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예 시 ◆	
표준 발음	현실 발음
태릉	태능

- ☐ ① '태릉'을 표준 발음으로 유지해야 한다
- ☐ ② '태릉'과 '태능'을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 ☐ ③ 표준 발음을 '태능'으로 바꾸어야 한다
- ☐ ④ 잘 모르겠다

문79. **표준 발음법을 가르치고 개선하는 일은 주로 어떤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학교 ☐ ② 방송 ☐ ③ 신문
- ☐ ④ 가정 ☐ ⑤ 정부 기관 ☐ ⑥ 기타(기재 : _____)

자료 분류용 질문

■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DQ1. 하루 평균 텔레비전 시청(스마트 기기를 통한 인터넷 방송 / 동영상 시청 포함)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 ① 전혀 보지 않음 ☐ ② 1시간 미만 ☐ ③ 1시간~2시간 미만
- ☐ ④ 2시간~4시간 미만 ☐ ⑤ 4시간~6시간 미만 ☐ ⑥ 6시간 이상

DQ2. 현재 공중파나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 / 동영상(인터넷 방송,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주로 시청하시는 프로그램의 이용 빈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각 장르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장르	전혀 시청하지 않음	←	보통	→	자주 시청함
1) 뉴스	①	②	③	④	⑤
2) 드라마	①	②	③	④	⑤
3) 스포츠	①	②	③	④	⑤
4) 시사 / 교양	①	②	③	④	⑤
5) 오락 / 연예	①	②	③	④	⑤
6) 교육 / 아동	①	②	③	④	⑤
7) 기타(기재 : _____)	①	②	③	④	⑤

※ DQ3 ~ DQ5까지는 문제를 읽고, 그 응답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빈칸에 번호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① 서울	⑥ 대전	⑪ 충청북도	⑯ 경상남도	㉑ 함경남도
	② 부산	⑦ 울산	⑫ 충청남도	⑰ 제주도	㉒ 함경북도
	③ 대구	⑧ 세종	⑬ 전라북도	⑱ 황해도	㉓ 기타
	④ 인천	⑨ 경기도	⑭ 전라남도	⑲ 평안남도	(지역명: _____)
	⑤ 광주	⑩ 강원도	⑮ 경상북도	⑳ 평안북도	㉔ 잘 모름

DQ3. 주로 성장기(초, 중, 고)에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면접원: '23 기타'인 경우, 지역명을 기재합니다)

--	--

DQ4. 실례합니다만, 귀하께서는 결혼하셨습니다가?

- ☐ ① 미혼 → DQ5로 갈 것 ☐ ② 기혼 → DQ4-1로 갈 것
☐ ③ 이혼/사별/별거 → DQ4-1로 갈 것

DQ4-1. (DQ4의 2번, 3번 응답자만) 실례지만, 귀하의 배우자 고향은 어디입니까?

--	--

DQ5. 귀하의 부모님 고향은 어디입니까? 위 보기에서 골라 각각 번호로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	--	--	-----	--	--

DQ6. 실례합니다만,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면접원: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중학교 졸업(재학)
☐ ③ 고등학교 졸업(재학) ☐ ④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재학)
☐ ⑤ 대학원 재학 이상

DQ7. 실례합니다만,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①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 종사자 포함)
☐ ②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 주인 및 가족 종사자, 개인택시 운전자)
☐ ③ 판매/서비스직 (상점 점원, 외판원, 판매원(세일즈맨), 보험 설계사 등)
☐ ④ 기능/숙련공 (중장비/트럭 운전자, 전자/가전제품 수리 정비(A/S) 기술자, 숙련공 등)
☐ ⑤ 일반 작업직 (토목 관계의 현장 작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 ⑥ 사무/기술직 (일반 회사 사무직, 기술직)
☐ ⑦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 교장, 기업체 부장 이상의 직위 등)
☐ ⑧ 전문/자유직 (교수, 교사,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 ⑨ 전업주부
☐ ⑩ 학생
☐ ⑪ 무직
☐ ⑫ 기타 (기재: _____)

◆ 지금까지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행 연구진

총괄책임자: 김창영(월드리서치 상무)

공동연구원: 김성규(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현(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연구원: 강상석(월드리서치 차장)

고혜지(월드리서치 주임)

사업 담당자

담당연구원: 박선(국립국어원 연구원)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

발행일 : 2016년 11월

발행인 : 국립국어원장 송철의

발행처 : 국립국어원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3동 827)

전화 : (02) 2669-9775

팩스 : (02) 2669-9737

Homepage : www.korean.go.kr
